

Tai Soo Kim Retrospective:

Working in Two Worlds

한국 현대미술작가

김태수

KOREAN CONTEMPORARY ARTISTS SERIES

TAI SOO KIM RETROSPECTIVE:

WORKING IN TWO WORLDS

OMCA
Gwacheon, 30 years
1986 - 2016
국립현대미술관
고천 30년



Tai Soo Kim Retrospective: Working in Two Worlds

기간: 2016.2.19~2016.6.6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5전시실

기획·진행: 박근태
전시디자인: 김용주, 김유나
그래픽디자인: 홍박사
공간조성: 한명희
운송·설치: 명이식, 박양규, 정재환
영상: 정다운, 김종신(기린그림)
보존: 권희홍, 최남영, 유은실, 정지혜
교육: 한정인
홍보: 정윤정, 이재옥, 이기석, 이정민, 백꽃별
아카이빙: 이현영, 이지희
코디네이터: 김희정
영문번역 및 감수: 박재용

Date: 2016.2.19~2016.6.6
Venu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Gallery 5

Curator: Park Geuntae
Exhibition design: Kim Yongju and Kim Yuna
Graphic design: Hongbaksa
Space construction: Han Myung-Hee
Technical coordination: Myung Yi Shik, Park Yang-gyu and Jeong Jae Hwan
Moving images: Jung Dawoon and Kim Jongshin (giraffe pictures)
Conservation: Kwon Hee Hong, Choi Nam Young, Yu Eun Sil and Jeong Ji Hye
Education: Han Jeongin
Public relations: Chung Yunjung, Lee Jaeok, Yi Giseok, Lee Jeoungmin and Baik Kkot-byul
Archiving: Lee Hyunyoung and Lee Jeehee
Coordinator: Kim Heejung
Translation: Park Jaeyong

발행인: 바르토메우 마리(국립현대미술관 관장)
발행처: 국립현대미술관 427-701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막계동)
편집 및 디자인: 일상의실천

이 책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해당 저자와 국립현대미술관에 있습니다. 도판과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사전에 저작권자의 사용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판 1쇄 인쇄: 2016-12-12
초판 1쇄 발행: 2016-12-19

ISBN: 978-89-6303-138-5

이번 전시를 위해 도움을 주신 삼성전자와 주한미국대사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Publisher: Bartomeu Marí
Publishe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313 Gwangmyeong-ro, Gwacheon-si, Gyeonggi-do, 427-701, Korea
Editing and Design: Everyday Practice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can be reproduced in any manner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copy holders.

First edition: 2016-12-19

ISBN: 978-89-6303-138-5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sincere thanks to Samsung Electronics and the U. S. Embassy in Korea.

목차

| | |
|---|-----|
| 인사말 | 6 |
| 재미건축가 김태수 | 8 |
| 김태수, 황두진의 대담 | 18 |
| 『과천관 30년 특별전·한국현대미술작가시리즈 김태수』전을 준비하며 | 32 |
| 1962~1970 | 42 |
| 미국시절 초기 | |
| 1970~1977 | 66 |
| 개인설계사무소 시작 | |
| 1978~1982 | 96 |
| 공공건축으로의 확장 | |
| 1983~1992 | 124 |
| 한국의 주요작업들과 미국의 대규모 프로젝트 | |
| 1992~2005 | 162 |
| 활발한 작업 활동 | |
| 2005~현재 | 192 |
| 공간의 탄생, 국립현대미술관 | 224 |
| 작가연보 | 268 |

Contents

| | | | |
|---|---|-----|-------------------------------|
| 바르토메우 마리 | Greetings | 6 | Bartomeu Marí |
| 전봉희 | Tai Soo Kim, a Korean Architect in America | 8 | Jeon Bonghee |
| 김태수, 황두진 | Interview with Kim Tai Soo | 18 | Kim Tai Soo and Hwang Doo Jin |
| 박근태 | <i>Tai Soo Kim Retrospective: Working in Two Worlds</i> | 32 | Park Geuntae |
| 1962~1970 | 1962~1970 | 42 | |
| Early Years in the United States | | | |
| 1970~1977 | 1970~1977 | 66 | |
| Establishment of an Architectural Firm | | | |
| 1978~1982 | 1978~1982 | 96 | |
| Expansion into Public Architecture | | | |
| 1983~1992 | 1983~1992 | 124 | |
| Major Projects in Korea and Large- scale Projects in the United States | | | |
| 1992~2005 | 1992~2005 | 162 | |
| Productive Years as an Architect | | | |
| 2005~Present | 2005~Present | 192 | |
| The Birth of a Space, MMCA Gwacheon | | 224 | |
| Chronology | Chronology | 268 | |

『과천관 30년 특별전·현대미술작가시리즈 김태수』 전은 두 가지 틀에서 기획된 전시입니다. 하나는 국립현대미술관의 과천관 이전 30주년을 기념하는 첫 번째 특별전이라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2014년부터 시작된 국립현대미술관 현대미술작가시리즈 건축분야의 두 번째 전시라는 점입니다.

2016년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덕수궁을 떠나 과천으로 이전한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 미술관에서는 이를 기념하고 최초의 국립미술관으로 지어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의 역사와 의미를 되돌아보는 많은 전시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을 설계한 건축가 김태수의 회고전은 바로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전시는 건축가 김태수의 삶과 작품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회고전입니다. 따라서 전시는 작가의 학창시절에서부터 미국 유학시절과 건축사무소 운영 시기 등이 연대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에서는 <밴 블록 주택>, <김태수 주택>, <미들버리 초등학교>, <미국 해군 잠수함 훈련시설>, <하트포드 대학교 그레이 센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튀니지 미국 대사관> 등 작가의 주요 작품들이 다수 소개되고 있습니다. 합리성과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자신이 설계하는 작품이 속한 지역의 조건에 탁월하게 적응해온 작가는 현재까지도 미국 코네티컷 주의 하트포드 시에서 활발한 작업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가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면서도 늘 한국현대건축의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래왔으며, 전시를 통해 그의 작품세계와 함께 이러한 바램 역시 전하고자 합니다.

전시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과 미술관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시를 후원해주신 주한미국대사관과 삼성전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건축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으로 준비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김태수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Tai Soo Kim Retrospective: Working in Two Worlds is the first special exhibition that celebrates the 30th anniversary of MMCA Gwacheon's inauguration. It is also organized as part of MMCA's Korean Contemporary Artists Series, which presents an architect since it began in 2014.

The year 2016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inauguration of MMCA Gwacheon, which was previously housed in Deoksugung in Seoul. Our museum is planning to hold a number of exhibitions and events to celebrate the relocation of its main branch to Gwacheon and reflect on its history and meaning as the first national museum in Korea to present modern and contemporary art. The current retrospective is first in the series of such exhibitions and events.

This exhibition is a retrospective exhibition that offers a comprehensive look at the life and work of Tai Soo Kim as an architect. The organization of the exhibition thus follows a chronological sequence of Kim's career from his early years to his establishment and running of an architectural firm. The exhibition introduces many of Kim's major works both in Korea and overseas, including *Van Block Housing*, *Tai Soo Kim House*, *Middlebury Elementary School*, *U.S. Naval Submarine Training Facility*, *Harry Jack Gray Center at*

Greetings

the University of Hartford, MMCA Gwacheon, U.S. Embassy in Tunisia, and Bloomfield Early Childhood (Magnet) School among others. Building his career on rationalism and empiricism, Kim has been brilliantly adaptive to the conditions of different locations where his works were built. Currently, Kim continues to work as an architect in the city of Hartford, Connecticut in the United States. While working in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Kim has always been aspiring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Korea. It is hoped that the current exhibition would convey such anticipation while introducing the life and work of the architect Tai Soo Kim.

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those who helped realize the exhibition and the staff of the museum. I also appreciate U.S. Embassy Seoul and Samsung Electronics for their generous support for the exhibition. Above all, deepest appreciation must go to Tai Soo Kim who provided invaluable support for the exhibition with the profound affection toward architecture.

Bartomeu Marí
Director,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재미건축가 김태수

전봉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8

9

‘재미건축가’는 오랫동안 김태수①의 이름에 관하는 수식어였다. 그는 1961년 1월 도미한 첫 세대 유학생이며 이후 반세기 이상 현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현역이기도하다. 이제쯤이면 그저 ‘한인 건축가’라고 할만도 한데, 여전히 ‘재미’로 불리고 있다. 1960년대 말 그가 처음 재미건축가로 소개되었을 때는 그 누구도 – 심지어 건축가 자신조차도 – 이렇게까지 오래 미국에서 작업을 이어나갈지 예상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재미라고 표현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무언가 임시적 체류의 느낌이 드는 재미라는 말이 이제까지 사용되는 것은, 시민권의 획득이나 사무실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여전히 그의 미국 체류가 임시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잡지 기고와 전시, 그리고 1983년 <국립현대미술관> 현상 설계 당선 이후 이어진 한국에서의 작품 등을 통해 그의 존재는 언제나 한국 건축계와 함께 하였다.

한국의 현대 건축사를 생각할 때 그의 도미는 중요하게 기록될만하다. 1961년 새해 초 다음 달에 있을 서울대의 졸업식을 앞두고 서둘러 태평양을 건너는 장면은, 마치 일본의 유명 건축가 마에카와 쿠니오(前川國男)가 1928년 동경제대의 졸업식을 앞두고 현해탄을 건넜다는 이야기를 연상시킨다. 마에카와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향하였던 곳이 르꼬르뷔지에가 있는 파리였다면, 김태수가 망망한 태평양을 징검다리 건너듯 여러 차례 기착하며 도착한 곳은 루이스 칸의 전설이 살아있는 코네티컷이었다. 둘 사이에는 33년의 시차가 있고 또 이만큼의 시간적 공간적 차이가 한국과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도 보인다. 이후의 전개는 일견 다르게 보인다. 마에카와가 2년의 짧은 실무수습을

마치고 돌아와 일본에서 본격적인 서구 근대건축의 정착에 노력하였다면, 김태수는 이후 몇 번의 귀국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그곳에 머물렀다. 그의 미국 정착은 몇 안 되는 당시 유학생들의 이후 진로를 볼 때 이례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국의 건축계에 남긴 영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서구 모더니즘의 본격적인 소개라고 할 수 있고, 이 점에서 마에카와가 일본 건축계에 한 일과 다르지 않다. 또 그보다 한 해 위인 또 다른 재미건축가 김종성의 경우와도 맥을 같이 한다. 마에카와가 귀국한 1930년대의 일본과 이 두 명의 첫 세대 유학생이 고국에서의 활동을 본격화한 1980년대의 한국은 이렇게 오버랩된다.

김태수가 한국건축계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우선 지면을 통한 것이었다. 도미한 이후 잡지에 기고한 칼럼이 하나 있지만, 본격적인 등장은 1969년 3월의 첫 번째 귀국과 함께였다. 2개월에 걸친 체류 기간 중 여러 사람을 만나고 준비해온 자료들을 소개하였다. 그 성과로 [공간]지 1969년 3월호는 그의 데뷔작이라고 할만한 <마틴 루터 킹 하우징> 주거단지를 위시한 몇 개의 계획안들을 소개하고 인터뷰를 담은 특집을 싣고 있다. 또 [건축사]지(1970년 1월호)와 동아일보(1970.1.17.)의 기사는 당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던 서울 개발 계획에 대한 그의 대안적 제안인 <서울마스터플랜>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이 두 개의 초기작은 건축가 김태수의 이후 작업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한 건축가 김태수가 한국 건축계에 미친 영향의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① 본 도록에서 김태수의 영문 명칭은 Tai Soo Kim으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형제가 서로 닮듯이, 작가의 초기작은 언제나 후기작의 모범이 된다. P/A Award 수상작이기도 한 <마틴 루터 킹 하우징>은 건축가의 출세작이면서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작품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 우리는 비기념비적인 공동체의 구성, 엄정한 기하학적 질서와 이를 완화하는 흥미공간의 삽입, 정연한 형태와 변화있는 내부공간의 균형 등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그의 예일대학원 졸업 작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 졸업 작품 역시 주거단지 계획안이고, 중정을 둘러싸는 기본적인 블록 계획에서는 비슷하지만, <마틴 루터 킹 하우징>단지에서는 45도의 경사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변화를 주고 있다. 전체 단지를 관통하는 보행축과 블록의 구성축을 45도 경사지게 배치하여 교통공간과 생활공간을 연결/분리하였고, 단위 주호의 내부에서도 45도 경사선을 활용하여 사적 공간과 공용 공간 사이의 경계를 삼고 있다.

기하학적 질서에 대한 열망은 <서울마스터플랜>에서도 읽을 수 있다. 그는 서울의 발전축으로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축을 잡고, 폭 1.2.km의 긴 환상 벨트를 중심에 두는 선형도시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이 축은 남북축을 기본으로 하는 조선시대 한양의 오리엔테이션을 약 45도 정도 비튼 새로운 것이었다. 이 방향은 그가 서울에서 대학원 시절 공부한 우리나라 도시역사에 관한 지식에서 비롯하였다. 새롭게 설정한 축은 조선초 한양 입지의 대안으로 거론된 안산축을 이은 것이고, 나아가 입법, 행정, 사법의 삼부를 모두 새로운 결절부로 옮김으로써 구도심부를 역사도시로 보존하려는 생각도 담고 있다. 지붕 형태에서 전통 계승의 단서를 찾고 있던 당시 건축계의 상황과 비교하면 좀 더 역사적이고 좀 더 도시적이다.

하나는 도시문제의 핵심인 주택문제를 다룬 저렴 집합주택에 대한 계획안이고 다른 하나는 수도 서울의 마스터플랜으로, 두 작품 모두 어번 아키텍처에 대한 그의 생각을 담고 있다. 즉, 모뉴멘트가 아닌 시스템으로서의 건축, 다시 말해 조각적이며 완결적인 형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하고 변화해나가는 프레임으로서의 건축,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 가는 도시적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중시하는 어번 아키텍처에 관한 생각은 건축가의 수학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유학 초기, 득의의 수완이었던 예쁜 투시도가 이발소 그림이라는 비판과 함께 무참히 깨어진 후 좌절과 방황 속에서 찾아낸 것이다. 자극은 스승인 폴 루돌프에게서 왔고, 토양은 전후 발전을 거듭해나가던 미국의 상황이었고, 단서는 그의 내부 심연에 자리한 기억에서 나왔다.

향토적이면서 동시에 코스모폴리탄적인 그의 이력과 사고는 그의 태생이나 생애와 닳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1936년 그가 태어난 곳은 만주 북방의 하얼빈이었다. 당시 하얼빈은 비록 일본의 식민지였으나 중국인과 러시아인, 일본인, 조선인 그리고 많은 동유럽의 이주민들이 잡거하는 국제도시로서 구라파 문명의 진열장 같은 곳이었다. 이와 같은 탈로칼 모더니티의 상황은 1930년대 말 아내와 아이를 잃고 실의에 빠진 이효석이 표랑하고 남긴 단편 [함이빈]에 잘 드러나 있다. 건축가의 선친이자 한국의학사의 개척자인 김두종 박사가 하얼빈에서 개업을 한 것 역시 일제하 조선인 지식인이 민족적 차별을 피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을 것이다.

학교에 가기 위하여 서울에 정착한 그는, 식민지말기의 강제 소개 때와 한국전쟁의 피난길 두 번에 걸쳐 아버지의 고향인 경남 칠원에 머무는 기회를 갖는다. 그리고 이 때 본 칠원의 농촌 풍경은 이후 건축적 상상의 모태가

10

11

되는 원형질로 자리 잡는다. 실제로 그는 여러 차례 칠원의 풍경에 대하여 회고하고 있다. 산등성이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초가들과 그 중심에 자리한 종가의 모습은 오랜 시간을 두고 구축해온 역사적 질서의 아름다움을 건축가에게 보여주었다. 고국을 떠나 있어, 산업화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지 못한 건축가에게 그것은 화석이 되어 심연에 자리하였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고한 이미지를 구축하였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하학적 형태를 갖지만 위압적이지 않고, 직각의 직선들로 이루어졌지만 흥미로운 파격을 갖는 그의 디자인 경향은 이와 같은 그의 개인적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전시에서 우리에게 흥미로운 점은, 그의 초기 작품이 이후 미국과 한국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작업들에 어떻게 이어지고 변화해 가는지를 관찰하는 일이다. 회고전답게 연대기적으로 구성한 전시 구성은 그 과정을 살피기에 적당하다. 위에 언급한 두 개의 작업에 더하여 그가 도미한 이후 첫 번째로 발표한 건축에 대한 생각을 읽어보는 것도 그의 초기 건축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대한건축학회지](1965년7월호)에서 그는 시간의 흐름에도 변치 않는 건축의 기본점으로 다음의 일곱 가지를 들고 있다. 1) 내부공간이 있는가? 2) 입구가 잘 놓여있는가? 3) 건물이 어떻게 땅위에 서있나? 4) 어떻게 유리창이 되어있나? 5) 어떻게 모퉁이가 되어있나? 6) 재료를 어떻게 쓰고 있나? 7) 구조체는 적당히 표현되었는가? 이렇게 일곱 가지를 고른 이유는 이것들이 건축 안에서 논리적으로 토론이 가능한 주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유할 수 있는 논리 일곱 가지 가운데 축을 강조한 2)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본적으로 공간 조형의 중요성과 그 표현을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7)에서는 구조체의 의식적인 표현을

거부하고 구조체는 어디까지나 공간을 구성하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건축의 주인공이 공간이며, 구조와 표현은 그것을 만들고 드러내는 수단이라는 생각은 서구 모더니즘의 본질과 닳아있으며, 그의 전 생애의 작업을 관통하고 있다. 그에게 따라붙는 ‘상자(box)’의 건축가, 그것도 원초적 상자(pristine box)의 건축가라는 별칭은 이에서 비롯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건축이 높이 평가받는 것은 그것이 단지 상자의 조합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형태적 완결성과 사용상의 편의성, 건축적 즐거움을 기하학적 질서 속에서 교묘하게 풀어내는 것이 그가 집중하는 곳이다. 위의 칼럼에서 말한 대로, 건축의 창작은 논리 그 이상의 무엇이 첨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그의 작품은 단순한 상자가 아닌 김태수의 상자가 되었다. 이것을 피셔(Thomas Fisher)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의 조화’라고 요약하였다. 그 조화의 완결은 솔씨와 재주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것이지만,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모더니즘에서 비롯한 태도와 자세의 보편주의이다. 영원한 재미건축가 김태수가 한국의 현대건축계에 보내는 주문 역시 도시와 건축에 대한 모더니즘의 환기일 것이다.

Tai Soo Kim, a Korean Architect in America

Jeon Bonghee
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e & Architectur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2

13

Tai Soo Kim has long been regarded as a ‘Korean architect in America.’ He belongs to the first generation of people that moved to the United States in January 1961 to study abroad, and he also has the longest active career as an architect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in the United States ever since he moved to the country. By now, he might be just recognized as a ‘Korean architect,’ but he is still mentioned as someone ‘based in America.’ When he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as a ‘Korean architect in America’ in the late 1960s, no one – even the architect himself – could imagine that he would continue his career in America so long. That might be why he was mentioned as being ‘in America.’ Yet, the reason Kim is still described by ‘in America,’ an expression that rather conveys a sense of temporary residence, is that his being in America nonetheless feels temporary to many people. In other words, Kim has always been together with the Korean architectural scene in Korea through his contributions to different magazines, exhibitions, and a series of projects he was commissioned after had won the architectural competition for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② in 1983.

Kim’s move to the United States is worth being recorded as an important event with regards to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architecture. That Kim hurriedly crossed the Pacific

Ocean in early 1961, just a month before his graduation ceremon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reminds of Kunio Maekawa’s story of crossing Genkainada, the straits between Korea and Japan, to catch a train crossing the Siberia before his graduation ceremony at Tokyo Imperial University in 1928. While Maekawa headed to Paris where Le Corbusier was teaching and practicing architecture, Kim went to Connecticut where Louis Kahn was living and teaching architecture. It is obvious that there is a 33-year gap between the experiences of Kim and Maekawa, and there exist spatial and temporal gaps between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the two countries. While Maekawa returned to Japan after a short two-year period of apprenticeship and invested in establishing the modern western architecture in Japan, Kim stayed in the place he had moved to although he had several chances to return to his home country. His settlement in the United States was an unprecedented case in comparison to what the other few Korean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did after their studies. Nevertheless, Kim’s influence to the Korean architectural scene can be summarized as a proper introduction of the western modernism to Korea. In this sense, his contribution to Korea is not much different from what Maekawa provided to the Japanese architectural scene. Kim’s contribution is also in line with the influence of Jong Soung

^②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was formerly called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until 2012.

Kimm, another Korean architect in America that moved to the country a year earlier than Tai Soo Kim. Such influences and contributions put Japan in the 1930s and Korea in the 1980s in the same picture as Japan had Maekawa returning to his home country and Korea had its two first-generation architects studied abroad start their professional careers in their country of origin.

The initial conversation between Tai Soo Kim and the Korean architectural scene was done through his contributions to magazines. Although Kim contributed a column to a magazine right after he moved to the United States, the regular contribution was started as his first return to Korea in March 1969. For the duration of two months while he stayed in the country, he met different people and introduced materials he had prepared. As a result, the March 1969 issue of SPACE magazine had had a special issue that included a number of architectural plans for *Martin Luther King Housing*, Kim's debut project as a professional architect, as well as an interview with Kim. January 1970 issue of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nd an article in a daily newspaper Dong-A Ilbo (January 17, 1970) introduced *Seoul Master Plan*, an alternative architectural plan that Kim proposed in response to the development plan for Seoul that was actively being executed around the time. Kim's two architectural plans for site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re important clues for examining his later works. In addition, the two projects should be considered as most importantly with regards to Kim's influence to the Korean architectural scene.

It is true that an artist's earlier works become models for his later works as brothers often resemble each other. *Martin Luther King Housing* project was awarded the P/A Award. It is a project that brought him recognition and also an initial point of departure all the projects that followed afterward. In *Martin Luther King Housing* project, one can observe an organization of a non-monumental community, a strict geometrical order, interesting spaces that relieve the strictness, orderly shapes, and balance of interior spaces that sustain variability. All these characteristics seem to be a development from Kim's graduation project at Yale's 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e, which was also a plan for a housing complex. It was similar with *Martin Luther King Housing* in terms of its block planning where buildings were placed around a courtyard. However, *Martin Luther King Housing* also had a novel feature, which was an active use of slanted lines at 45 degrees. In *Martin Luther King Housing*, the direction of pedestrian paths penetrating the whole site and the axis of spatial composition of blocks were arranged at 45 degrees, connecting and dividing the space for transportation and moving and the space for living. The slanted line at

14

15

45 degrees also divided private and shared spaces in a single housing unit.

Kim's yearning for a geometrical order is also visible in his *Seoul Master Plan*. Kim proposed a plan for a linear city where a long circular belt in 1.2 Kilometers width is at the center, extended from a development axis that connects Seoul and Incheon, a port city located in the west of Seoul. It was a renewal of the orientation of Seoul in Joseon period when it was called Hanyang and based on an axis connecting the north and south of the city. Kim's plan turned the orientation of the city at approximately 45 degrees. This turning of directional orientation of the city was based on Kim's knowledge about the urban history of Korea that he had learned during his studies at the 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ew development axis he proposed followed a plan that had been proposed as an alternative when Joseon Dynasty moved its capital to Seoul. The alternative plan had Mount Ansan, a mountain located to the west of Mount Bugaksan, as a directional point of the development axis. Moreover, Kim's new plan contained an idea of preserving the old urban center as a historical urban by moving the administra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bodies to a new urban node. Given that there were various attempts to find clues to succeed the Korean architectural tradition from the shapes of the traditional roof, Kim's idea was

more historical and urban.

Both of Kim's early urban plans conveyed his concept of urban architecture that encompassed ideas about architecture as a system that is more than a monument, which is a frame that continuously expands and evolves beyond a sculptural and fixated form with an emphasis on active responses to rapidly expanding urban situations. These ideas about urban architecture had been formed during his studies of architecture. His awakening particularly came from the experience of frustration and losing direction after his skillful perspective drawings had helped his career in the early days of his studies abroad then were severely criticized as decorative images. The initial stimulation came from his mentor Paul Rudolph, and he was cultivated by the situation of the United States that was continuously developing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clue of his development came from the memories that he had been keeping deep inside himself.

Kim's career and thinking are local and cosmopolitan at the same time, and it seems that they are closely tied to his origin of birth and path of life. He was born in 1936 in Harbin, a city located in the northern part of Manchuria. Harbin then was Japan's colony, but it was an international city where Chinese, Japanese, Korean, and Eastern European migrants were living in a mix. In this sense, the city was a showcase of the western

civilization. This translocal modernity is shown well in a short novel “Hab-i-bin”^③ by Yi Hyoseok, which was based on a series of trips to China that the writer took on after he had lost his wife and a child in the late 1930s. The fact that Kim Doojong, who is Kim’s late father and a pioneer of Korean medical history, opened his hospital in Harbin also shows that moving to Harbin was an inevitable choice for many Korean intellectuals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to avoid ethnic discrimination.

Kim moved to Seoul for his studies. During the period, he had two occasions where he could stay in Chilwon-myeon, Haman-gun, Gyeongnam Province, the hometown of his father. It was when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forced Korean citizens to disperse and when he had to escape from the Korean War. The rural landscape of Chilwon he had seen during his stay in the town later became the foundational source of his architectural imagination. Kim indeed made a number of comments about the landscape of Chilwon where traditional thatched houses stood side by side at the foot of the mountain and a head house of a family was located in the center. Such a scene showed Kim as an architect the historical beauty that had been built up for a longevity of time. For Kim who could not witness the changing landscape of the country through industrialization,

the memory of Chilwon became a firm substance in the deep of his mind. It might have been developed into a more concrete image as time went by. Such a personal experience Kim had shall be thought of as the source of Kim’s affinity to design architectural plans that are geometrical yet not authoritative and embedded with interesting oddities while being made of straight lines that cross at a right angle.

Thus, what makes the current exhibition interesting to many of us is to observe how Kim’s earlier works connect to or change into his later projects in the United States, Korea, and elsewhere. As a retrospective exhibition, the exhibition is organized in chronological order, which makes it appropriate to see how such a process of connection and change has been done. In addition to the two projects mentioned earlier, what might help comprehend Kim’s early ideas about architecture is his first published article after he moved to the United States. In July 1965 issue of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Kim mentioned seven fundamental questions to think about a timeless architecture: (1) Is there an interior space? (2) Is the entrance placed well? (3) In what way the building stands on the ground? (4) How are the windows of the building constructed? (5) How are the corners of the building constructed?

16

17

(6) How does the building utilize its construction materials? (7) Is the architectural structure properly expressed through construction? Kim explained in the article that these points had been chosen since they were topics that once could discuss within the frame of architecture. Except for the second question about an architectural axis, the questions basically assert the importance of spatial configuration and its expression through architecture. In the seventh and last question, Kim denies an intentional expression of an architectural structure and insists that it shall be no more than a means to construct a space.

Kim had an idea that space is the protagonist of architecture and structure and architectural expression is means to construct and expose the space. Such an idea is connected to the essence of the western modernism, and it is visible throughout Kim’s oeuvre. His being called an architect of ‘boxes,’ particularly of ‘pristine boxes’ originates from such an idea about architecture. However, Kim’s architectural works are highly regarded not because they are mere combinations of figures in the shape of boxes. Kim focuses on delicately unfolding the completion of forms, the convenience of usage, and architectural enjoyment within the boundary of geometrical order. As explained earlier, the creation of architecture requires something more than logic. Through this process,

Kim’s architectural works have become his ‘boxes’ – the architectural creation of his own. Thomas Fisher described it as a ‘harmony between rationalism and empiricism.’ The completion of the harmony is done individually through one’s dexterity and talent, but more important in this process is a universalism of attitude and approach that are based on modernism. The message that Tai Soo Kim sends – as an architect that will be remembered as a Korean architect in America forever – is the very reminder of modernism about the city and architecture.

③ The title is a Korean transliteration of the Harbin in traditional Chinese characters.

김태수, 황두진의 대담

김태수, 건축가(작가)
황두진, 건축가(황두진 건축사사무소 소장)

18

19

● 출생에서 유년시절

황두진(이하 황) 오늘 질문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선생님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출생에서 유년시절까지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태수(이하 김) 1936년생입니다. 만주의 하얼빈이라는 곳에서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44세 때 의학사 공부를 위해 만주로 갔는데 나의 학업을 위해 삼청동에 작은 집을 마련해 재동국민학교에 다녔습니다. 당시 나와 외할머니가 함께 살았어요. 내가 소학교 3학년, 2차 대전 막바지에 비행기가 다닐 때라 위험하다고 하셔서 아버지 고향인 경상남도 함안에 전학을 가서 1년을 지냈습니다. 시티 보이가 시골에서 즐거웠던 점들도 있었지만 시골의 풍경이 후에 기억에 맴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당시의 기억이 나의 건축가로서의 길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초가집의 지붕, 담과 담 사이 골목길, 대문 등 한국적인 시퀀스의 경험이었는데,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나만의 그런 경험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계기

황 서울에서 대학을 마친 후 미국에 유학을 가시고 현재까지도 활동하시고 계시는데요, 처음 미국에 가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김 서울대에 들어가서 큰 욕망과 기대를 안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전쟁 후라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김중업 선생님이 프랑스에서 돌아오셔서 전시를 하셨는데 그 전시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김수근 선생님도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셔서 작업을 시작하실 즈음이었고요. 그 때 나도 꼭 외국에서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히 PA (Progressive Architecture) 잡지를 보다 루이스 칸의 작품을 보고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교수님들도 잘 모르던 건축가였는데요. 미스 반 데어 로에, 발터 그로피우스, 르 코르뷔제와는 달리 현대적이면서도 과거 유산, 이집트 시대에서부터의 유산을 연결시켜주는 무언가 휴머니티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잡지 아티클에서 예일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해서 지원을 했고 입학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대를 다녀와야 나라를 떠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군대를 다녀온 후 즉 입학 허가를 받은 후 2년 후에나 미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때 이미 루이스 칸은 유펜(University of Pennsylvania)으로 떠난 후였습니다. 1960년대 말, 9월인가 10월에 군복을 벗자마자 2개월 만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 독립 전 수련과정

황 그 이후에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수련과정을 거쳐 독립을 하셔서 현재까지도 작업하고 계신데요. 독립하시기 전 수련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김 석사학위를 받고 뉴욕으로 가서 필립 존슨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루이스 칸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어 지원을 했는데 답변이 없었구요.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지원서류가 너무 많아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들고 필라델피아 루이스 칸

사무실로 갔습니다. 결국 루이스 칸을 만났는데, 작업은 좋지만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고 3개월 후에 자리가 날 것 같다고 이야기 해줬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보는 중 크지 않은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쭉 앉아 모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슬레이브 팩토리 같은 분위기를 보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필립 존슨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하고 6년을 일했습니다. 건축을 배웠다기 보다는 건물을 짓는 테크닉을 잘 배운 것 같아요. <뉴욕 모마(뉴욕현대미술관)의 가든>, <예일대학의 클라인 타워>, <뉴욕 밸레 씨어터> 등이 기억이 남습니다.

● 독립의 과정

김 6년 동안 충분히 배운 것 같아 앞길의 고민하던 중 예일대 동창 잭 달라드로부터 동업을 제안 받고 하트포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당시 첫 딸 미경이를 낳은 때이기도 했습니다.

● 독립 이후,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현상에 지명되기까지

김 1970년에 친구와 하트포드 디자인그룹으로 사무실을 시작했는데, 2년 만에 파트너 쉽이 갈라졌습니다. 친구와의 파트너 쉽이 쉽지 않았습니다.

황 한국인 유학생으로서 하트포드라는 크지 않은 도시에서 한인커뮤니티도 없었을 텐데 혼자서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 혼자서 운영해야 하는데 연고도 없고 몇 년간 무척 고생했습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가야 하나 생각도 들구요. 2-3년 후에 주택작업들이 들어왔습니다. 1970년 후반부터는

공공프로젝트들을, 학교, 정부일 같은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네이비 트레이닝 센터>, <그로튼 시니어 센터> 같은 설계들이 잡지에 소개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이 커네티컷 건축가들에게 알려지고 자연스레 소개소개로 일이 들어왔습니다. <미들버리 초등학교> 설계로 AIA National Awards를 받고 잡지에도 소개되었는데 이것이 미국에서 제 커리어에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0년에 한국에 오면서 그간 한 작업들을 모아서 대학로의 문화진흥원에서 사진전시를 했습니다. 동년배, 선배들이 많이 와주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 중 조각가 김세중 선생님도 계셨는데, 공과대학 당시 조각선생님으로 둘이 함께 조각을 하곤 했던 사이입니다. 그 인연이 현대미술관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로 닿지 않았나 싶습니다. 2년 후 1983년에 지명현상에 참여할 당시 여러분들이 나를 추천해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승중, 김수근 그리고 내가 지명되었는데 윤승중은 김수근과의 스승과 제자관계로 포기하고 미국에서 온 나는 끝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황 김세중 선생님이 초대관장이셨지요?

김 설계, 시공초기까지 함께하셨는데 완성하는 것은 못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많이 여위셨을 때도 현장에 나오셨습니다.

● 80년대 한국건축문화 안에서 김태수의 작품

황 한국이 급변하는 시기 8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많은 작품을 하셨는데 이것은 선생님의 작업세계에 어떤 변수로 작동했는지 궁금합니다.

20

21

김 현대미술관을 볼 때 한국에서 그 당시에 건축활동에 대한 나의 안티 리액션에 의해 설계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긍정적인 태도가 아닌. 한국에 와서 보니 건물을 지을 때 땅을 깎아 높은 벽을 세워 주변환경과는 부조화스러운 행위가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 유산에서 영향을 받아 보여주는 건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미술관 대지 자체도 가파르지만 아름다운 산이 있는 조건에 맞춰 오버 리액션을 했던 것 같습니다.

● 김태수가 지향하는 건축

황 선생님께서 지향하는 본인의 건축관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김 우규승(재미 건축가)과도 친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미국에 왔을 때 기초가 없었습니다. 서양철학, 미술사 등을 겉핥기식으로 배웠습니다. 철학적 기초가 없이 시작한 것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기를 발견하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대학에서도 나만의 경험들을 생각하며 작업했습니다. 이론이나 철학적인 방향보다 개인의 경험과 느낌으로 건축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지만 그게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예일대 토론에서 모두들 철학적 이론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내 한계를 빨리 인지하고 좀지만 나만의 한계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국립현대미술관 프로젝트 진행 계기

황 <국립현대미술관>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시게 되었는지요?

김 1980년 대학로에서 작업들을 모아 사진전을 한 것이 사람들에게 김태수를 알릴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1983년 88올림픽을 위해 문화시설 현상지침이 나왔습니다. 건물 만 평, 조각전시장 만 평이 지침이었습니다. 건축가 김원으로부터 지명현상에 세 명의 지명건축가 중에 내가 선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나에게 기회가 온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윤승중씨는 거절해서 김수근씨와 나만 안을 내었습니다. 나에게 연락이 온 것이 마감 한달 반 전이었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마감 열흘 전에 도면을 싸 들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 때 서울 덕수궁관에서 사이트 플랜을 받았어요. 김인석 건축사무소 한쪽에서 책상을 빌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마자 사이트에 갔습니다. 사이트를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러면서 수원성과 절을 돌면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프리핸드 드로잉으로 도면을 그렸습니다. 밤을 새면서 마감날 아침 해를 보면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제출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당선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구요 그 당시 43세였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했던 큰 작업이 <미들버리 초등학교> 정도였는데 정말 겁 없이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 설계 안의 아이디어 및 진행과정

황 현장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셨다고 했는데, 건물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설계 안을 진행한 과정을 말씀해주시지요.

김 이 건물은 자연을 헤치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였습니다. 우리나라 절을 보면 대지를 최대한 이용해서 건물을 지었듯, 사람이 만든 환경과 바깥 자연 그대로의 환경이 담으로 경계를 만들고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절의 진입과정에서 경험 할 수 있는 시퀀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설계는 미국에서 모두 진행했었습니다. 한국에서 미술관 설계로 시도되지 않은 기계·전기는 기본설계를 다해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새로운 공법 등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모두 습식으로 돌을 쌓았는데 건식을 시도했습니다.

● 돌(화강석)에 관한 이야기

김 돌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우리나라 화강석이 너무 좋습니다. 산과 조화되는 건물을 짓고 싶었습니다. 청계산의 돌이 너무 좋았고, 그 색과 같은 돌을 외벽에 쓰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만해도 동방생명 본관 같이 빨간 수입석으로 지었는데 나는 우리나라 돌을 꼭 쓰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관장님께 화강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더니, 화강석은 너무 흔해서 돌담 만드는 정도에나 쓰이지 건물에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분홍빛이 도는 문경석인데 큰 건물을 한 종류의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내의 건물들이 우리나라 화강석 같은 한 가지 돌로 짓는 작업들이 많아졌습니다.

● 램프의 논란 그리고 다다익선

황 만 평 안에 여러 전시장, 램프 등이 있는데 중요한 공간에 대한 설계 개념을 말씀해주세요.

김 들어오자 마자 램프를 보고 구겐하임의 램프를 모방했다 그러는데 그것에 영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구겐하임의 경우는 램프 그 자체가 전시공간이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의 램프는 커넥팅 코리도(connecting corridor), 층층이 연결해 주는 메인 코어와 동선의 역할을 합니다. 나는 사실 백남준의 다다익선 작품이 그 곳에 있는 것이 나의 설계한 의도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에서 백남준 작가를 만났는데, 나를 위해 완벽한 공간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보아도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다른 주요 공간은 오픈 갤러리입니다. 그 부분은 매우 성공적이었던 공간이었습니다. 큰 규모의 건물에 중심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 있어야 오리엔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형전시장은 곡면의 벽에 전시를 하는 한계가 있어서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 설계과정에서의 비화

황 이렇게 큰 건물을 설계하다 보면 비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 가장 큰 비화는, 그 당시 장관님이 디자인을 총괄하는 분이었는데 그 분을 통해 청와대에 가서 검토를 받는 식이었습니다. 장관이 하루는 만나자고 하더니 로툰다 위에 기와를 씌우라고 했습니다. 88올림픽을 기념하면서 우리나라의 상징을 보여줘야 하면서. 그런데 그건 내가 못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장관이 매우 당황해하면서 이길용 사무장을 호출해서 나와 다시 이야기 했습니다. 미국에서 스터디 하고 하겠다고 돌려 말했지만 사실 기와를 씌울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브리핑을 하는데 장관이 개인적으로 브리핑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와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한국에 있는 건축가였다면 아마 거절하지 못했을 텐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22

23

● 미술관의 미래와 국립현대미술관

황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술관이라는 개념이 자꾸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이용한 전시도 많아졌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 관한 것을 비롯하여 미술관 건축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미술관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 드립니다. 미술관을 워낙 많이 설계하셨지 않습니까.

김 그건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미술관은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의 수장(depository)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서울관은 그 외 좀 다르게 보여주고 실험하는 장소로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뮤지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규정하기는 어렵고 그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오픈되고 플렉서블(flexible)한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황 <국립현대미술관>에 갖고 있는 기대가 있다면요.

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미술관이 어떻게 사용될지 미술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때였습니다. 미술관 내부 계획이 없이 설계를 시작했는데 공간 구분을 하는데도 너무 어려웠고 설계에 맞춰 전시를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마(뉴욕현대미술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전시계획과 공간구획을 했습니다. 골조자체가 매우 유동적이어서 공간구획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을 전시하는지도 모르고 파티션을 그려냈습니다. 그 이후에 미술관 내부의 전문가들이 매해 공간을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는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건물을 오랜 기간 동안 잘 사용하고 있는 스텝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A Conversation between Tai Soo Kim and Hwang Doojin

Tai Soo Kim (Architect)
Hwang Doojin (Architect)

24

25

● FROM BIRTH TO CHILDHOOD

Hwang Doojin I will ask you about two things today. One is about your life in general, and the other is a story about MMCA Gwacheon where the current exhibition is taking place. Could you start with telling us about your birth and childhood?

Tai Soo Kim I was born in 1936. I was born in Harbin in Manchuria as the fourth child of my family. My father moved to Manchuria to study the history of medicine when he was 44 years old. He bought a small house in Samcheong-dong, Seoul for my studies. So I went to Jedong Elementary School. At the time, I was living with my maternal grandmother. When I was in the third year of the school, I was told that it was dangerous since bombers were flying over the city. Then I spent a year in Haman-gun, Gyeongnam Province, which was my father's hometown. A city boy had fun memories in the countryside, but the landscape of the place followed me after I left. Looking back now, it seems that the memories of the period helped me a lot with my career as an architect. It was about the experience of a Korean architectural sequence including the roof of a thatched house, alleys between walls around houses, and the main entrance to houses. These experiences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when I was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 MOVING TO THE UNITED STATES

Hwang You moved to the United States after graduating from the university in Seoul, and living and working in the United States still. What initially made you move to the country?

Kim I started my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much desire and expectation, but I could not study properly since the war just ended. I was disappointed very much. Then I saw an exhibition by Kim Chung Up after he had come back to Korea from France, and the exhibition was very impressive. It was also a time when Kim Swoo Geun came back to Korea after his studies in Japan and started practicing architecture. That was when I made my mind to study abroad.

I was very moved by Louis Khan's work in *Progressive Architecture* magazine when I was in my third year of the university. At the time, even the professors at my university didn't know Khan. Different from the works by Mies van der Rohe, Walter Gropius, and Le Corbusier, I felt some sense of humanism in Khan's work that connected the heritage of the past, which traces back to the Egyptian time, and modernity. I saw in the article in the magazine that Khan was teaching at Yale University, so I applied for the school and was accepted. Korean citizens had to complete the mandatory military service to go abroad then, so I could move to the

United States only after my military service, which was two years after I had been given permission to enter the school. Louis Khan already left Yale to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It was in the late-1960s when I moved to the United States two months after I was released from the army in September or October of that year.

● APPRENTICESHIP BEFORE BECOMING INDEPENDENT

Hwang You then completed your study in the United States and still working in the country after going through apprenticeship and establish your own studio. I'd like to hear about your apprenticeship before becoming independent.

Kim I moved to New York after receiving my master's degree and worked at Philip Johnson's studio. Indeed, I had applied for Louis Khan's studio but didn't get any response. I called the studio and was told that they had received so many applications, so I visited Khan's studio in Philadelphia with my portfolio. I met Louis Khan in the end, but he told me that there might be a vacant position after three months although my work was good. I took a look around the office, and people were sitting together and producing scale models. I didn't feel good about

seeing an atmosphere that was like a 'slave factory.' I finally started working at Philip Johnson's studio and worked there for six years. I think I learned well the technique of building the buildings rather than learning architecture by itself. I remember projects such as a garden at the Museum of Modern Art in New York, the *Kline Biology Tower at Yale University, and the New York Ballet Theater*.

● PROCESS OF BECOMING INDEPENDENT

Kim While I was thinking about my career after six years of fruitful learning, Jack Dollard, an alumnus of Yale University, suggested me to work together. I moved to Hartford. It was when I had my first daughter, Mikyung.

● AFTER BECOMING INDEPENDENT UNTIL WINNING THE ARCHITECTURAL COMPETITION FOR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④

Kim In 1970, I started Hartford Design Group with Jack Dollard, but the partnership was broken after two years. It was not easy to establish a professional partnership with a friend.

Hwang I wonder how you operated the studio by yourself in a small city of Hartford as a foreigner that had graduated in the United States and without

26

27

any Korean community to support you.

Kim I had a hard time for a few years as I had to operate the studio without any local connection. I also thought about having to return to Korea even... I was commissioned to design houses after two or three years. Since the late-1970s, I started working on public projects such as schools and government buildings. After my designs for *Navy Training Center* and *Groton Senior Center* had been covered by different magazines, I started making my name. My name was exposed to architects in Connecticut, and I was naturally given commissions by being introduced to different people. I won the AIA National Awards with the design of *Middlebury Elementary School* and introduced in magazines. This became a very important momentum in my career in the United States.

When I visited Korea in the 1980s, I did a photography exhibition at the Korea Culture and Arts Foundation in Daehangno in Seoul with works that had done so far. The exhibition was received very positively with many visitors in my age and also those that were older than me. Among them was the sculptor Kim Sejoong, and he was the one that had taught sculpture when I was at the university. I think such a relation led me to an opportunity to design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I heard that many people recommended me

when I participated in the architectural competition in 1983, two years after I had come back to Korea. Yoon Seung-joong, Kim Swoo Geun, and I were nominated. Yoon gave up the opportunity because of his relationship with Kim as his teacher, but I insisted on taking part.

Hwang Kim Sejoong was the inaugural director of the museum, right?

Kim He was with me during the design and early construction stages, but he passed away before he saw the completion of the building. He visited the construction site even when he lost much weight due to his illness.

● TAI SOO KIM'S WORK UNDER THE CONTEXT OF ARCHITECTURAL CULTURE OF KOREA IN THE 1980S

Hwang You did many projects in the 1980s when Korea was going through a drastic change. I am curious about how such a situation affected your practice as a variable.

Kim Regarding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I think the building was designed as my anti-reaction to the architectural activities in Korea at the time. It was not done through a positive attitude. When I came back to the country and saw the building, I was not satisfied with it because of the unnatural activity of

④ When Tai Soo Kim won the architectural competition, the official name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was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cutting down the land and building high walls. I thought that there should be a building that shows influence from our Korean heritage. Looking back, the site itself was stiff, but maybe I was overreacting against the condition of the site where there was a beautiful mountain.

● ARCHITECTURE TO BE ACHIEVED BY TAI SOO KIM

Hwang Please tell me about your idea of architecture that you aim to achieve.

Kim I'm also friends with an architect Woo Kyu Sung. When we went to the United States, both of us didn't have any foundation. We superficially learned about the western philosophy and art history. I regret that I started my practice without a philosophical foundation. Nevertheless, what we could do was to discover ourselves and think about what could be done only by us. In the university, I practiced with thoughts about my own experience. I had to practice architecture with my personal experiences and feelings, rather than following theories or philosophical directions. It was inevitable, but it was also a possible way. In the discussions at classes at Yale, everyone was mentioning philosophical theories. It was painful not being able to understand them. In the end, I realized my limitation and tried to establish a deep understanding of my limitation though it might be narrow.

●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PROJECT

Hwang How did you start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project?

Kim I think the exhibition at Deahangno in 1980 worked as the biggest opportunity to let people know about Tai Soo Kim. In 1983, a guideline for a cultural facility for the 1988 Seoul Olympics was announced. The basic conditions were 33,000 square meters for a building and the same area for an exhibition venue for sculpture. I was contacted by an architect Kim Won that I was nominated as one of the three architects to participate in the architectural competition. It was an exceptional occasion that I received an opportunity while working outside the country. Although I realized this later, only I and Kim Swoo Geun submitted plans since Yoon Seung-joong had refused to participate in the competition. I was contacted only month and a half before the deadline. As I remember, I flew to Seoul ten days before the deadline with my architectural drawings. It was then that I received the site plan at Deoksugung branch of the museum. I started working at a desk at a corner of Kim In-seok's architectural studio. I went to the site as soon as I got off the plane. I conceived an idea after seeing the site, and started working on the design as I was wandering around Hwaseong Fortress in Suwon and different Buddhist temples.

28

29

I created all the drawings with freehand sketching. I stayed up for a few nights, and completed the plan for the building as I saw the sunrise on the day of the deadline. I then came back to the United States after submitting the proposal. I was told that I won the competition just a few days after. I was forty-three years old then. At that time, *Middlebury Elementary School* was a big project for me in the United States, so I was really bold when I worked on the proposal for the new museum.

● CONCEPTION OF THE PLAN AND PROCESS OF DEVELOPMENT

Hwang You said you conceived the idea at the site. Could you tell me about the basic idea about the building and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plan?

Kim The basic idea was that the building should be in harmony with nature without disturbing it. Korean Buddhist temples are built by using the given land in the most efficient way. Such an idea was reflected in the proposal in a complex manner through an idea of having a wall as a border between the built environment and natural environment outdoors as well as a sequence of experience similar to that of entering a Buddhist temple. The basic technical drawing was all done in the United States. Mechanisms and electrical designs that had not been tried in Korea as part of museum design were all done

in the United States. Looking back now, I tried new construction and technical methods at the time. For example, everyone in Korea stacked stones using wet mortar, but I tried to construct with a dry method.

● ABOUT (GRANITE) STONE

Kim Talking about the stone, I like the Korean granite very much. I wanted to construct a building that was in harmony with the mountain. I really liked stones in Cheonggyesan Mountain, and I wanted to use stone with the same color from the stones from the mountain. Architects in Korea then used red-colored imported stones like those in the headquarter of Dongbang Life Insurance, but I wanted to use the Korean stone in any case. I told about granite to the then director of the museum, and he told me that it was used only for building stone walls not for buildings since the stone was too easy to find. The one I used was a pink-colored Mungyeong granite. I only used one kind of granite for a big building. After that, many buildings in Korea were built using a single kind of stone such as granite.

● CONTROVERSY OVER THE RAMP OF THE NEW MUSEUM AND NAM JUNE PAIK'S INSTALLATION *THE MORE, THE BETTER*

Hwang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currently MMCA Gwacheon) building contains many

exhibition halls and a ramp. Could you please explain architectural concepts regarding key spaces in the building?

Kim Many people see the ramp of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and say that it is a copy of the one at the Guggenheim Museum. And it is true that the ramp was influenced by the one at the Guggenheim. However, in the case of the Guggenheim, the ramp itself is an exhibition space, but the one at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functions as a main core and path that connect different stories of the building as a connecting corridor. I honestly think that Nam June Paik's *The More, the Better* being in the space does not match with my architectural intention of designing the building. I met Paik once in New York, and he told me that he appreciated much for creating a perfect space for him. Even now I feel that the space is still insufficient. Another key space in the building is the open gallery. That part was very successful. I thought that a building with a scale needed a central space for its visitors to orient themselves. The circular exhibition hall could have been better since it had a limitation for exhibiting artworks on the curved wall.

● ANECDOTES

Hwang There must have been some behind-the-scenes stories since it was a huge project.

Kim The biggest one is, the minister of culture was overseeing the design of the building. My architectural design was checked through his visits to the Blue House, the presidential office of Korea. One day, he asked for a meeting and told me that I had to put giwa (Korean traditional roof tile) on top of the building's rotunda. The reason was that the building had to present a symbol of the country to celebrate the 1988 Seoul Olympics. But I refused to do so. He was very embarrassed and had another conversation with me, this time with an administration manager Lee Kilyong. I indirectly refused the order by telling them that I would study the proposal in the United States, but I indeed had no intention of putting it on top of the building. I did another briefing afterward, but the minister suggested that it would be a personal presentation between him and I. Then I said once again that I could not do the traditional roof tile. If I was an architect based in Korea, I could not refuse the order. I think it was possible since I was working in the United States.

● THE FUTURE OF ART MUSEUMS AND MMCA

Hwang Let me ask the last question. It seems that the concept of an art museum is shifting quite often. For example, we are now seeing more exhibitions that use data as a curatorial medium.

30

31

We see more stories not only about MMCA Gwacheon but also about the architecture of art museums. I would like to ask you about the future of art museums. You have designed more than many museums.

Kim That is a very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We cannot describe an art museum with a singular definition. MMCA Gwacheon strengthened its role as a depository of artworks and MMCA Seoul is playing its role as a place for experimentation and different ways of presentation well enough. It is difficult to define a certain direction for art museums to follow in the coming years, but I can say that museums change by their given nature. I wish that museums become spaces that are more open and flexible.

Hwang Could you tell me about your aspirations about MMCA?

Kim It has been thirty years since the museum was established. It was when the museum did not even know well about how it would be used. I started designing the museum without a plan for operation. It was highly difficult to divide the space into sections, but I was told that the museum would do exhibitions well according to the design of the building. I consulted with people at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to plan exhibitions and divide the space. Since the building had a flexible framework, there was no

problem in zoning the space. I drew the partition of the space without even knowing what would be exhibited. It seems that the professional staffs at the museum are utilizing the space every year since its inauguration. However, now it seems to be in need of an overall repair and maintenance. I really admire the effort of the staff that are using this building, which went through such a process, for a long time in a good way.

《과천관 30년 특별전·한국 현대미술 작가 시리즈 김태수》를 준비하며

박근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32

33

● 들어가며

《과천관 30년 특별전·한국 현대미술 작가 시리즈 김태수》전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크게 두 가지의 틀에서 기획된 전시이다. 첫 번째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과천관 이전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라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2014년부터 시작된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현대미술 작가 시리즈》건축분야의 두 번째 전시라는 점이다. 2016년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덕수궁을 떠나 과천으로 이전한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미술관에서는 이를 기념하고 최초의 국립미술관으로 지어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의 역사와 의미를 되돌아보는 많은 전시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을 설계한 건축가 김태수의 회고전은 바로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계속 성장을 해온 미술관은 현재 과천관, 덕수궁관, 서울관의 3관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각 관마다 고유의 특성을 보여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 현대미술 작가 시리즈》는 미술관의 이러한 노력 중 하나인데, 과천관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현대미술의 각 장르를 대표하는 원로작가들을 조망하는 회고전들을 기획하고 있다. 김태수는 2014년 김종성에 이어 건축분야의 두 번째 작가이며, 특히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은 그의 국내 대표작 중 하나이다.

● 전시구성

본 전시는 건축가 김태수의 삶과 작품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회고전이다. 따라서 전시는 작가의 국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학창시절에서부터 미국 유학시절과 건축사사무소 운영 시기 등이 연대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에서는 <밴 블록 주택>, <김태수 주택>, <미들버리 초등학교>, <미국 해군 잠수함 훈련시설>, <하트포드 대학교 그레이 센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튀니지 미국 대사관>, <블룸필드 유치원> 등 그의 주요 작품들이 다수 소개되고 있다.

전시의 전체적인 방향과 개념은 전시의 영문제목이 잘 보여준다. 특히 'Working in Two Worlds'는 토마스 피셔라는 미국의 건축 비평가가 김태수의 작품과 작업과정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표현인데 김태수 건축가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다고 판단하여 영문제목으로 채택하였다. 토마스 피셔는 김태수의 작업을 'Two Worlds'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는데 이는 미국과 한국이라는 지리적으로 다른 두 가지 세상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라는 모더니즘 속의 두 가지 세상을 또한 의미한다.^⑥ 그렇기에 김태수의 작업은 명확한 형태의 구성에서 시작하되 현실의 조건과 환경에 맞게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문화, 역사, 사회적 환경은 그가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태도마저 달라지게 만들었음이 분명하다. 김태수는 1990년대 중반 한국과 미국에서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며 보수적인 색채를 지니고 주변 맥락에 대한 고려를 중시하는 미국 동부의 공공기관들을 건축주로 대하는 것과 건축가 김태수 개인의 작업역량에 더 의존하는 한국의 건축주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김태수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자신만의 작품관을 정립하고 갖고 있던 재능을 펼쳐가는 과정이 바로 건축가로서 그가 성장해온 과정이며, 전시는 이 단계들을 담고자 했다.

⑤ 자세한 내용은 PA(Progressive Architecture) 1994년 9월호 Working in Two Worlds 참조.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림과 수학에 재능을 보였던 김태수는 사촌형으로부터 건축가가 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건축가의 꿈을 갖게 되었다. 서울대학교에 진학해서도 미술학도들과 그림을 계속 그렸고, 스스로를 ‘건축을 갈망하던 예술학도’로 여기던 김태수는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마친 후 자신에게 영감을 준 루이스 칸의 <예일대학교 미술관> 건물이 있던 예일대학교로 유학을 떠나 새로운 건축 인생을 걷게 된다. 김태수의 초창기 미국 시절은 매우 도전적이고 힘들면서도 또한 향후 그의 건축 작업에 있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 시기였다.

석사 과정에서 세계 7개국에서 온 20여 명의 학생들과 공부하고 경쟁하던 시기에 김태수는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는 서양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건축을 하기 보다는 본인이 기억하고 익숙한 한국의 정서와 풍경 등 개인적 유산을 실마리 삼아 돌파구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졸업 후에는 하트포드로 이동하여 ‘헌팅턴·달라비·달라드’라는 친구들의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고 이때의 프로젝트인 <밴 블록 주택>이 전국적인 상을 받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또한 이 시기에 당시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 마스터 플랜을 접하고 방향이 옳지 않다 여겨 서울대학교 석사논문을 기초로 한 새로운 안을 제시하여 서울시장에게 설명하기도 하였다.

1970년 김태수는 미국의 하트포드에서 예일대학교 동창들과 건축사 사무소를 시작하였다. 4년 후에는 혼자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밴 블록 주택>을 통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그는 여러 개인 주택들을 의뢰받아 설계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건축주의 개별적인 요구와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과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던 그는 1975년 본인의 주택을 설계하며 최소한의 크기와 건축의 기본적인 형태만으로도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는데 이는

향후 김태수의 설계 작업에 자신감과 방향성을 부여해주었다. 이후 1970년대 후반부터 김태수의 작품들이 주택에서 공공건물로 옮겨지기 시작한다. 사무실에서 수행한 초기 프로젝트들이 여러 상을 받게 되며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건축가로 접어든 김태수는 <미들버리 초등학교>, <미국 해군 잠수함 훈련시설>, <그로튼 노인 센터> 등의 공공건축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미들버리 초등학교>의 경우,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의 자연경관과도 잘 조화를 이루면서 본인의 건축언어를 새롭게 시도한 점이 호평 받으며 다양한 매체에 많이 소개되었다. <미들버리 초등학교>는 외관상으로는 단순한 직사각형 형태의 건물이 중앙의 마치 척추와도 같이 솟아난 통로부분으로 인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구성을 하고 있다. 내부는 다시 필요에 따라 공간을 적절히 배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건물의 외부 두 면은 붉은 벽돌의 로지아가 감싸는 모습을 보여준다. 합리성을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중앙의 상징적인 솟아오른 통로를 통해 하얀 벽과 붉은 지붕으로 대표되는 뉴잉글랜드 지방의 독특한 지역색을 담아내는 <미들버리 초등학교>는 김태수의 작품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1980년대에는 김태수의 한국 작품들 중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교보연수원>이 설계되었고, 미국에서는 대학교 및 사립학교 등 대규모 작품들을 설계하였다. 88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서 문화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하게 된 국립현대미술관 설계를 담당하면서 한국을 자주 오가게 되었는데, 이 무렵 교보생명 창업자를 통해 또 다른 대표작인 <교보연수원>을 의뢰받아 천안에 설계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프로젝트들이 미국의 건축 잡지들을 통해 소개되면서 그는 미국에서도 대규모 설계 프로젝트들을 맡기 시작했다. 특히 대학교와 사립학교 등으로부터 많은 일을 의뢰받게

34

35

되었는데 <하트포드 대학교 그레이 센터>, <포터 학교 학생회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시기에 김태수는 미국 건축가 협회로부터 펠로우로 선정된다. 한국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또한 서울과 하트포드를 일 년에도 수차례 왕복하는 생활이 6~7년 이어지면서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김태수는 이 시기에 서울사무소를 정리한다. 이후 현재 서울 강남의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은 약 80층의 <센트럴 타워>이다. 사무실과 호텔로 구성될 <센트럴 타워>는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콜트 식물원>을 비롯하여 <스탬포드 학교>, <블룸필드 유치원> 등의 학교 작업 역시 지속적으로 해왔다.

● 공간의 탄생,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의 마지막인 ‘공간의 탄생,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과천관 30년 특별전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살려 공간의 탄생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의 모습을 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들을 통해 살펴본다. 미술관 건립 당시의 사회·정치적 배경이 오늘날과는 상당히 달랐고, 2016년 지금의 미술관 기능과 역할, 사회에서 미술관에 기대하는 바 역시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미술관 공간은 이러한 변화를 계속 담아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의 탄생을 살펴보며 이러한 화두를 던져보자 한다.

1986년 8월 25일 개관이래 30년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서 자리 잡아 왔다. 1968년 문화공보부가 최초로 설립되면서 문화행정과 정책개발이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문예 진흥의 차원에서 많은 박물관들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국립대학교, 국립도서관, 국립박물관 등이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왔음을 고려하면 이는 당시 한국의 상황에서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진다.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등이 이러한 시기에 개관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박물관 건축은 전시공간이나 운영의 측면보다는 박물관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전통성의 표현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전통건축의 요소가 외견상 형태적으로 재현되는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평면과 공간구성과 이용에는 한계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이 갖는 의미, 특히 국내의 뮤지엄 건축사에서 갖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탈피하여 전통의 현대적 해석과 공간과 조형성의 탐구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의 부지 분석과 진입에서 내부로 이어지는 공간구성은 건축가의 의도가 반영된 철저한 분석의 결과물이며, 특히 내부공간을 중성화 한 것 역시 미술관의 합목적성을 추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이 바로 전통의 외형적 재현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던 당시의 여타 문화시설건축들과 차별화되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성격을 잘 드러내준다.

● 마무리하며

합리성과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자신이 설계하는 작품이 속한 지역의 조건에 탁월하게 적응해온 작가는 현재까지도 미국 코네티컷 주의 하트포드 시에서 활발한 작업 활동을 해오고 있다. 건축가 김태수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면서도 늘 한국현대건축의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래왔다. 전시를 통해 그의 작품세계와 함께 이러한 바램 역시 전하고자 한다.

Tai Soo Kim Retrospective: Working in Two Worlds

Park Geuntae
Curator,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36

37

● FOREWORD

Tai Soo Kim Retrospective: Working in Two Worlds is a special exhibition that celebrates the 30th anniversary of MMCA Gwacheon's inauguration. It is also organized as part of MMCA's Korean Contemporary Artists Series, which presents an architect for the second time since it began in 2014.

The year 2016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inauguration of MMCA Gwacheon, which was previously housed in Deoksugung in Seoul. MMCA is planning to hold a number of exhibitions and events to celebrate the relocation of its main branch to Gwacheon and reflect on its history and meaning as the first national museum in Korea to present modern and contemporary art. The current retrospective is first in the series of such exhibitions and events. Currently, MMCA operates three branches in Gwacheon, Deoksugung, and Seoul. Much effort is invested in presenting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each branch. As part of such effort, MMCA Gwacheon has been organizing the Korean Contemporary Artists Series since 2014. The series presents retrospective exhibitions of artists in their golden years that represent different genres of Korean contemporary art. Tai Soo Kim is the second architect to be presented as an artist in the series after Jong Soung Kimm in 2014. In particular, the *MMCA Gwacheon* is one of his major works in Korea.

● TAI SOO KIM RETROSPECTIVE: WORKING IN TWO WORLDS

Tai Soo Kim Retrospective: Working in Two Worlds is a retrospective exhibition that offers a comprehensive look at the life and work of Tai Soo Kim as an architect. The organization of the exhibition thus follows a chronological sequence of Kim's career from his early years to his establishment and running of an architectural firm. The exhibition introduces many of Kim's major works both in Korea and overseas, including *Van Block Housing*, *Tai Soo Kim House*, *Middlebury Elementary School*, *U.S. Naval Submarine Training Facility*, *Harry Jack Gray Center at the University of Hartford*, *MMCA Gwacheon*, *U.S. Embassy in Tunisia*, and *Bloomfield Early Childhood (Magnet) School* among others.

Overall concept and direction of the exhibition is better revealed at its English title *Tai Soo Kim Retrospective: Working in Two Worlds*. In particular, 'Working in Two Worlds', which was used by Thomas Fisher in order to describe Kim's works, presents Kim's way of working in his architecture journey. 'Two Worlds' does not only mean two different countries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but also implies two different 'worlds' of rationalism and empiricism in modernism.^⑥ Therefore his works begin with clear systematic space and then responds to local context and culture. In addition, the differences

in culture, history, socie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have influenced his way of communication with clients. In 1990s when Tai Soo Kim was actively doing many projects in both countries, he once mentioned that the clients in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the public institutions showing rather conservative nature) are more concerned with surrounding context while Korean clients tend to rely on Kim's personal capacity. Tai Soo Kim has developed his own way of architectural methods and showed his talent through experiencing these different clients and circumstances. This is how he has established his world of architecture and this exhibition aims to show the process of it.

Tai Soo Kim showed talent in drawing and mathematics when he was in middle and high school. Told by his elder cousin to become an architect for many times, Kim developed a dream of becoming one. After entering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continued creating drawings with students majoring in fine art. Considering himself as 'a pupil of art that craves architecture,' Kim entered the Yale University after graduat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an MA in Architecture. For Kim, Yale University was a place that accommodated Louis Kahn's *Yale University Art*

Gallery, a building that has been a source of inspiration for him. The move to Yale opened up a path to a new career as an architect. For Tai Soo Kim, the early years in the United States was a challenging and difficult period. It was also a period that laid a foundation for a breakthrough in his architectural work in the later part of his career. Studying and competing with more than twenty students from seven countries around the world during the course of his studies at Yale University, Kim did not build his architectural ideas upon the western culture that he has not been familiar with. Rather, he built ideas on the legacy that has been inherited as a Korean, such as the Korean landscape and sentiments. After graduating from Yale, Kim moved to the city of Hartford to work at Huntington, Darabee & Dollard, an architectural firm ran by his colleagues. During his time at the firm, Kim won a P/A Award for the *Van Block Housing* project. By receiving the award, Kim gained national attention in the United States. Kim also learned about the architectural master plan for Seoul, which led him to contact the mayor of the city to present a new master plan based on his MA dissert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70, Tai Soo Kim co-founded an architectural firm in the city of Hartford with his colleagues that graduated Yale with him. Four years later, Kim

38

39

started running an independent firm by himself. Since he has already been receiving attention by winning an award for the *Van Block Housing* project, he was commissioned to design a number of private houses. Through this experience, Kim practiced how to balance individual demands from different clients and the architectural direction that he had as an architect. In 1975, Kim designed his own house, which provided confidence that he could create good architecture only with the minimum size and basic architectural shapes. For Kim, it was a turning point that gave him confidence and an architectural direction in the works that followed. The period between 1978 and 1982 is marked by the transition from private houses to public architecture. Receiving a number of awards for his early works, Kim established a reputation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period, Kim was commissioned to design public buildings such as *Middlebury Elementary School*, *U.S. Naval Submarine Training Facility*, and *Groton Senior Center*. In particular, the *Middlebury Elementary School* received a lot of media attention as the building was in harmony with the natural landscape of New England while attempting to present Kim's architectural language in a novel way. *Middlebury Elementary School* has a shape of rectangular block which is divided into two spaces by a pitched central roof spine. The internal space is divided again into smaller spaces according to its

purpose, and two sides of the building are wrapped by red-brick loggia. An orderly and rational structure which is also responding to local rural and residential context in New England shows well Kim's architectural approach to the project.

Tai Soo Kim designed *MMCA Gwacheon* and *Kyobo Life Insurance Training Center* during the period between 1983 and 1992. The two buildings are representative projects among his projects in Korea. At the same time, Kim was commissioned to design large-scale projects in the United States such as university and school buildings. The *MMCA Gwacheon* project was initiated by the need to establish a cultural facility with the hosting of the 1988 Summer Olympics in Seoul. After he was selected as an architect of the first national museum to present contemporary art, Kim frequently visited Korea, which led to another project in the country. The founder of Kyobo Insurance commissioned him to design the training center of the company in Cheonan. The projects in Korea were introduced in architecture magazin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is also led to a number of commissions from universities and private schools. *Harry Jack Gray Center at the University of Hartford* and the *Student Recreation Center at Miss Porter's School* were among such commissioned projects. It was during this period that Kim was named a fellow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s major projects in Korea were reaching the completion and Kim's health was affected by repeated travel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 six or seven years, Kim decided to close the Seoul branch of his architectural firm. Then, Kim was commissioned to propose a master plan for a site where the Express Bus Terminal in Gangnam, Seoul is currently located. The key building in the master plan is a hotel and office building named *Central Tower*, which is more than eighty stories in height. The project is currently ongoing. Back in the United States, Kim has been continuing to design diverse buildings such as the *Colt Botanical Garden Conservatory*, *Stamford Magnet School*, and *Bloomfield Early Childhood (Magnet) School*.

● THE BIRTH OF A SPACE: MMCA GWACHEON

Since its inauguration on August 25, 1986, MMCA Gwacheon has become a museum of contemporary art that represents Korea. The social and political background of the museum at the time of its inauguration were considerably different from the present.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museum and the expectation towards the museum in the society of the year 2016 are also different from those from the past. The space of the museum has been reflecting the changes over time, and it will continue to do so. As part of the first special exhibition to celebrate the 30th anniversary of

MMCA Gwacheon's inauguration, the current section presents diverse archive materials about the museum from its birth to the present day.

As the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now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 and Tourism) was established in 1968, the central government started to manage the cultural administration and policy development. In the 1970s, a number of museums were built as part of promoting cultural activities. Considering that national universities, libraries and museums had been important measures to establish the national identity in different countries, the installation of museums in Korea can be seen as a natural phenomenon. Buyeo National Museu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and Gyeongju National Museum opened during the period. However, the architecture of the museums often did not focus on their exhibition spaces or operation but the expression of their symbolic value and traditional qualities. Such focus on the figurative representation of traditional architectural elements also revealed limitations in organization and usage of space. The meaning of MMCA Gwacheon in the history of museum architecture in Korea comes from the fact that it moved away from such an approach and sought to interpret tradition in a modern way and find formative qualities. The general organization of different buildings in the museum complex and the spatial organization

40

41

from the entrance to the interior of the main building are a result of the Kim's thorough analysis of the site. In particular, the neutralization of the interior space is also a result of his pursuit of purposefulness of the museum building. All these elements display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then), Korea, which is different from the buildings of other cultural facilities that merely focused on the figurative representation of tradition.

Building his career on rationalism and empiricism , Kim has been brilliantly adaptive to the conditions of different locations where his works were built. Currently, Kim continues to work as an architect in the city of Hartford, Connecticut in the United States. While working in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Kim has always been aspiring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Korea. It is hoped that the current exhibition would convey such anticipation while introducing the life and work of the architect Tai Soo Kim.

1962~1970 국시절 초기

주요작품
예일 대학교 논문 프로젝트
이스트 강 뉴욕 주택
서울시 마스터 플랜
밴 블록 주택

김태수는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마친 후 자신에게 영감을 준 루이스 칸의 <예일대학교 미술관> 건물이 있던 예일대학교로 유학을 떠나 새로운 건축 인생을 걷게 된다. 김태수의 초창기 미국 시절은 매우 도전적이고 힘들면서도 또한 향후 그의 건축 작업에 있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 시기였다. 석사 과정에서 세계 7개국에서 온 20여 명의 학생들과 공부하고 경쟁하던 시기에 김태수는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는 서양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건축을 하기 보다는 본인의 기억하고 익숙한 한국의 정서와 풍경 등 개인적 유산을 실마리 삼아 돌파구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졸업 후에는 하트포드로 이동하여 ‘헌팅턴·달라비·달라드’라는 친구들의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고 이때의 프로젝트인 <밴 블록 주택>이 전국적인 상을 받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또한 이 시기에 당시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 마스터 플랜을 접하고 방향이 옳지 않다 여겨 서울대학교 석사논문을 기초로 한 새로운 안을 제시하여 서울시장에게 설명하기도 하였다.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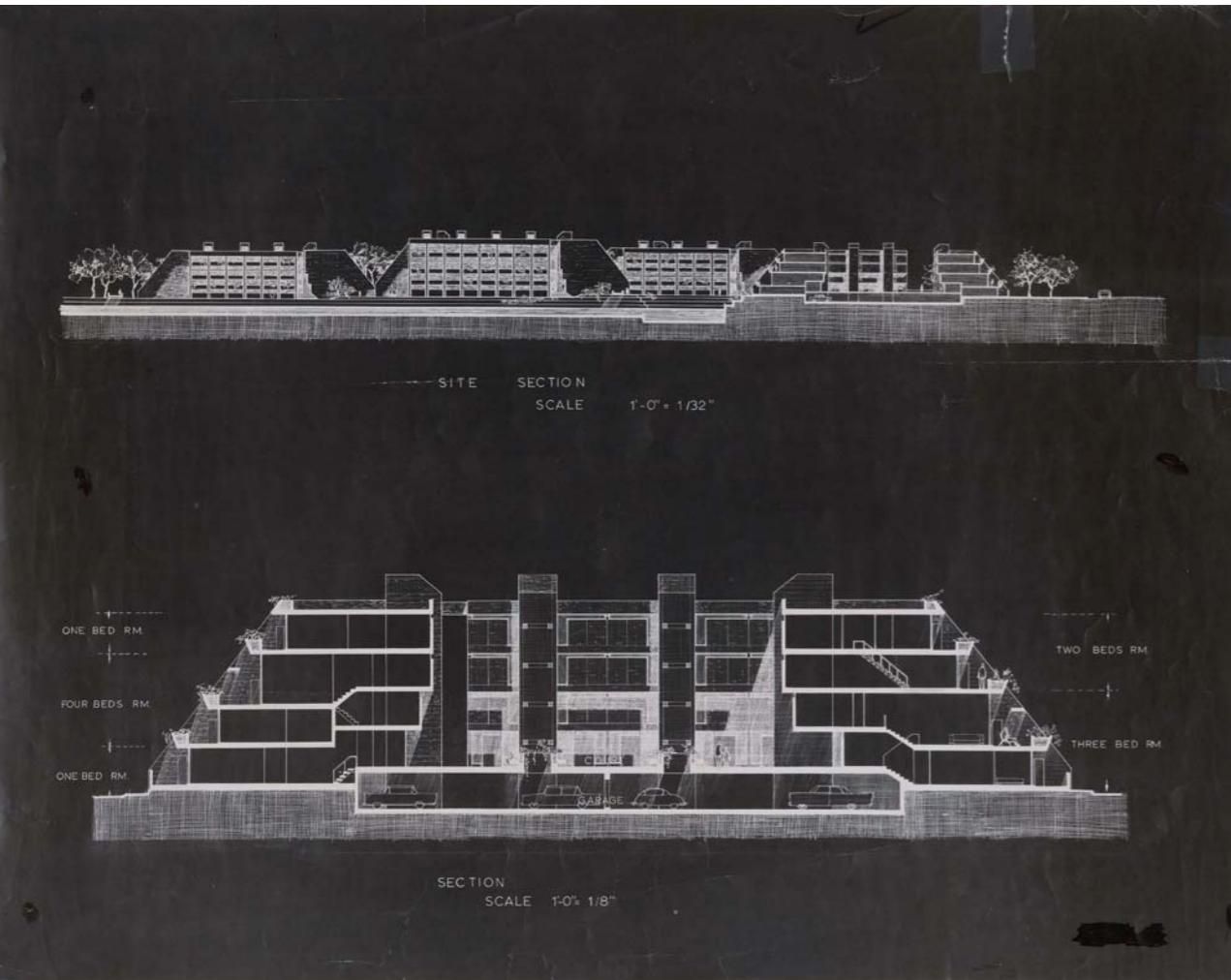
43

1962-1970: Early Years in the United States

Tai Soo Kim entered the Yale University after graduat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an MA in Architecture. For Kim, Yale University was a place that accommodated Louis Kahn's *Yale University Art Gallery*, a building that has been a source of inspiration for him. The move to Yale opened up a path to a new career as an architect. For Tai Soo Kim, the early years in the United States was a challenging and difficult period. It was also a period that laid a foundation for a breakthrough in his architectural work in the later part of his career. Studying and competing with more than twenty students from seven countries around the world during the course of his studies at Yale University, Kim did not build his architectural ideas upon the western culture that he has not been familiar with. Rather, he built ideas on the legacy that has been inherited as a Korean, such as the Korean landscape and sentiments. After graduating from Yale, Kim moved to the city of Hartford to work at Huntington, Darabee & Dollard, an architectural firm run by his colleagues. During his time at the firm, Kim won a P/A Award for the *Van Block Housing* project. By receiving the award, Kim gained national attention in the United States. Kim also learned about the architectural master plan for Seoul, which led him to contact the mayor of the city to present a new master plan based on his MA dissert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Projects
Yale University Dissertation Project
East River Competition
Master Plan for the City of Seoul
Van Block Hou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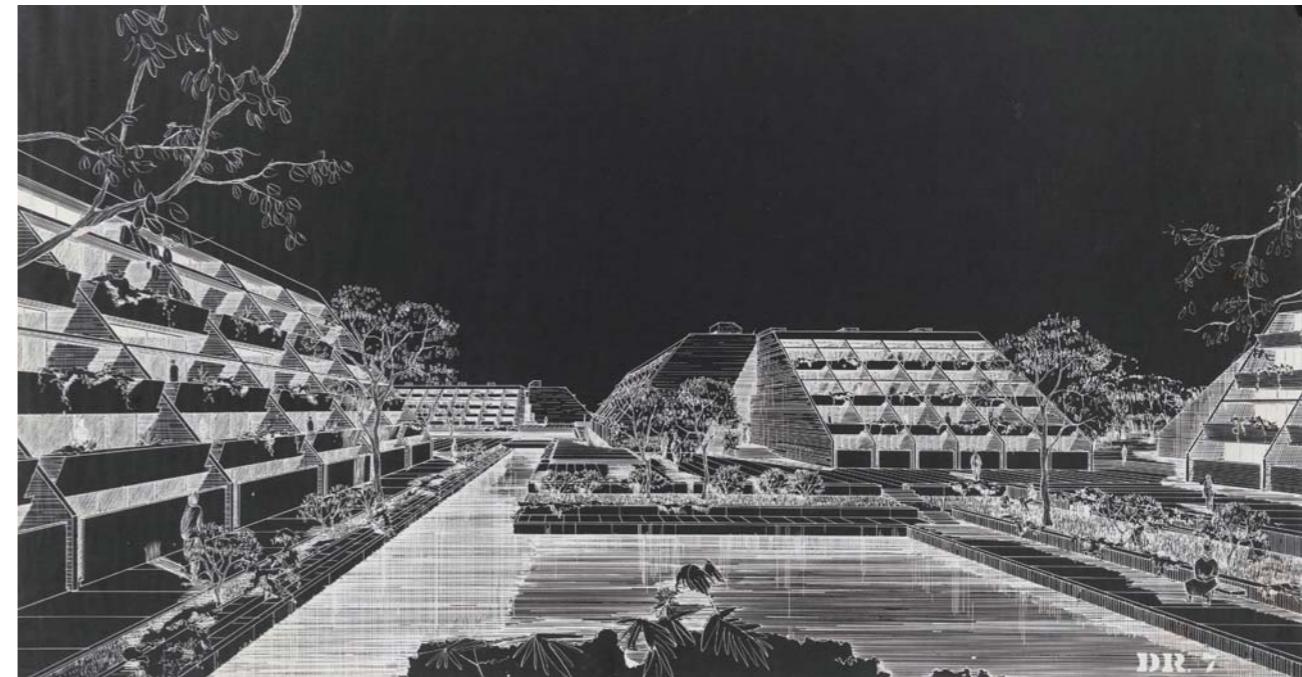
예일 대학교 논문 프로젝트
YALE UNIVERSITY
DISSERTATION PROJECT



단면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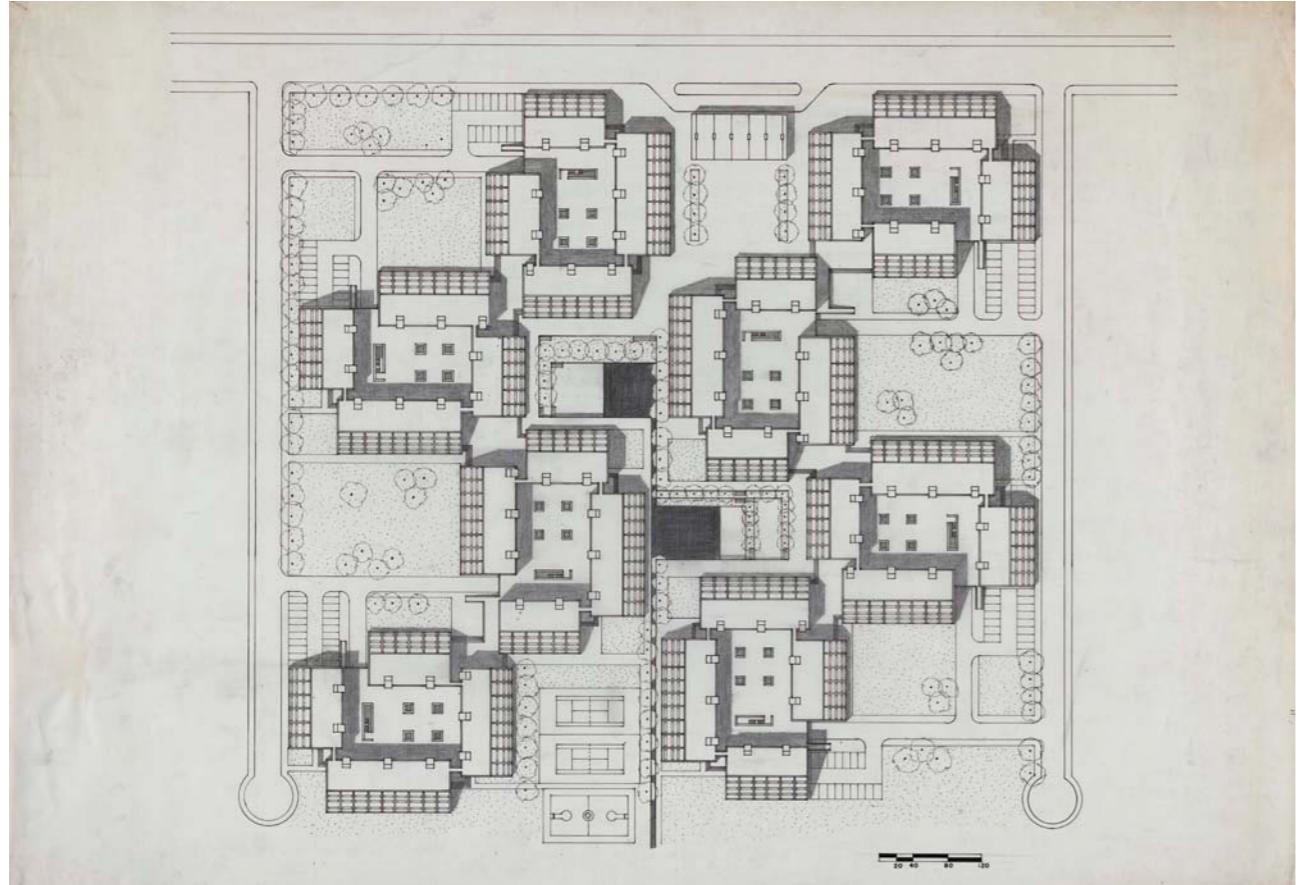
44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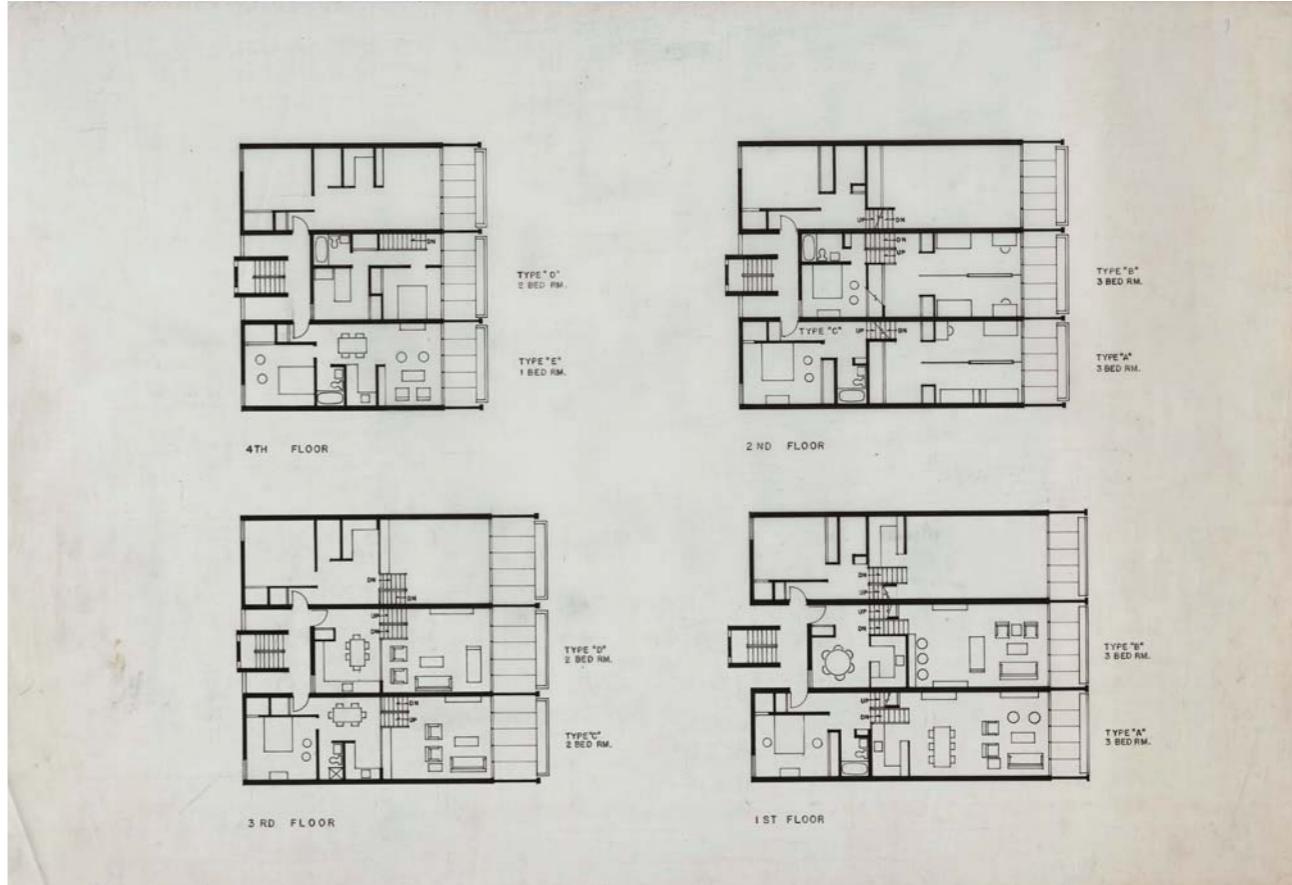
투시도
PERSPECTIVE

배치도 SITE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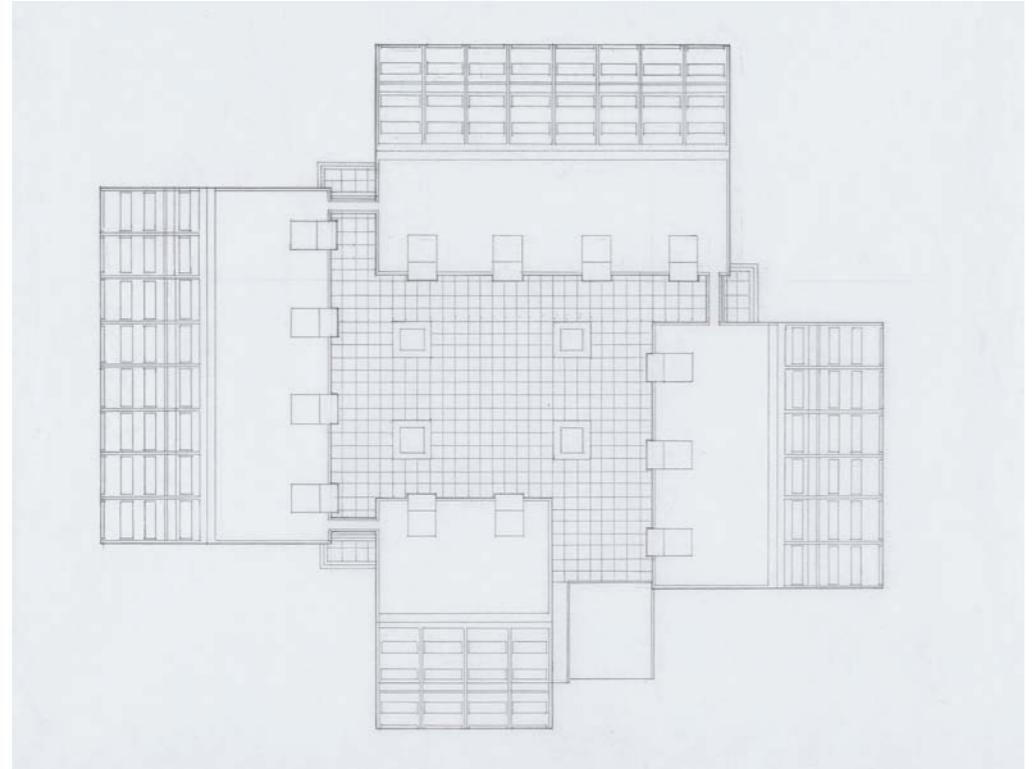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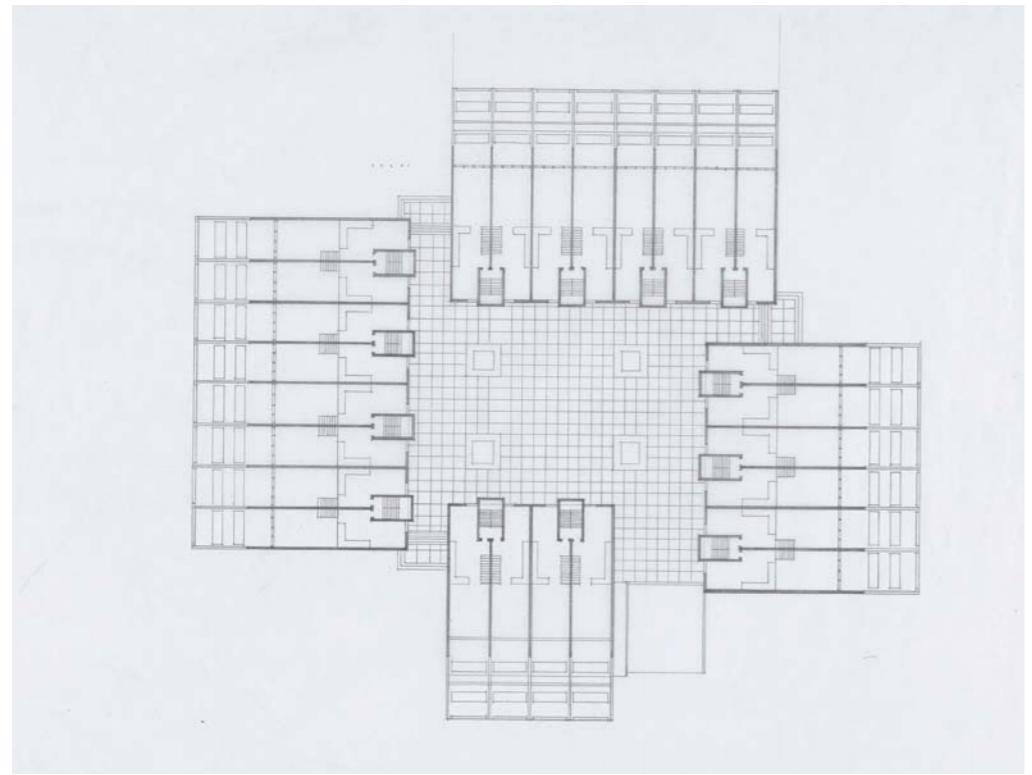


46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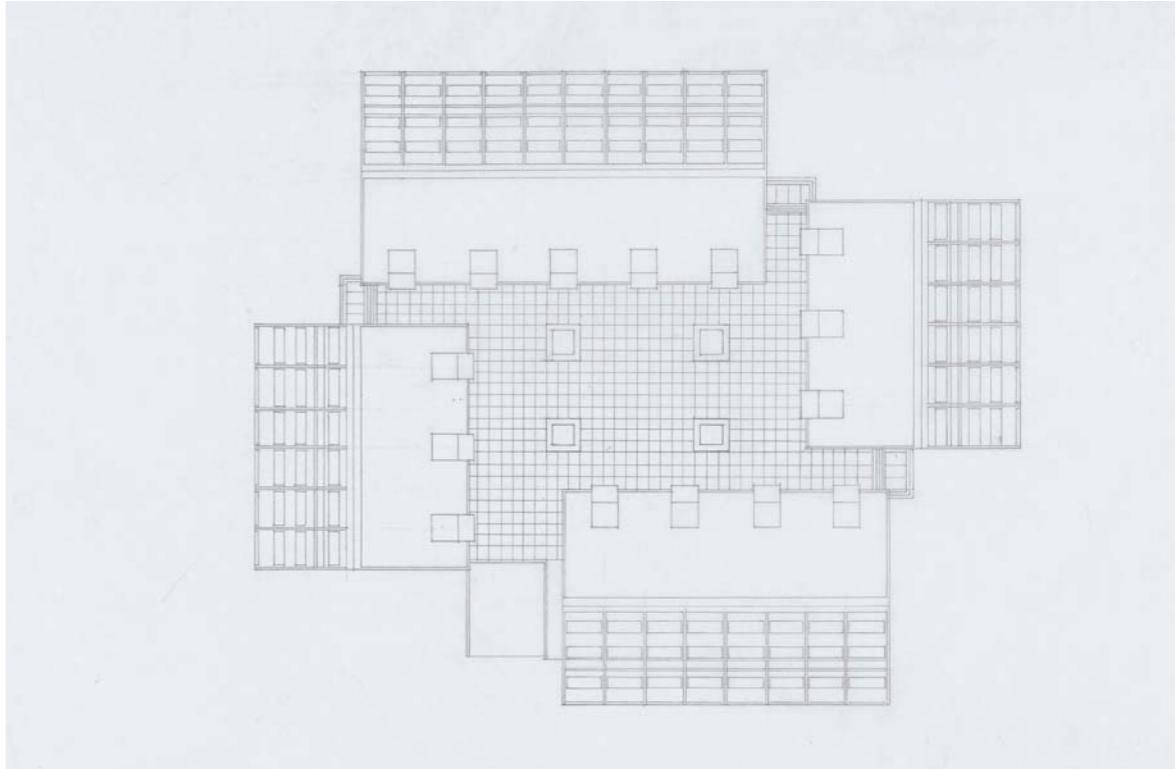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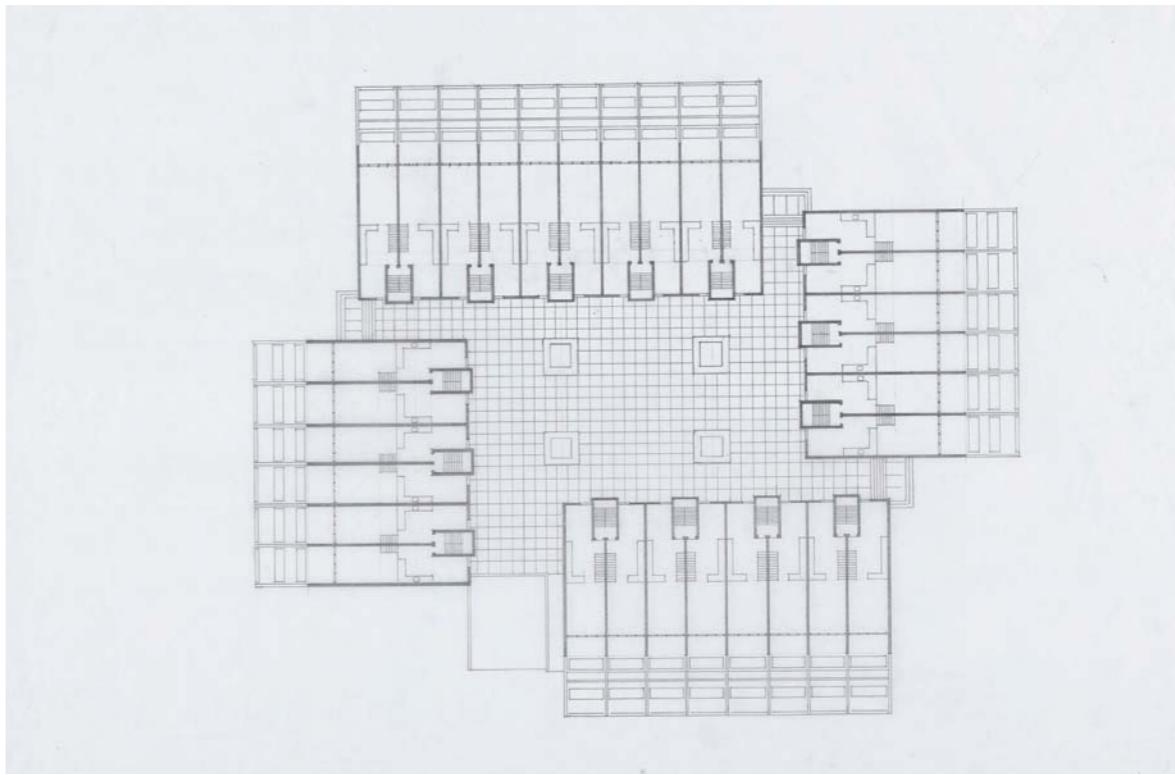
단위 평면도 UNIT PLAN



평면도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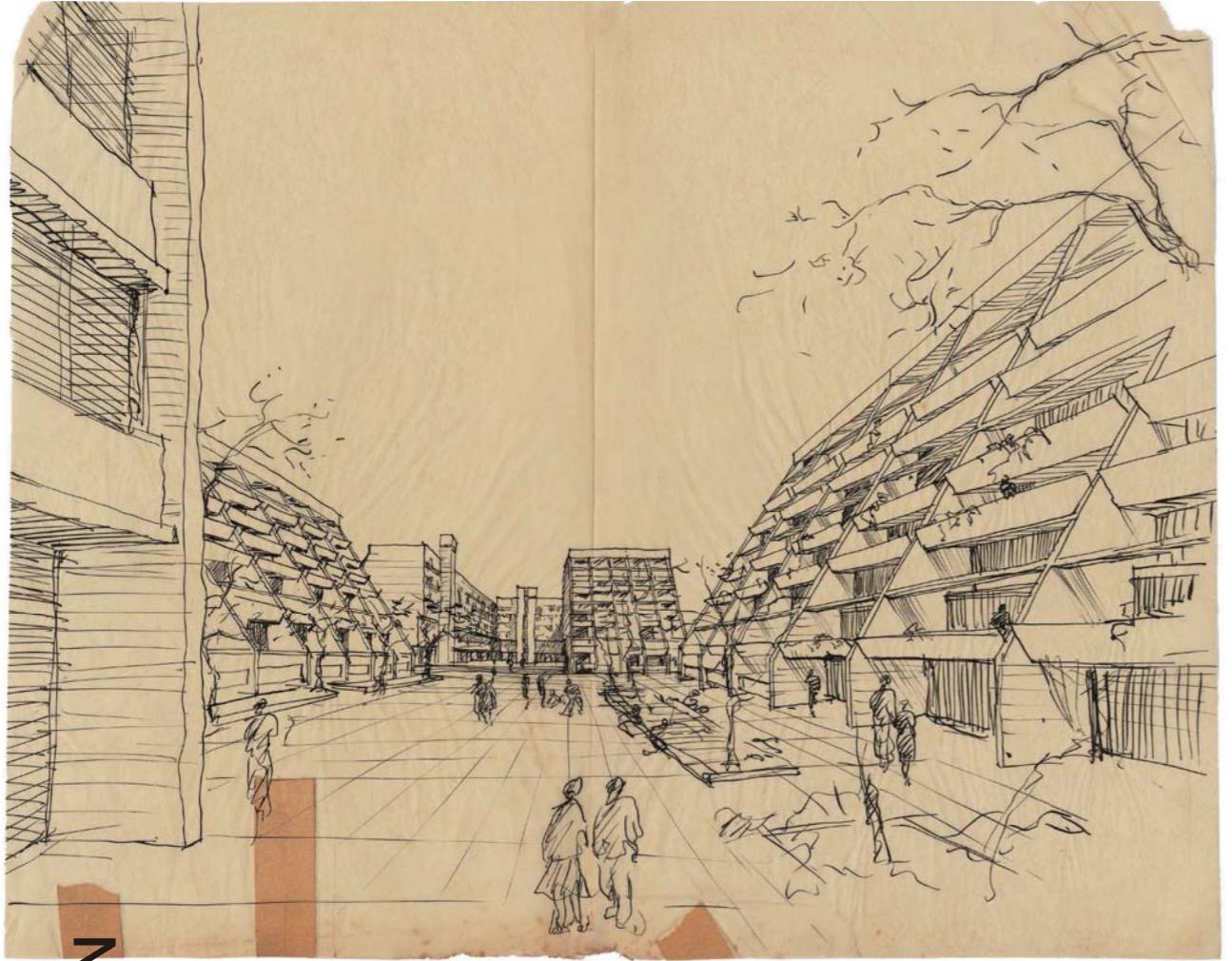
48

49



평면도
PLAN

이스트 강 뉴욕 주택
EAST RIVER COMPETITION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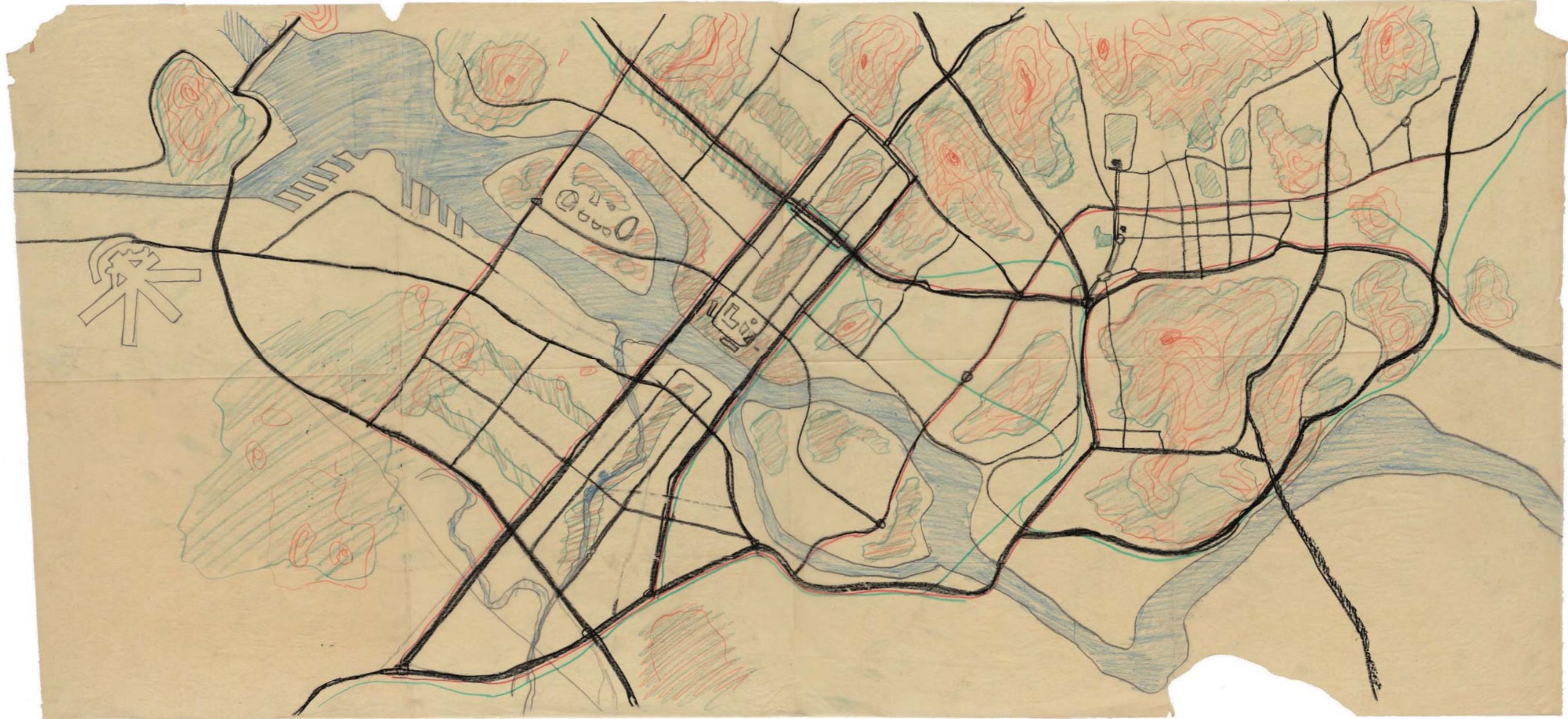
PERSPECTIVE

50

51



투시도
PERSPECTIVE



52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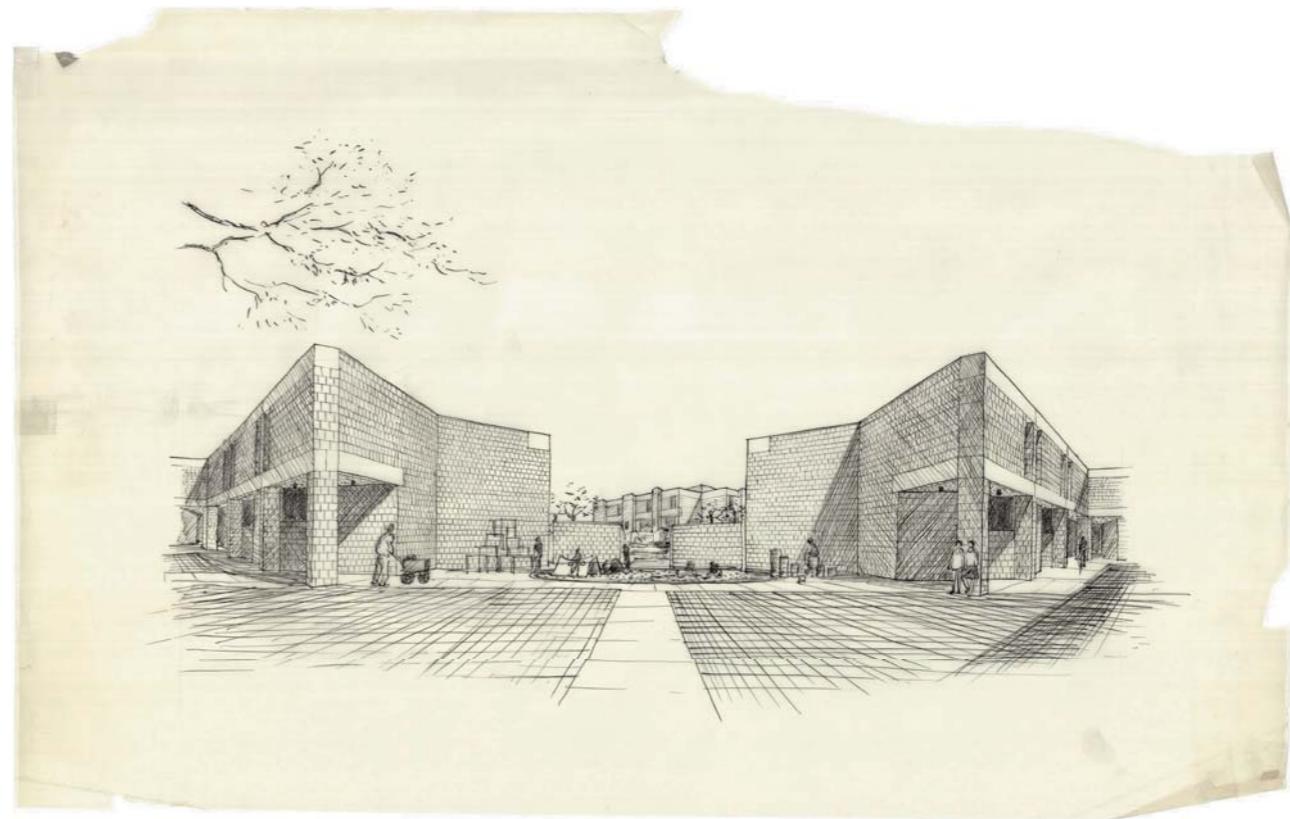
밴 블록 주택
VAN BLOCK HOU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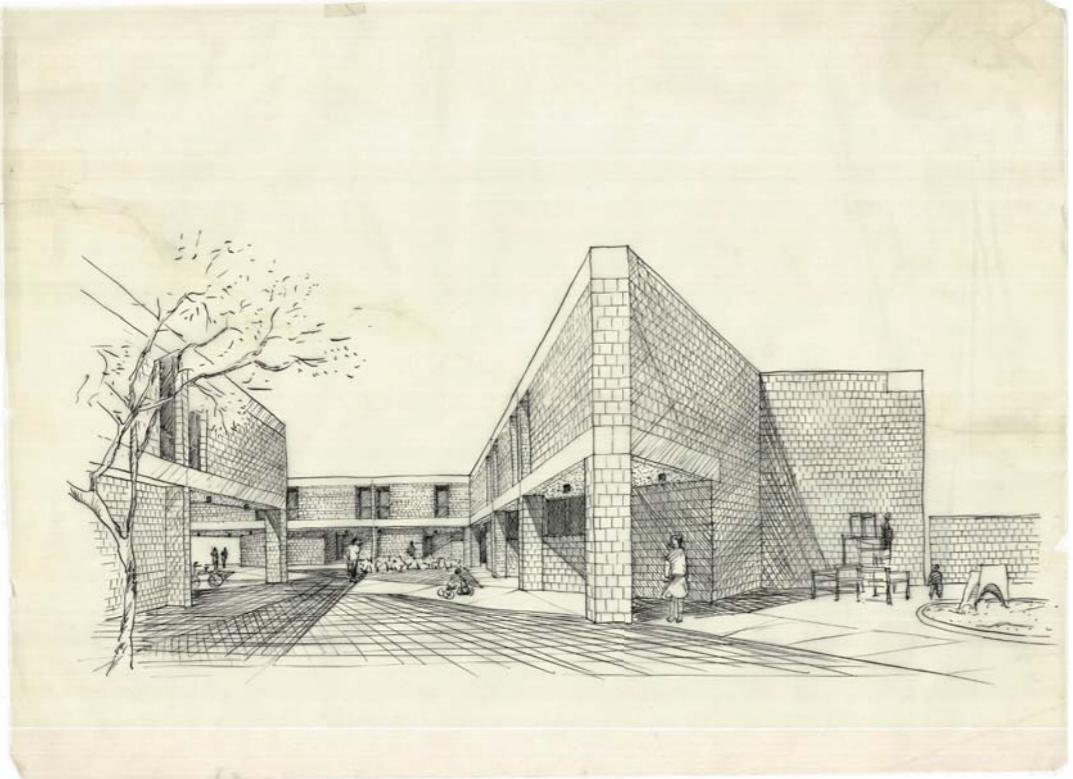
©TAI SOO KIM AND PARTNERS

54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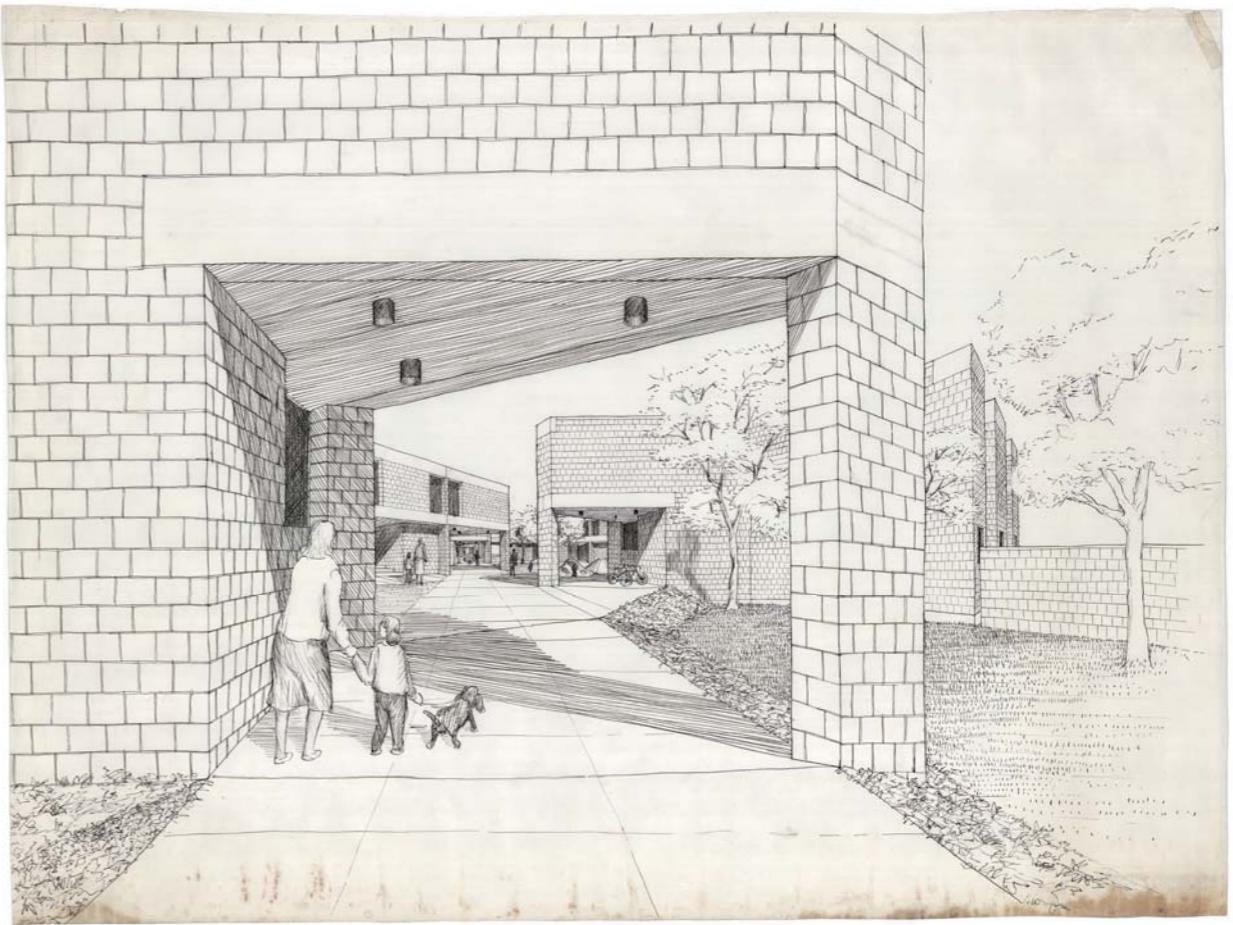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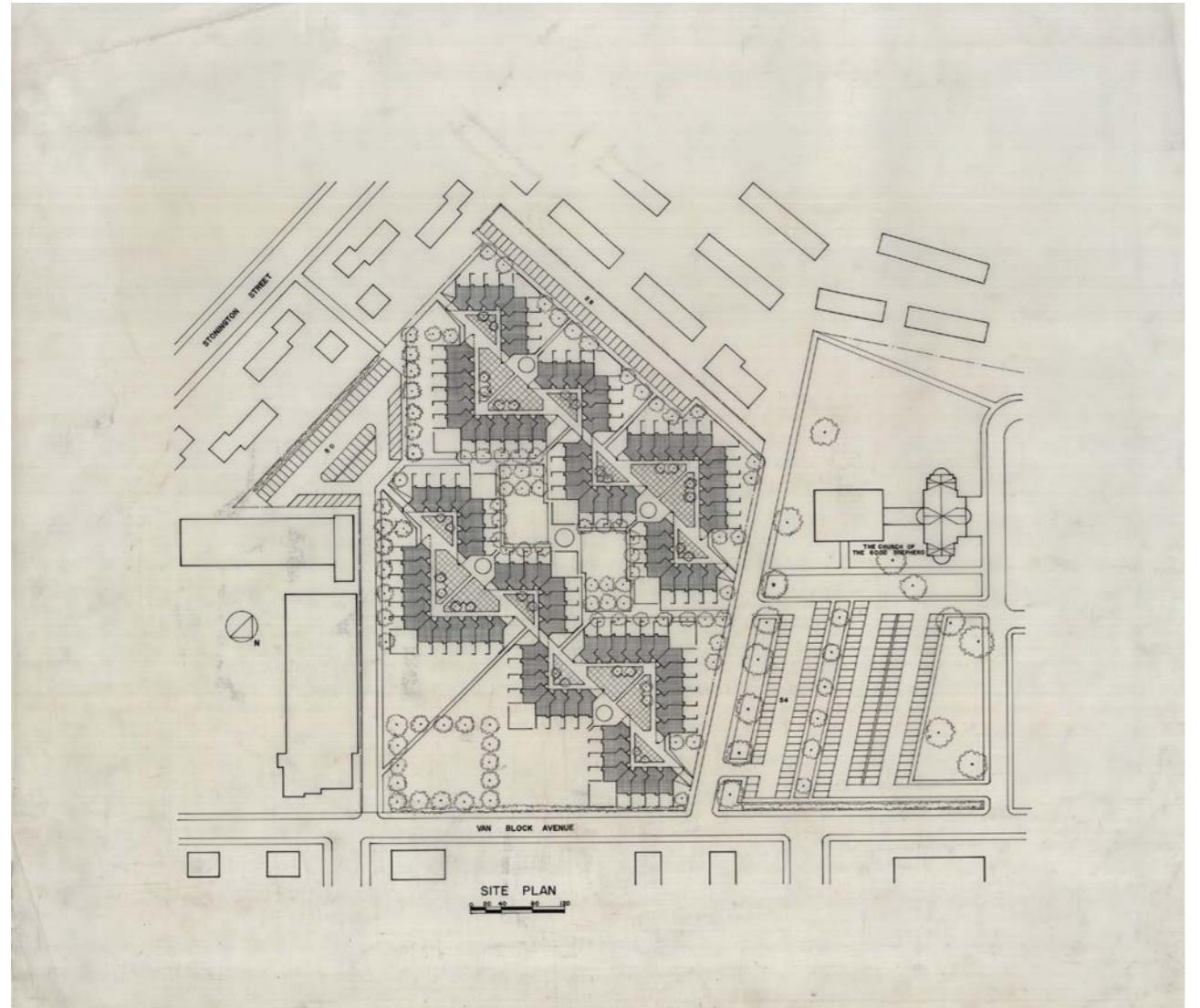
스케치
SKETCH

스케치
SKETCH

56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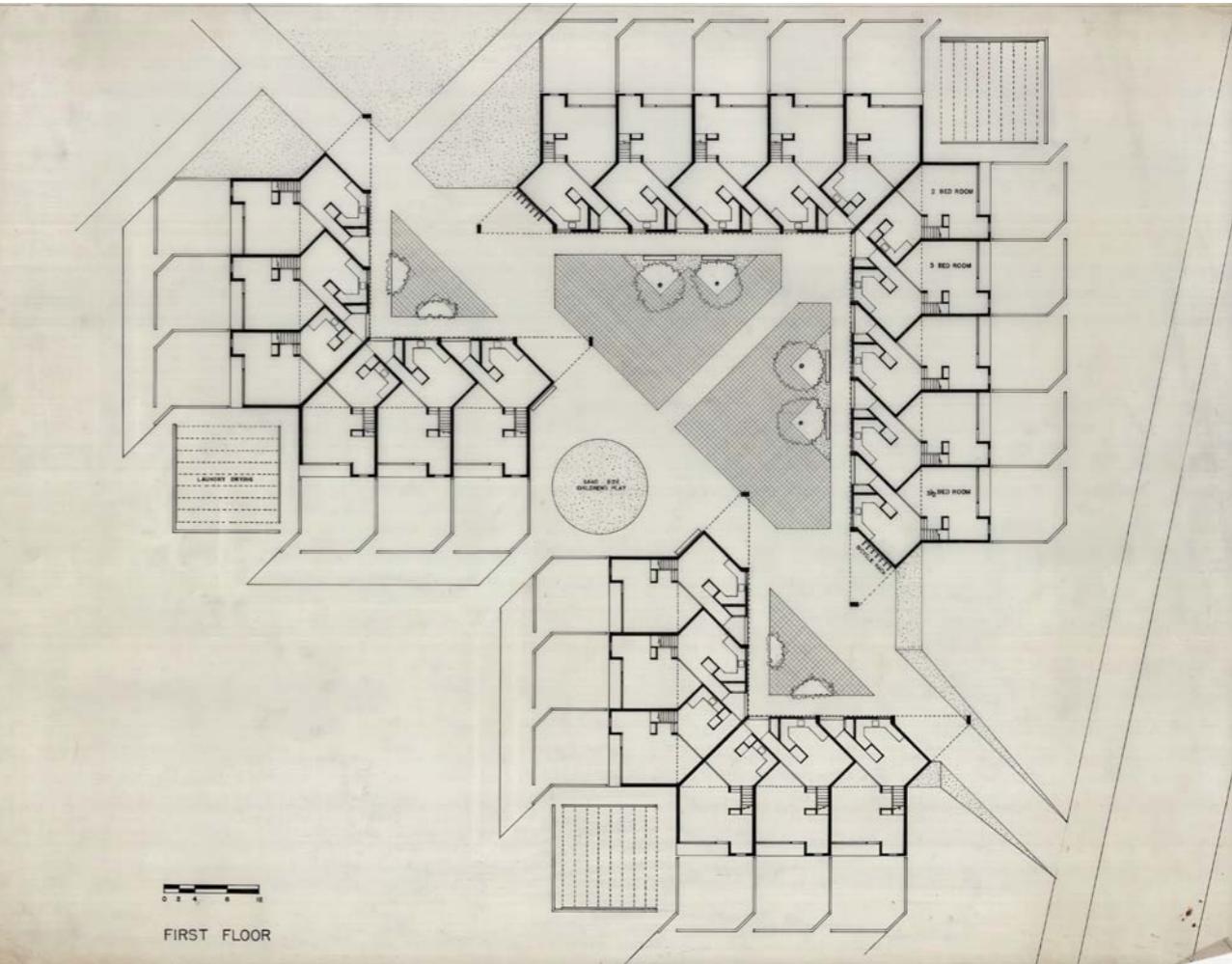
스케치
SKETCH



배치도
SITE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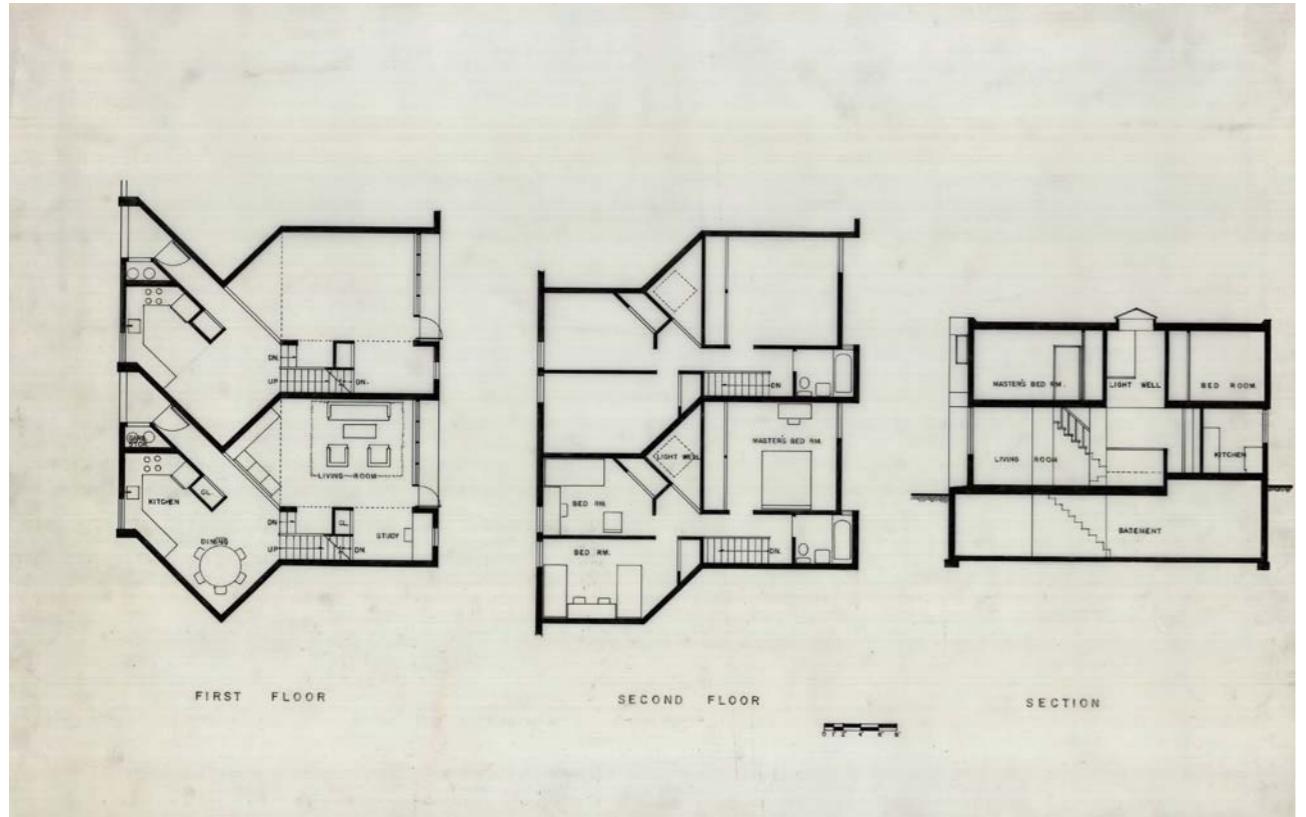
58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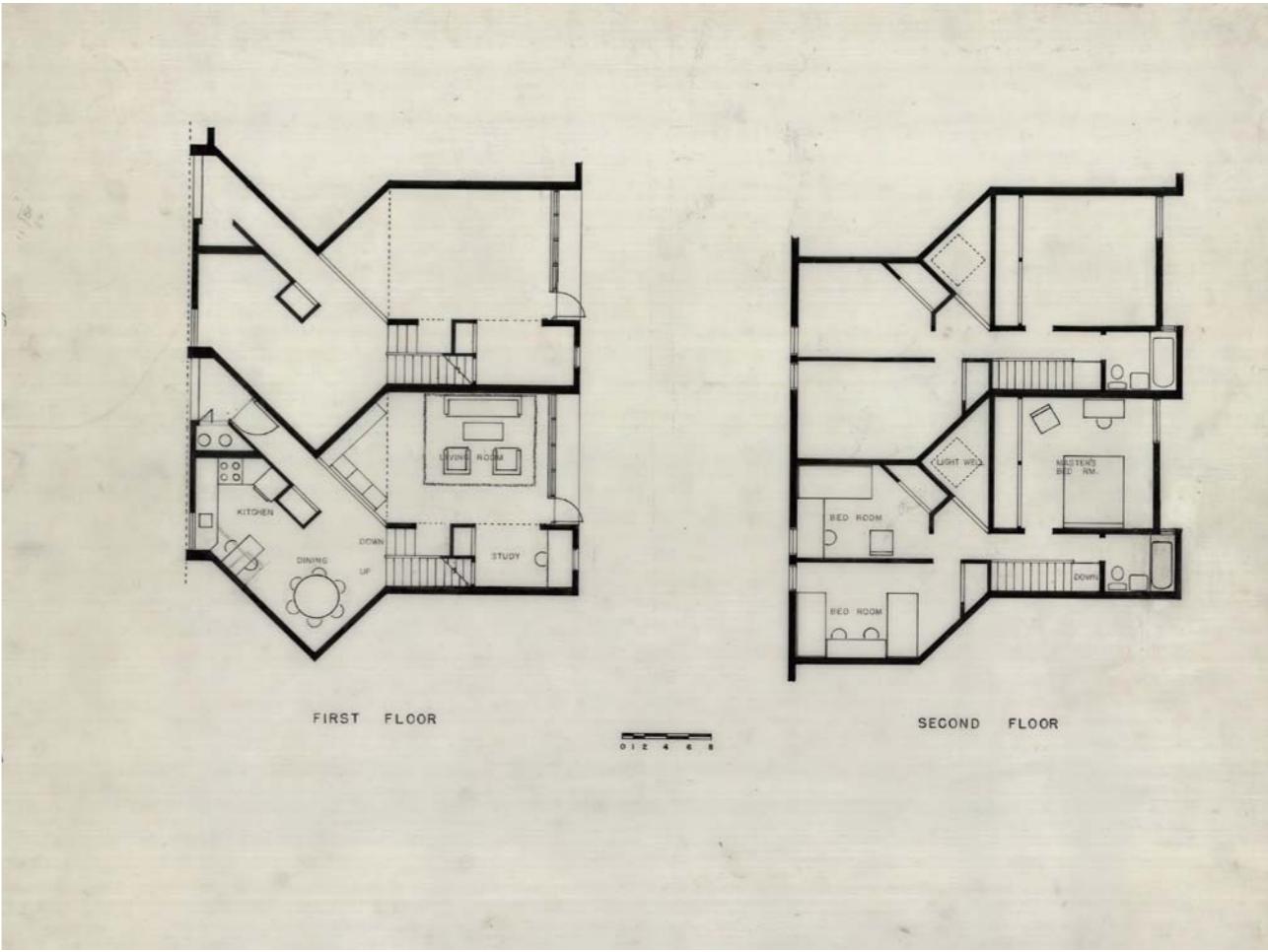
1층 평면도
FIRST FLOOR PLAN

1층 평면도
FIRST FLOOR PLAN
2층 평면도
SECOND FLOOR PLAN
단면도
SECTION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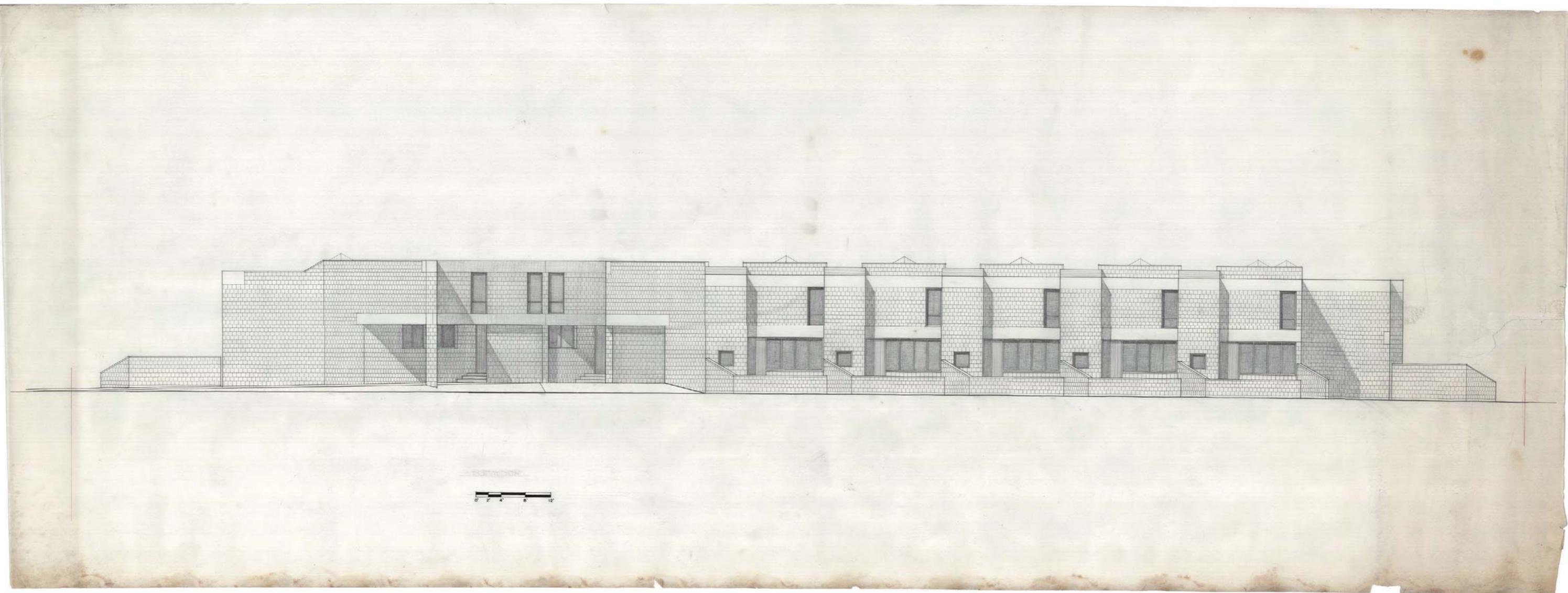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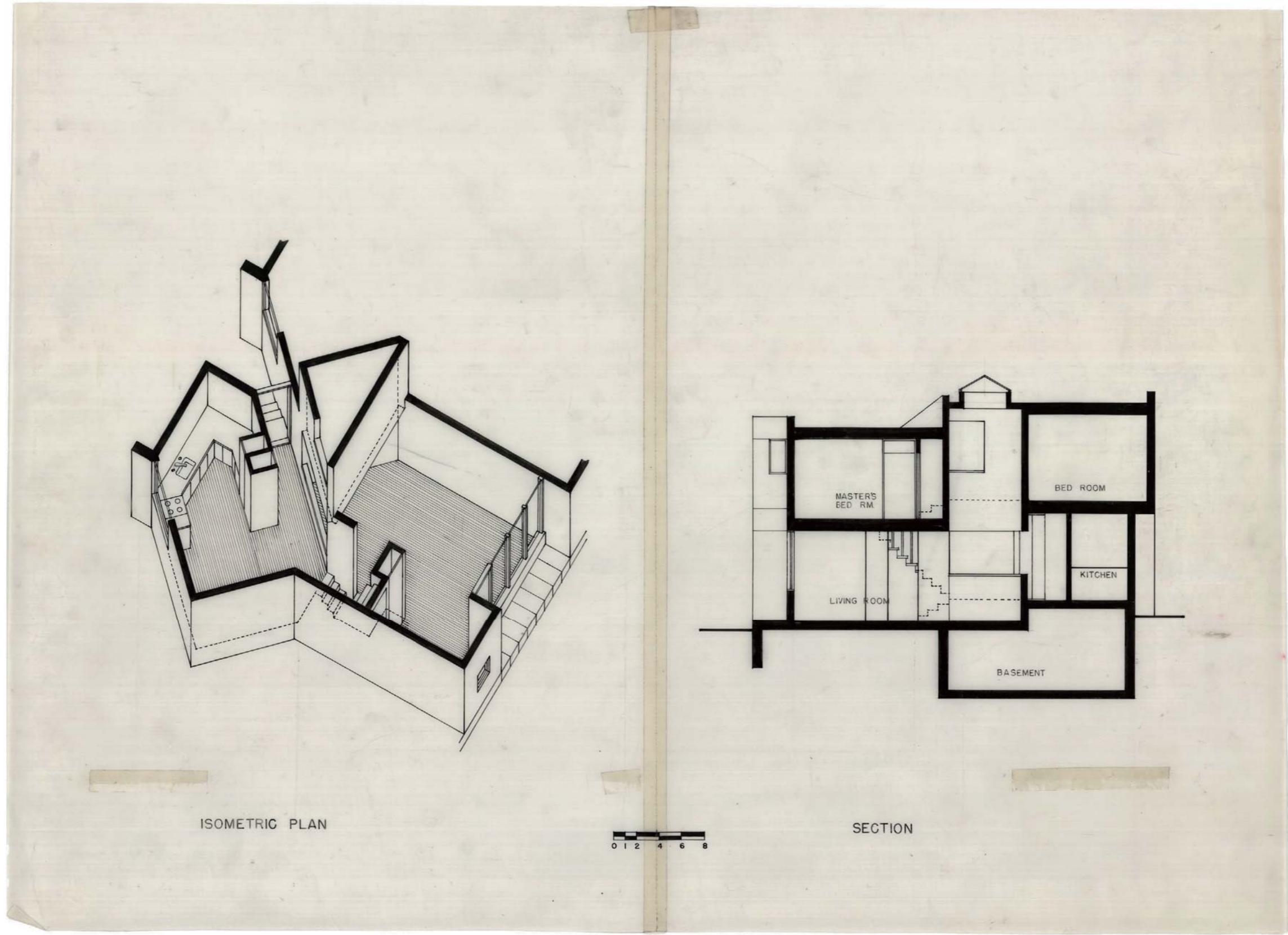


1층 평면도
FIRST FLOOR PLAN
2층 평면도
SECOND FLOOR PLAN

62

63





아이소메트릭
ISOMETRIC
단면도
SECTION

1970~1977

개인설계사무소 시작

주요작품
라입슨 주택
프레이 주택
퍼거슨 주택
버슨 주택
김태수 주택

1970년 김태수는 미국의 하트포드에서 예일대학교 동창들과 건축사 사무소를 시작하였다. 4년 후에는 혼자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밴 블록 주택>을 통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그는 여러 개인 주택들을 의뢰 받아 설계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건축주의 개별적인 요구와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과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던 그는 1975년 본인의 주택을 설계하며 최소한의 크기와 건축의 기본적인 형태만으로도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이는 향후 김태수의 설계 작업에 자신감과 방향성을 부여해주었다.

66

67

1970-1977: Establishment of an Architectural Firm

Major Projects
Laibson House
Frey House
Ferguson House
Berson House
Tai Soo Kim House

In 1970, Tai Soo Kim co-founded an architectural firm in the city of Hartford with his colleagues that graduated Yale with him. Four years later, Kim started running an independent firm by himself. Since he has already been receiving attention by winning an award for the *Van Block Housing* project, he was commissioned to design a number of private houses. Through this experience, Kim practiced how to balance individual demands from different clients and the architectural direction that he had as an architect. In 1975, Kim designed his own house, which provided confidence that he could create good architecture only with the minimum size and basic architectural shapes. For Kim, it was a turning point that gave him confidence and an architectural direction in the works that follow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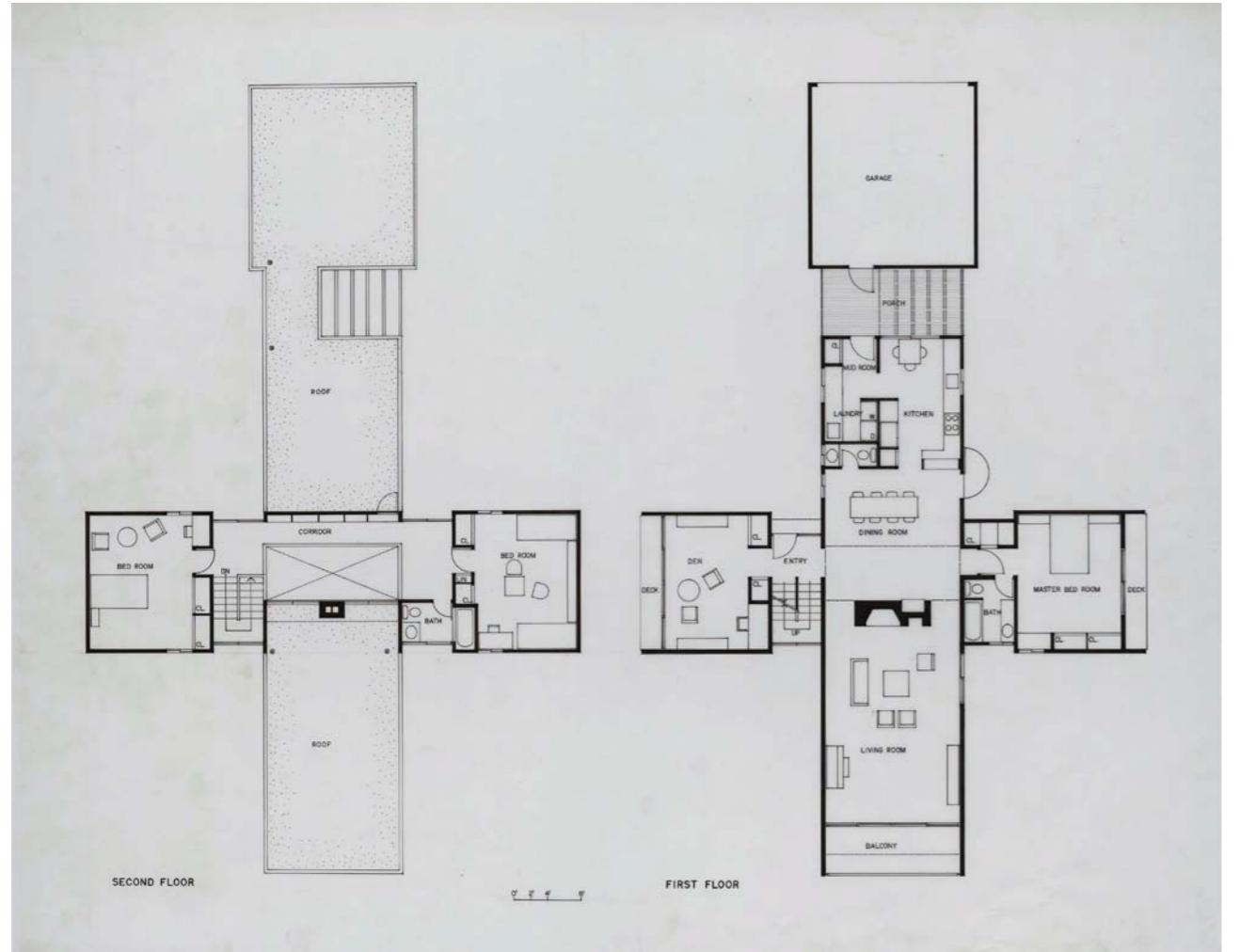
퍼거슨 주택
FERGUSON HOUSE



68

69

©TAI SOO KIM AND PART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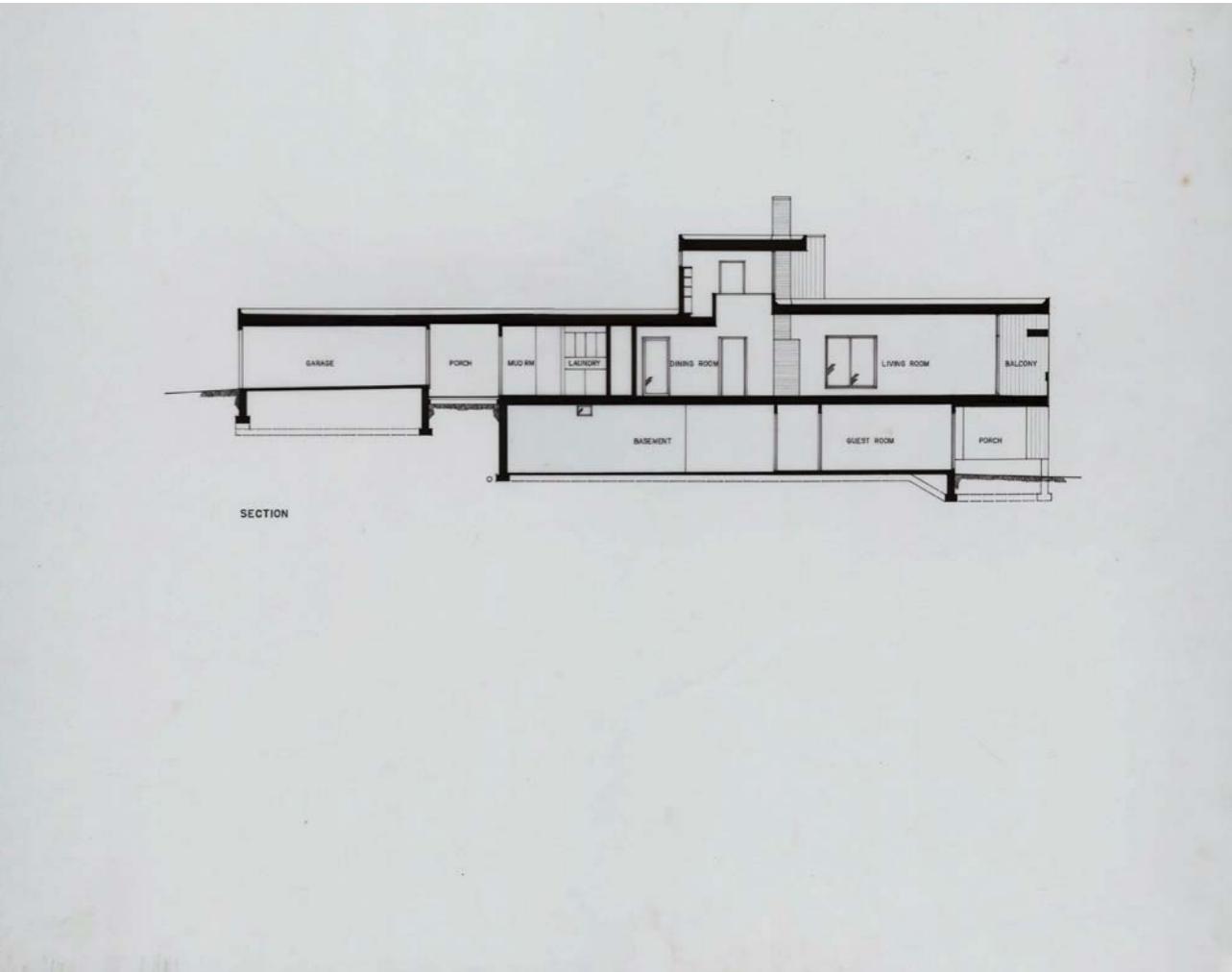


평면도

PLAN

70

71



단면도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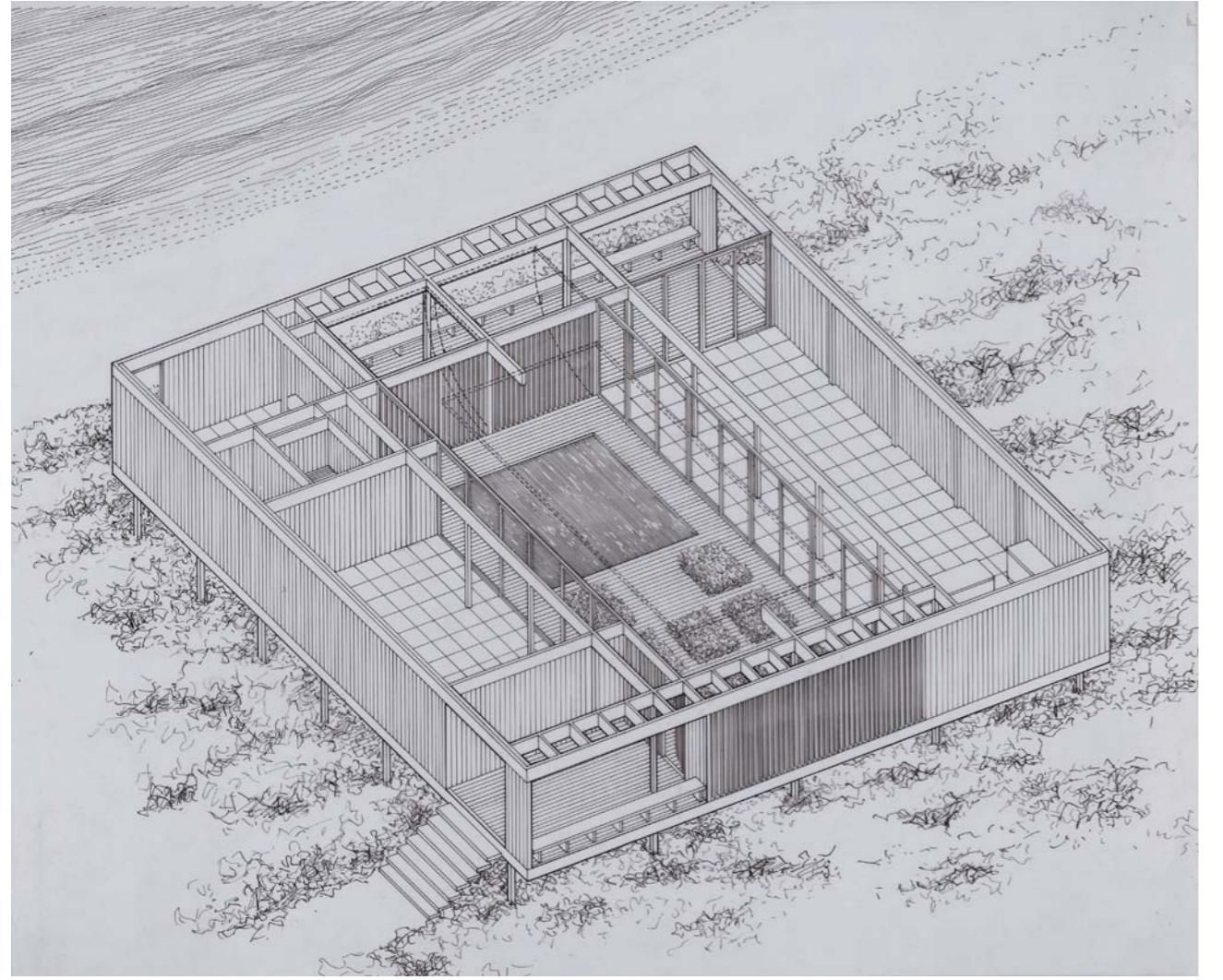
프레이 주택
FREY HOUSE

©TAI SOO KIM AND PARTNERS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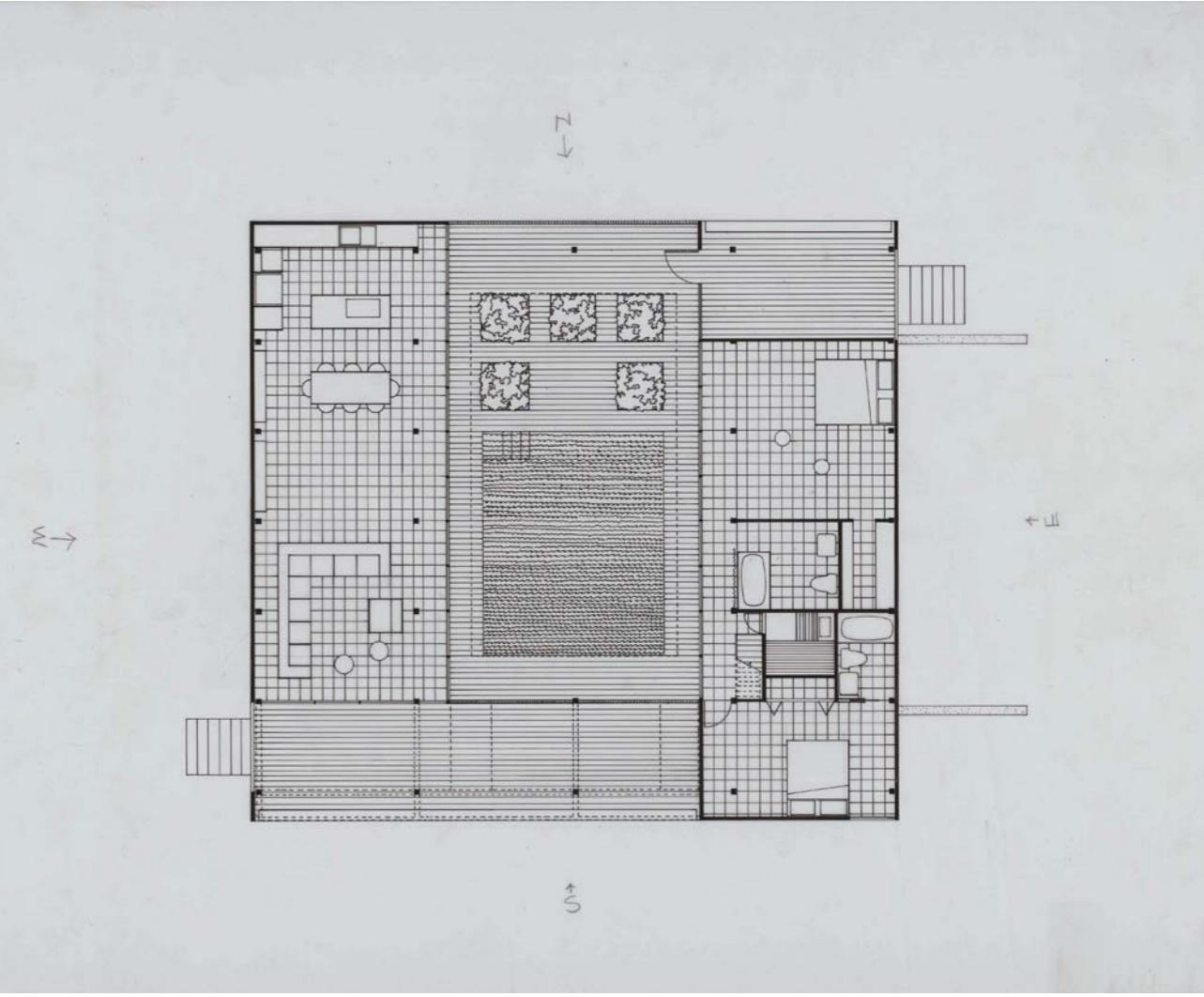
73





74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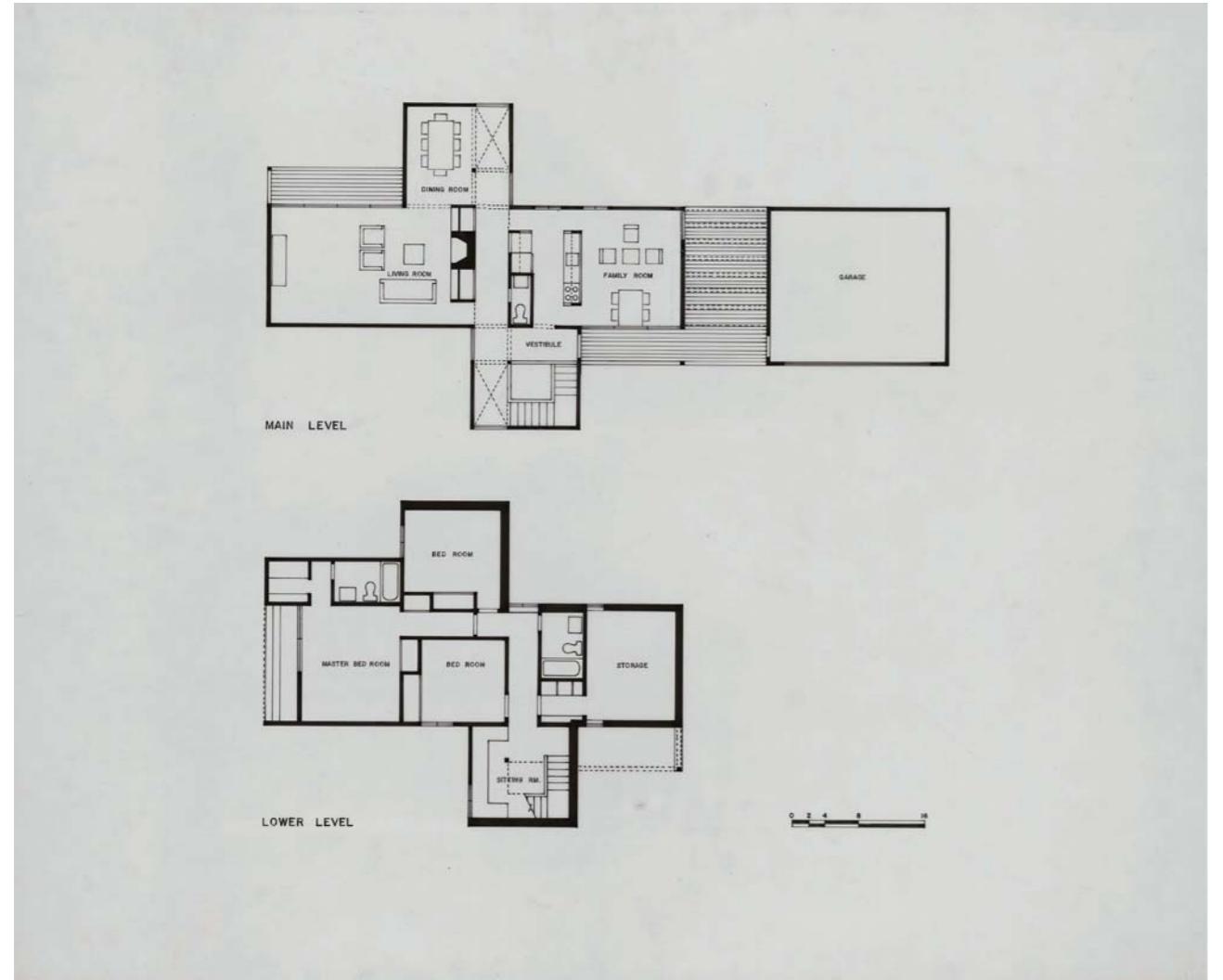
액소노메트릭
AXONOMETRIC

©TAI SOO KIM AND PARTNERS

76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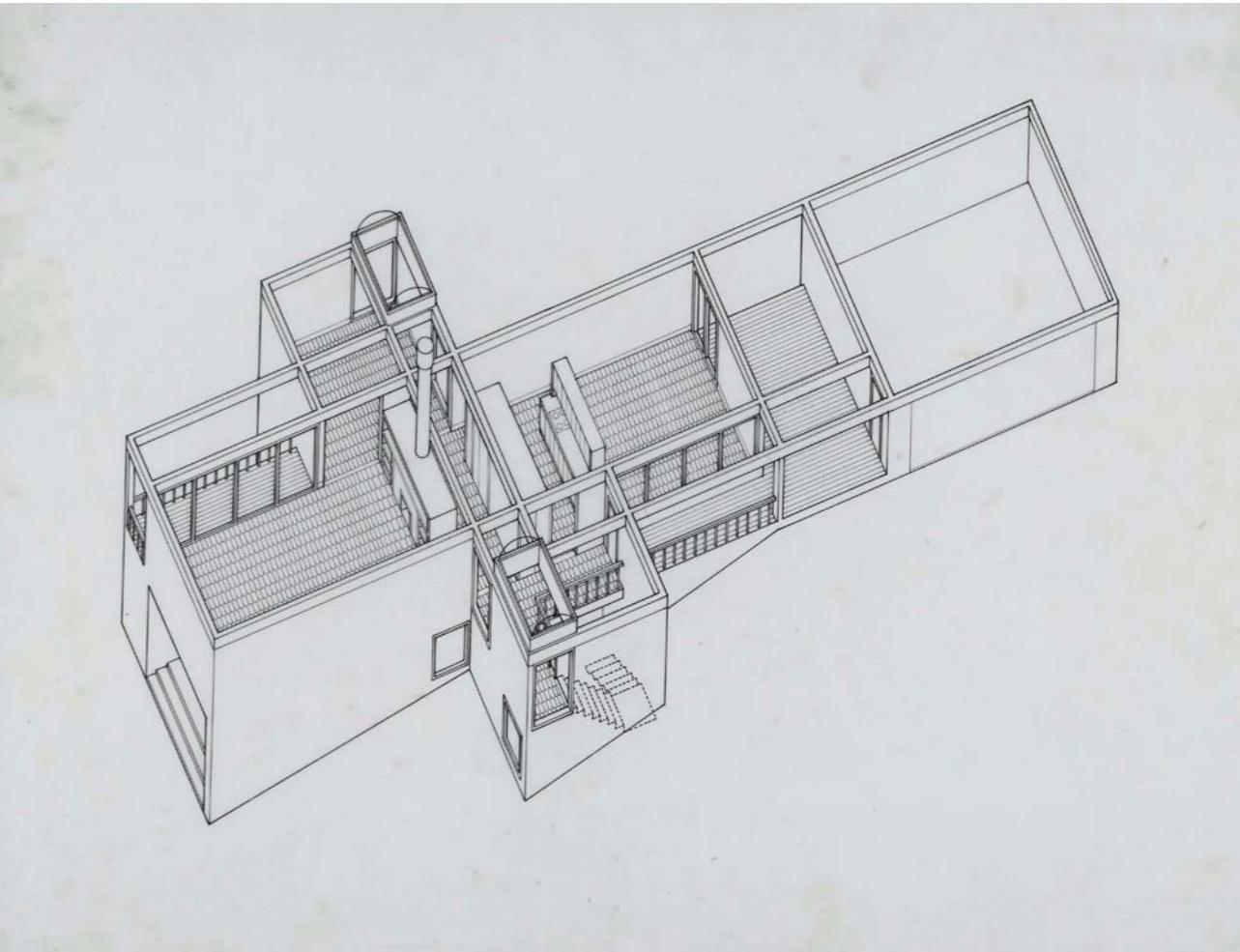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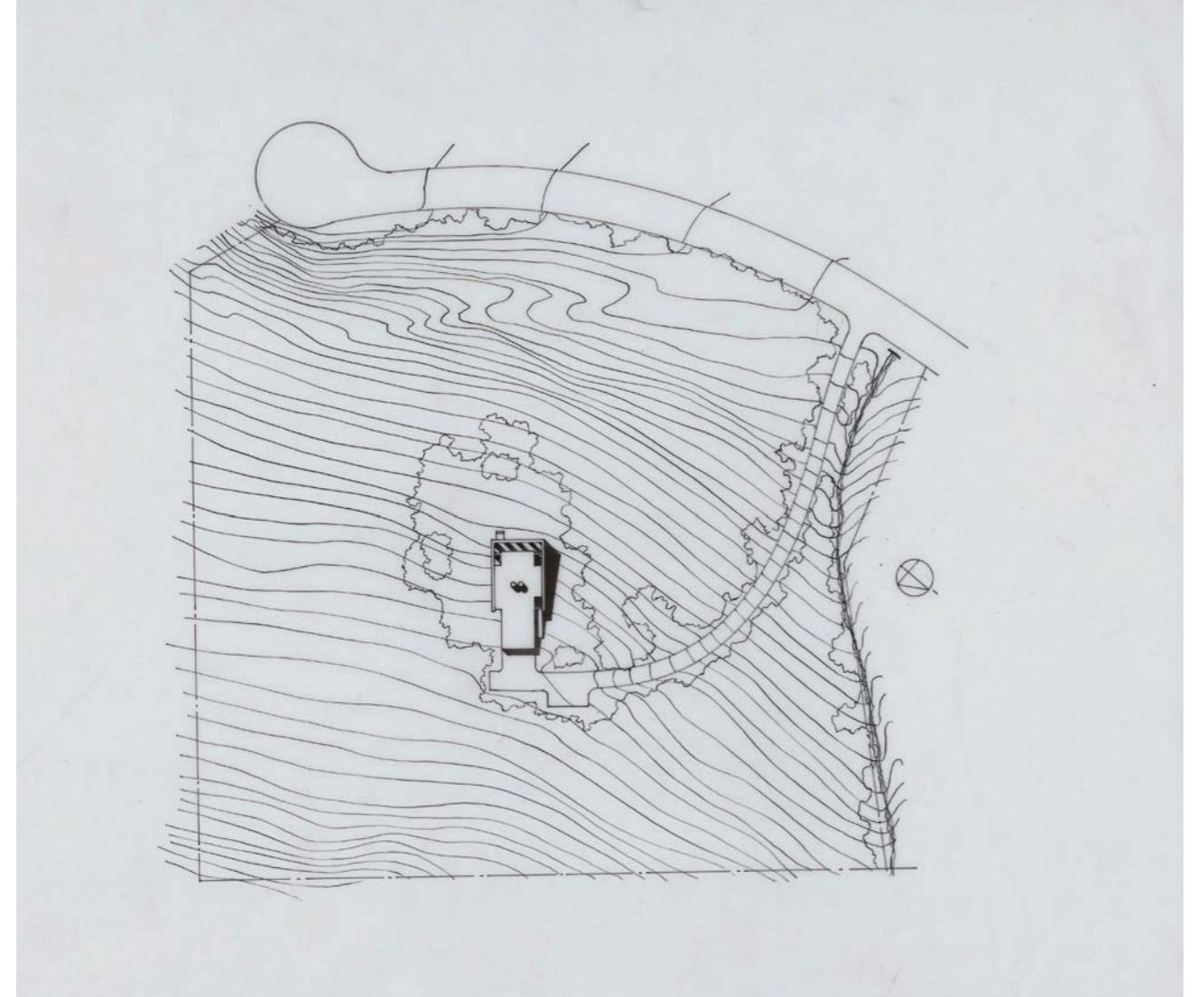
PLAN

78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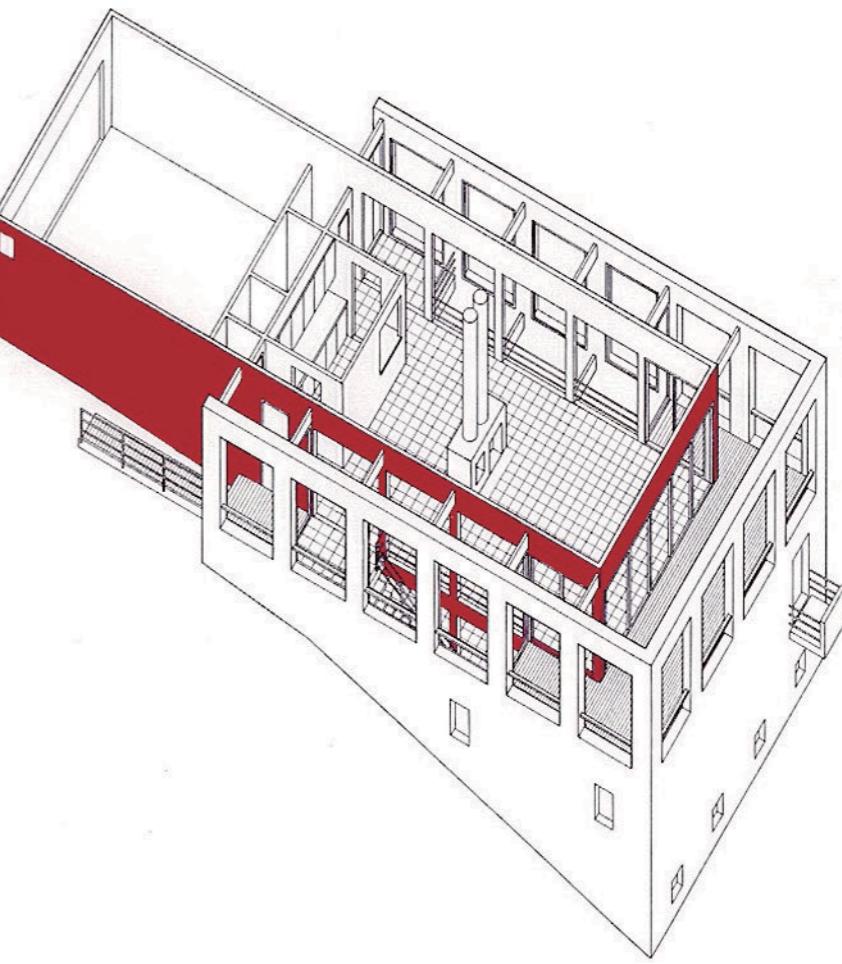
버슨 주택
BERSON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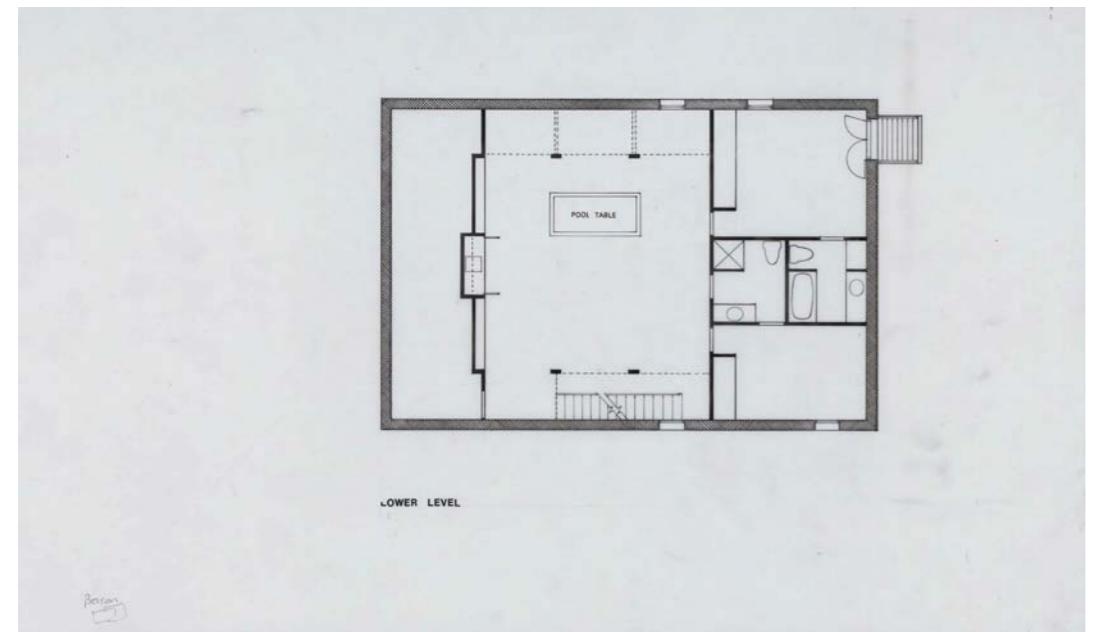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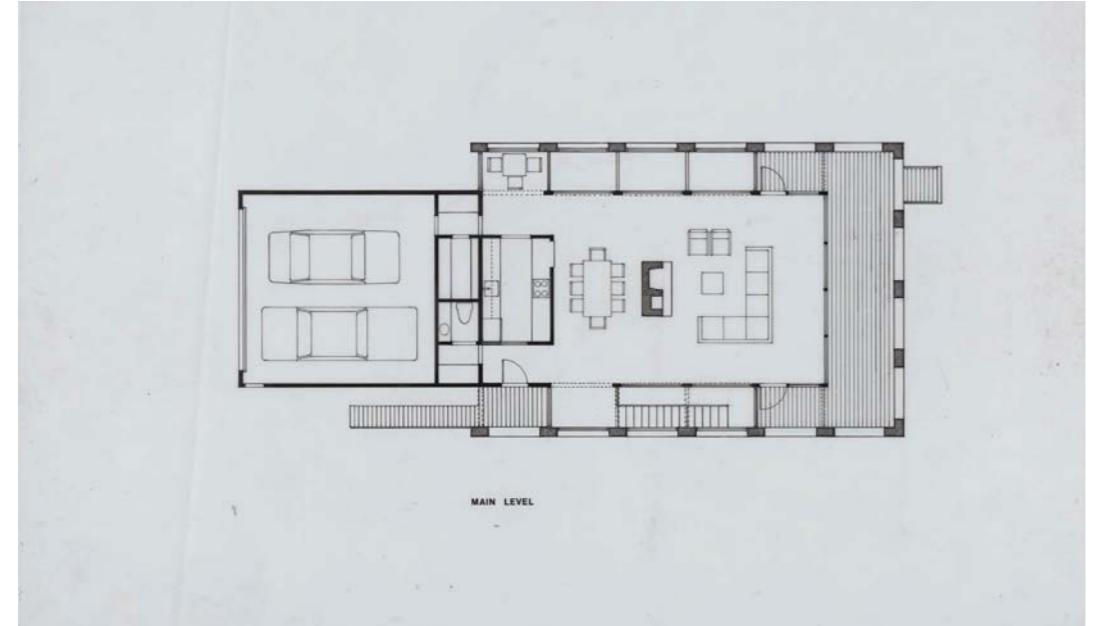
배치도
SITE PLAN

80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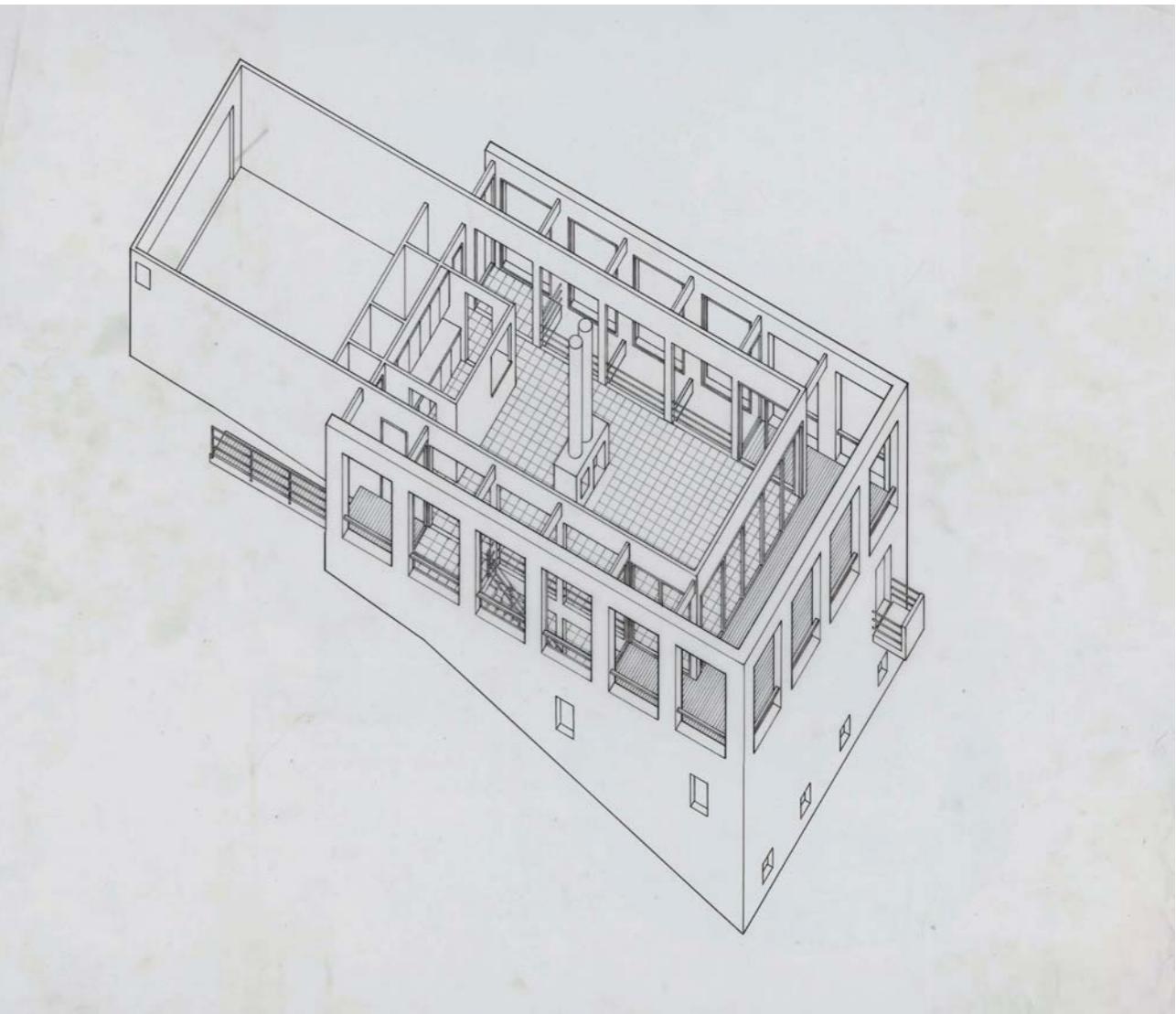
액소노메트릭
AXONOMETRIC



1층 평면도
MAIN LEVEL PLAN
지하층 평면도
LOWER LEVEL PLAN

82

83



김태수 주택
TAI SOO KIM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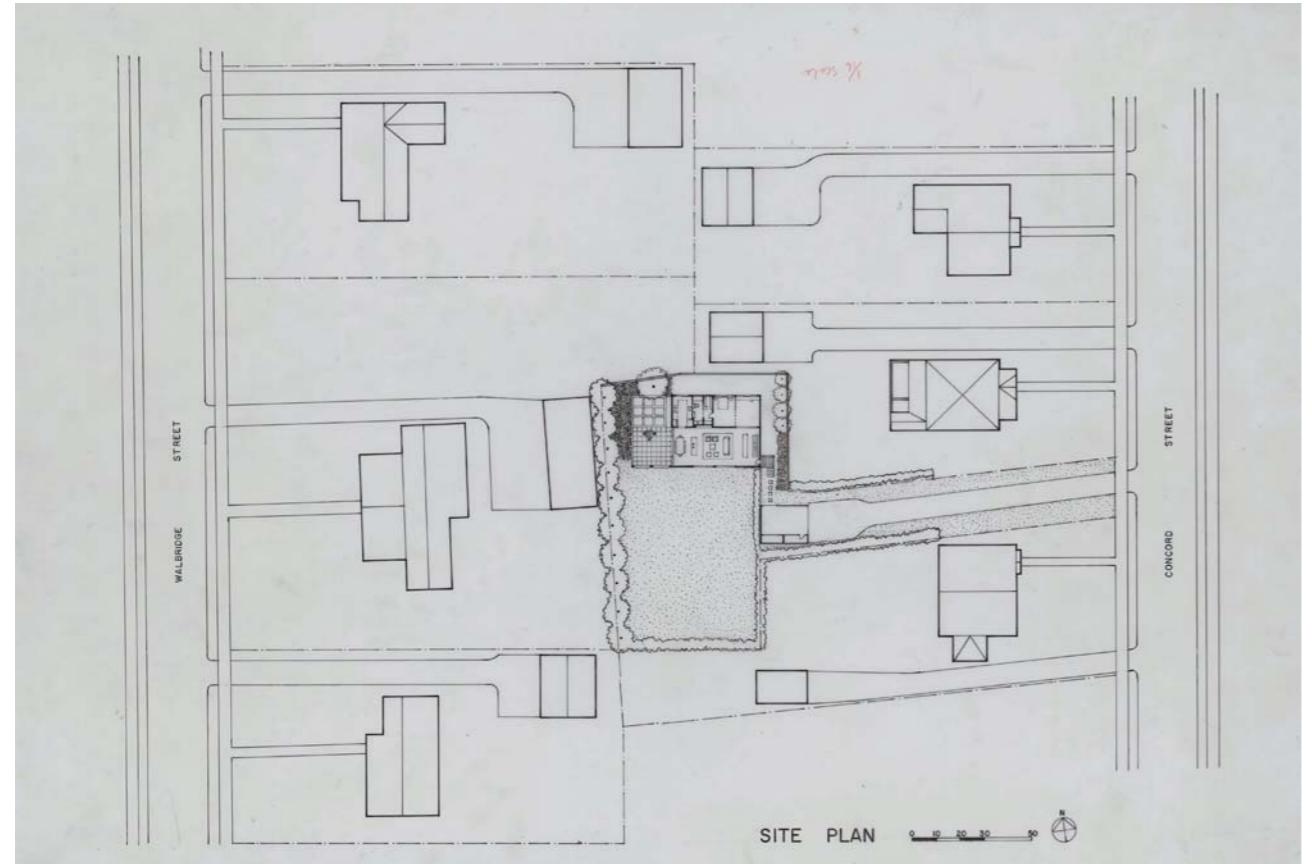
84

85



외부
©NICK WHEE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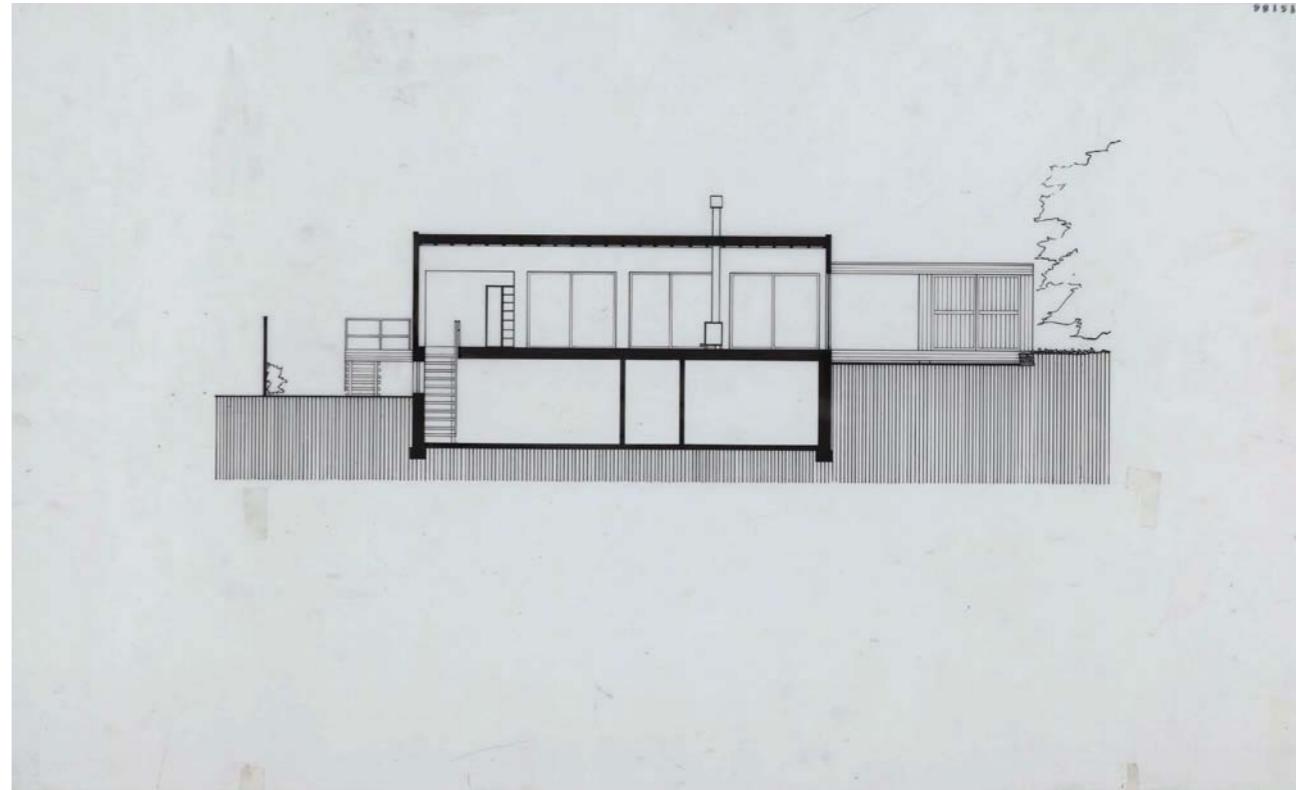
내부
©NICK WHEE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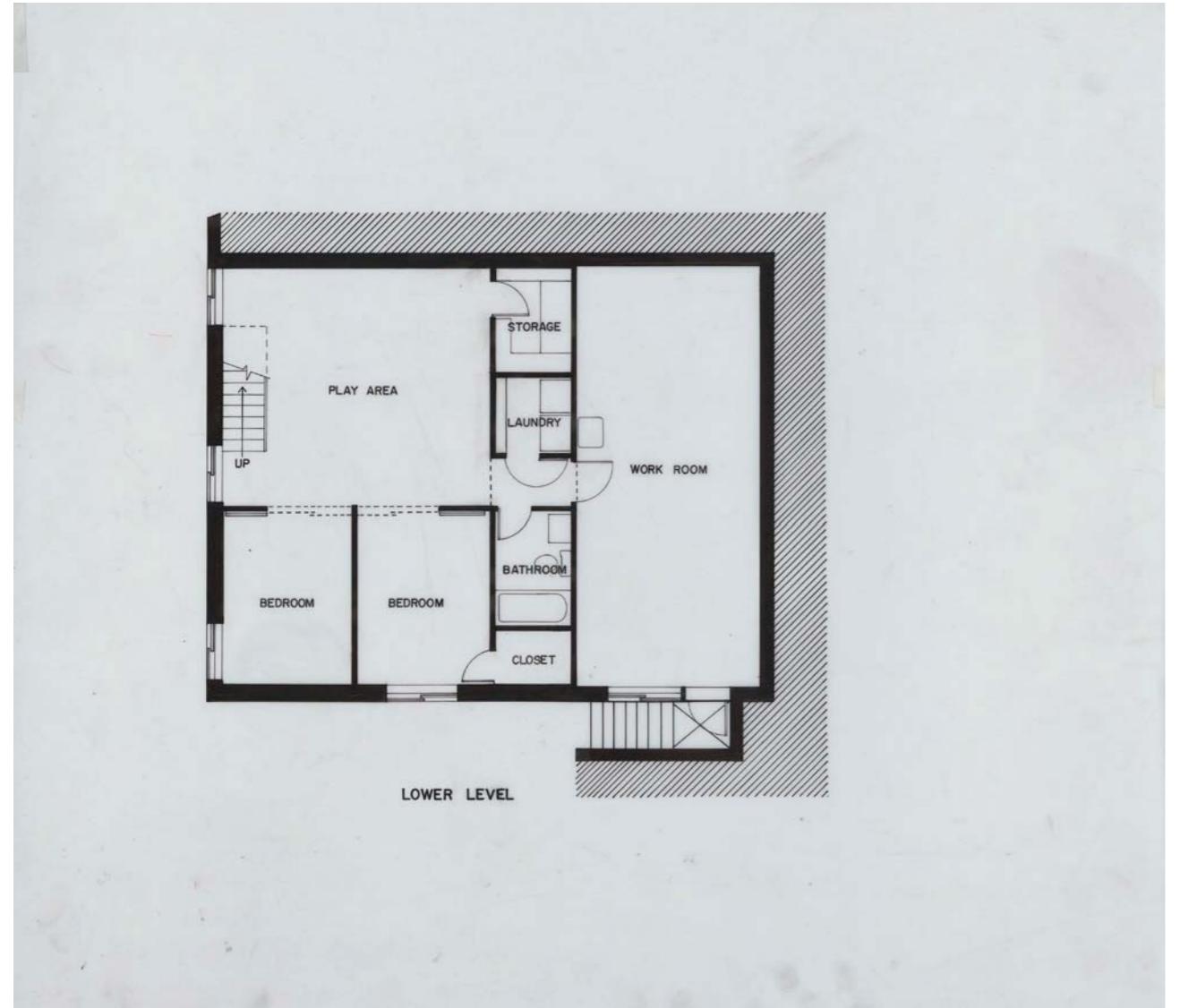
배치도
SITE PLAN

86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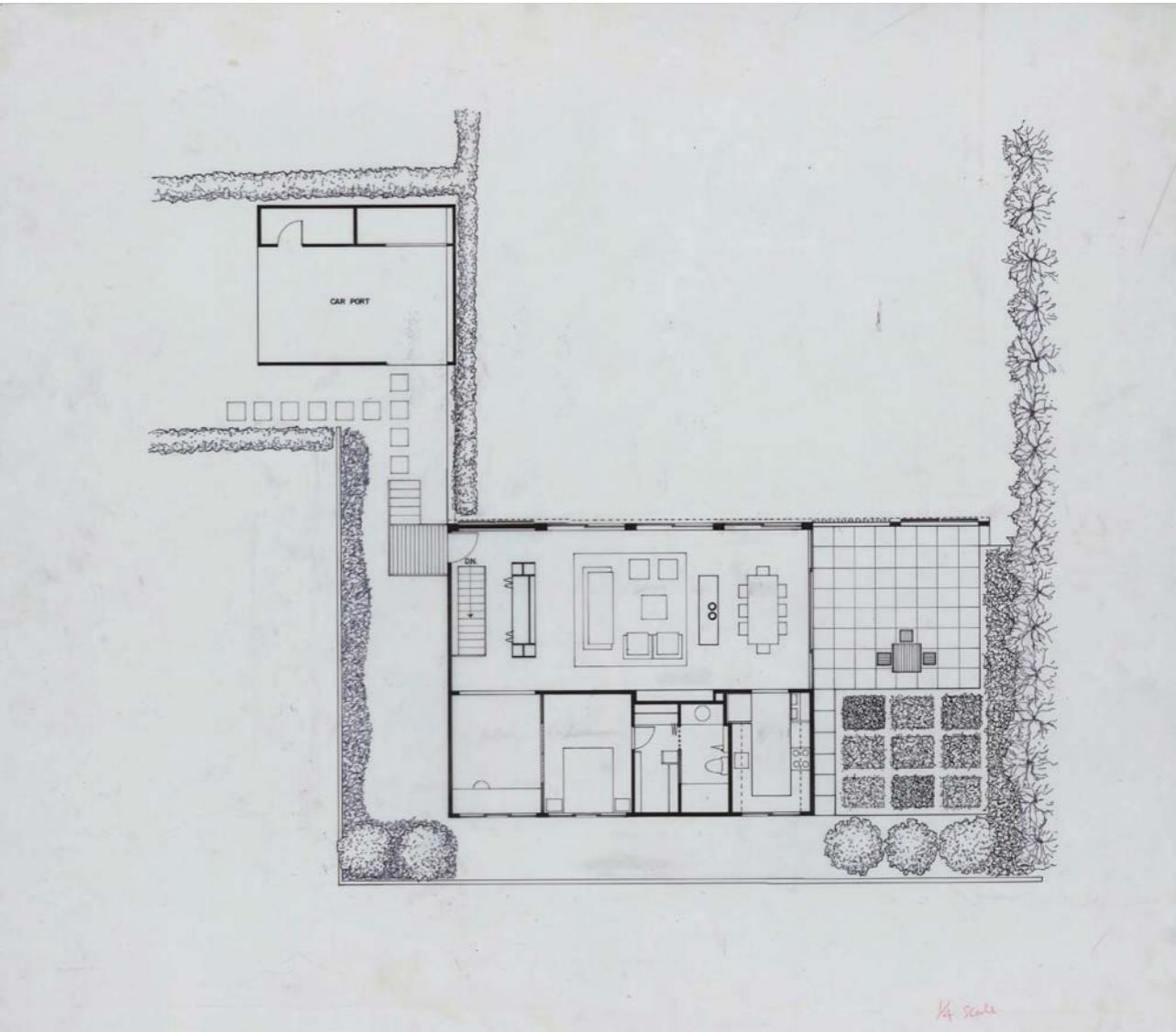


단면도
SECTION



88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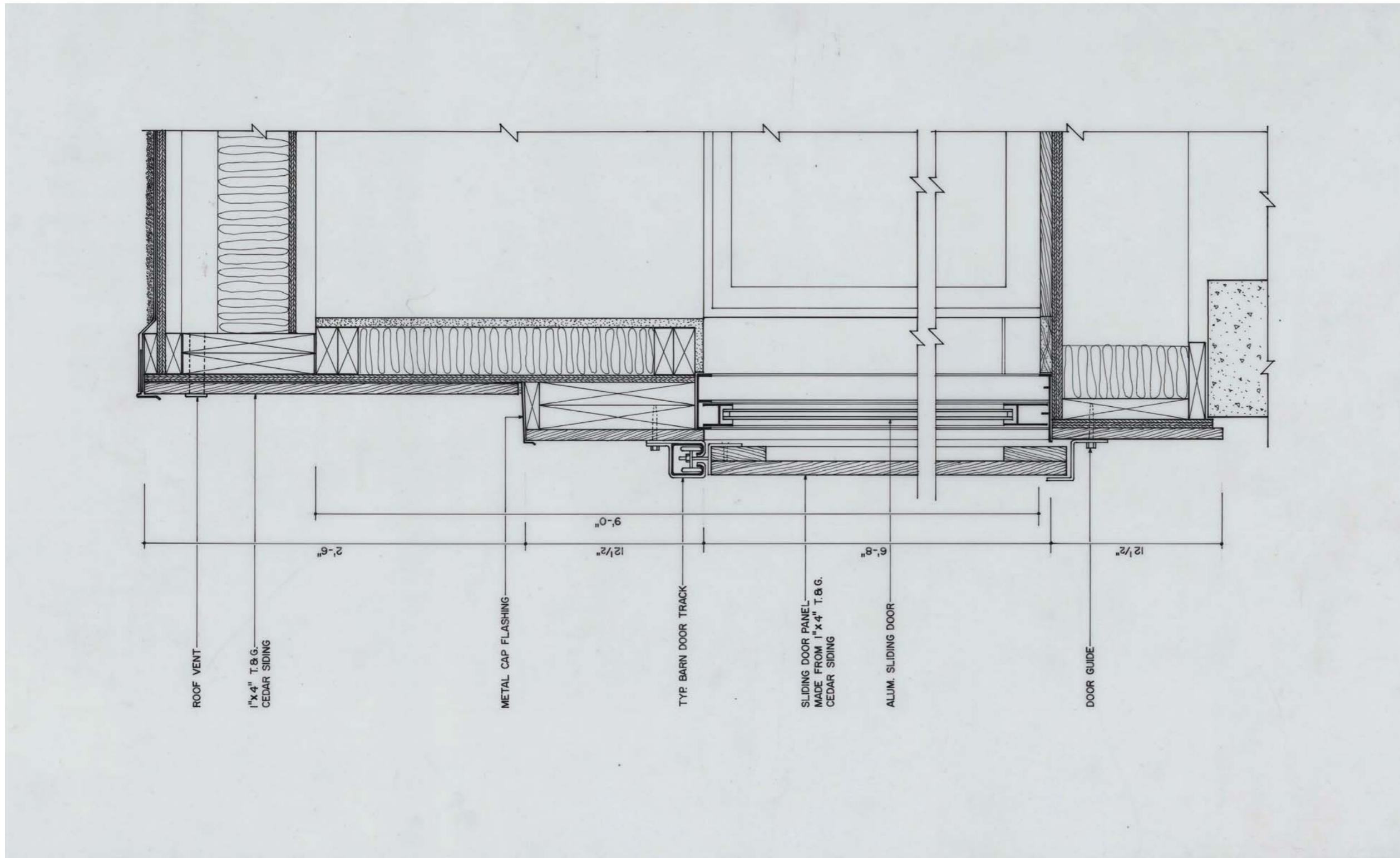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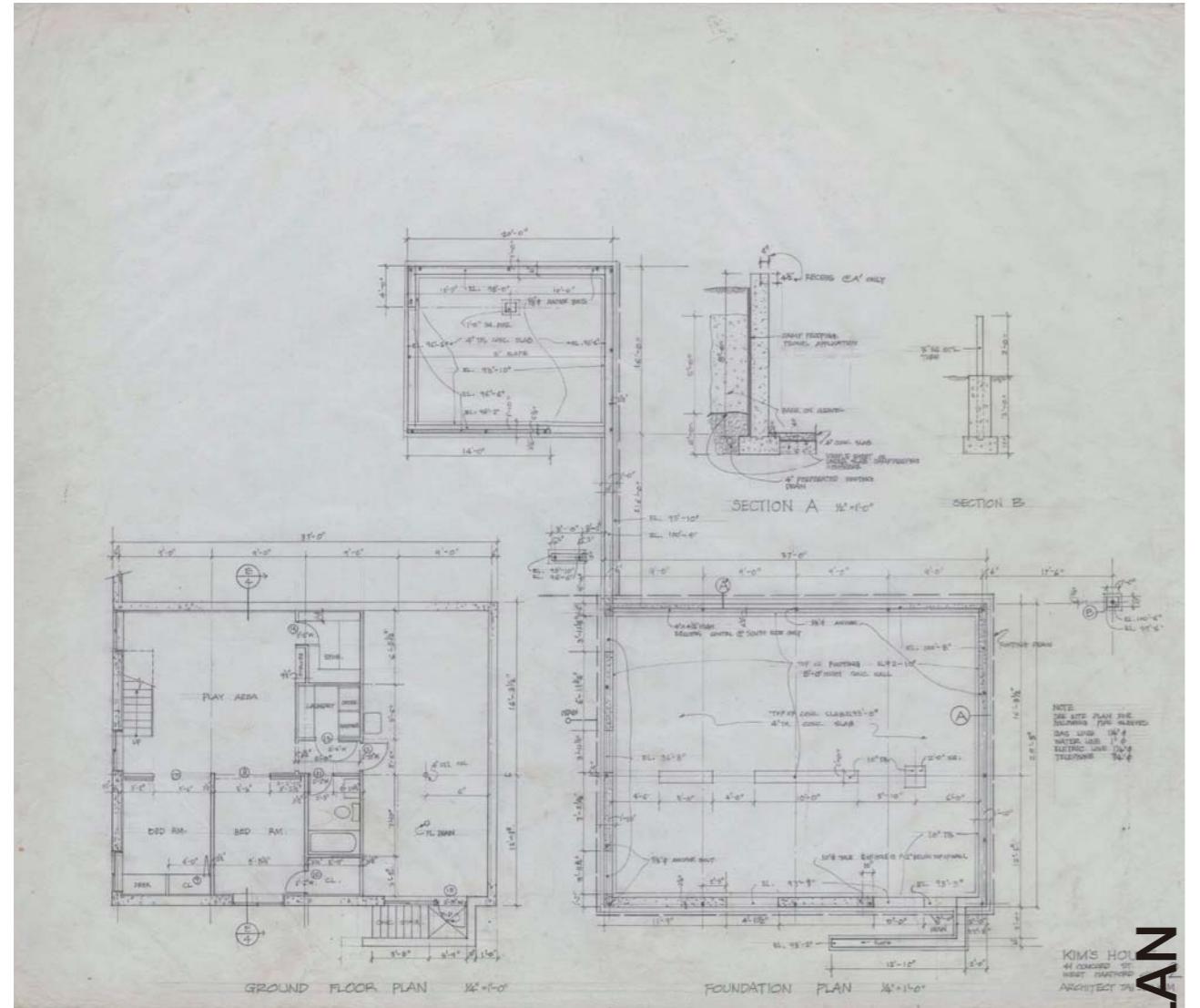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LOWER LEVEL PLAN

1층 평면도
MAIN LEVEL PLAN

90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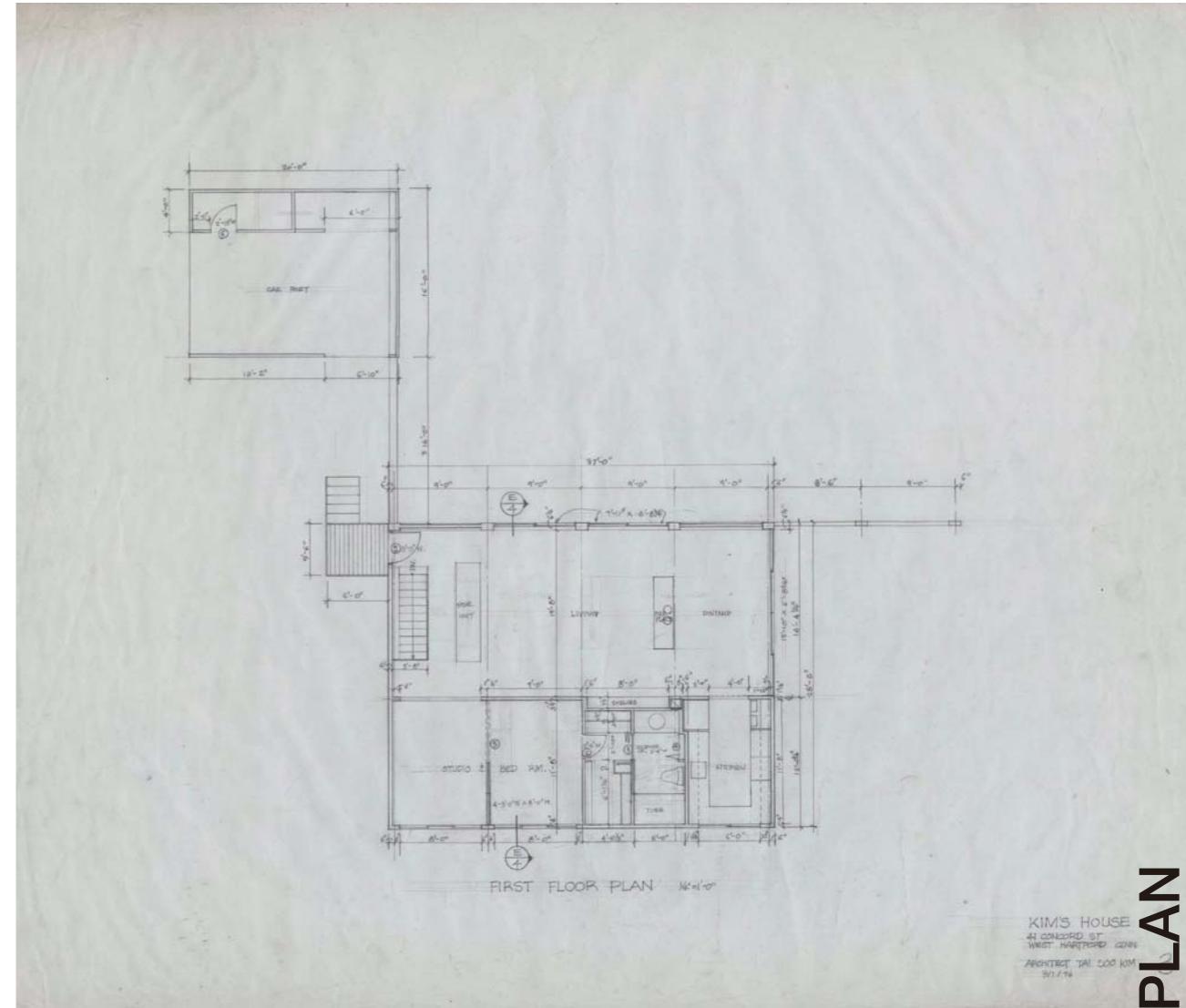




1층 평면 세부도
MAIN LEVEL DETAIL PLAN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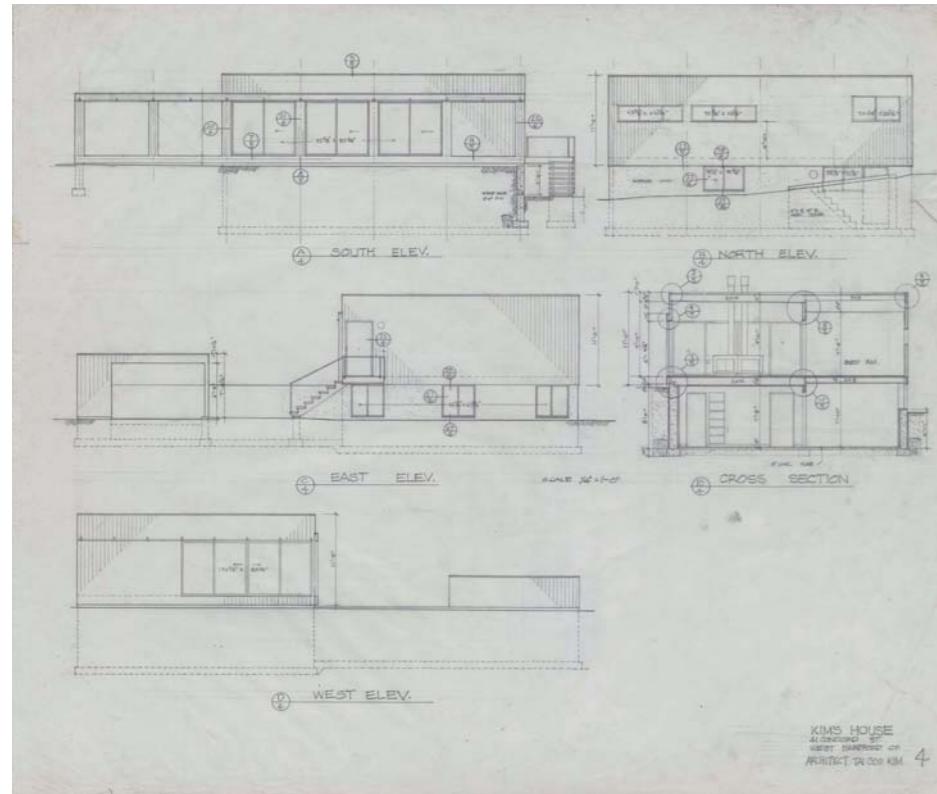
93



지하층 평면 세부도
LOWER LEVEL DETAIL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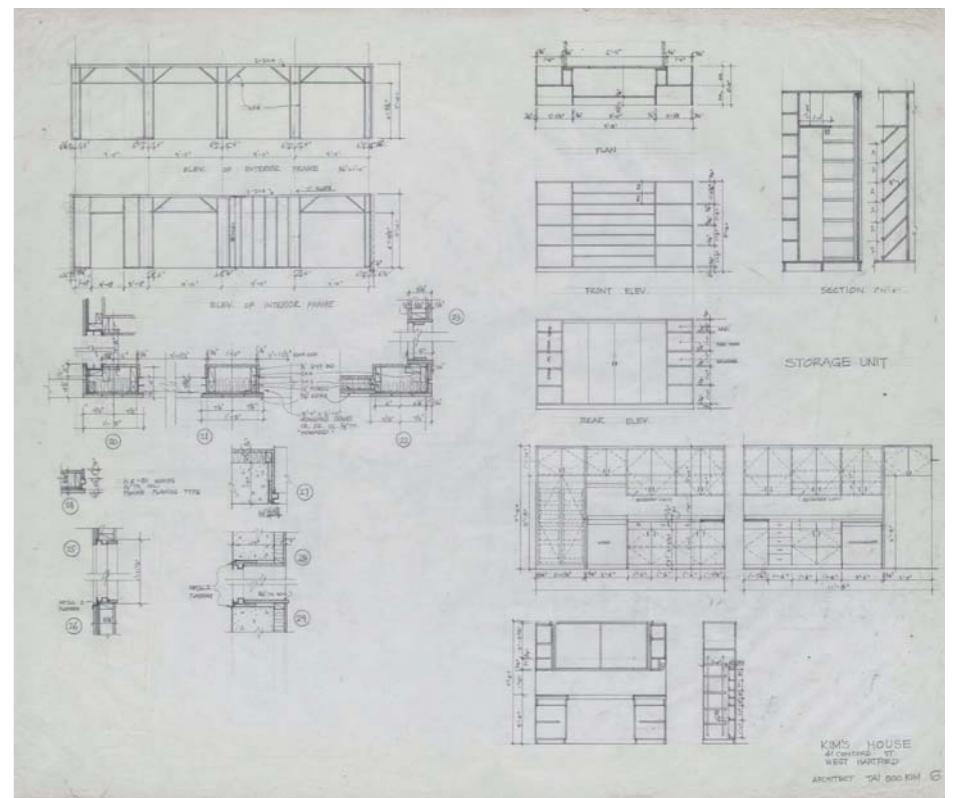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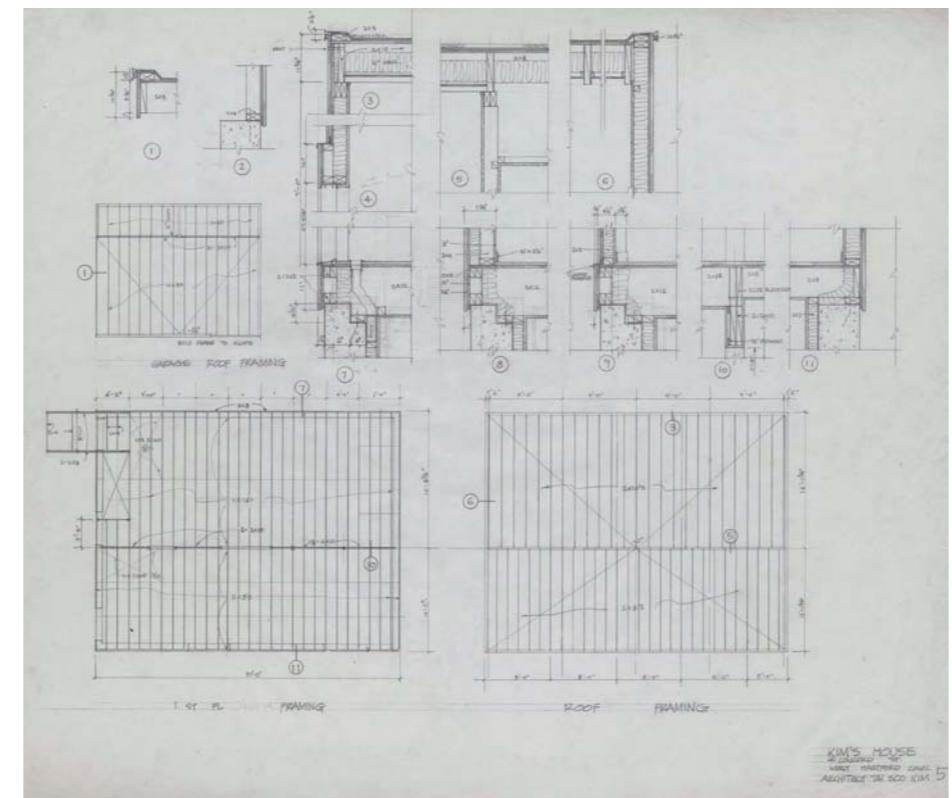
TAI SOO KIM HOUSE

김태수 주택



94

95



상세도
DETAILS

주요작품

- 미들버리 초등학교
- 미국 해군 잠수함 훈련시설
- 그로튼 노인 센터

이 시기 김태수의 작품들이 주택에서 공공건물로 옮겨지기 시작한다. 사무실에서 수행한 초기 프로젝트들이 여러 상을 받게 되며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건축가로 접어든 김태수는 〈미들버리 초등학교〉, 〈미국 해군 잠수함 훈련시설〉, 〈그로튼 노인 센터〉 등의 공공건축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미들버리 초등학교〉의 경우,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의 자연경관과도 잘 조화를 이루면서 본인의 건축언어를 새롭게 시도한 점이 호평 받으며 다양한 매체에 많이 소개되었다.

96

97

1978-1982: Expansion into Public Architecture

The period between 1978 and 1982 is marked by the transition from private houses to public architecture. Receiving a number of awards for his early works, Kim established a reputation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period, Kim was commissioned to design public buildings such as *Middlebury Elementary School*, *U.S. Naval Submarine Training Facility*, and *Groton Senior Center*. In particular, the *Middlebury Elementary School* received a lot of media attention as the building was in harmony with the natural landscape of New England while attempting to present Kim's architectural language in a novel way.

Major Projects

- Middlebury Elementary School
- U.S. Naval Submarine Training Facility
- Groton Senior Center

외부
©STEVEN ROSENTHAL

98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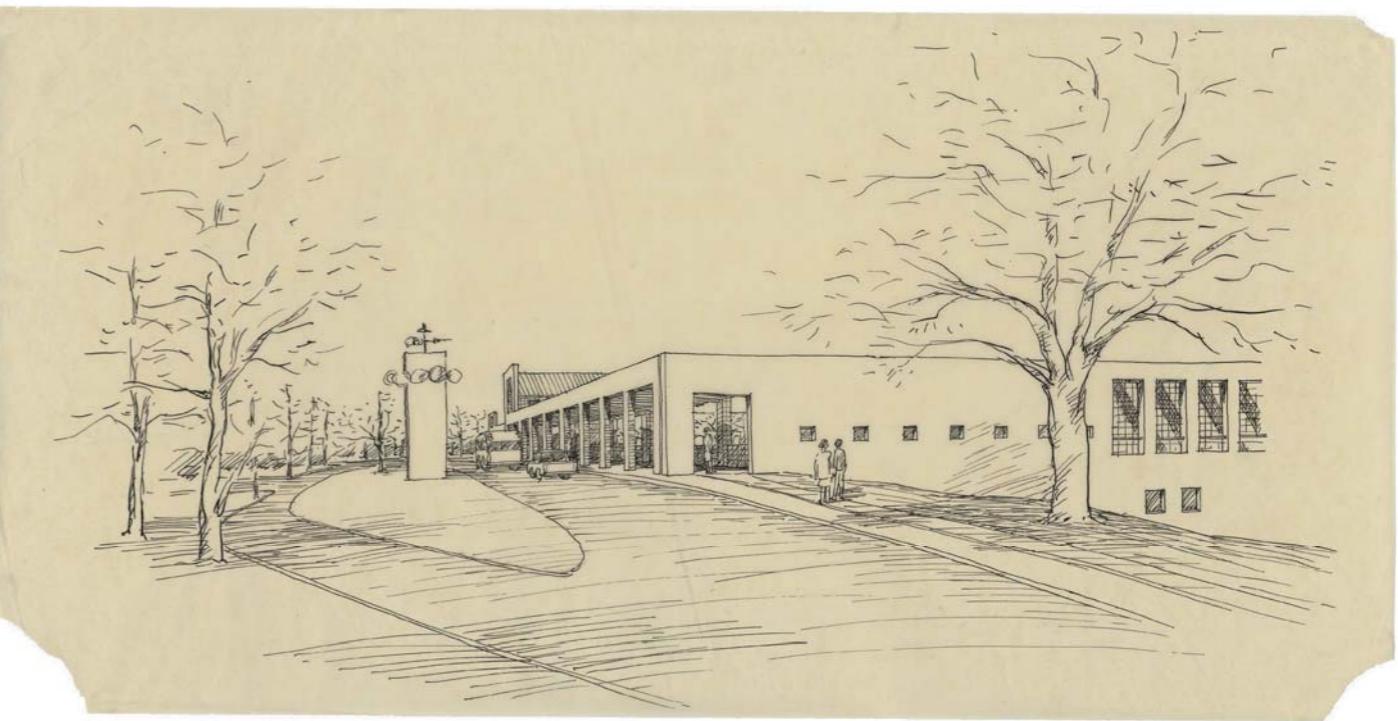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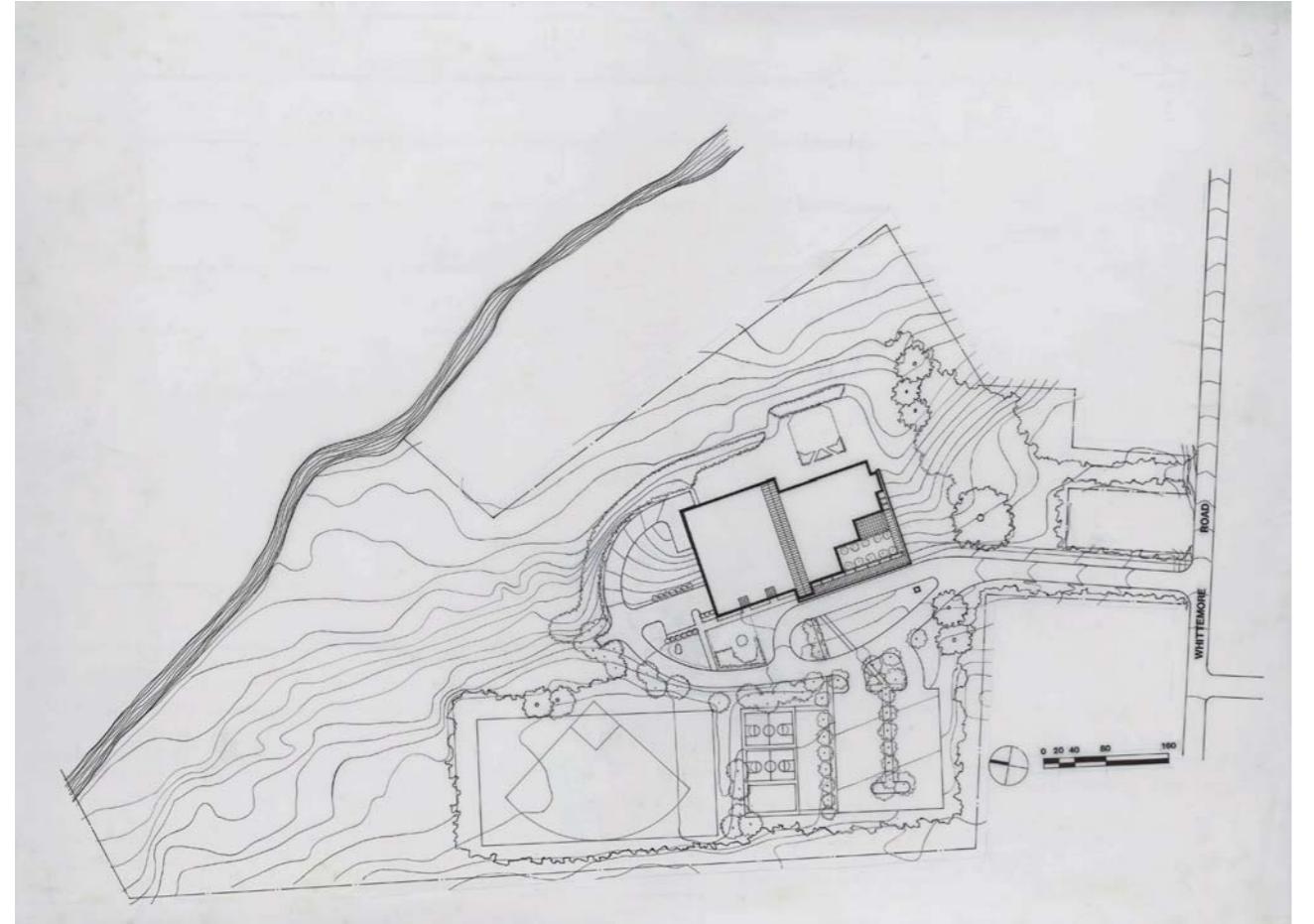
©PETER AARON

100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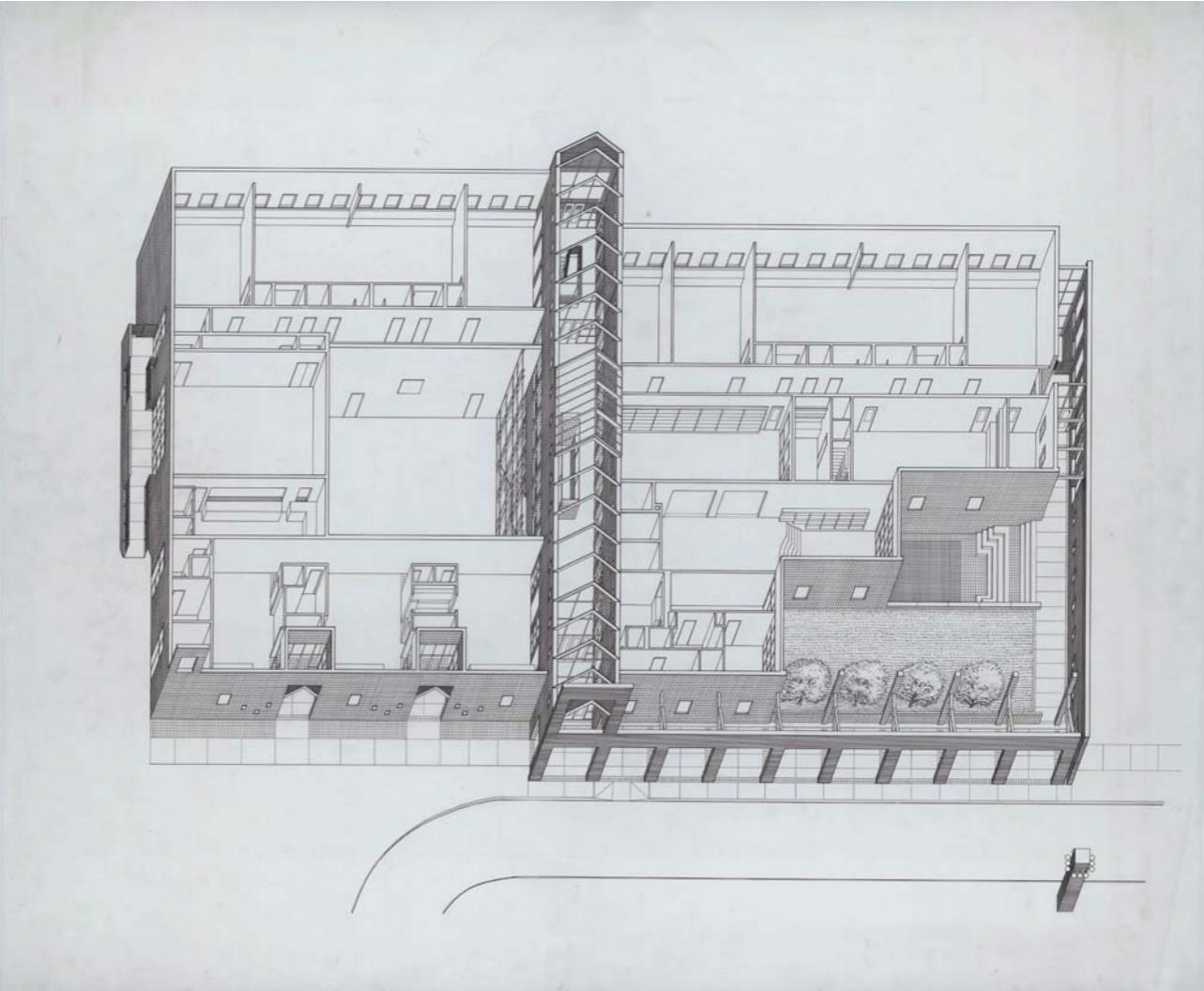
스케치
SKETCH



배치도
SITE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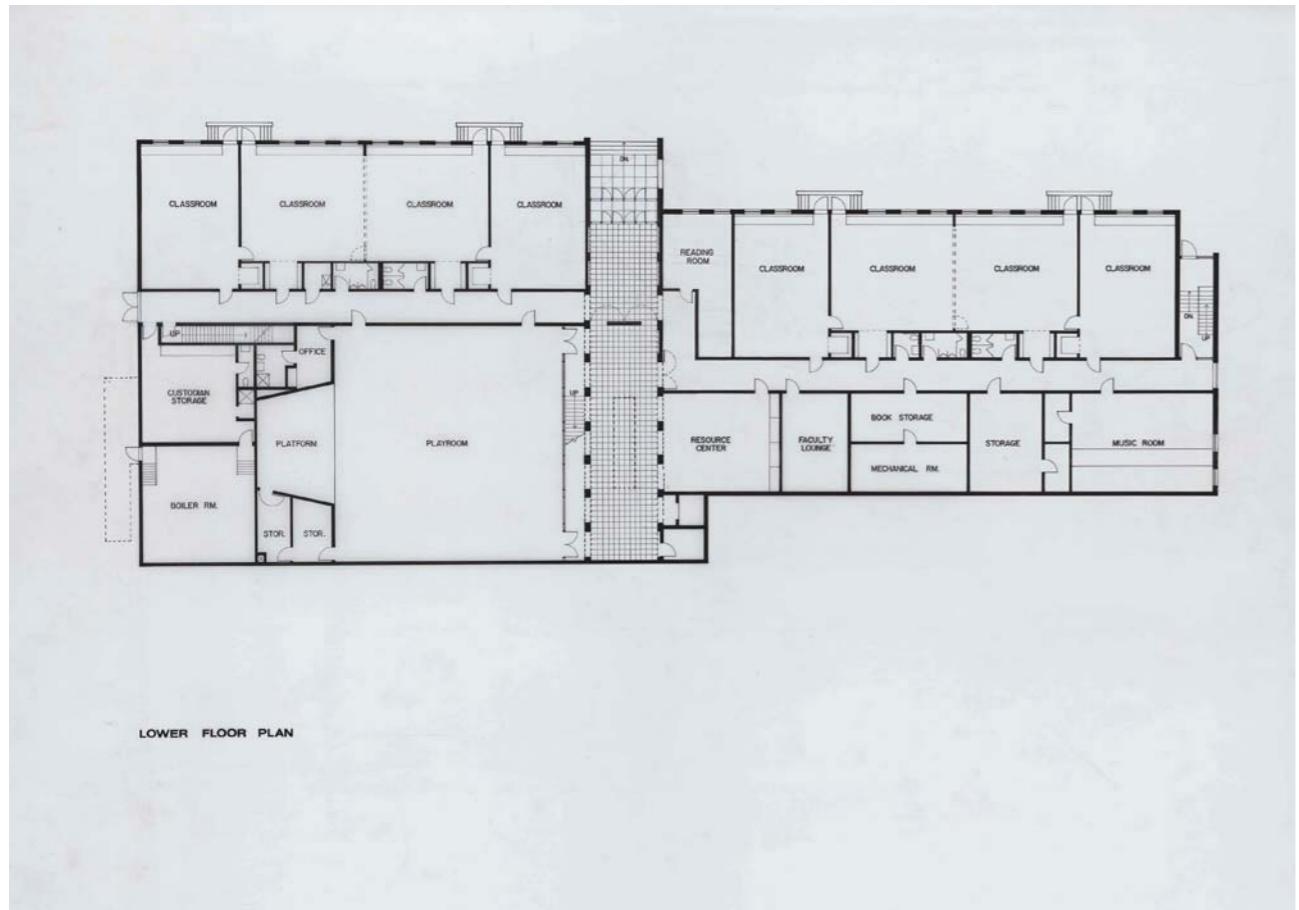
102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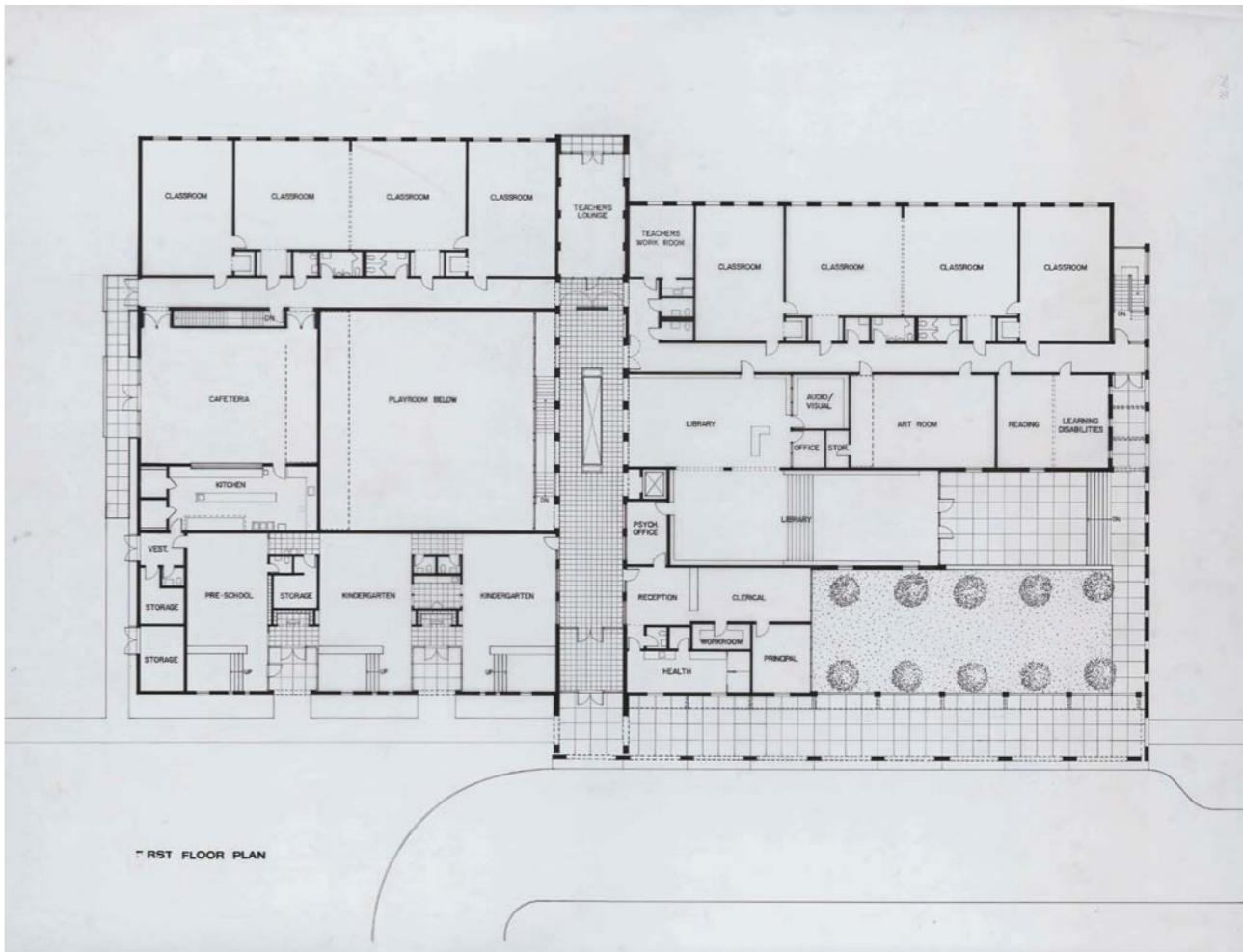
액소노메트릭
AXONOMETRIC

지하층 평면도
LOWER LEVEL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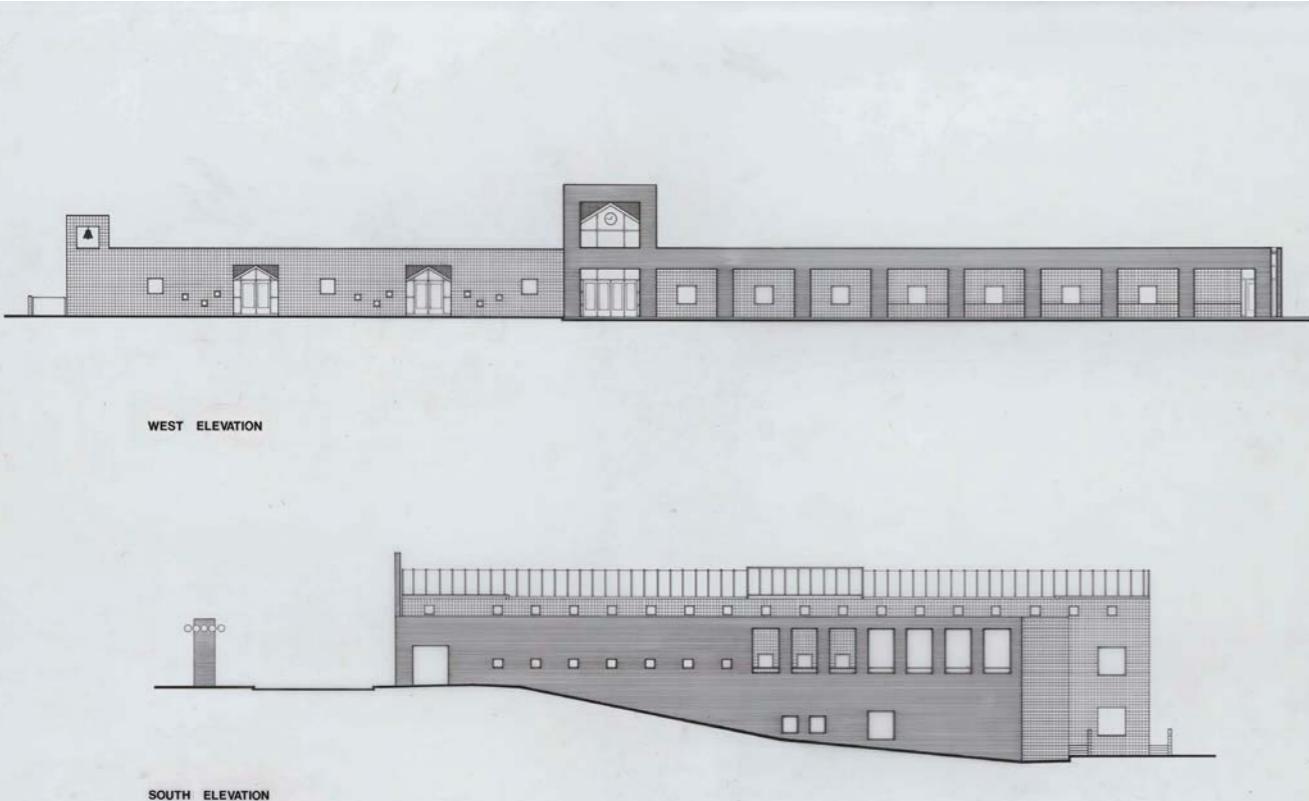


104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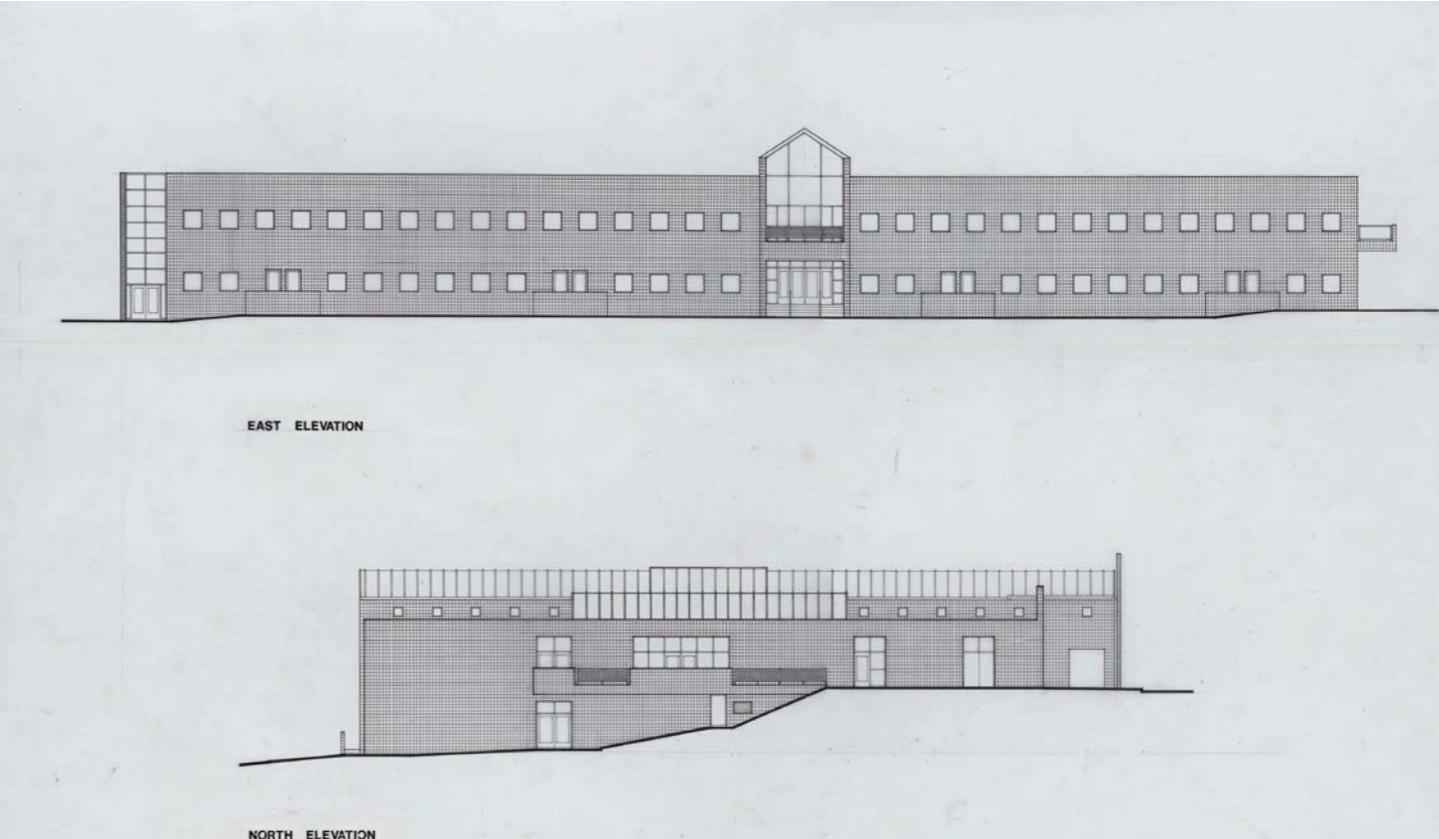


1층 평면도
FIRST FLOOR PLAN



WEST ELEVATION

106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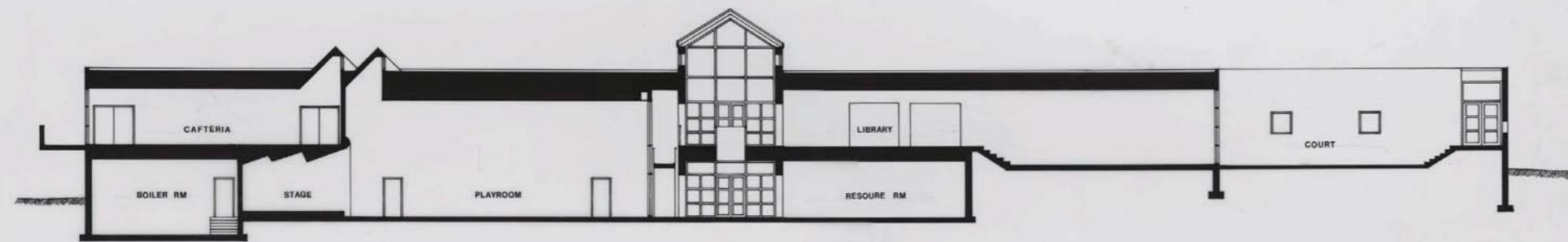
EAST ELEVATION

서쪽 입면도
WEST ELEVATION
남쪽 입면도
SOUTH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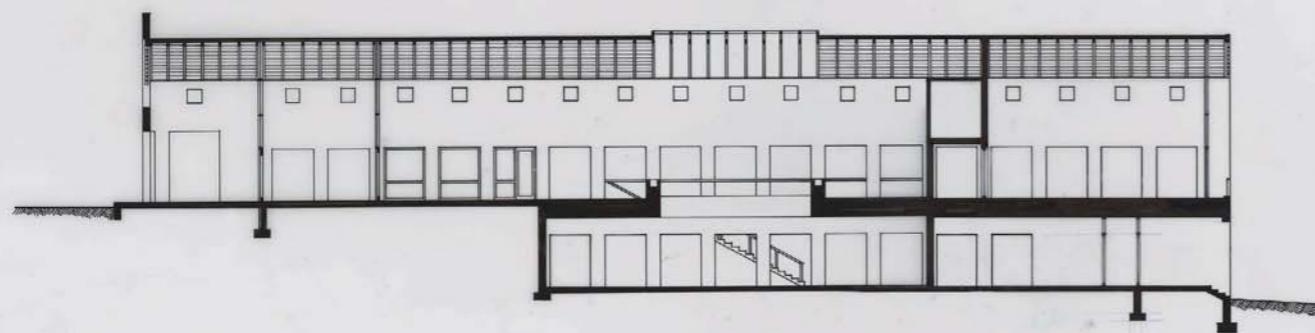
동쪽 입면도
EAST ELEVATION
북쪽 입면도
NORTH ELEVATION

108

109



CROSS SECTION



SECTION THRU GALLERY

단면도
SECTION

미국 해군 잠수함 훈련시설

U.S. NAVAL SUBMARINE TRAINING FAC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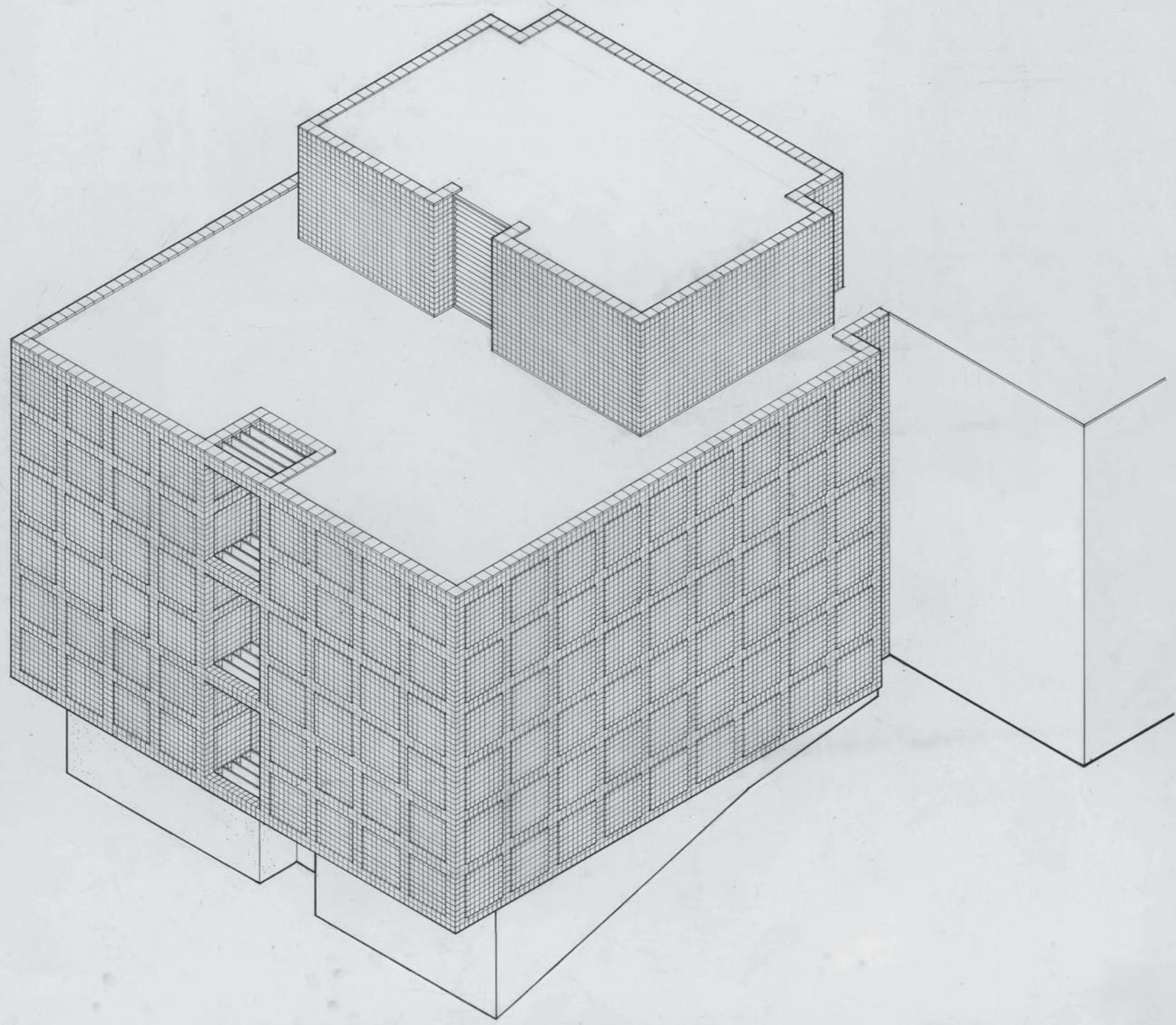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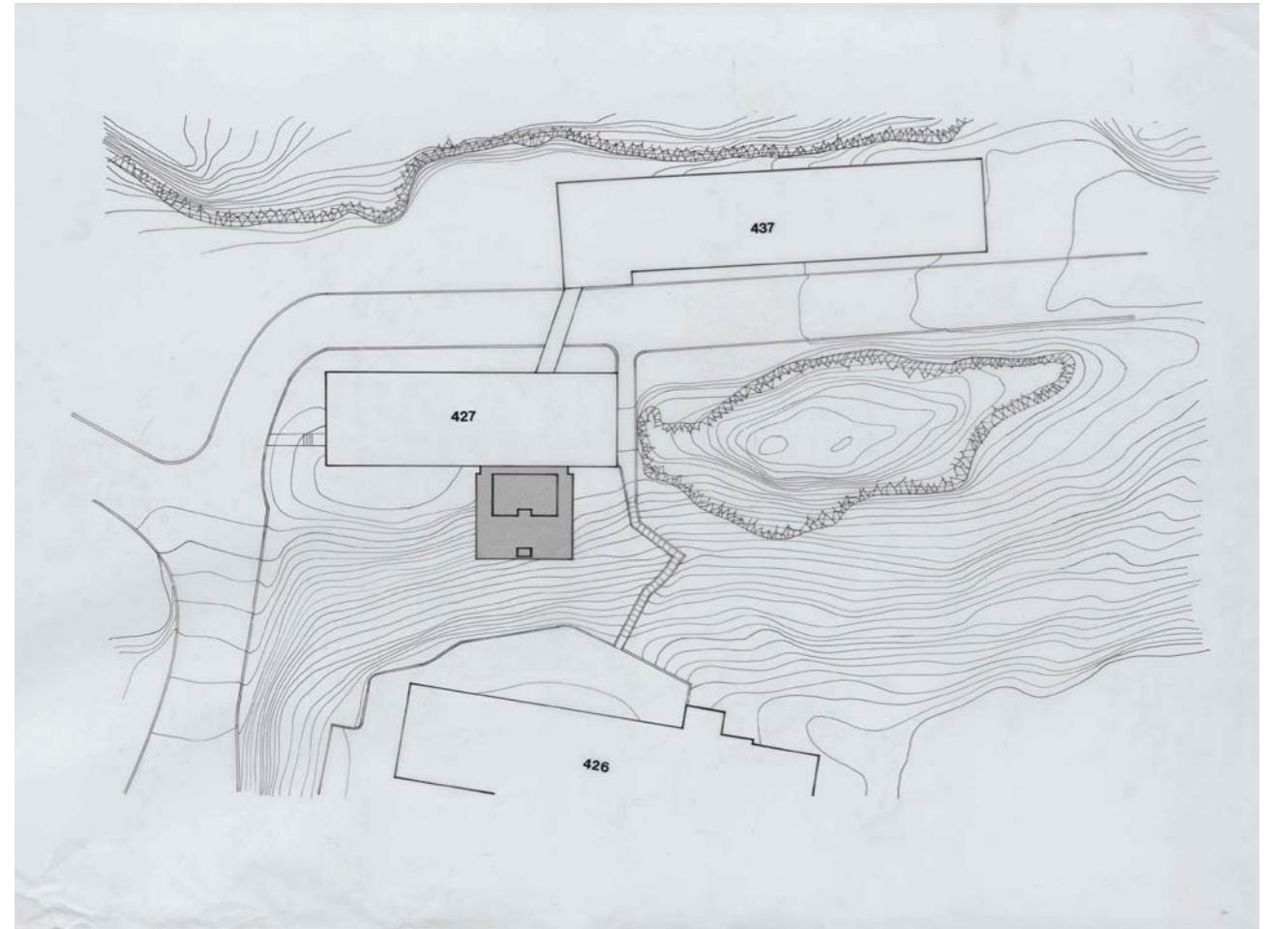
111

외부
©NICK WHEELER

112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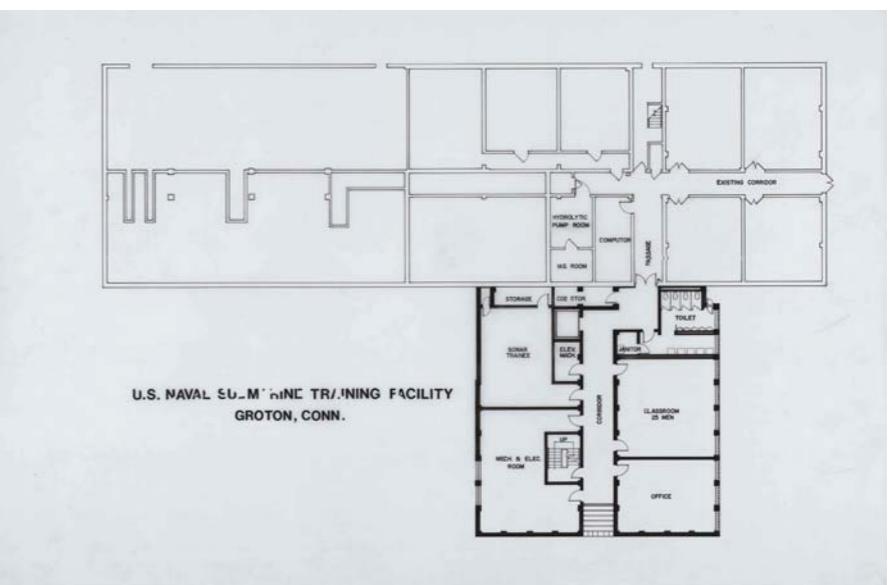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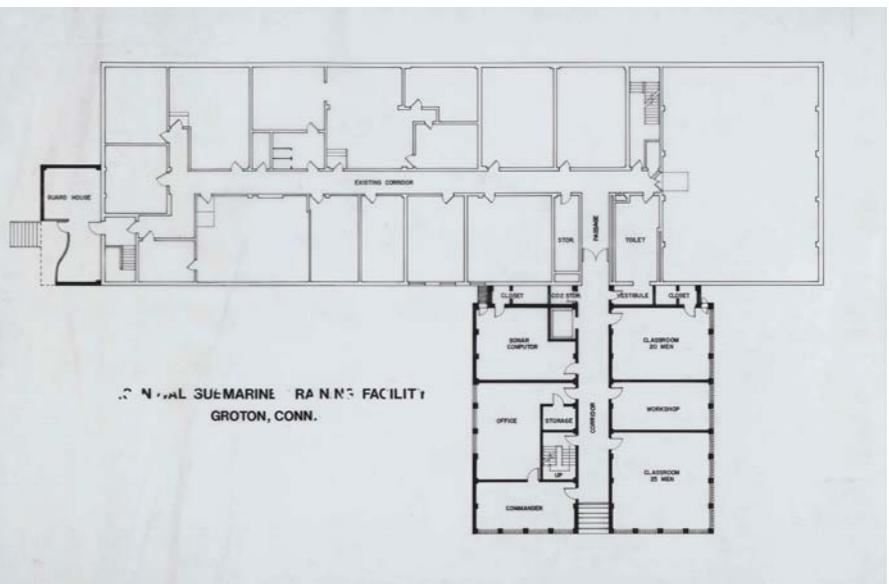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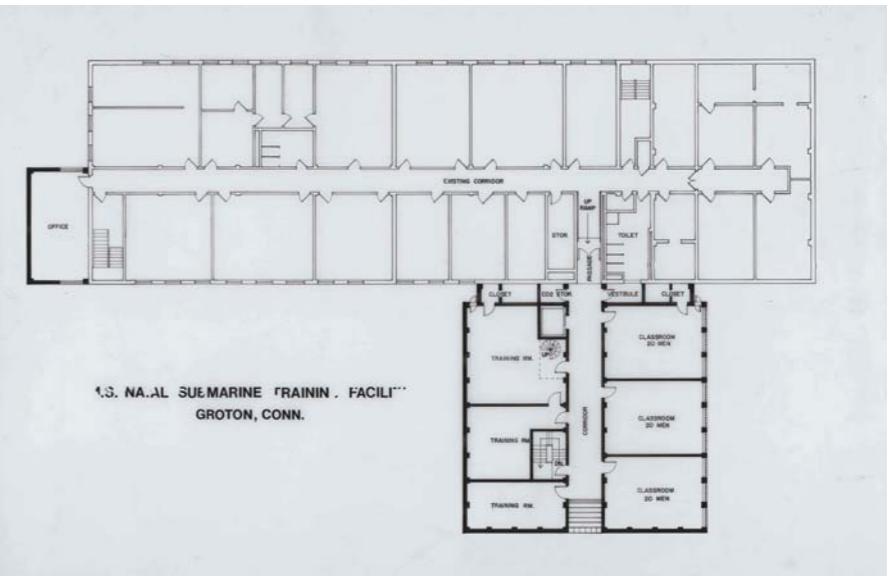


배치도

SITE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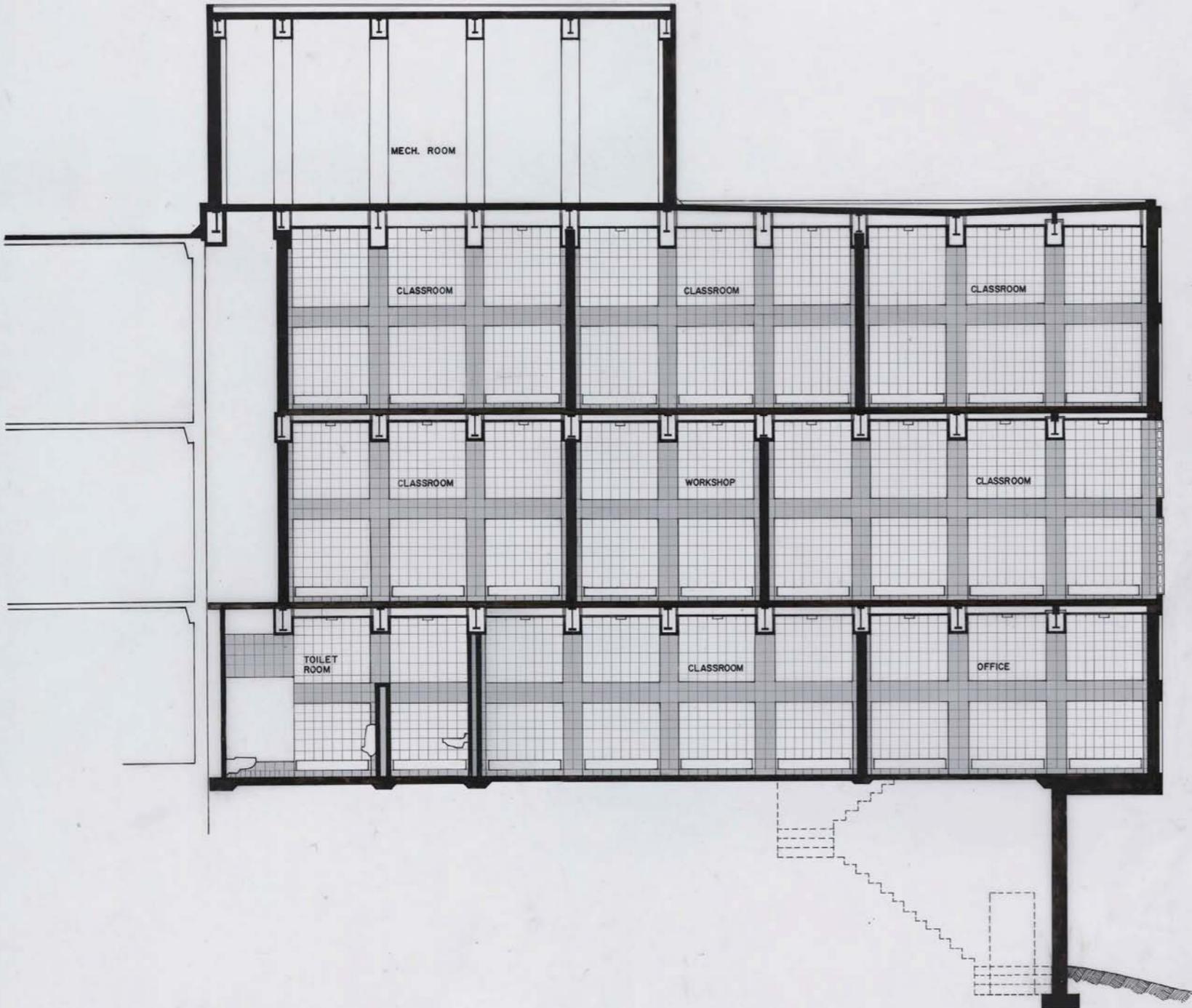
114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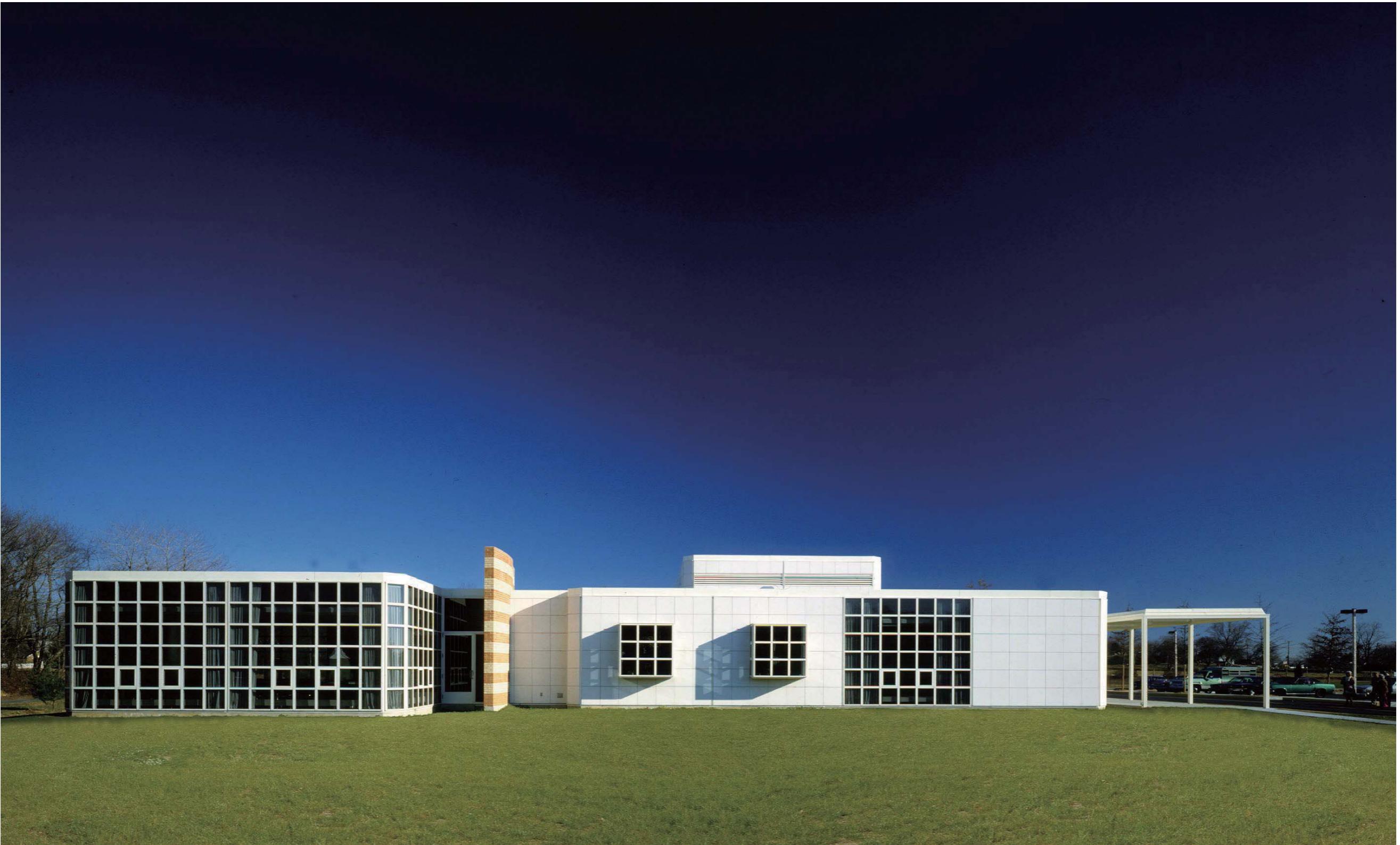
평면도
PLAN

116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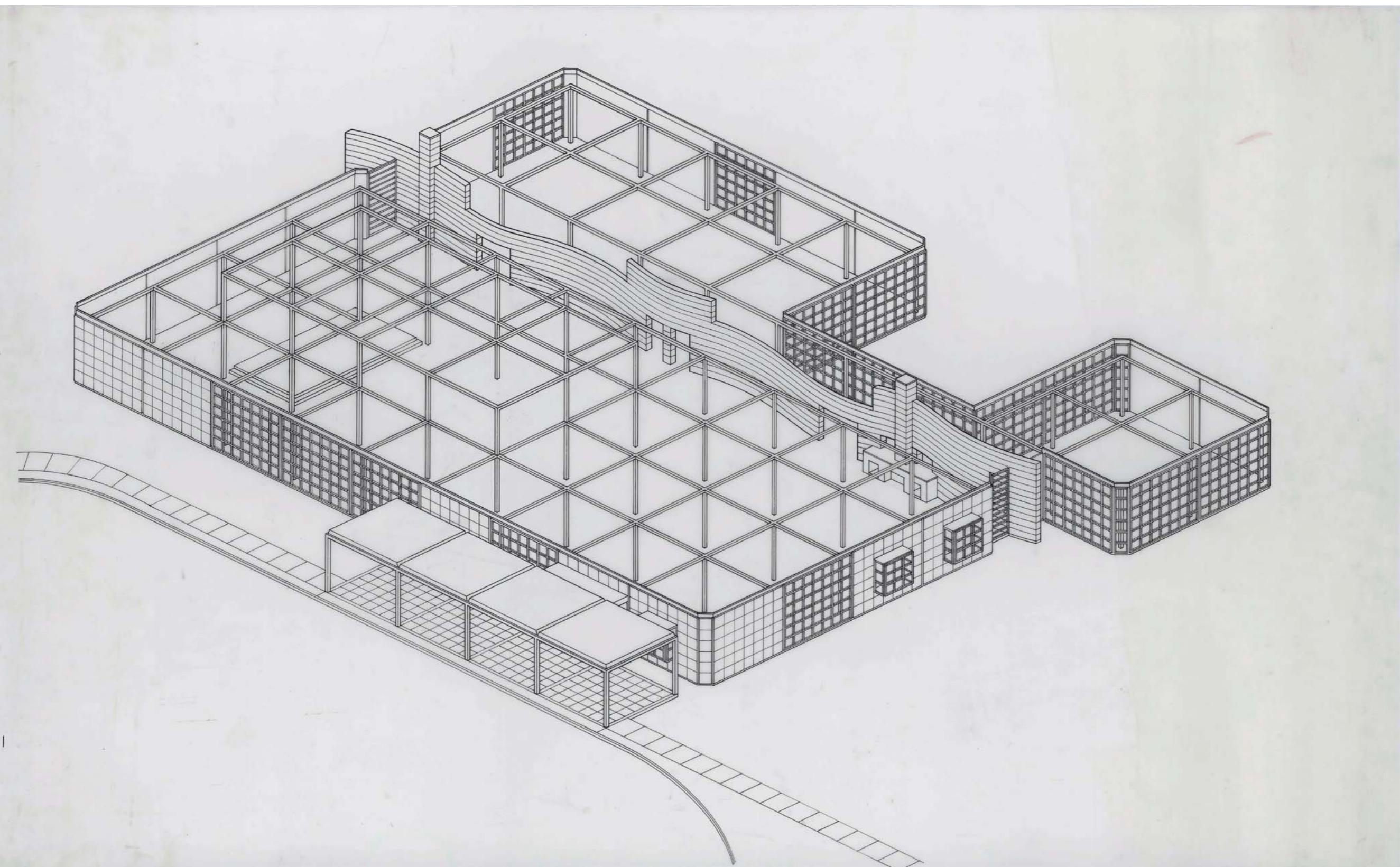
그로톤 노인 센터
GROTON SENIOR CENTER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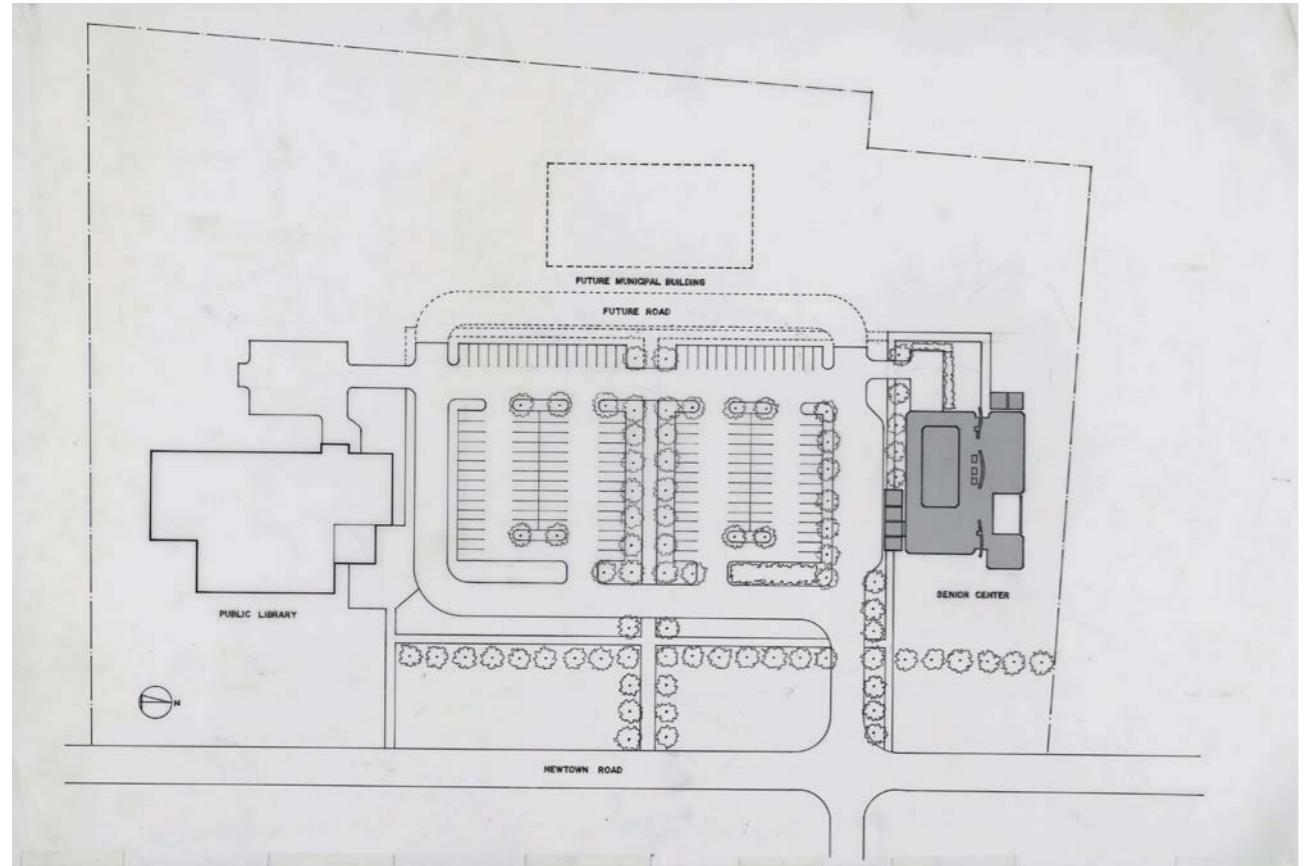
119

외부
©NICK WHEELER



120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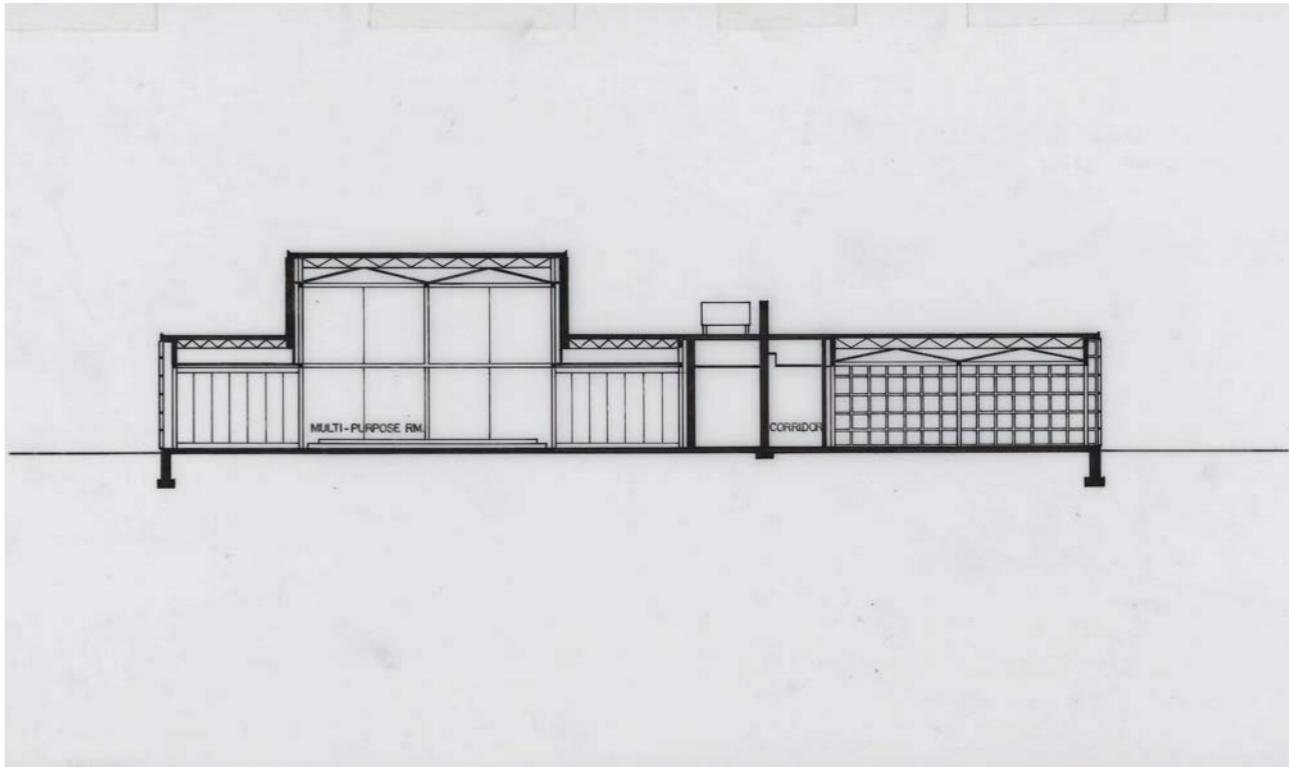


배치도

SITE PLAN

122

123

단면도
SECTION

주요작품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 교보연수원
- 하트포드 대학교 그레이 센터
- 포터 학교 학생회관

김태수의 한국 작품들 중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교보연수원>이 이 시기에 설계되었고, 미국에서는 대학교 및 사립학교 등 대규모 작품들을 설계하였다. 88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서 문화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하게 된 국립현대미술관 프로젝트는 김수근, 윤승중, 김태수 3명의 지명현상으로 설계가 추진되었다. 한국에 들어와 설계안을 제출하기 전 김태수는 아버지의 고향이자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경남 함안을 비롯하여 수원성, 부석사 등을 답사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미술관 설계를 담당하면서 한국을 자주 오가게 되었는데, 이 무렵 교보생명 창업자를 통해 또 다른 대표작인 <교보연수원>을 의뢰받아 천안에 설계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프로젝트들이 미국의 건축 잡지들을 통해 소개되면서 그는 미국에서도 대규모 설계 프로젝트들을 맡기 시작했다. 특히 대학교와 사립학교 등으로부터 많은 일을 의뢰받게 되었는데 <하트포드 대학교 그레이 센터>, <포터 학교 학생회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시기에 김태수는 미국 건축가 협회로부터 펠로우로 선정된다.

124

125

1983-1992: Major Projects in Korea and Large-scale Projects in the United States

Tai Soo Kim designed MMCA Gwacheon and Kyobo Life Insurance Training Center during the period between 1983 and 1992. The two buildings are representative projects among his projects in Korea. At the same time, Kim was commissioned to design large-scale projects in the United States such as university and school buildings. The MMCA Gwacheon project was initiated by the need to establish a cultural facility with the hosting of the 1988 Summer Olympics in Seoul. The architect for the project was selected by an invited competition among Kim Swoo Geun, Yoon Seung Joong, and Tai Soo Kim. Before submitting his final proposal for the project, Kim made field trips to Haman-gun in Gyeongsangnam-do, the hometown of his father and a place where he spent his childhood, Hwaseong Fortress in Suwon, and Buseoksa Temple. After he was selected as an architect of the first national museum to present contemporary art, Kim frequently visited Korea, which led to another project in the country. The founder of Kyobo Insurance commissioned him to design the training center of the company in Cheonan. In addition, the projects in Korea were introduced in architecture magazines in the United States. This also led to a number of commissions from universities and private schools. *Harry Jack Gray Center at the University of Hartford* and the *Student Recreation Center at Miss Porter's School* were among such commissioned projects. It was during this period that Kim was named a fellow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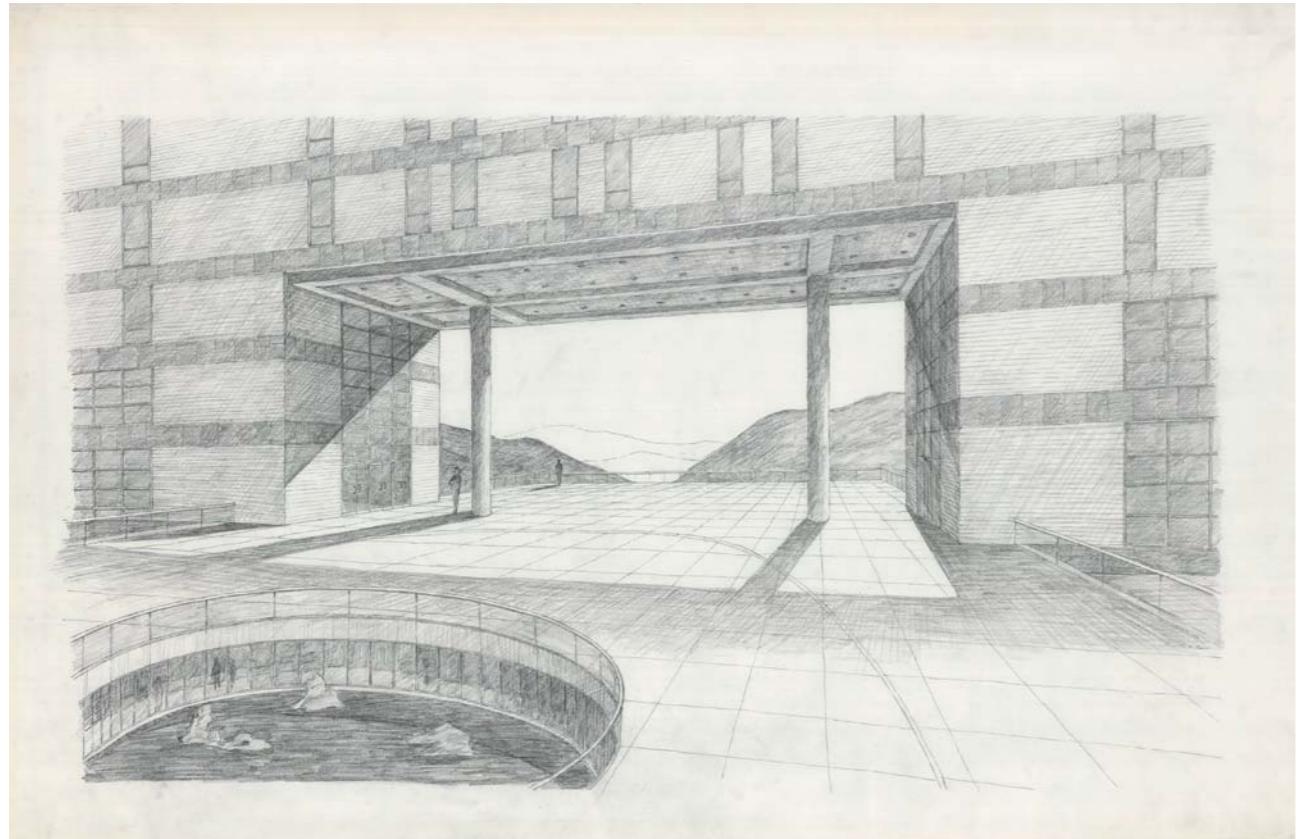
Major Projects

- MMCA Gwacheon
- Kyobo Insurance Training Center
- Harry Jack Gray Center, University of Hartford
- Student Recreation Center, Miss Porter's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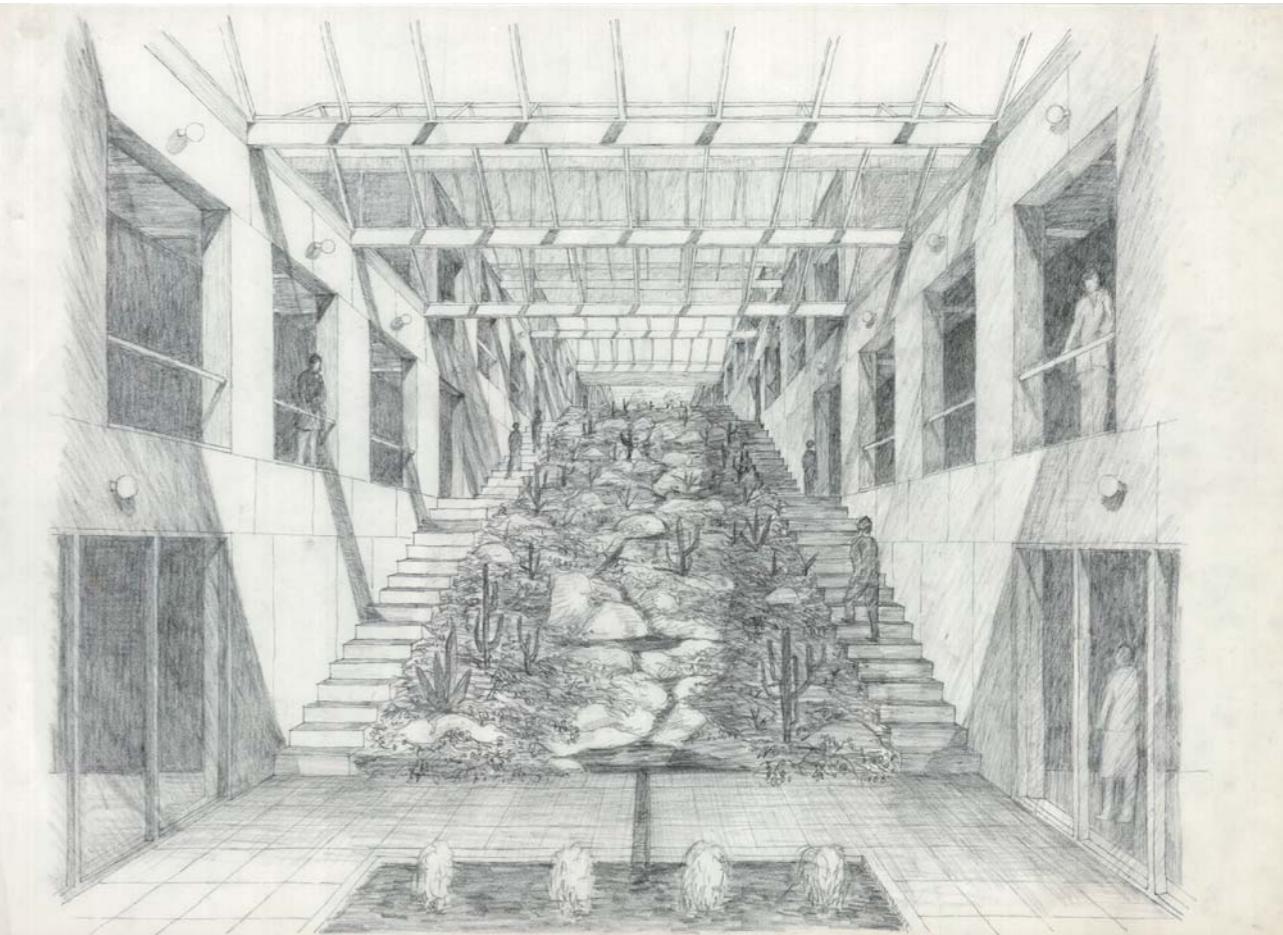
126

127



128

129



스케치
SKETCH

스케치
SKETCH

130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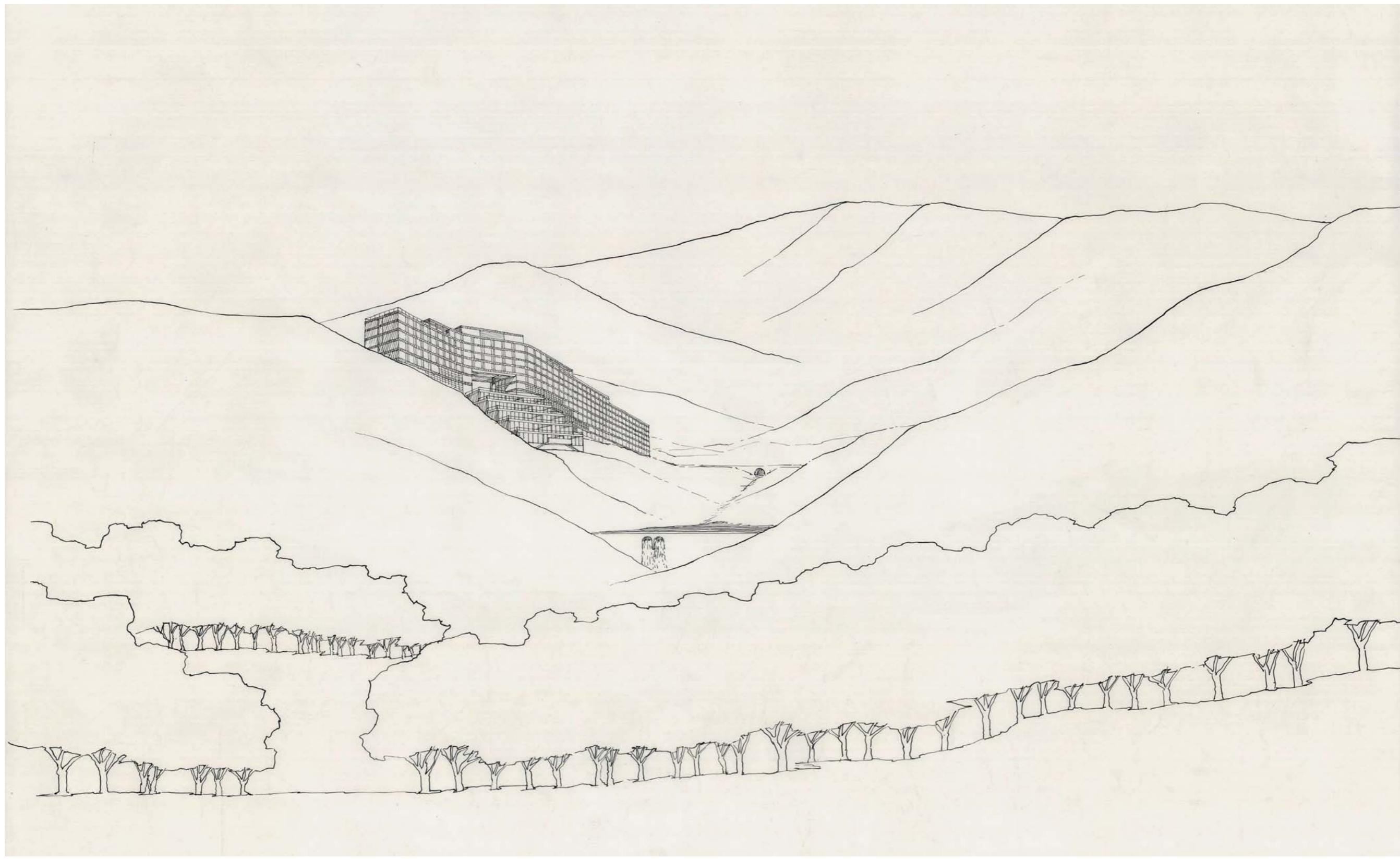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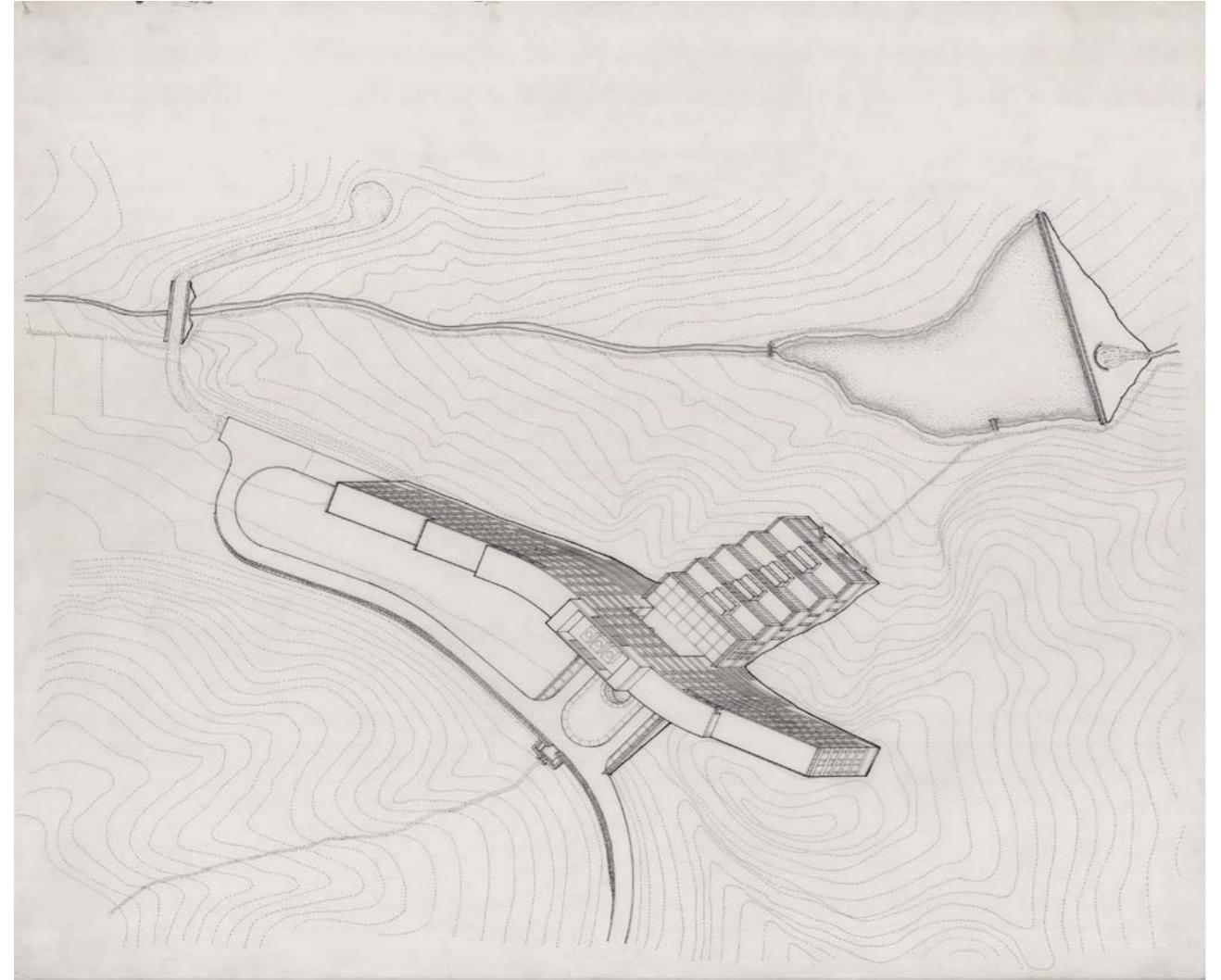
배치도

SITE PLAN

132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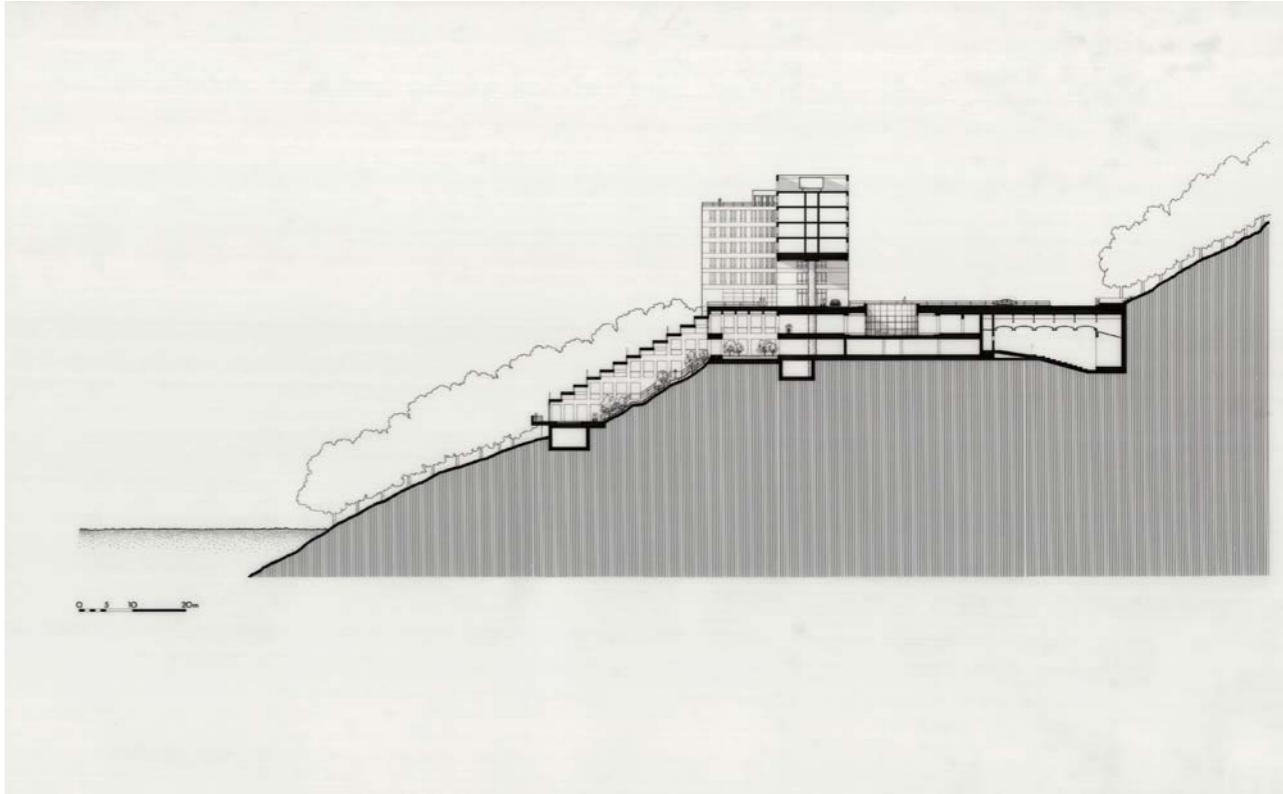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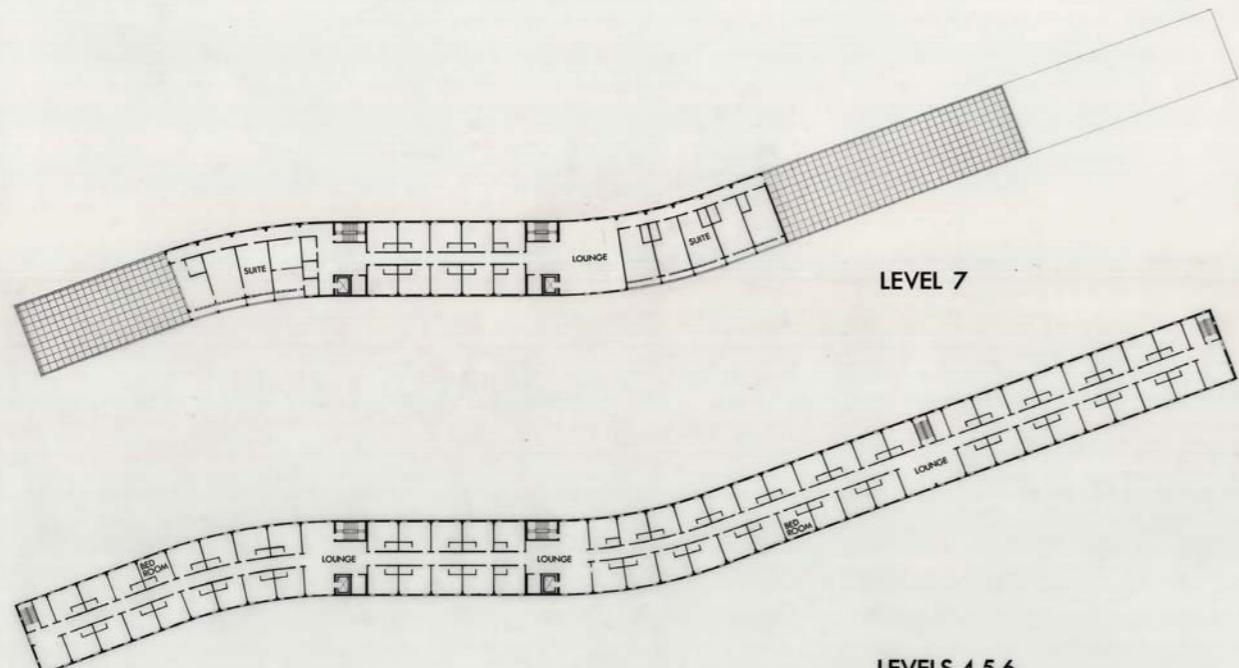
134

135

액소노메트릭
AXONOMET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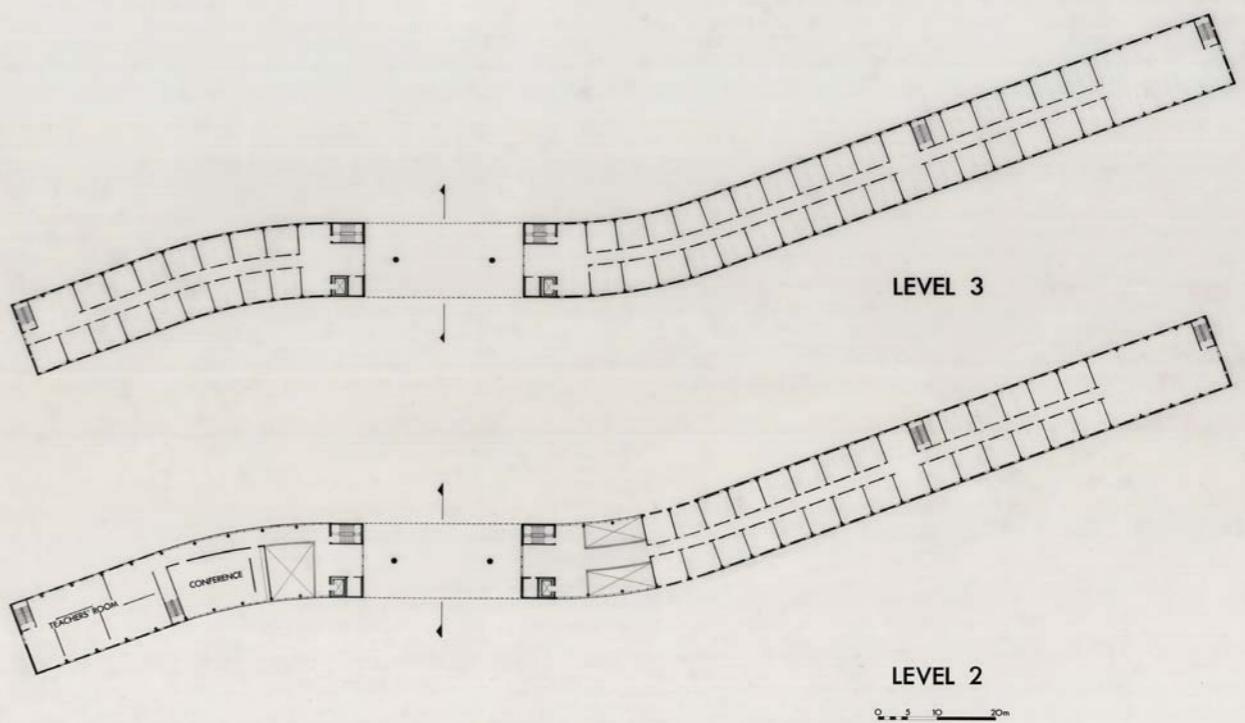


단면도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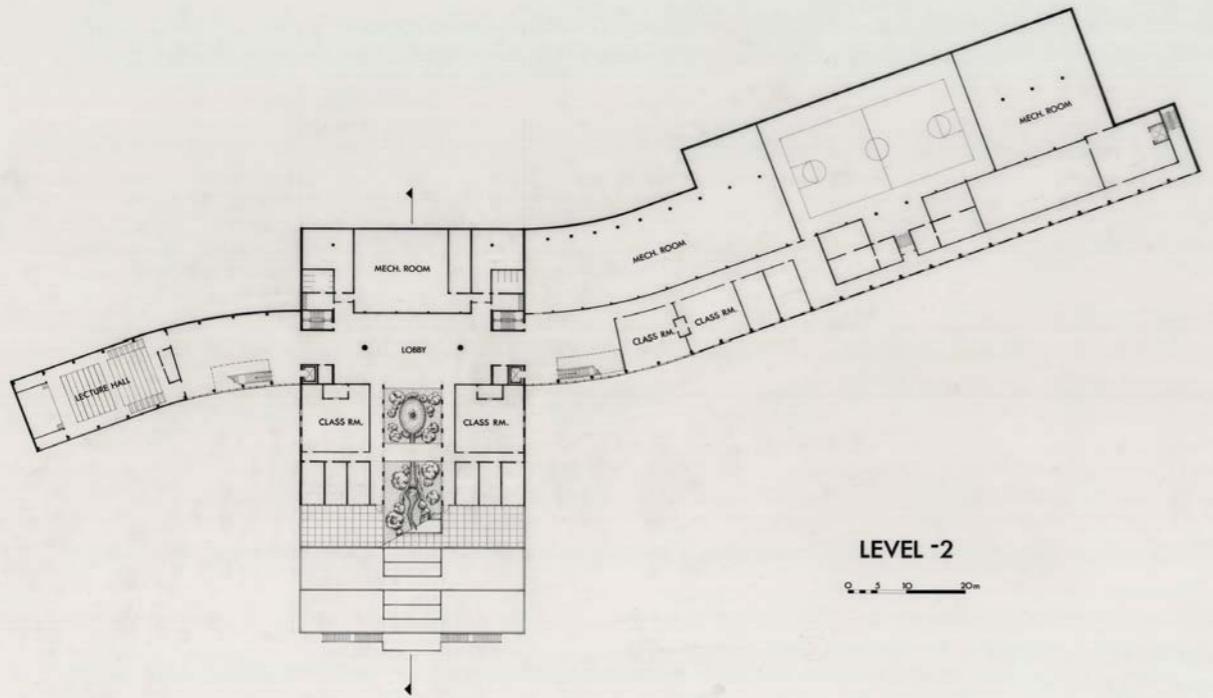


7층 평면도
LEVEL 7 PLAN
4층, 5층, 6층 평면도
LEVELS 4, 5, 6 PLAN

136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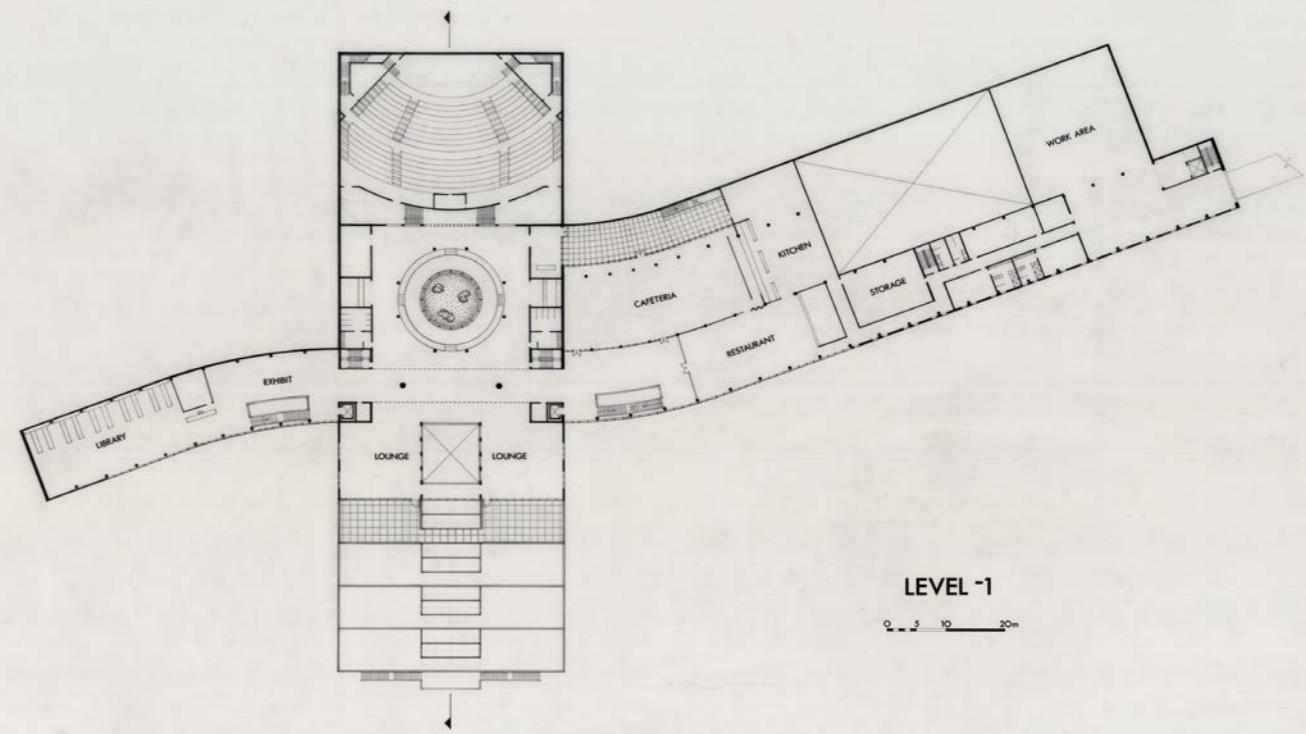


3층 평면도
LEVEL 3 PLAN
2층 평면도
LEVEL 2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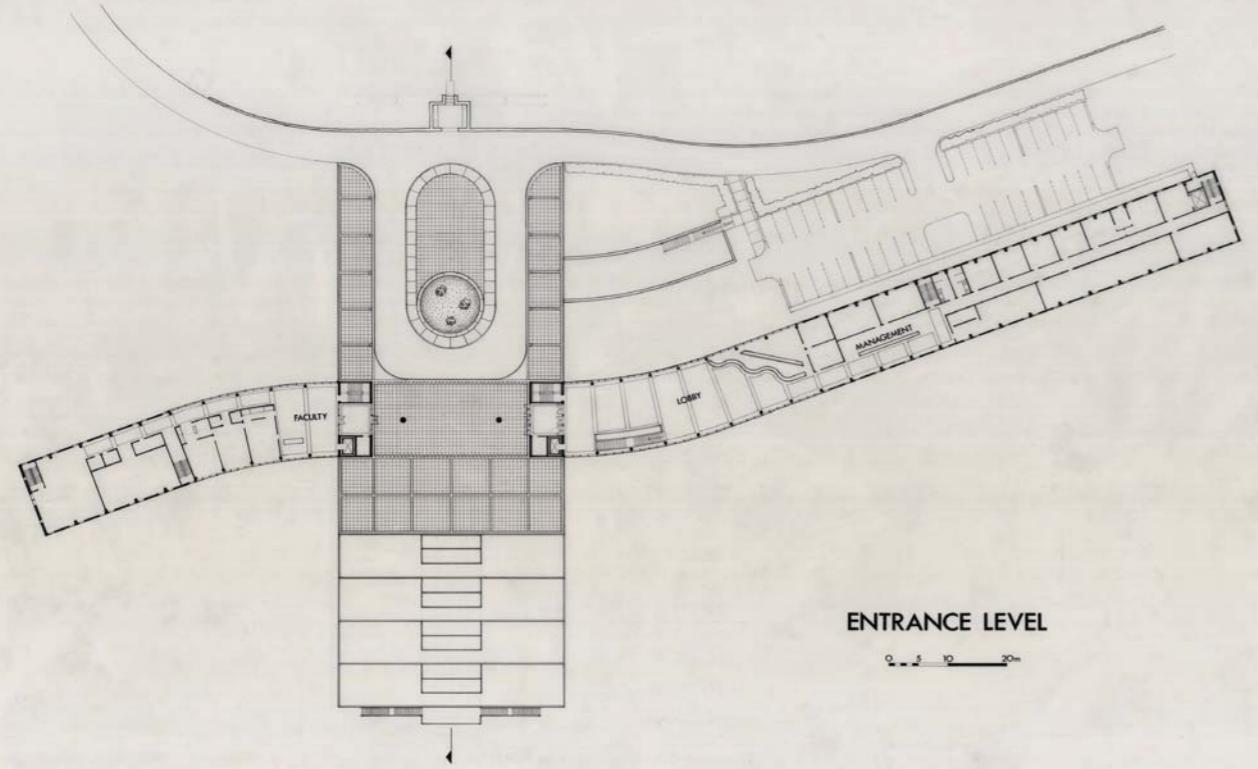
지하 2층 평면도

LEVEL -2 PLAN



지하 1층 평면도

LEVEL -1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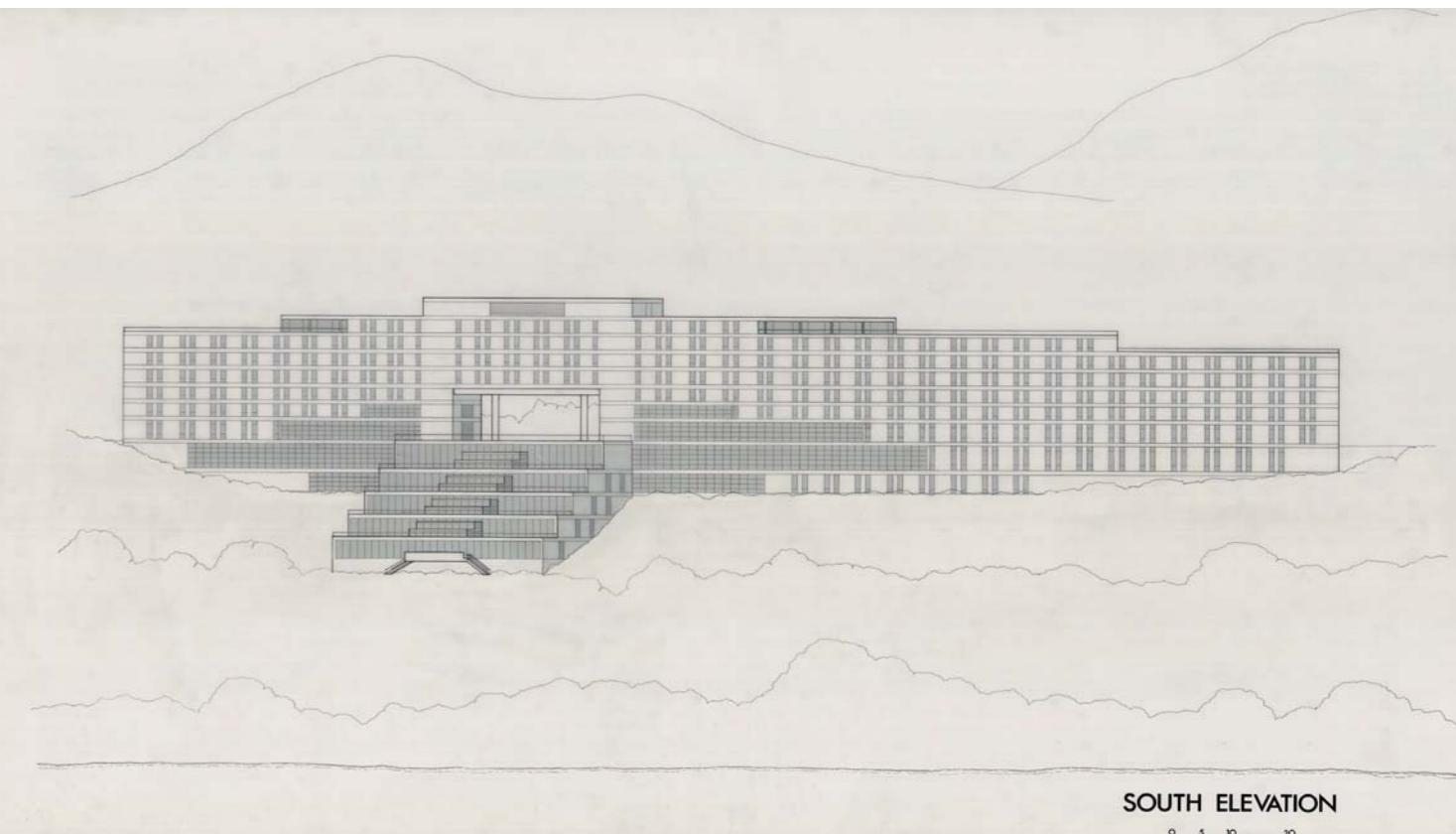
ENTRANCE LEVEL

진입층 평면도

ENTRANCE LEVEL PLAN

140

141



SOUTH ELEVATION

남측 입면도

SOUTH ELEVATION

하트포드 대학교 그레이 센터
HARRY JACK GRAY CENTER,
UNIVERSITY OF HARTFORD

내부

©NICK WHEELER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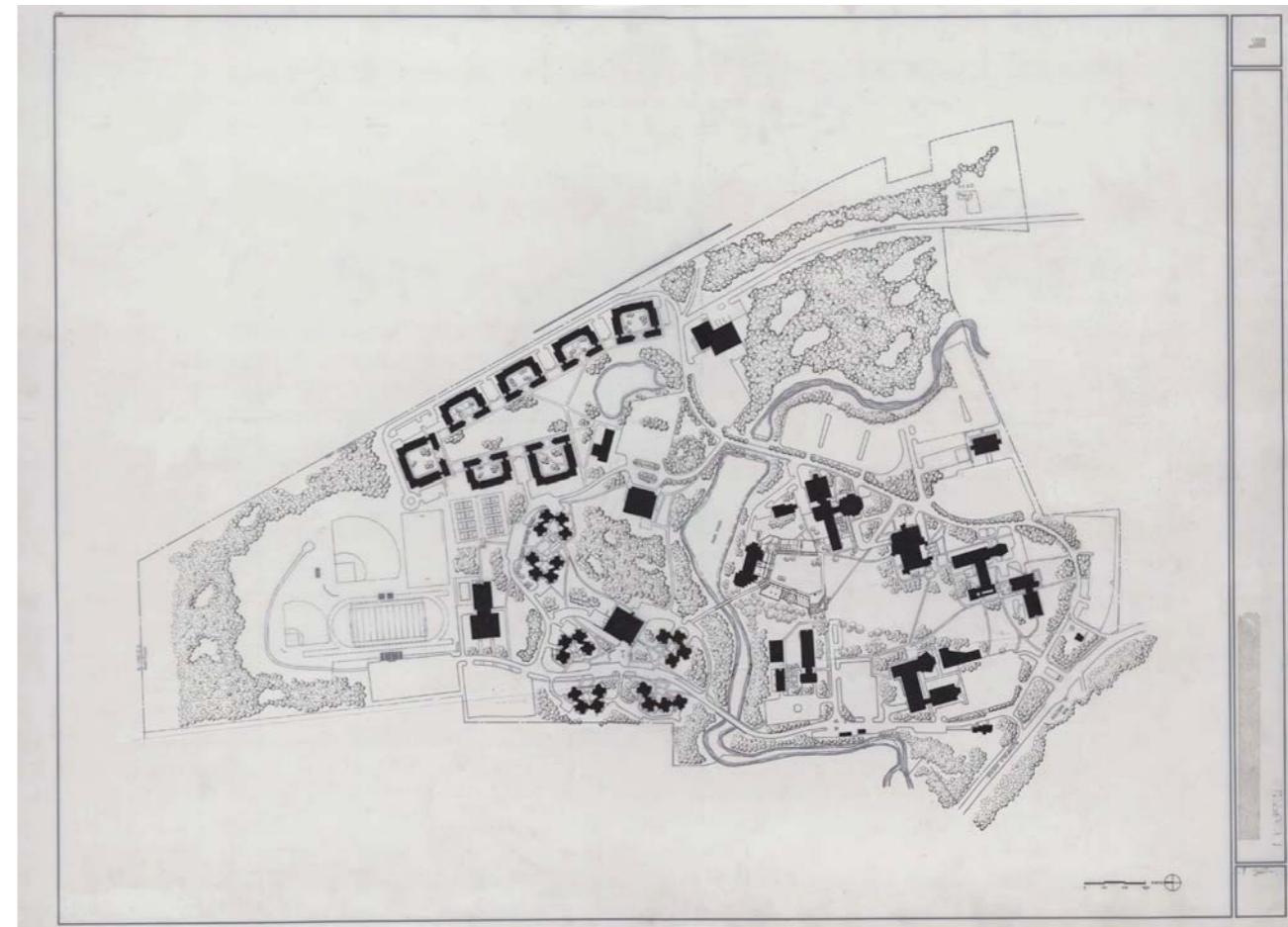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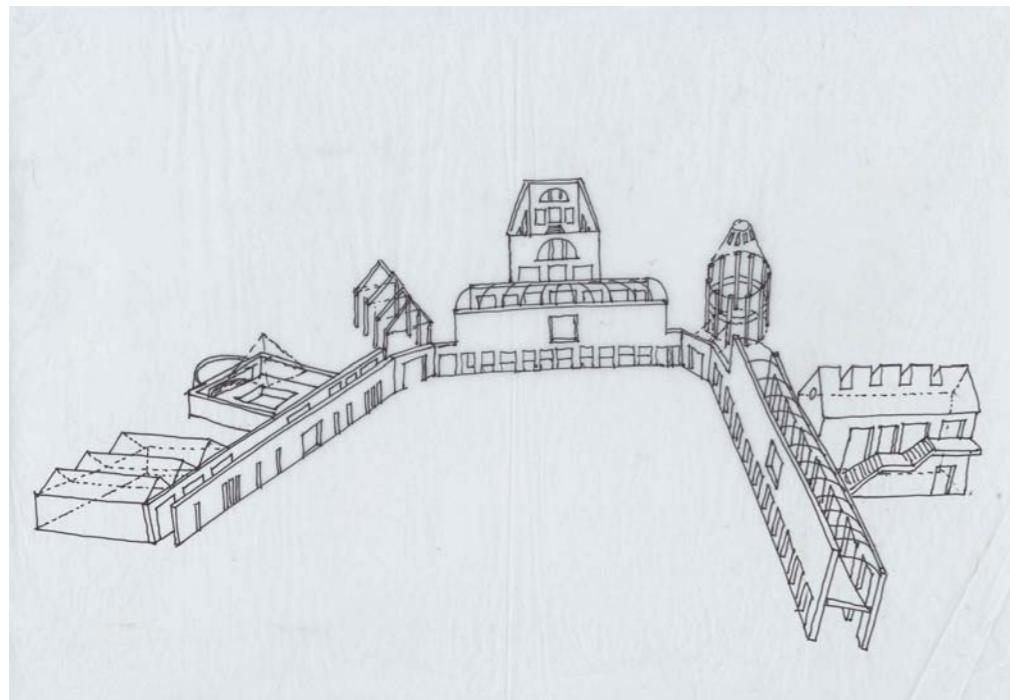
145

외부
©NICK WHEELER



배치도

SITE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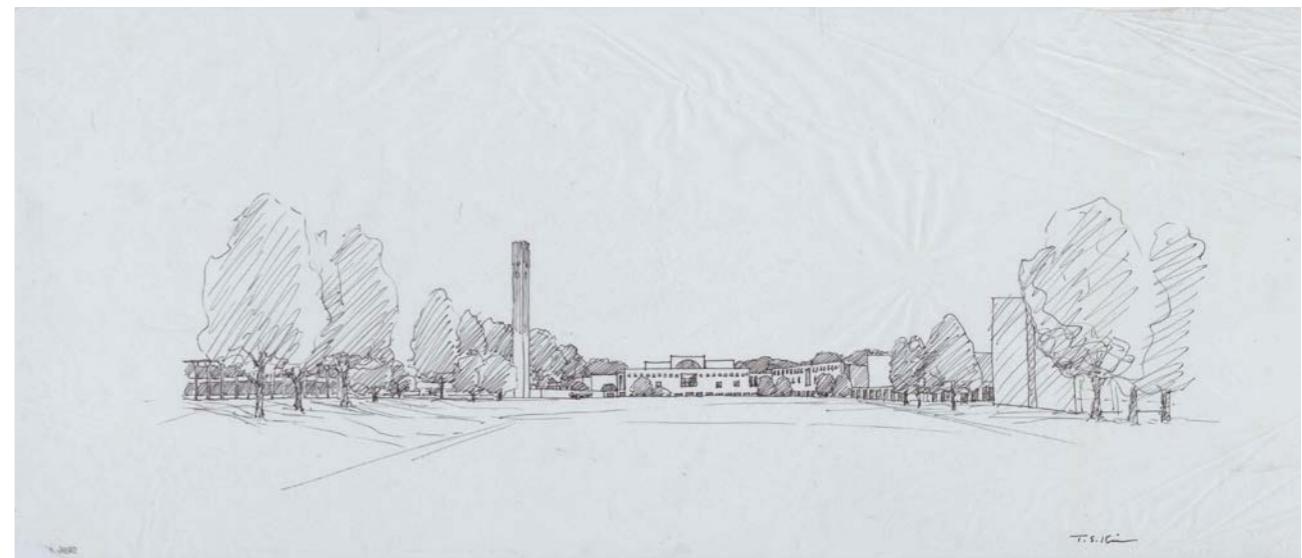


스케치

SKE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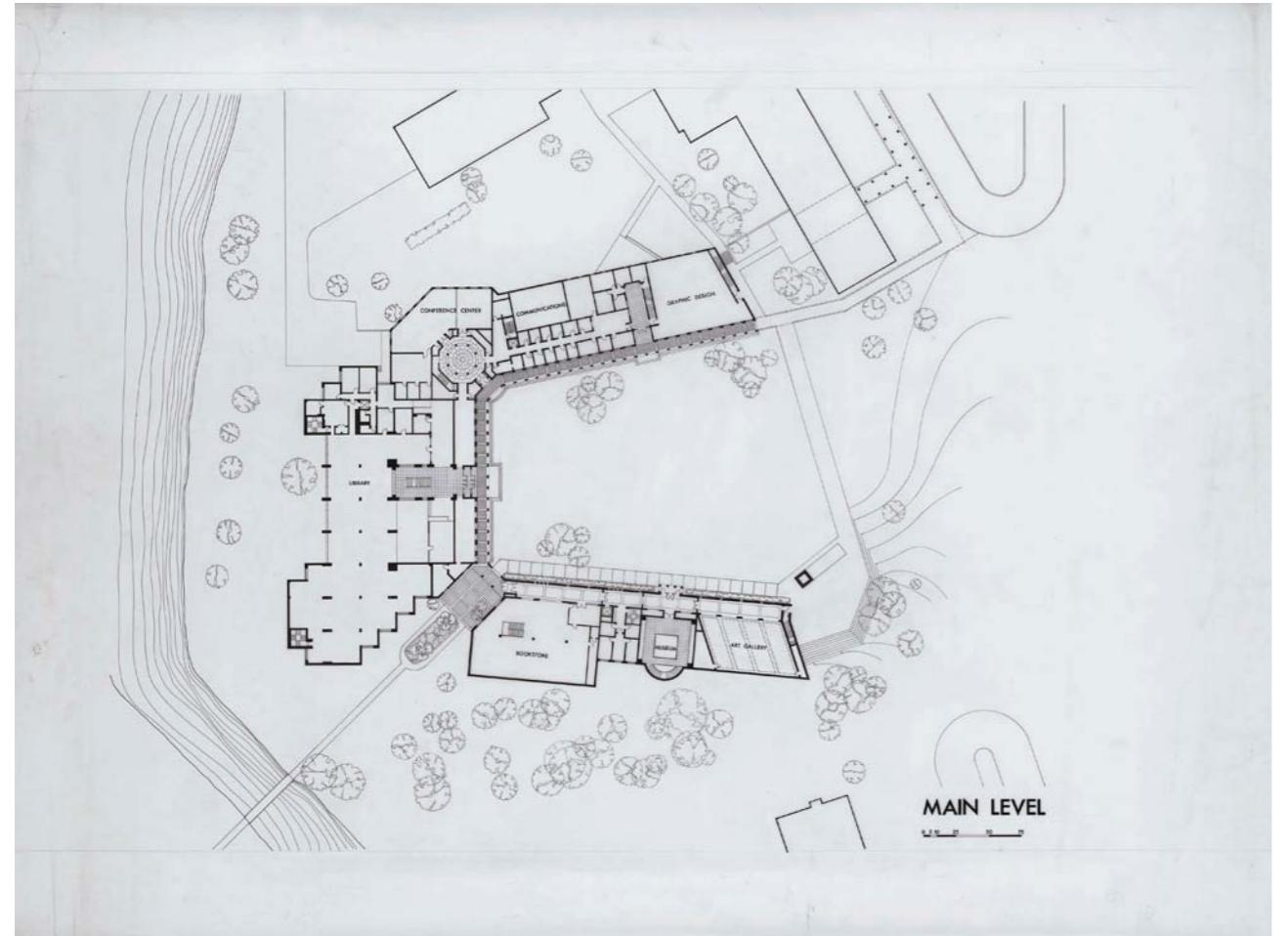
146

147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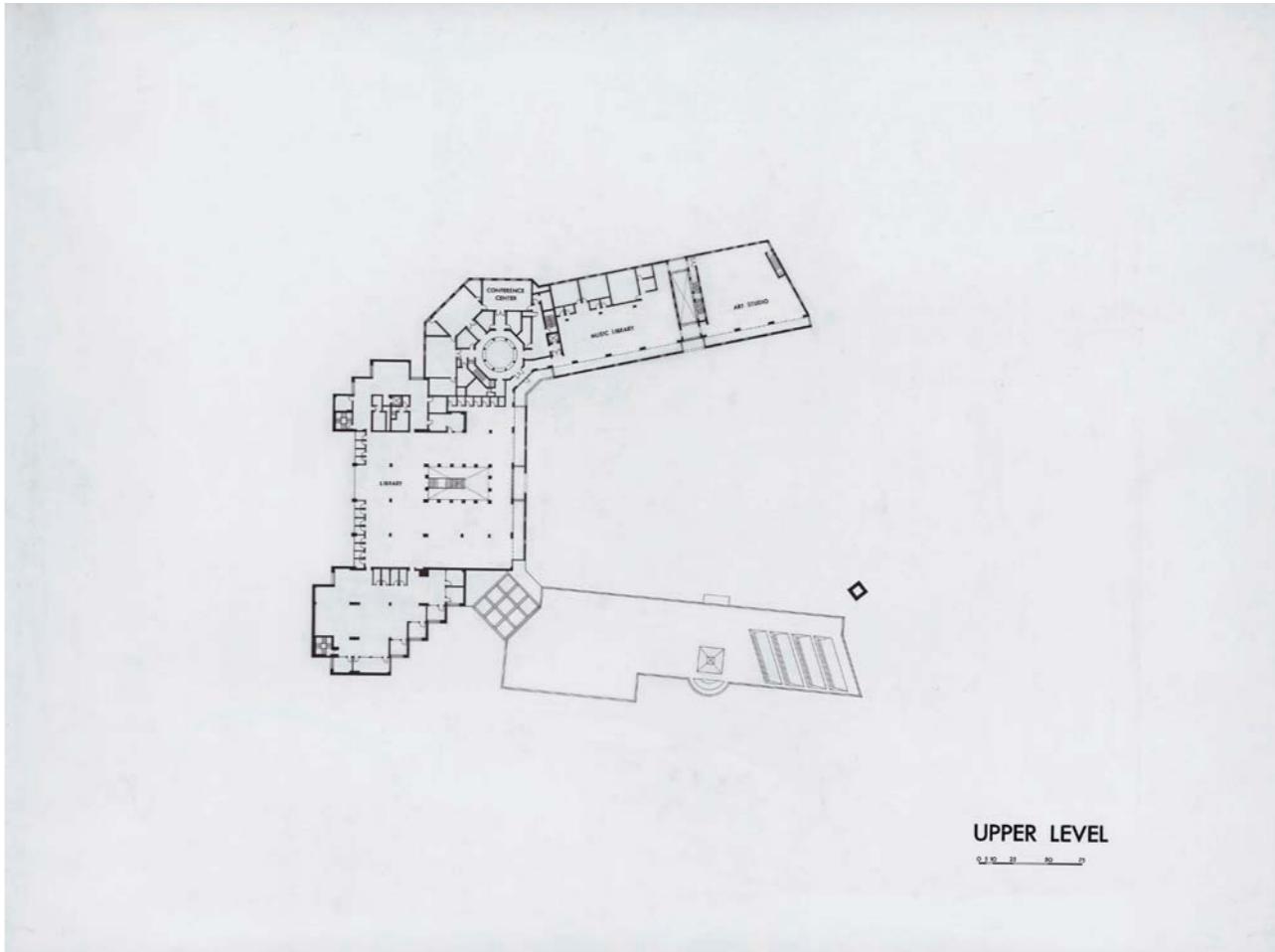
SKETCH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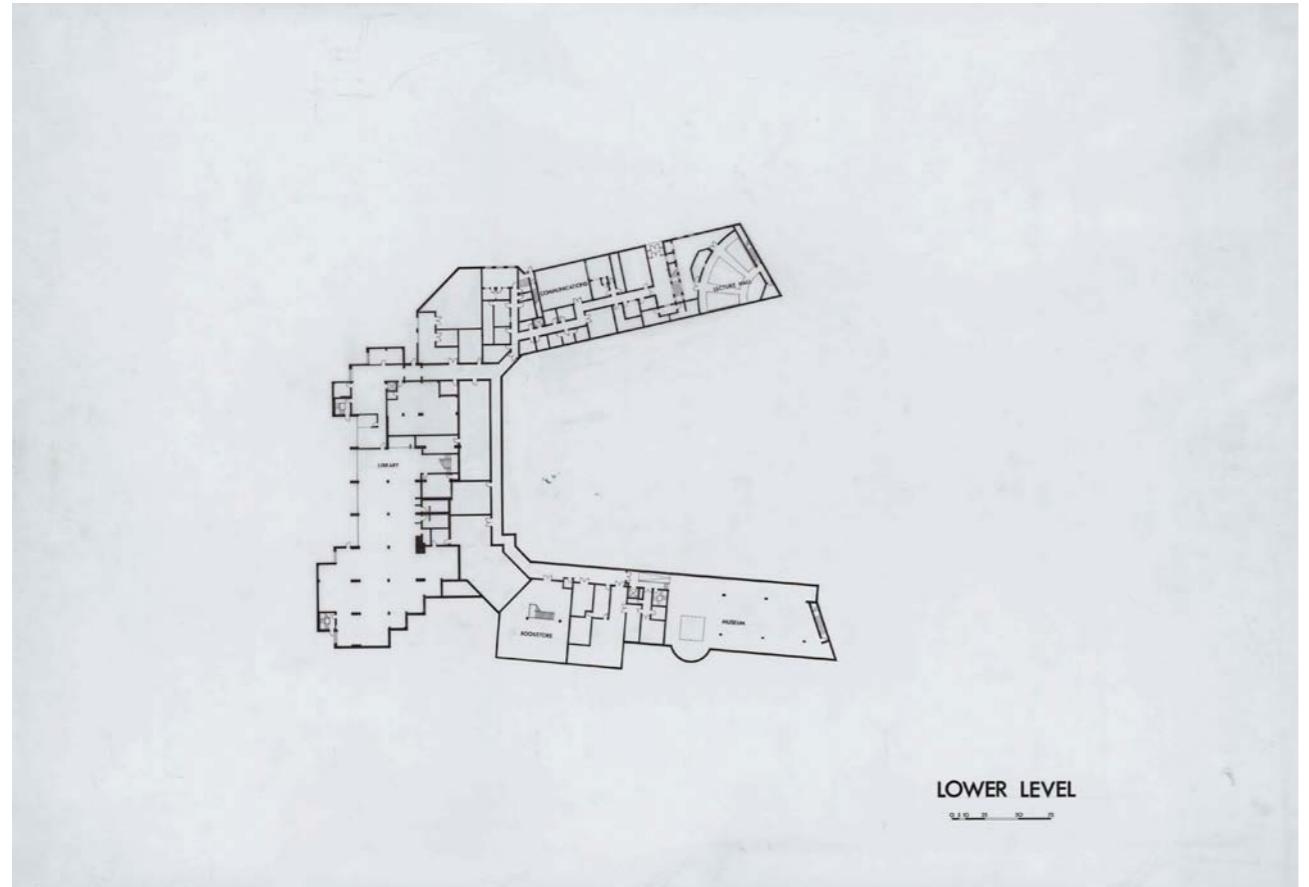
149

1층 평면도
MAIN LEVEL PLAN



UPPER LEVEL
0 10 20 30 40 50 6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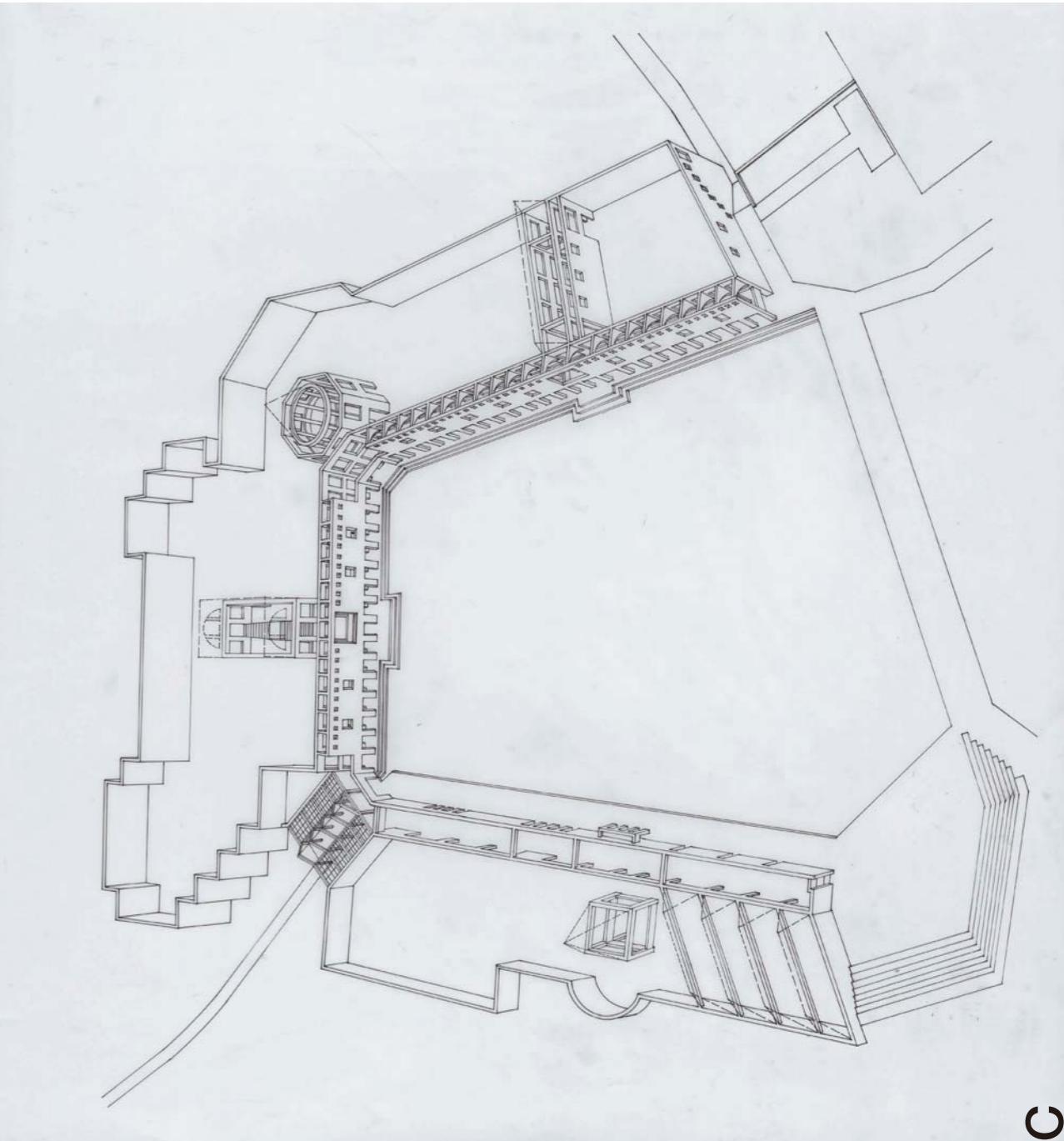
2층 평면도
UPPER LEVEL PLAN



지하층 평면도
LOWER LEVEL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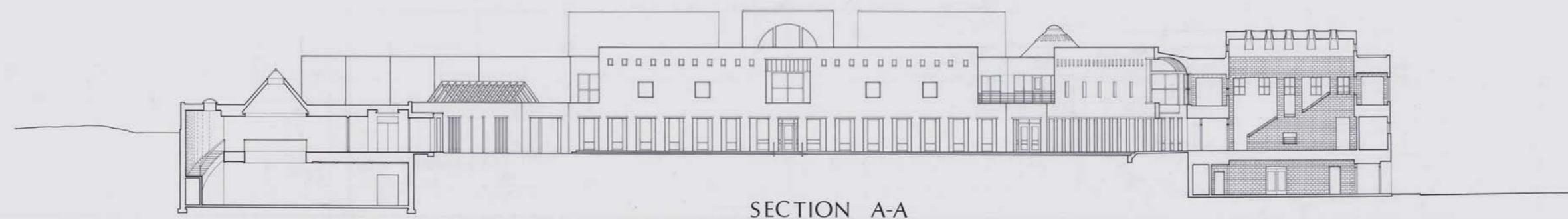
150

151



액소노메트릭
AXONOMETRIC

152 153



포터 학교 학생회관
STUDENT RECREATION CENTER,
MISS PORTER'S SCHOOL



외부

©ROBERT BEN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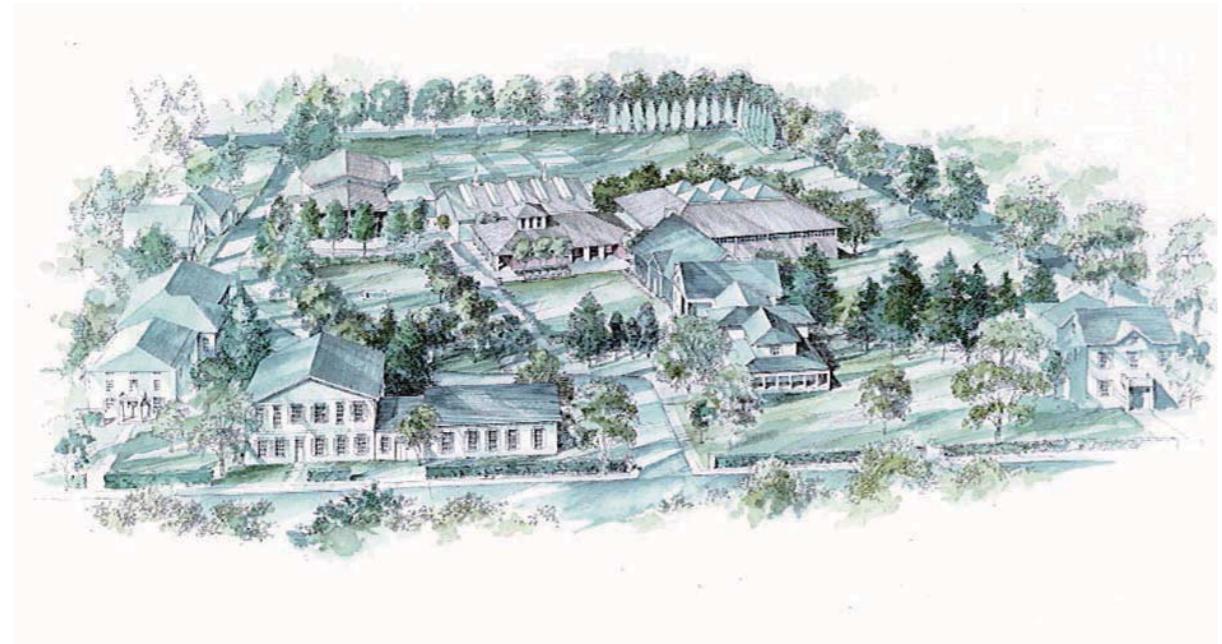
154

155



내부

©MICK HAL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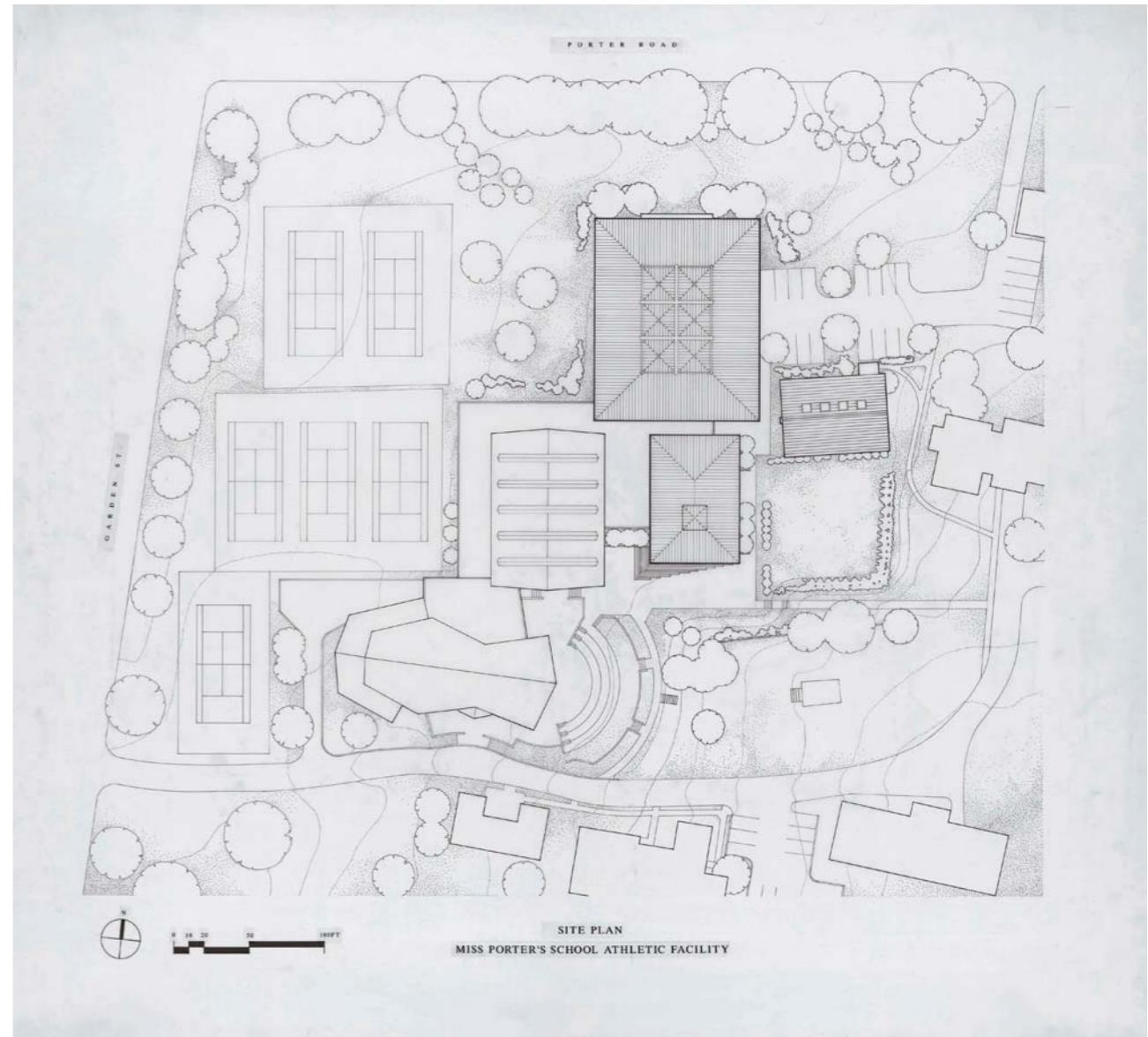


조감도

BIRD EYES'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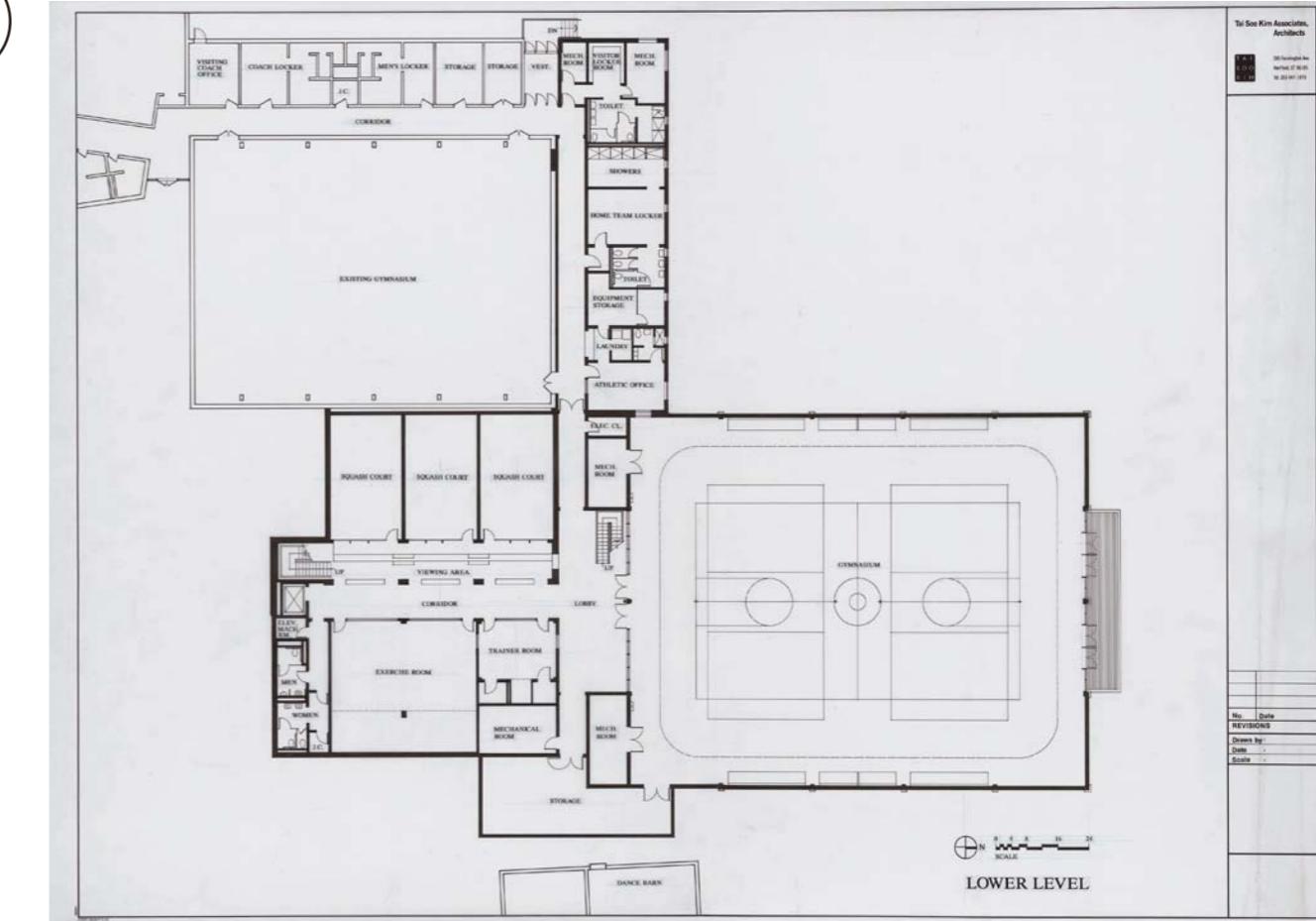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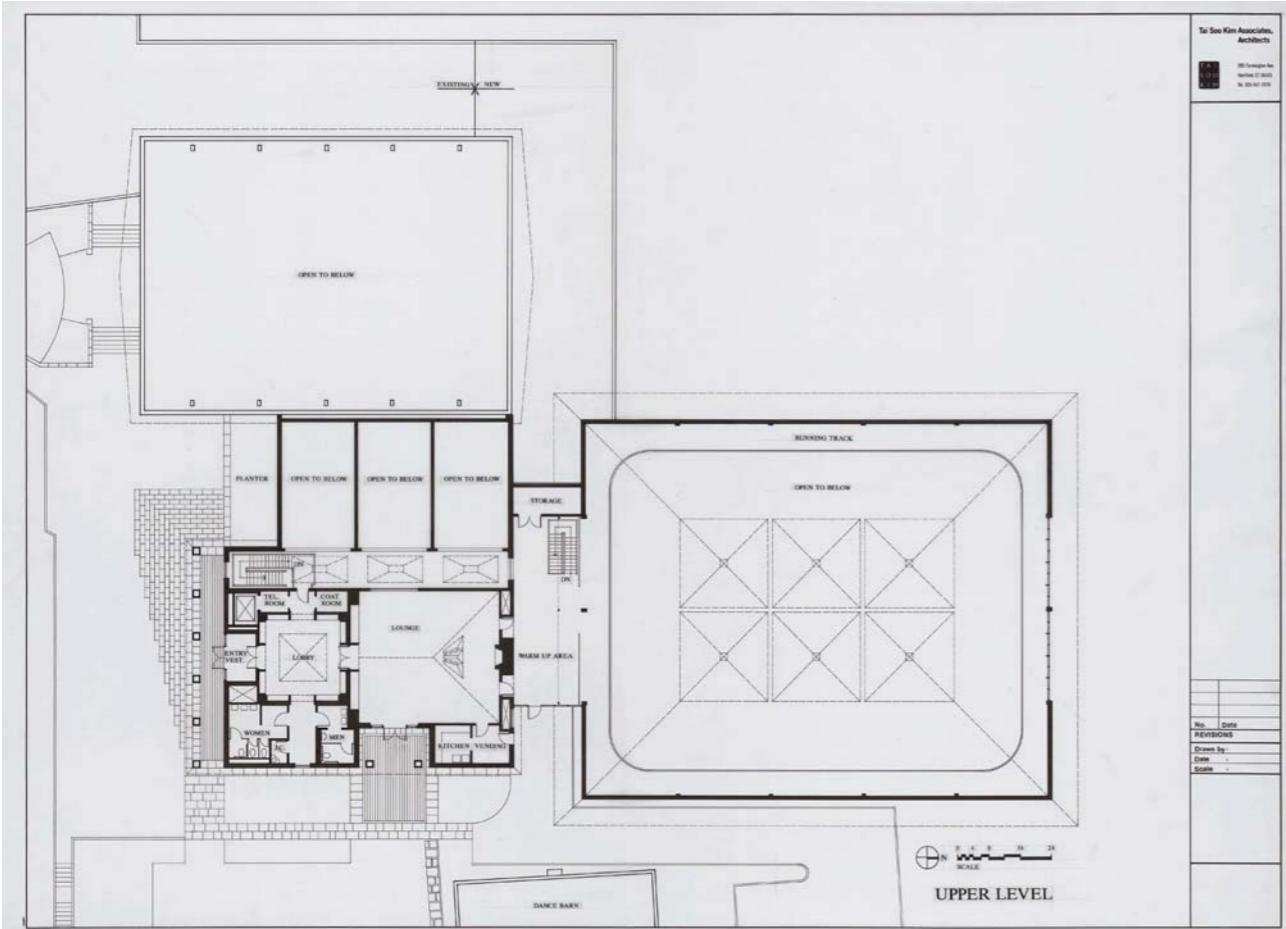
156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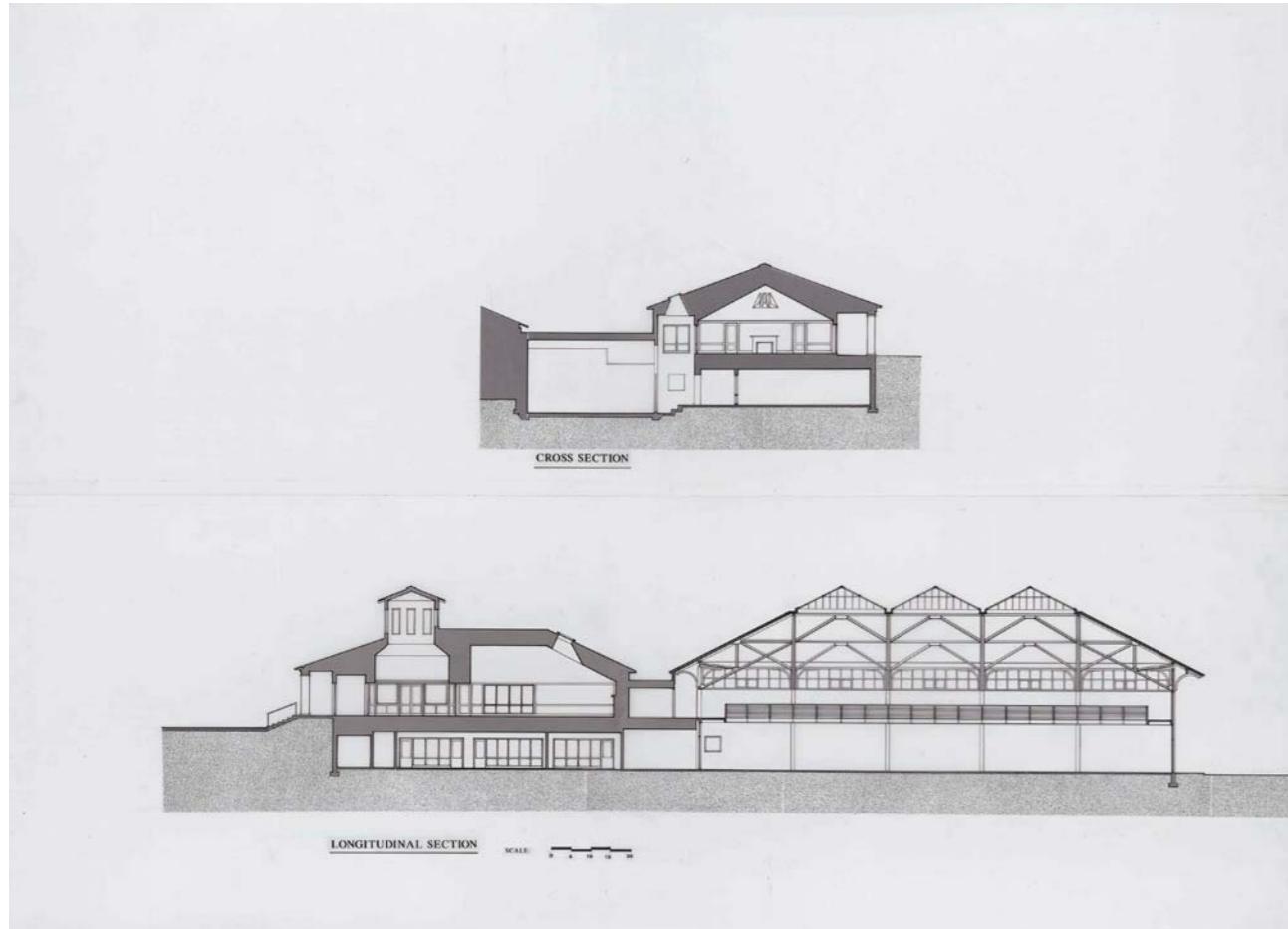
배치도

SITE PLAN



1층 평면도
UPPER LEVEL PLAN

지하층 평면도
LOWER LEVEL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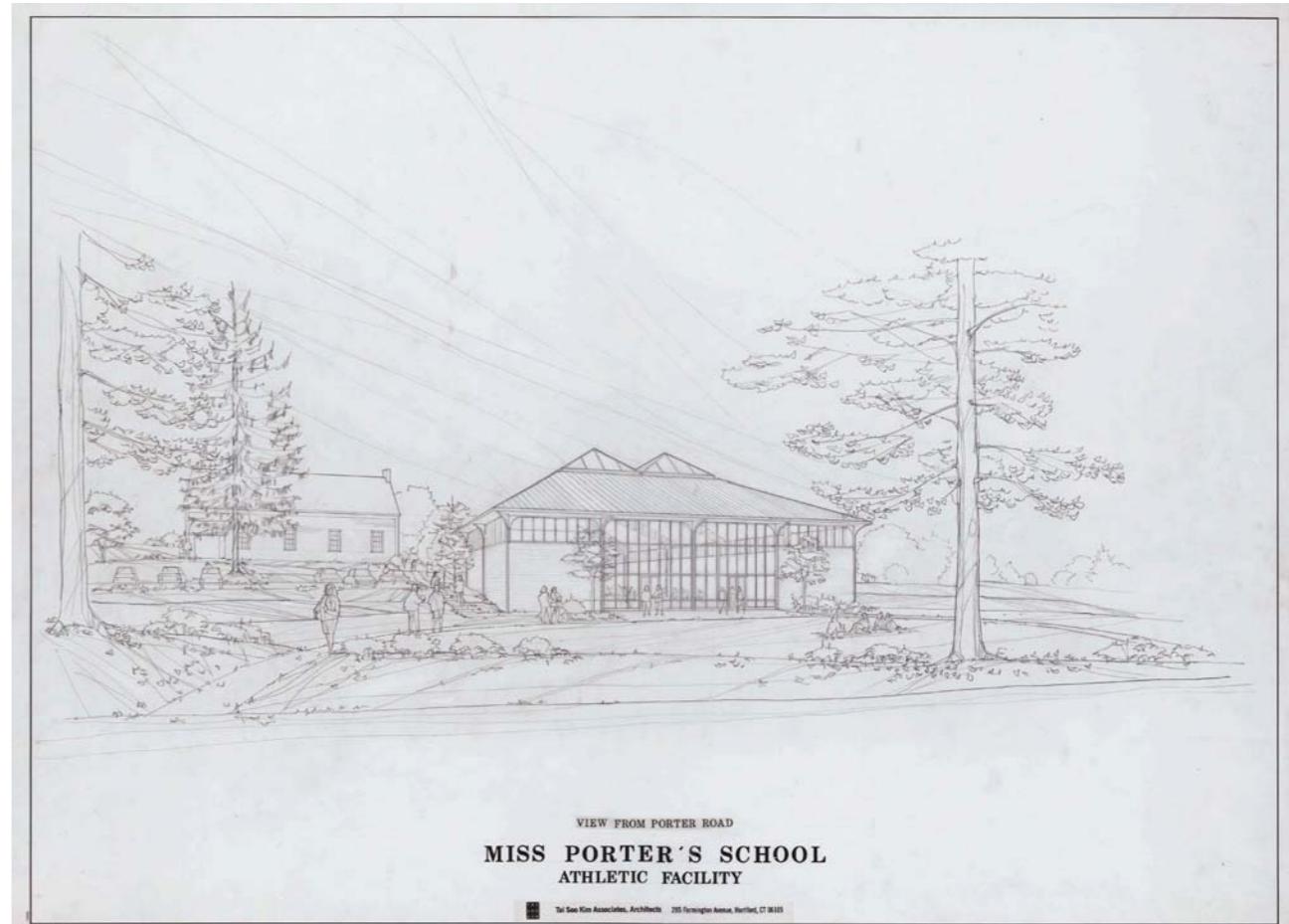


단면도

SECTION

160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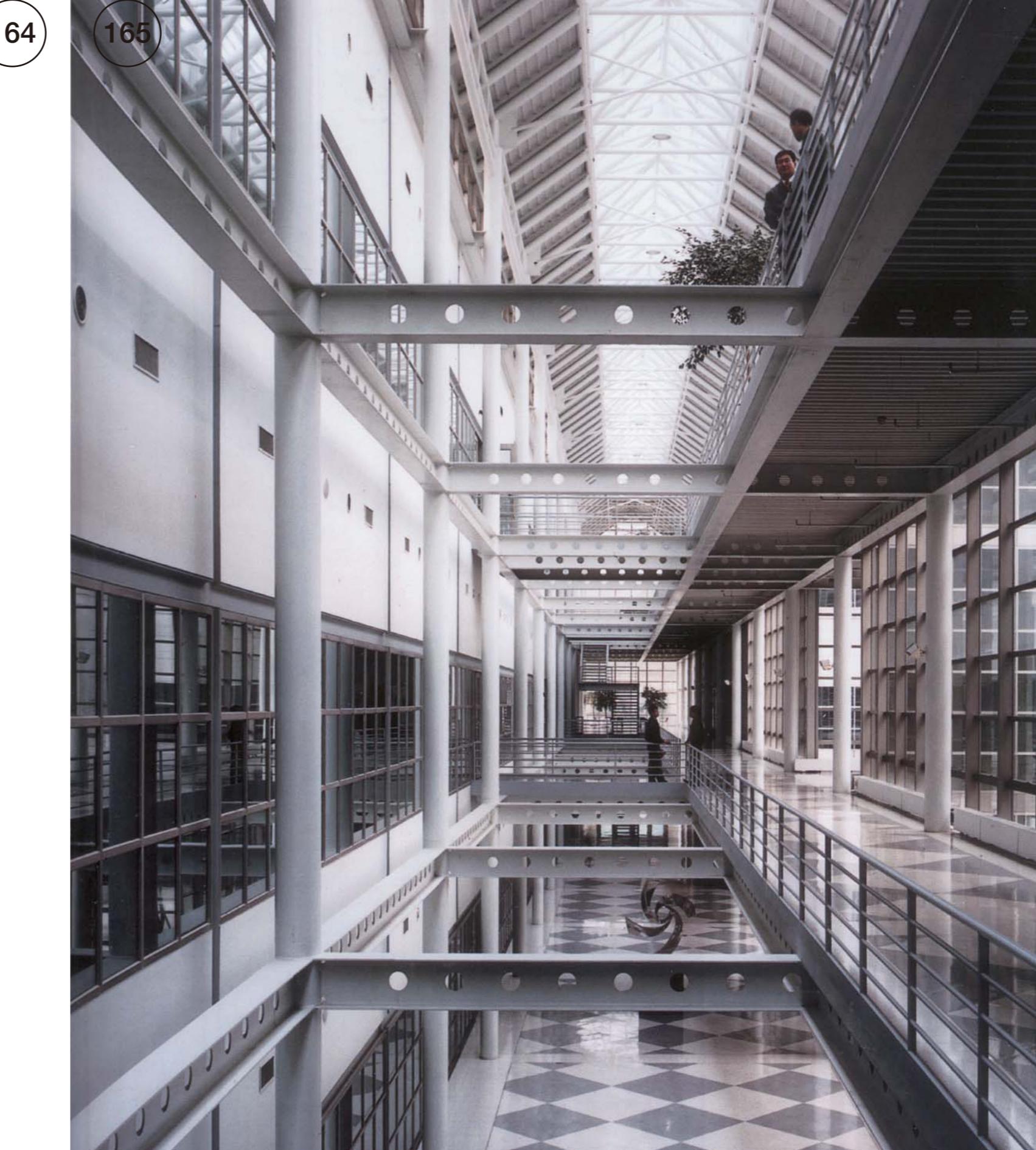
이 시기에 김태수는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작품들을 설계했다. 한국에서는 대전에 있는 <LG화학기술 연구원>을 비롯하여 교보생명과 관련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금호그룹의 의뢰로 삼청동에 <금호미술관>을 설계하기도 했다. 한국의 프로젝트가 많아지면서 서울에 설계사무소 지사를 열었는데, 초기에는 김정곤 소장(현 건국대학교 교수)이 이끌다가 차후 황두진 소장(현 황두진 건축사사무소 소장)이 맡아서 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주로 대학교 건물들과 함께 미국 국무부의 의뢰로 튜니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설계하였다. 튜니지의 전통을 존중하되 미국의 자유정신을 표현해야 하는 국무부의 설계지침에 따라 설계한 대사관은 결과에 대한 높은 평가로 이어져 차후 국무부로부터 다른 국가의 미국 대사관 역시 의뢰 받았지만 해당 국가의 내부적인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여러 활동들을 통해 건축가로서는 최초로 KBS의 자랑스러운 동포상을 받기도 했다.

162

163

**1992-2005: Productive Years
as an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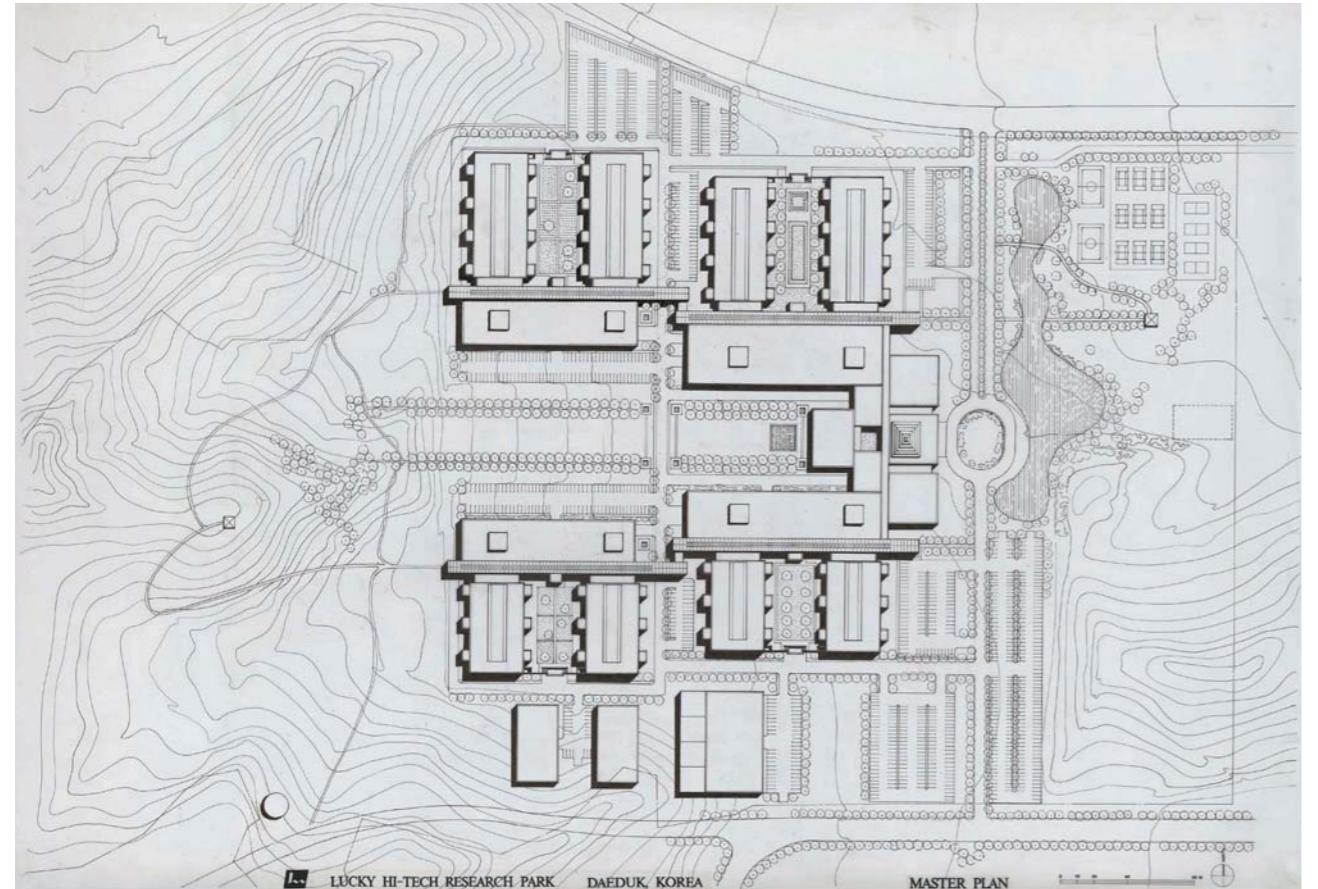
During the period between 1992 and 2005, Tai Soo Kim designed a number of building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Korea, Kim designed the *LG Chemical Research Center* in Daejeon as well as different projects that were related to Kyobo Insurance. Commissioned by Kumho Group, *Kumho Museum of Art* is also a project from this period. As the number of projects in Korea was increased, Kim opened a branch of his architectural firm in Seoul. Kim Jung Gon (currently a professor at Konkuk University) led the Seoul office and, later, Hwang Doojin (currently a director of Doojin Hwang Architects) served as a director of the branch. In the meantime, Kim was commissioned to design a number of university buildings in the United States. The Department of Defense also asked him to design the *U.S. Embassy in Tunisia*. Kim's design well observed the guideline of respecting the tradition of Tunisia while expressing the American spirit of freedom, leading to a highly positive assessment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This led to an additional request to design an embassy in another country, which was not realized due to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country. All these activities led Kim to receive a KBS Global Korean Award in 1994 as the first architect to receive the a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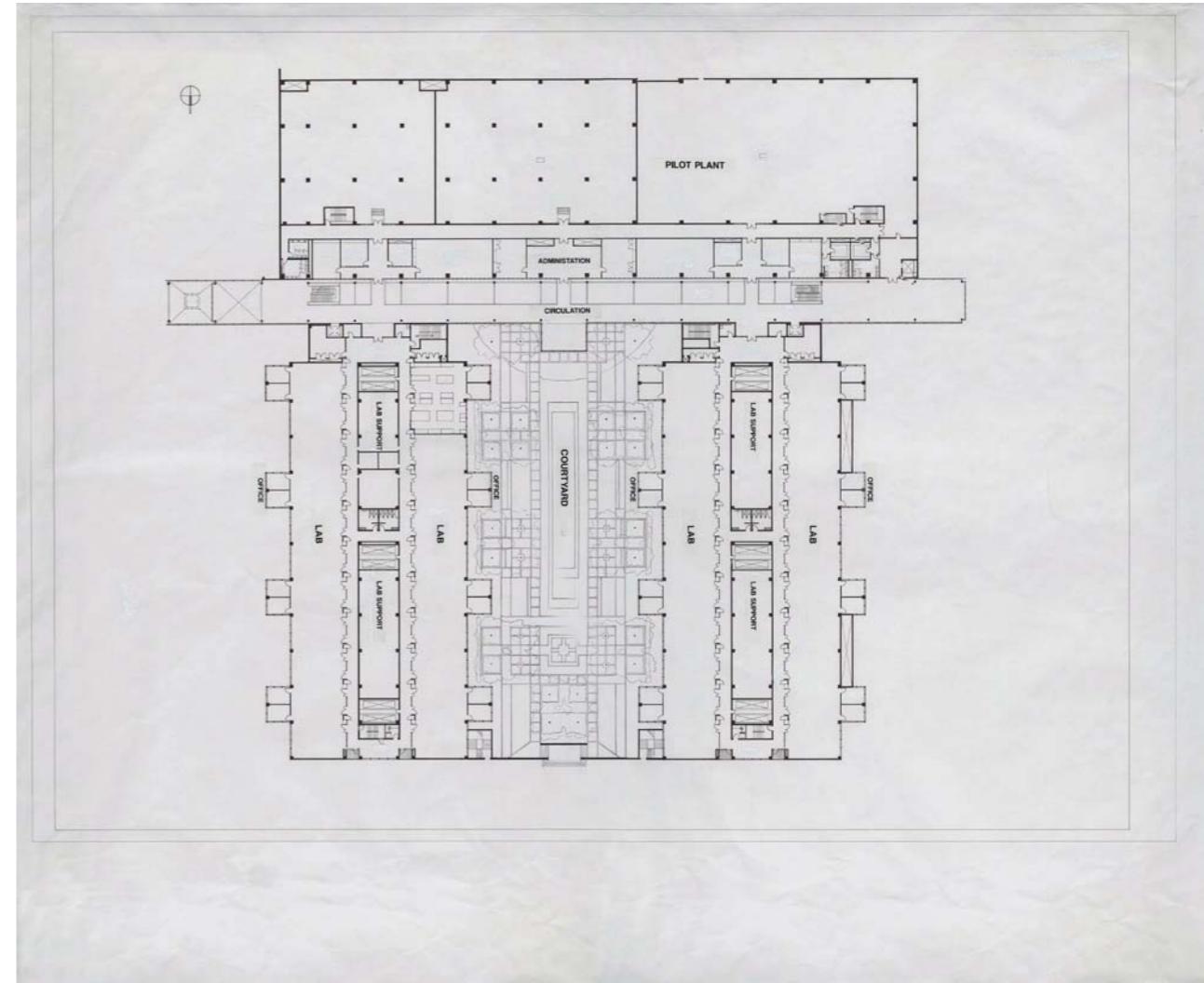
166

167



168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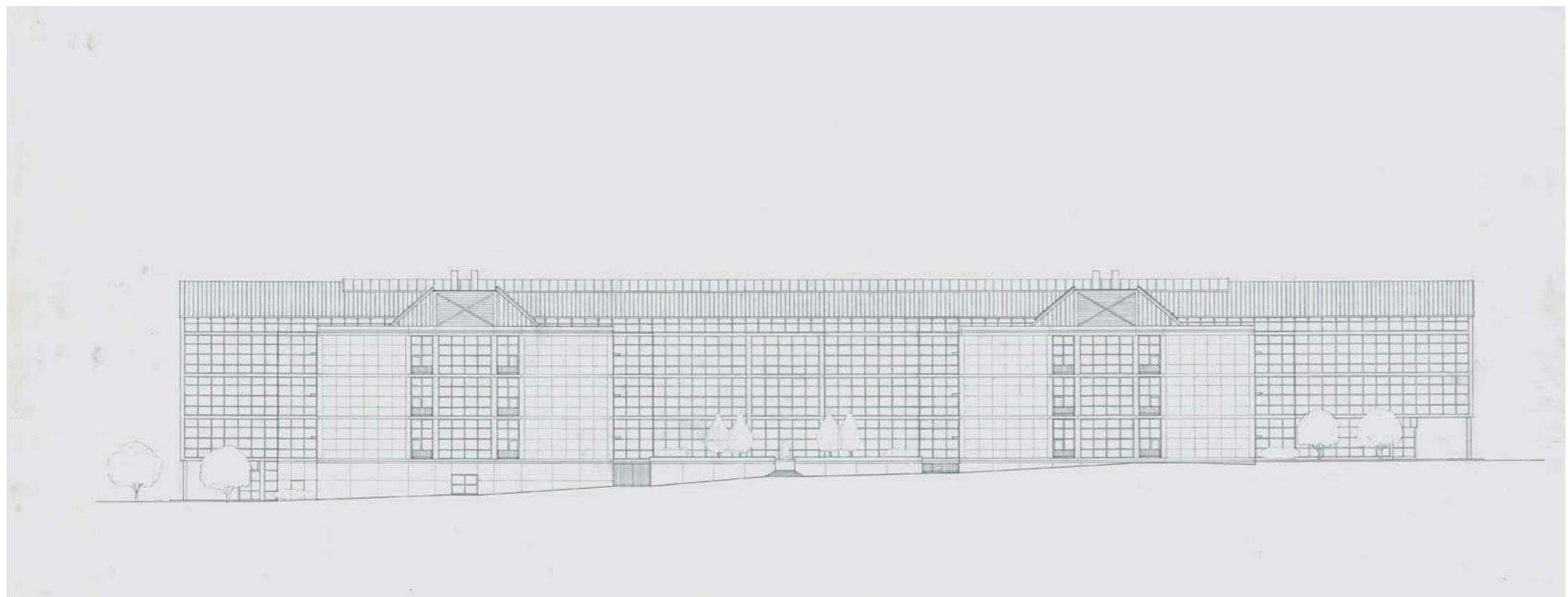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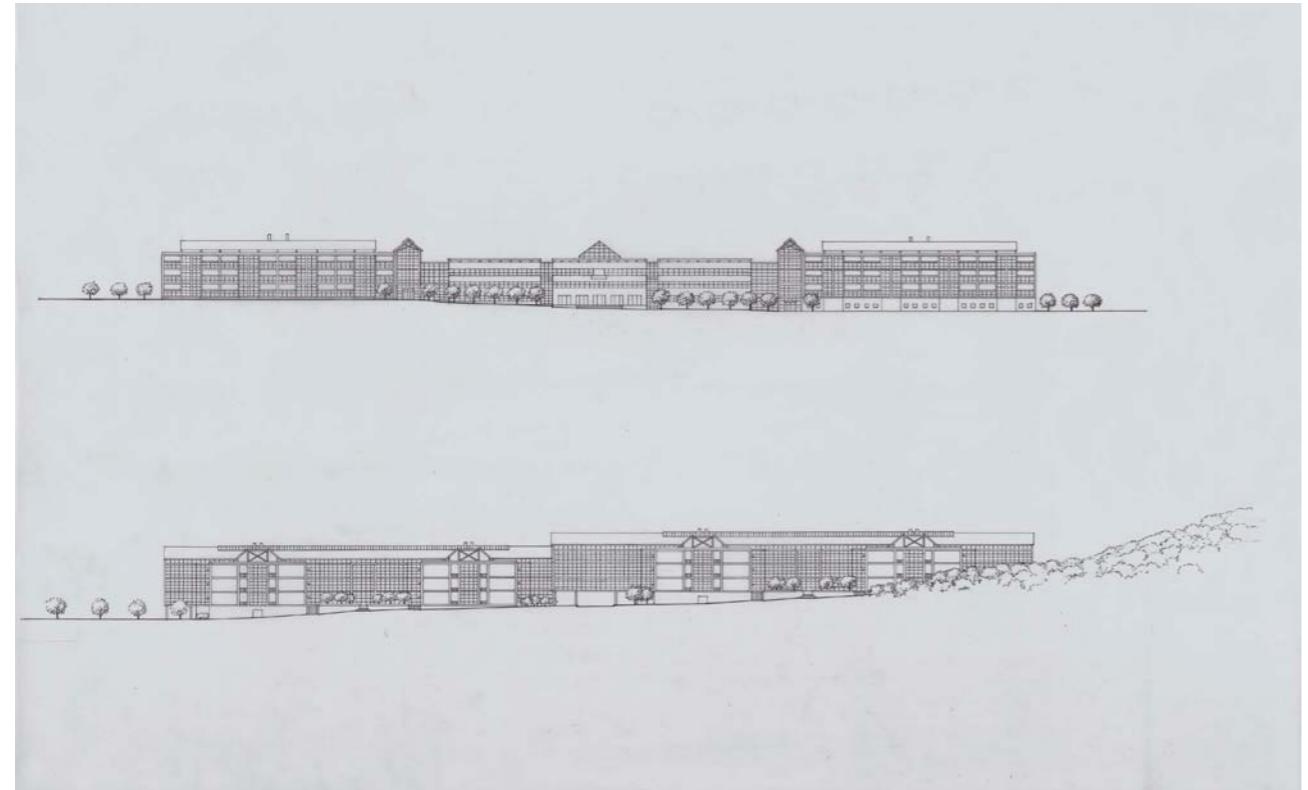
배치도 MASTER PLAN

평면도 PLAN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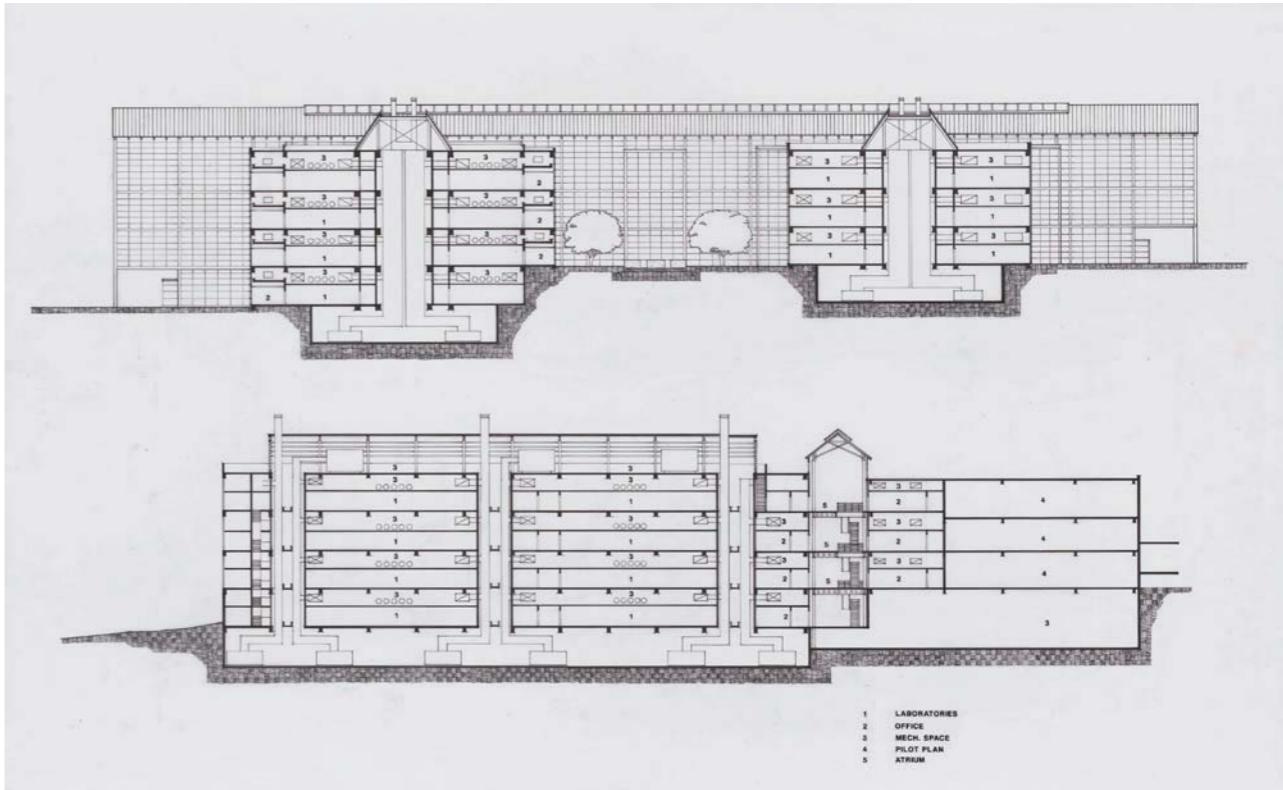
171



입면도
ELEVATION

172

173

단면도
SECTION

금호미술관
KUMHO MUSEUM OF ART



외부
©TAI SOO KIM AND PARTNERS

174

175



내부
©TIMOTHY HURSL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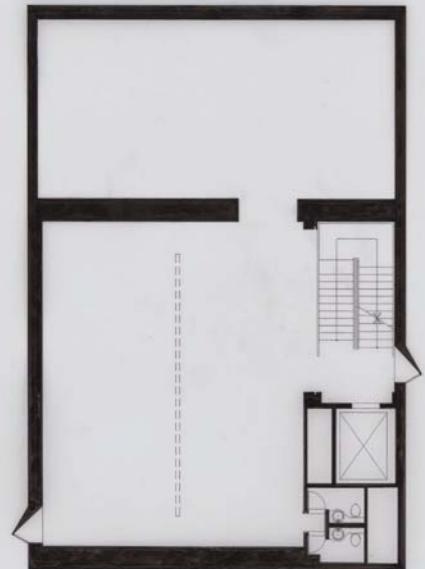
176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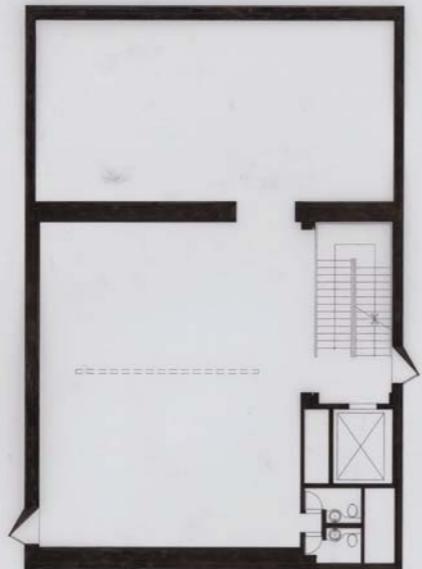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FIRST BASEMENT PLAN
1층 평면도
FIRST FLOOR PLAN

2층 평면도
SECOND FLOOR PLAN
3층 평면도
THIRD FLOOR PLAN



SECOND FLOOR PLAN
0 1M 2M 3M 4M
0 2FT 4FT 6FT

KUMHO ART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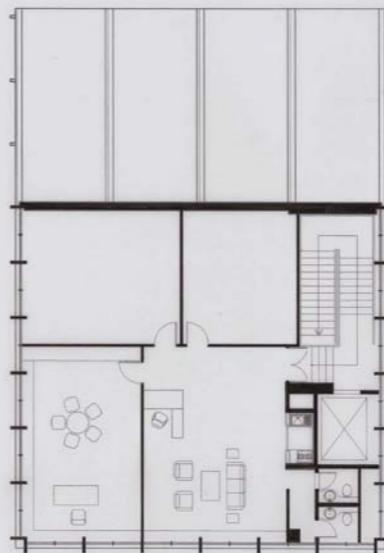


THIRD FLOOR PLAN
0 1M 2M 3M 4M
0 2FT 4FT 6FT

KUMHO ART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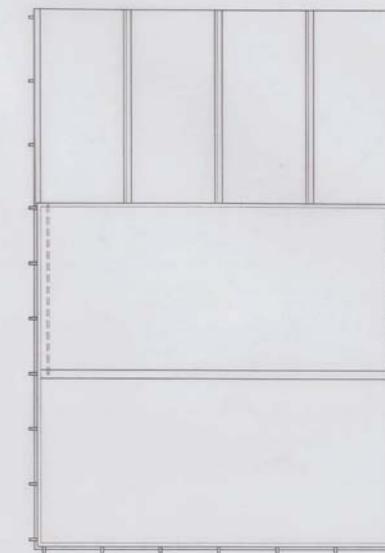
178

179



FOURTH FLOOR PLAN
0 1M 2M 3M 4M
0 2FT 4FT 6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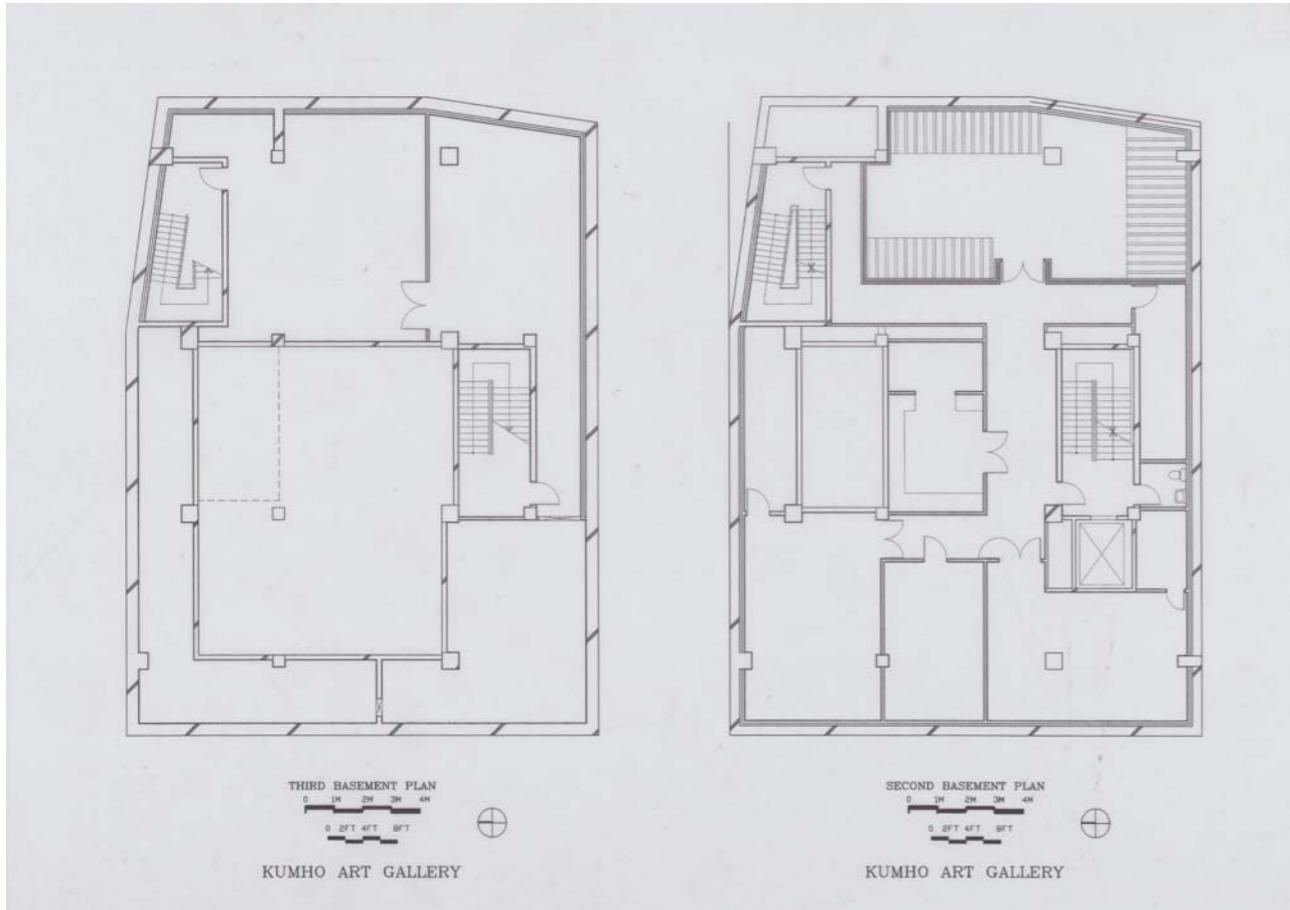
KUMHO ART GALLERY



ROOF PLAN
0 1M 2M 3M 4M
0 2FT 4FT 6FT

KUMHO ART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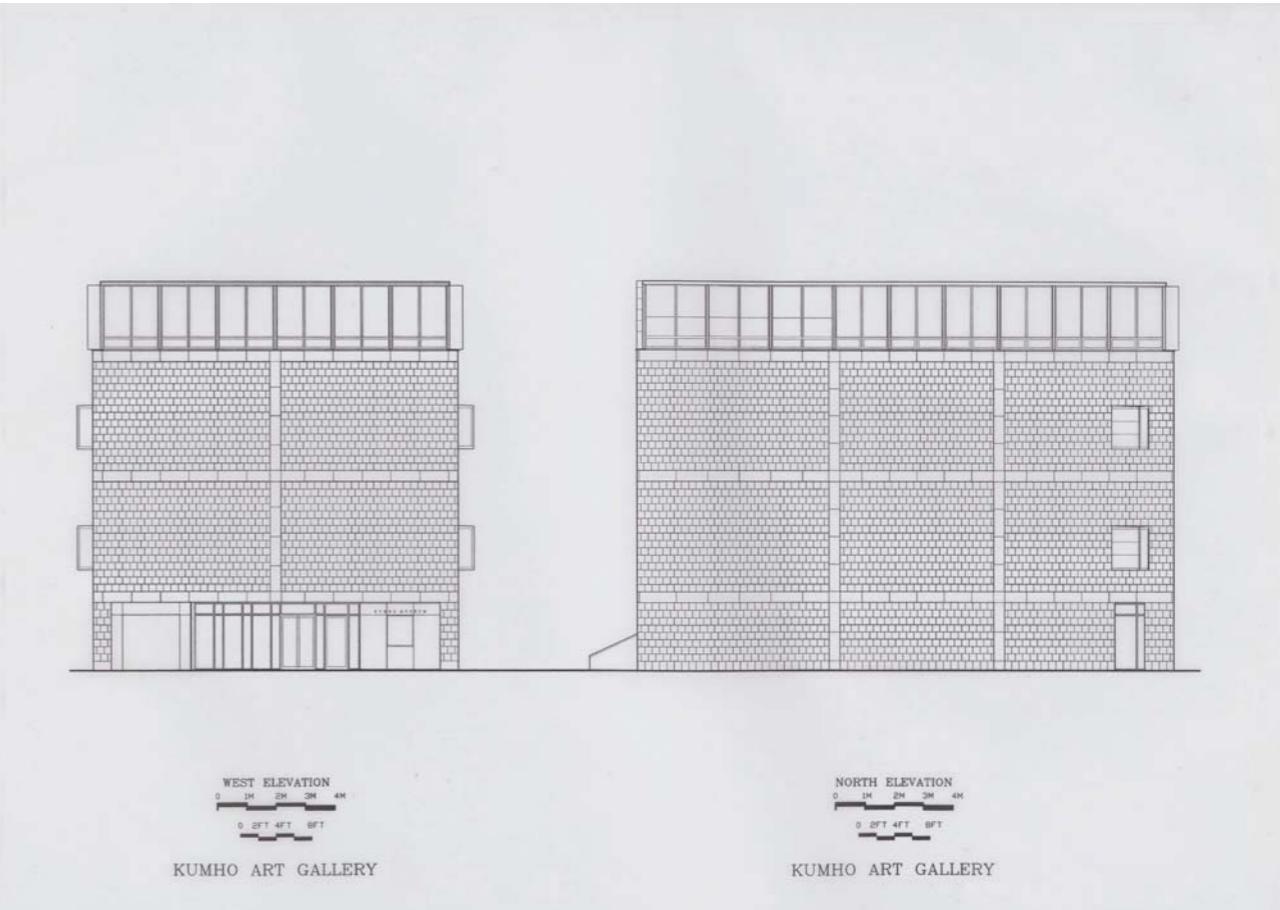
4층 평면도
FOURTH FLOOR PLAN
지붕층 평면도
ROOF PLAN



지하 3층 평면도 THIRD BASEMENT PLAN

지하 2층 평면도 SECOND BASEMENT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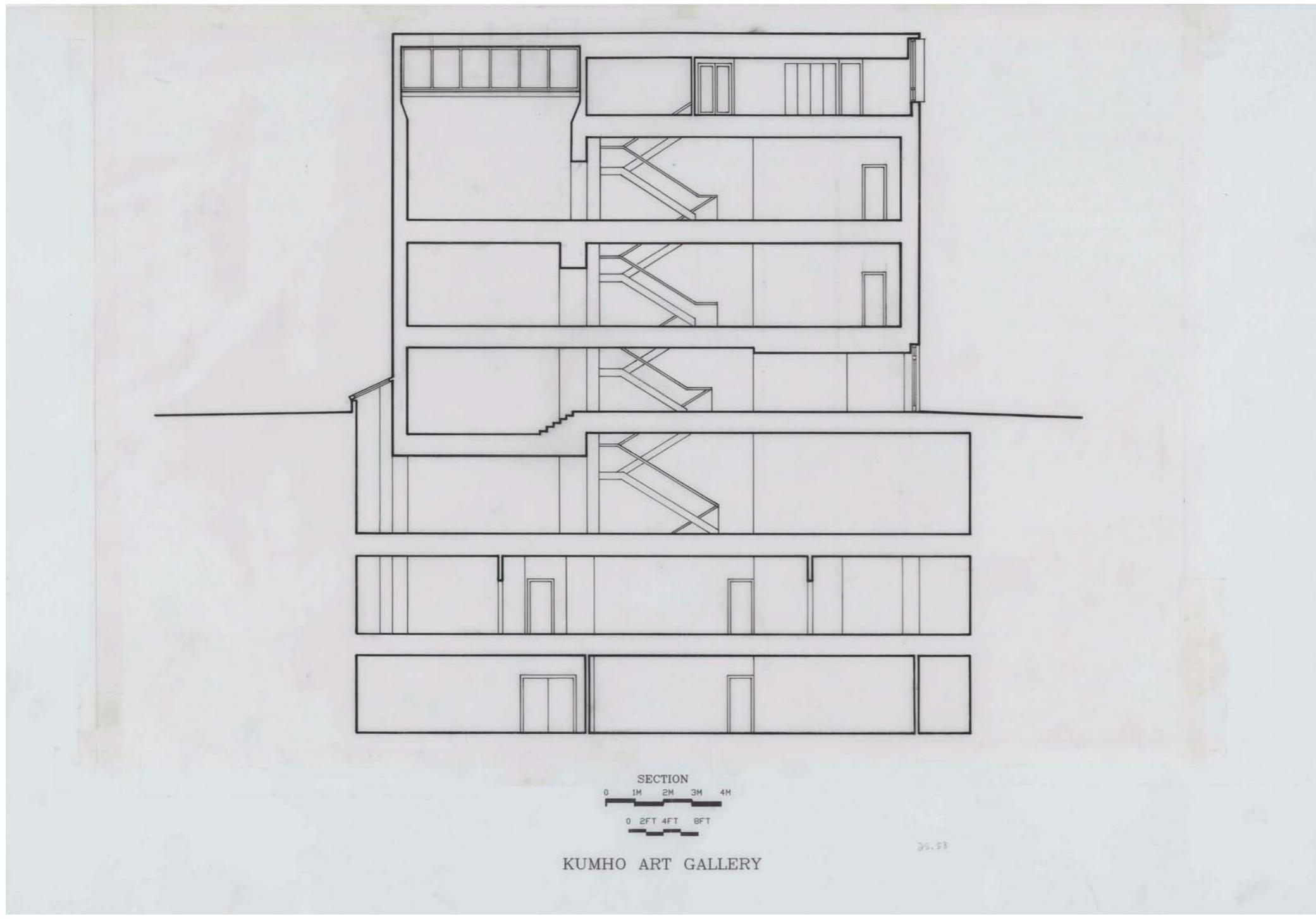
180 181



서측 입면도
WEST ELEVATION
북측 입면도
NORTH ELEVATION

182

183



튀니지 미국대사관
U.S. EMBASSY IN TUNISIA



외부

©PAUL WARCH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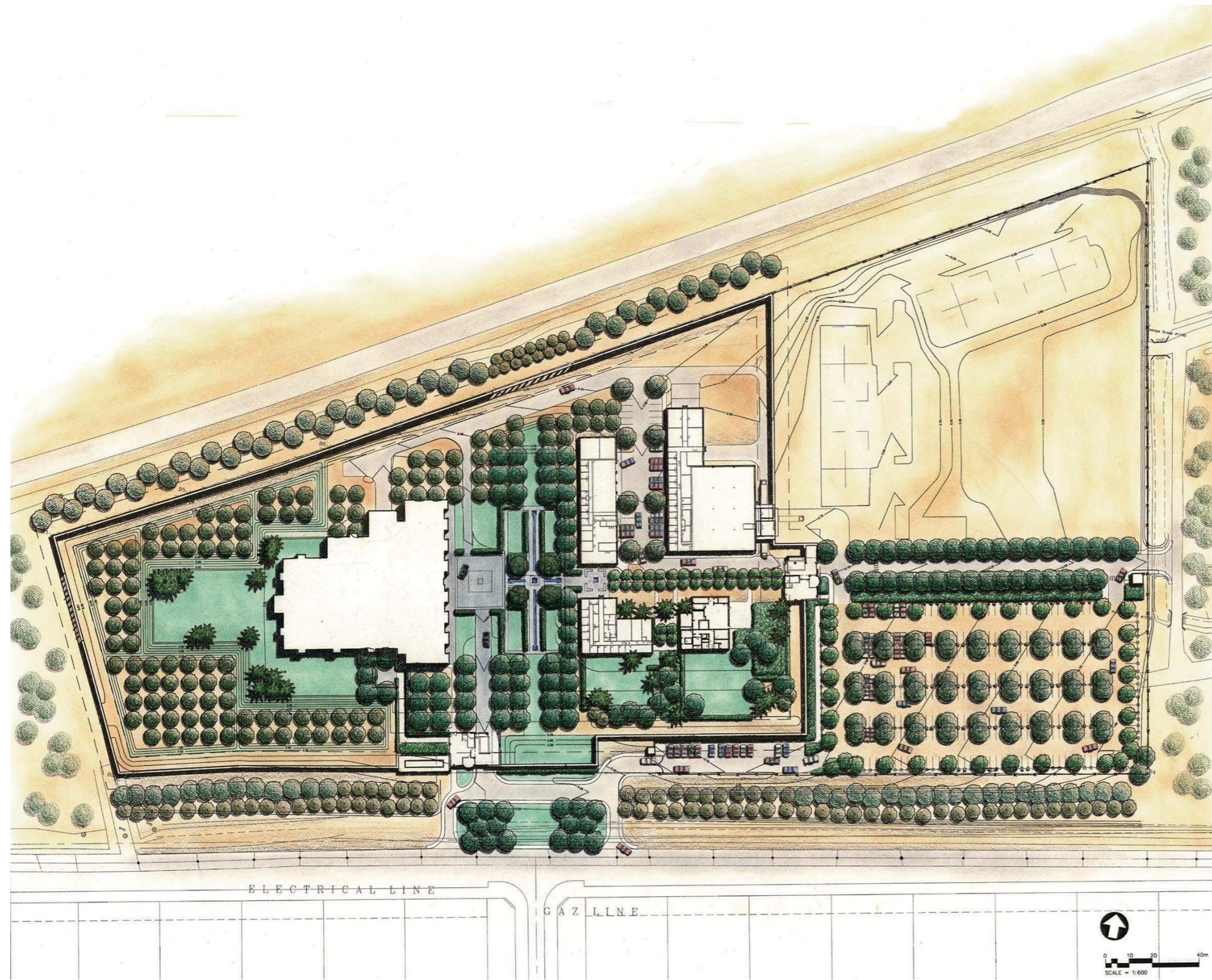
184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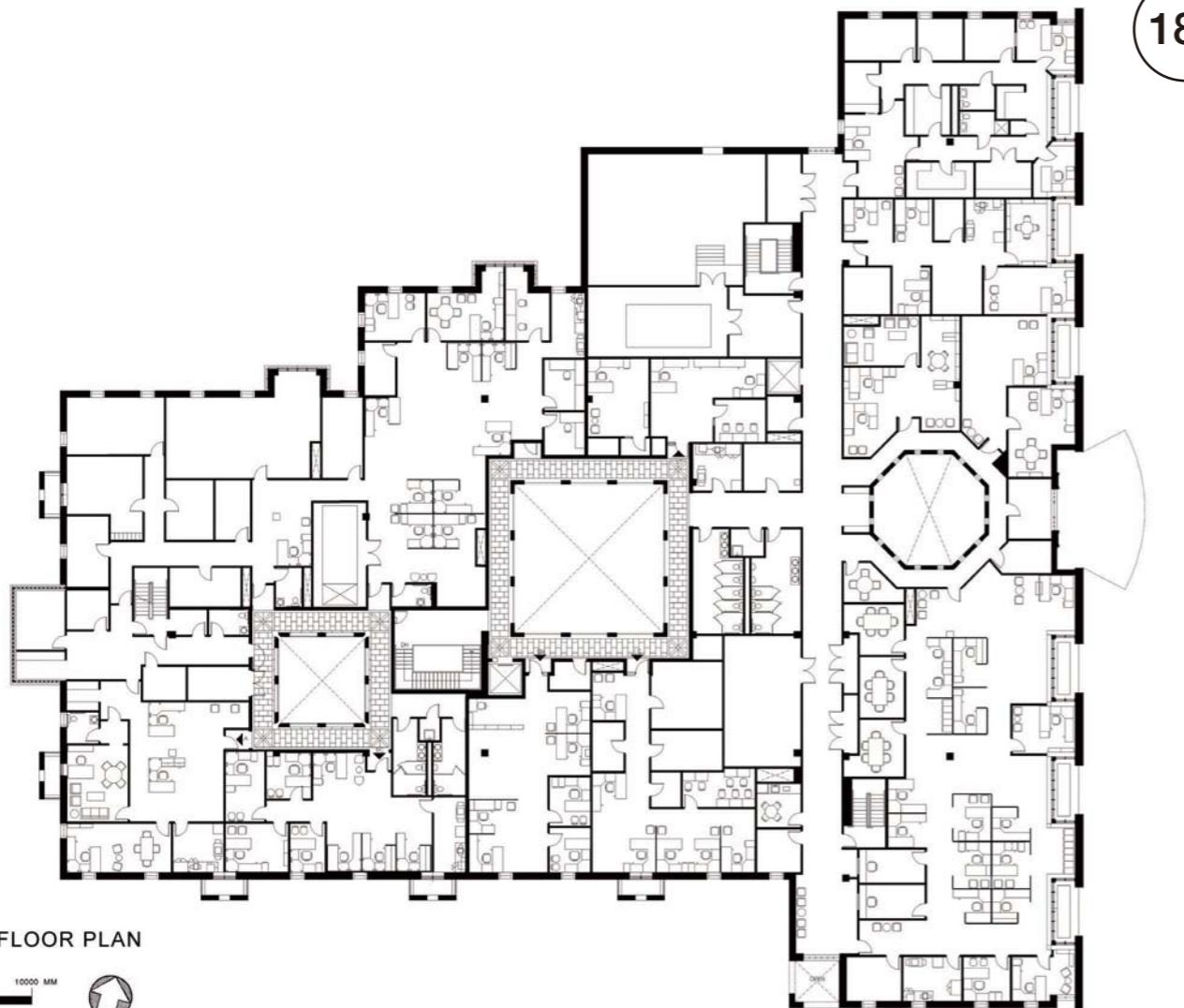
내부

©TAI SOO KIM AND PART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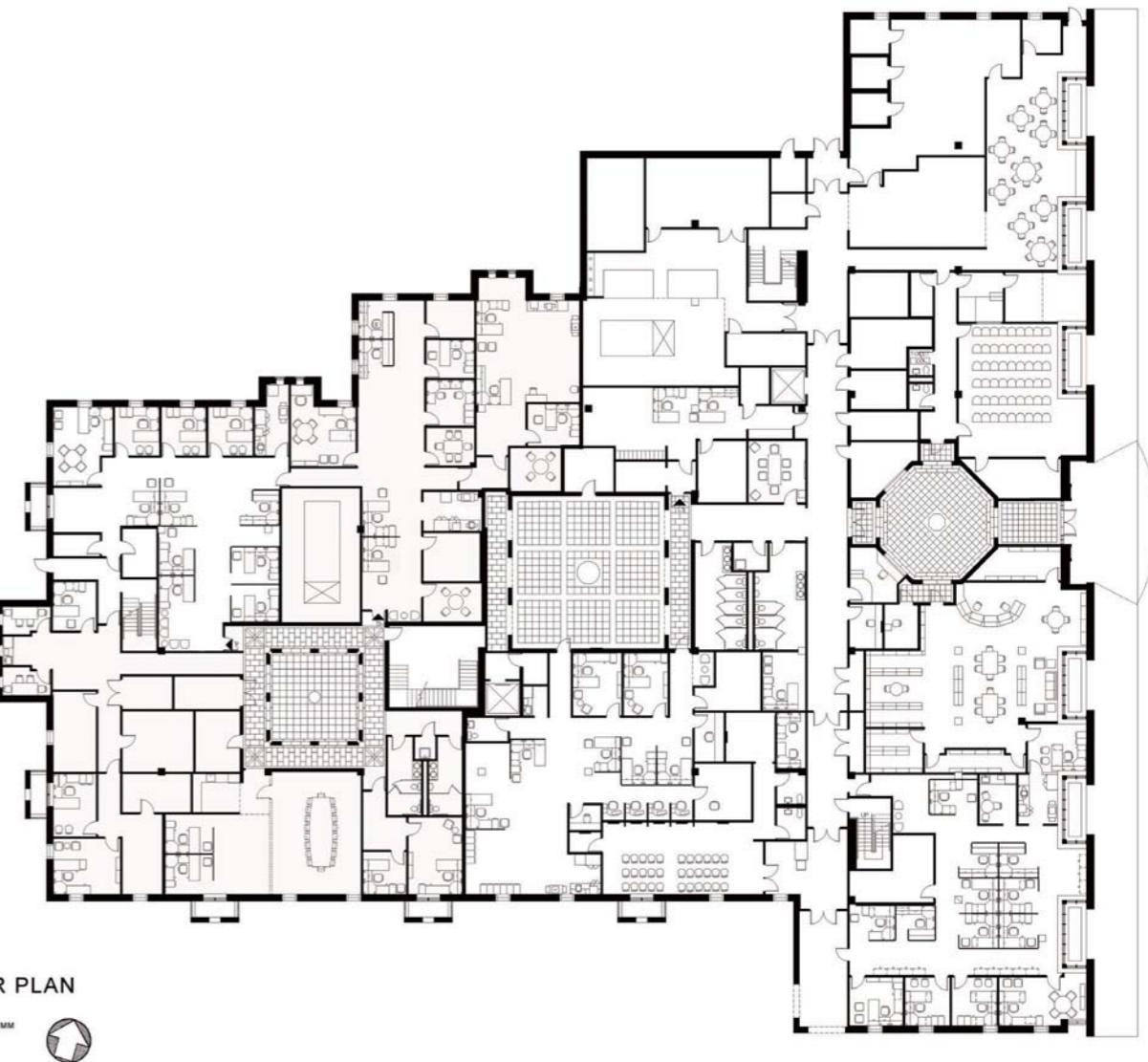
186

187



2층 평면도

SECOND FLOOR PLAN



1층 풍면도 FIRST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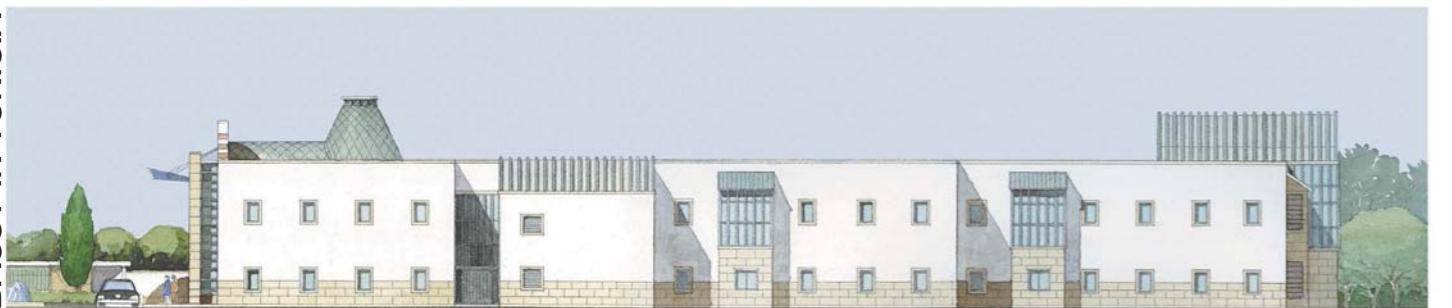
EAST ELEVATION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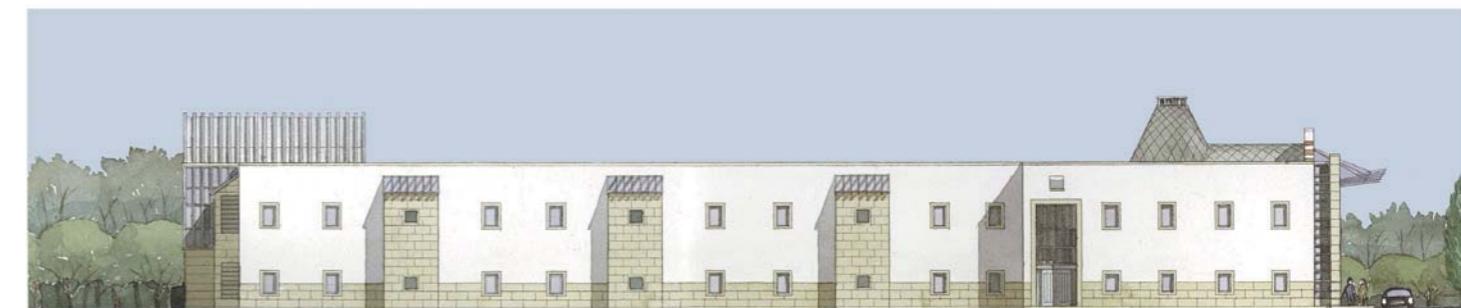
191



WEST ELEVATION



NORTH ELEVATION



SOUTH ELEVATION

동측 입면도
EAST ELEVATION
북측 입면도
NORTH ELEVATION



서측 입면도
WEST ELEVATION
남측 입면도
SOUTH ELEVATION

주요작품
 스탠포드 학교
 콜트 식물원
 블룸필드 유치원
 센트럴 타워

한국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또한 서울과 하트포드를 일 년에도 수차례 왕복하는 생활이 6~7년 이어지면서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김태수는 이 시기에 서울사무소를 정리한다. 이후 현재 서울 강남의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은 약 80층의 <센트럴 타워>이다. 사무실과 호텔로 구성될 <센트럴 타워>는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다. 미국에서는 <콜트 식물원>을 비롯하여 <스탬포드 학교>, <블룸필드 유치원> 등의 학교 작업 역시 지속적으로 해왔다. 최근 10년 사이의 작업들은 좀 더 자유롭고 반복적인 형태로 리듬이 느껴지는 디자인들이 유기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192

193

2005-Present

Major Projects
 Stamford Magnet School
 Colt Botanical Garden Conservatory
 Bloomfield Early Childhood (Magnet) School
 Central Tower

As major projects in Korea were reaching the completion and Kim's health was affected by repeated travel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 six or seven years, Kim decided to close the Seoul branch of his architectural firm. Then, Kim was commissioned to propose a master plan for a site where the Express Bus Terminal in Gangnam, Seoul is currently located. The key building in the master plan is a hotel and office building named Central Tower, which is more than eighty stories in height. The project is currently ongoing. Back in the United States, Kim has been continuing to design diverse buildings such as the Colt Botanical Garden Conservatory, Stamford Magnet School, and Bloomfield Early Childhood (Magnet) School. His works in the recent decade show more liberated and repeated shapes, creating rhythmical designs that are connected in an organic manner.



194

195

196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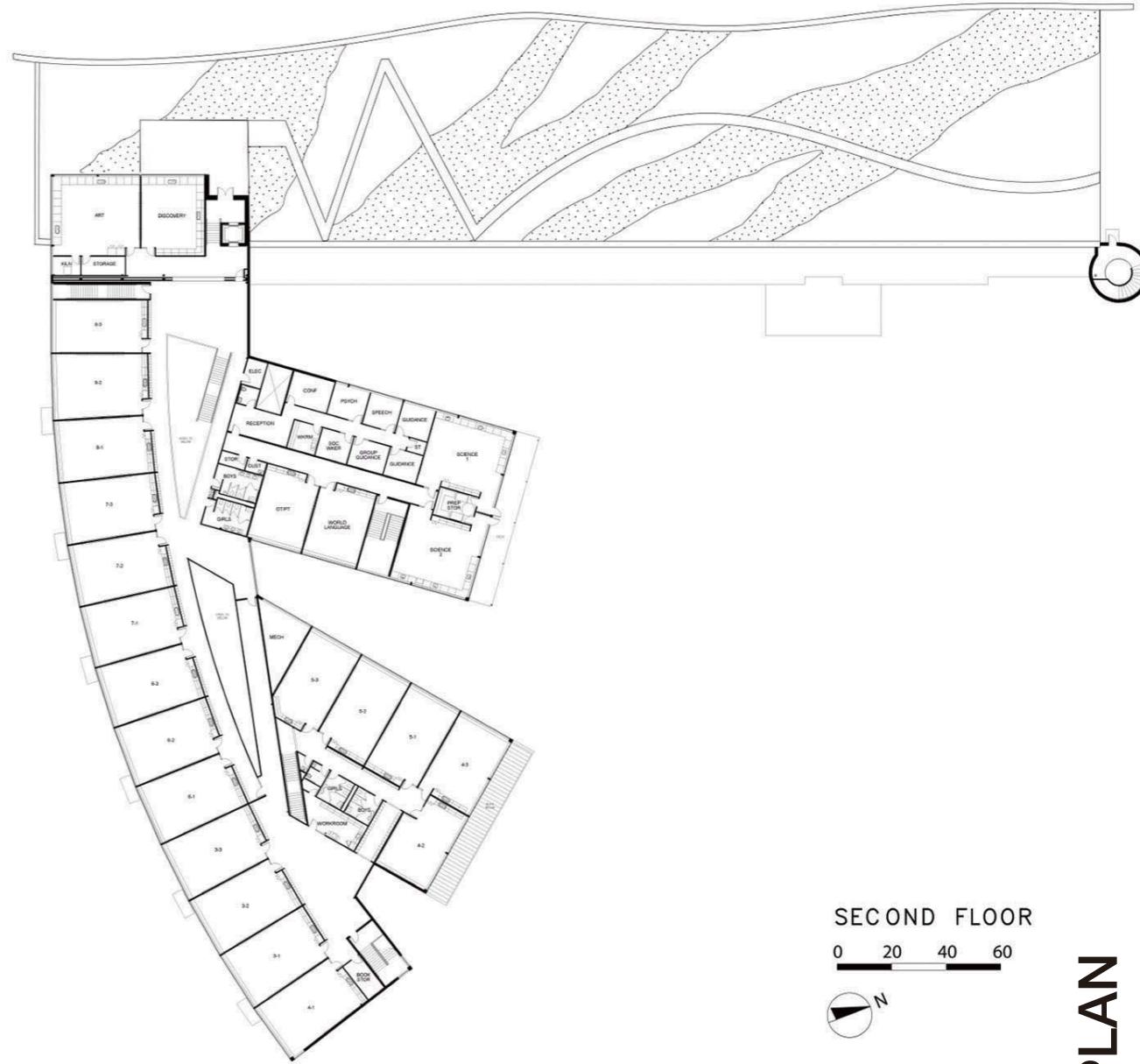




1층 평면도
FIRST FLOOR PLAN

N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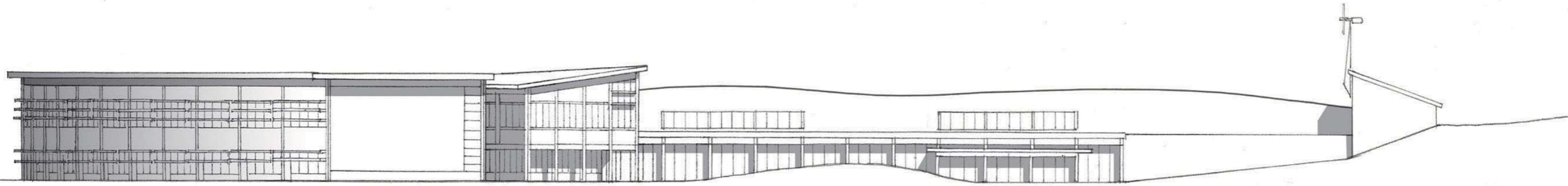


2층 평면도
SECOND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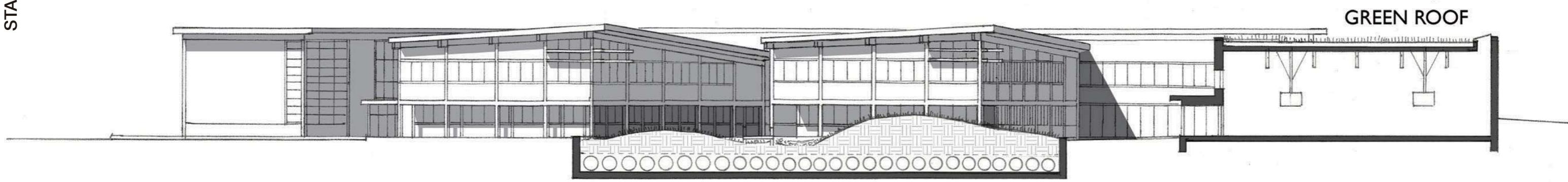
STAMFORD MAGNET SCHOOL

스탬포드 학교

200 201



A. EAST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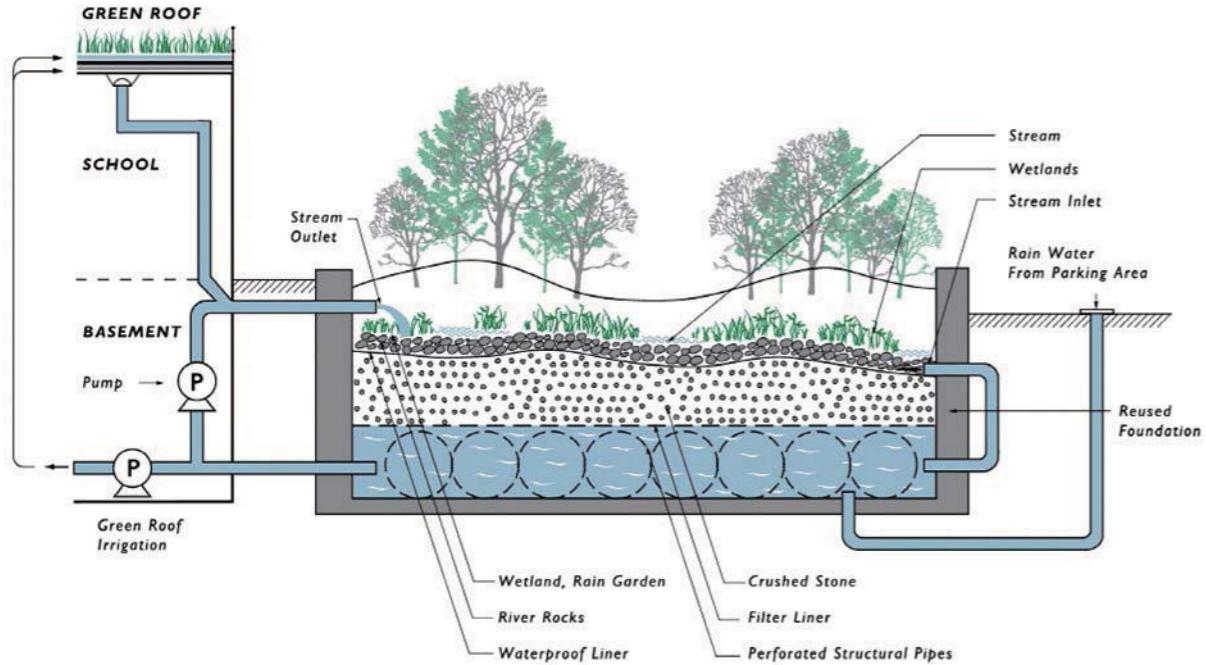


RAIN GARDEN

B. CROSS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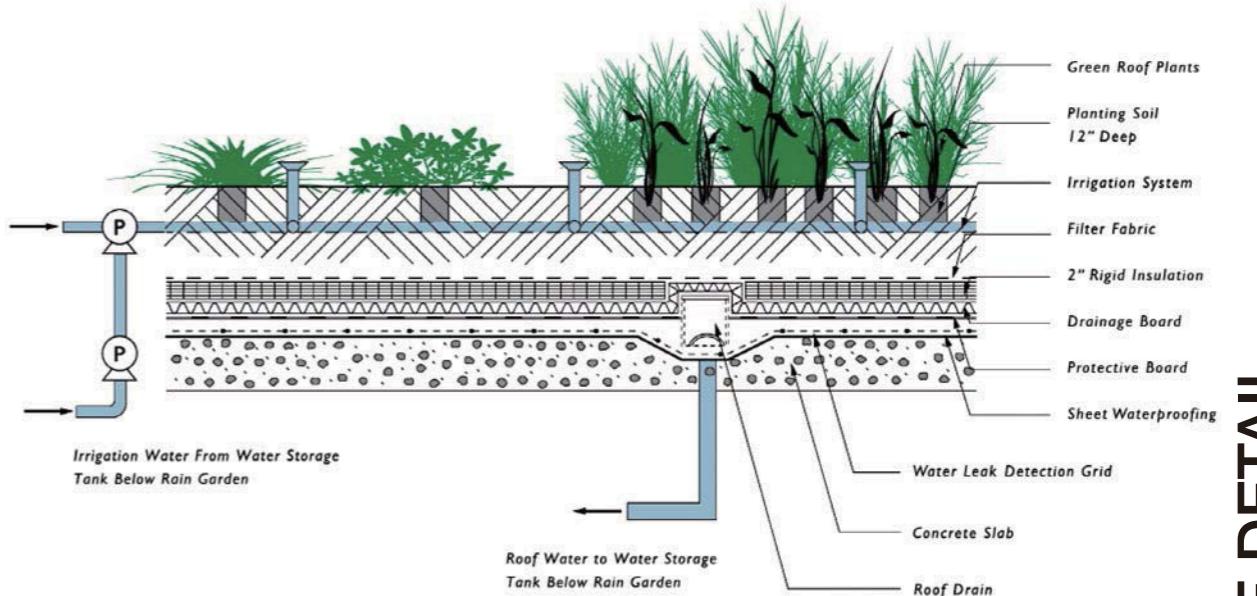
立面도
ELEVATION
단면도
SECTION



RAIN GARDEN

202

203



GREEN RO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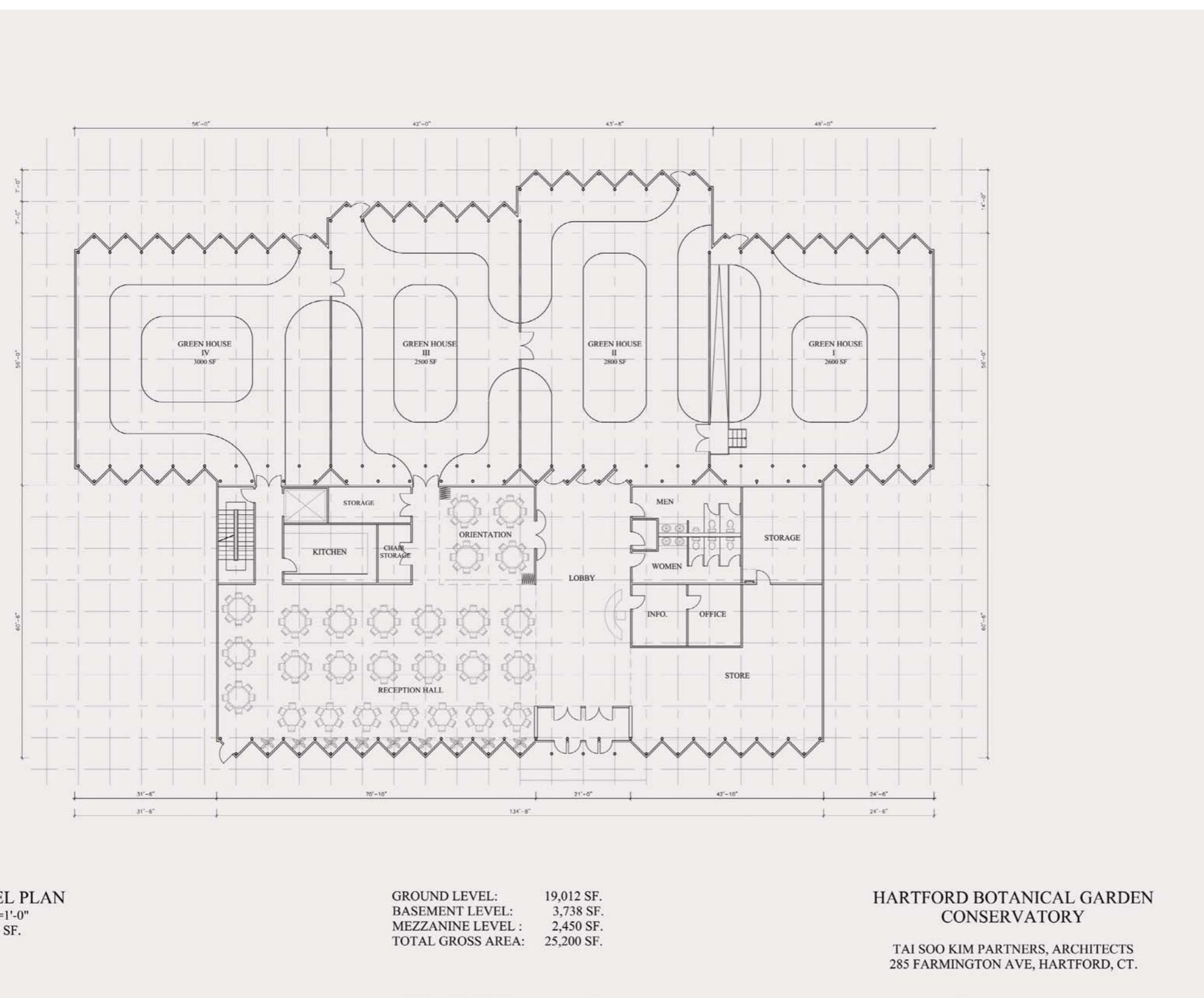
204

205



206

207



208

209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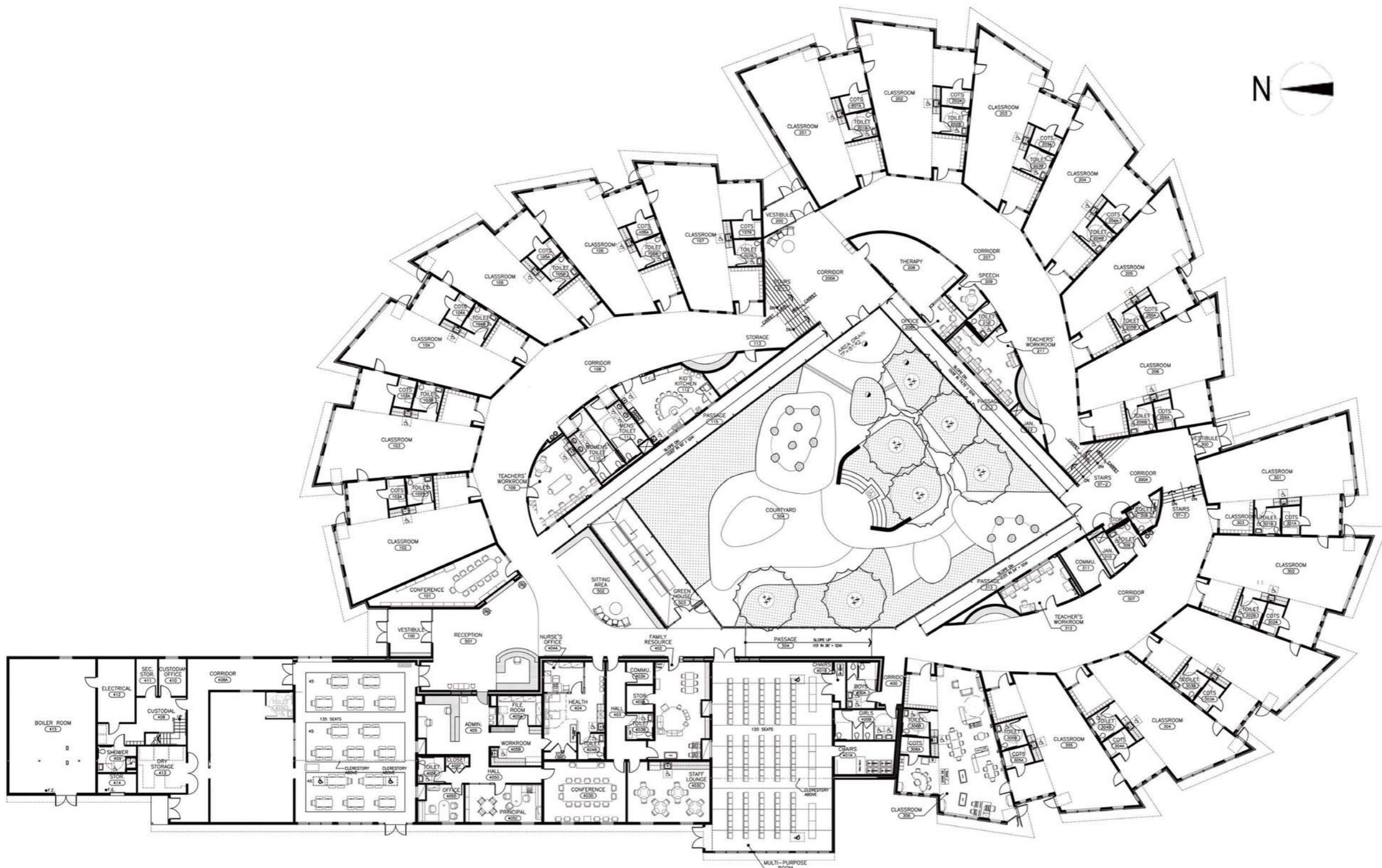
211

BLOOMFIELD EARLY CHILDHOOD (MAGNET) SCHOOL

유元원
블룸필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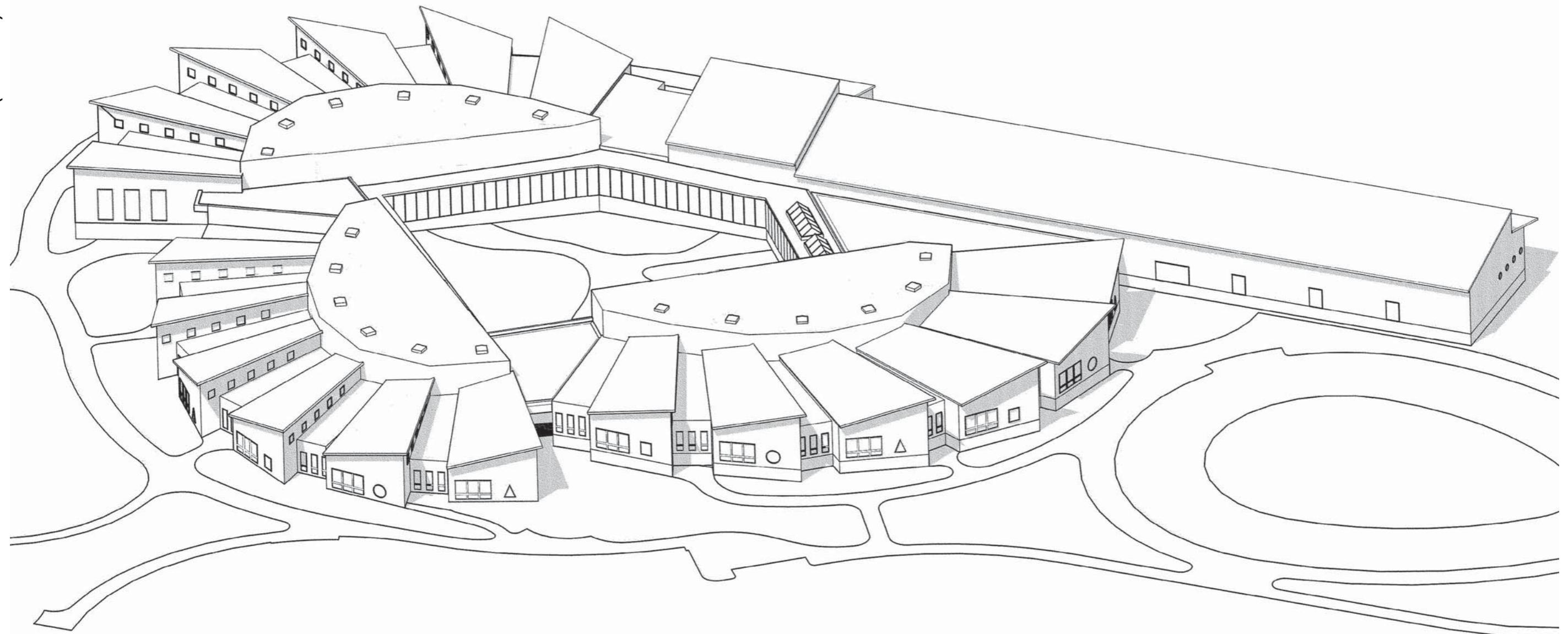
212

213



0 15' 60'

평면도
PLAN



214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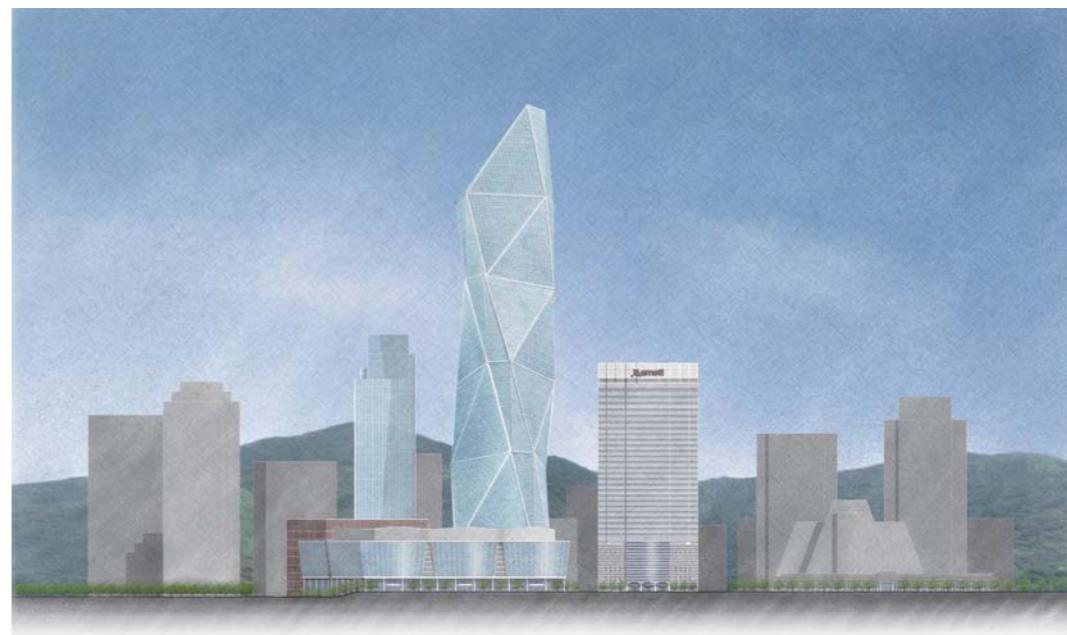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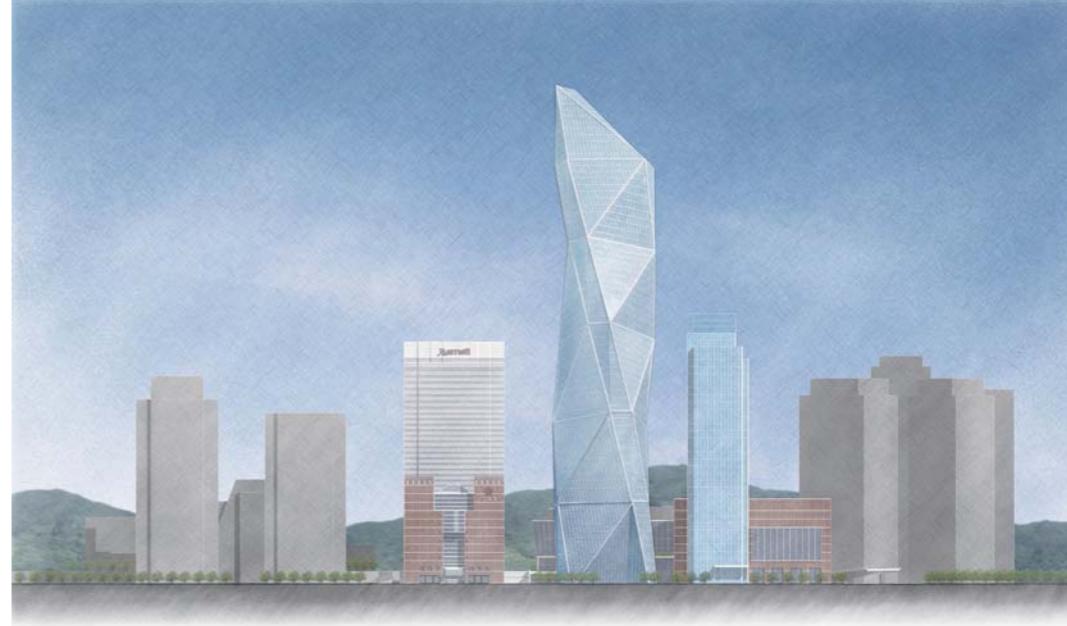
센트럴 타워
CENTRAL TOWER



투시도
PERSPECTIVE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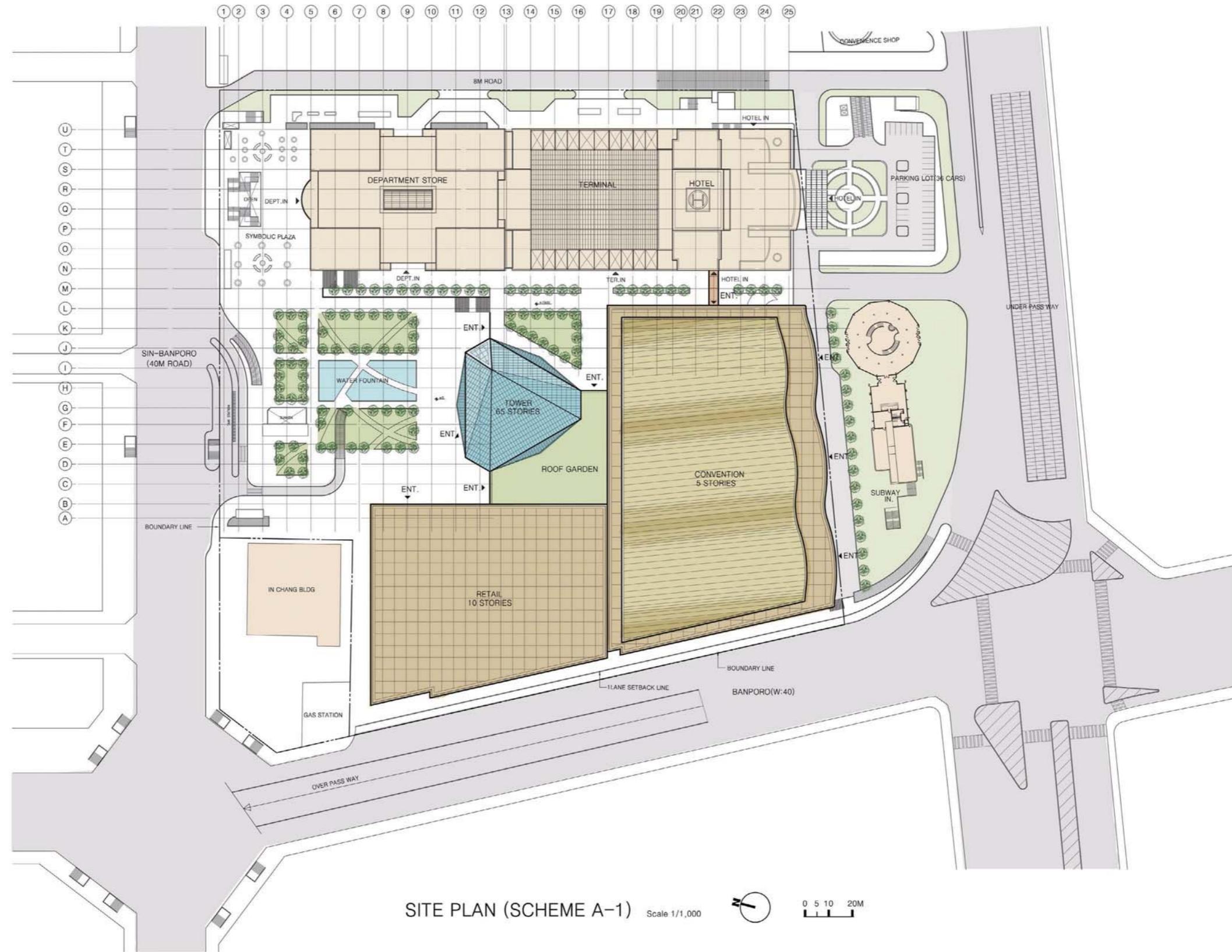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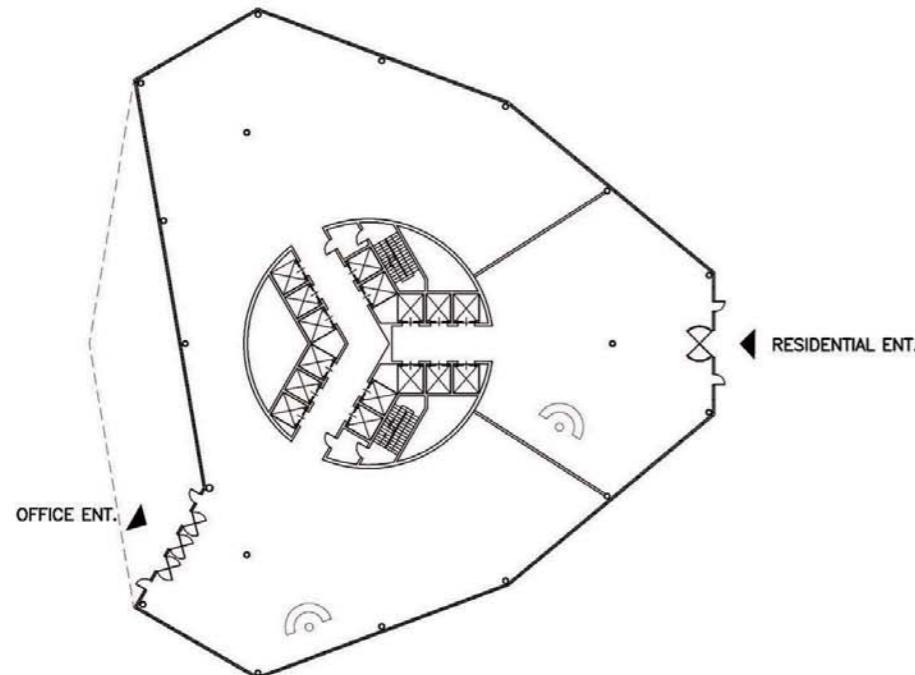
북측 입면도
NORTH ELEVATION
남측 입면도
SOUTH ELEVATION

CENTRAL TOWER

센트럴 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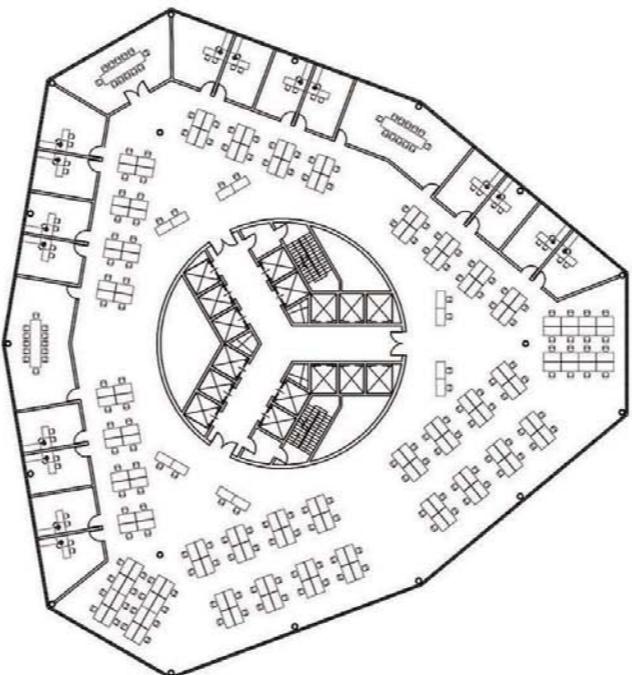
SITE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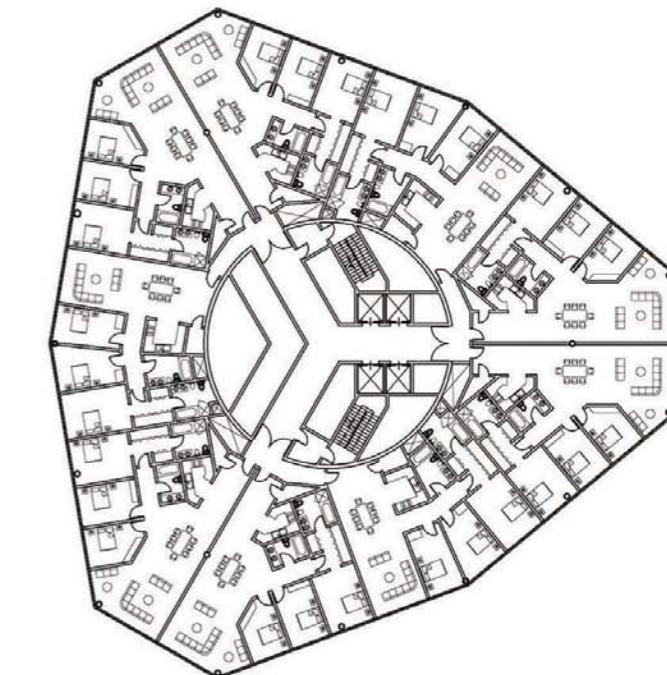
ENTRANCE LEVEL FLOOR PLAN

GROSS AREA: 1700M²

MID LEVEL FLOOR PLAN (OFFICE LAYOUT)

GROSS AREA: 2090M²

UPPER LEVEL FLOOR PLAN (APARTMENT LAY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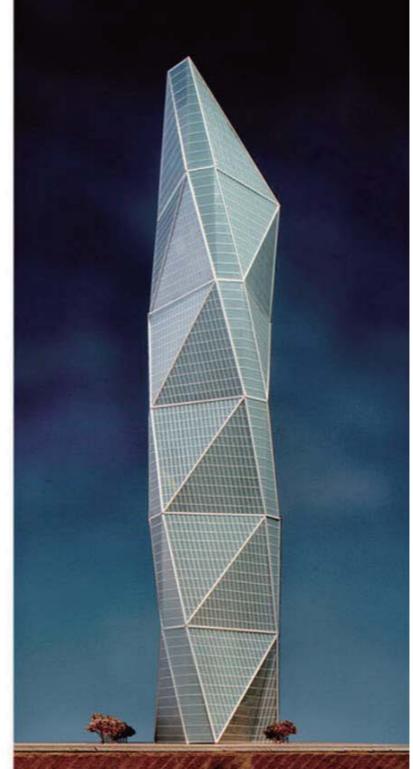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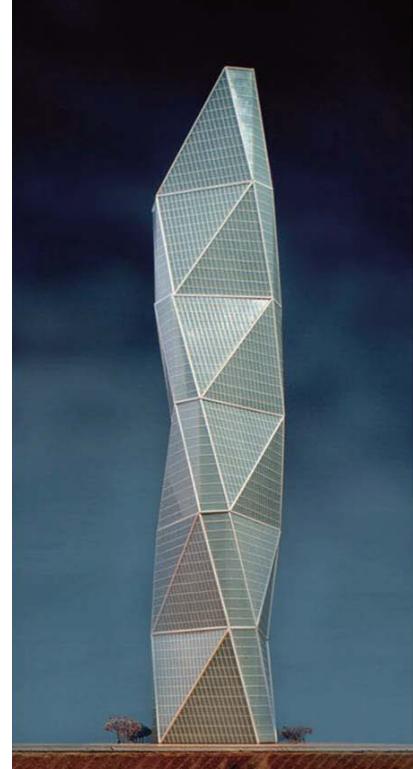
GROSS AREA: 2090M²
AVERAGE 80 PY PER UNIT

SPIRAL TOWER

Scale 1/400

0 2.5 5 10M

220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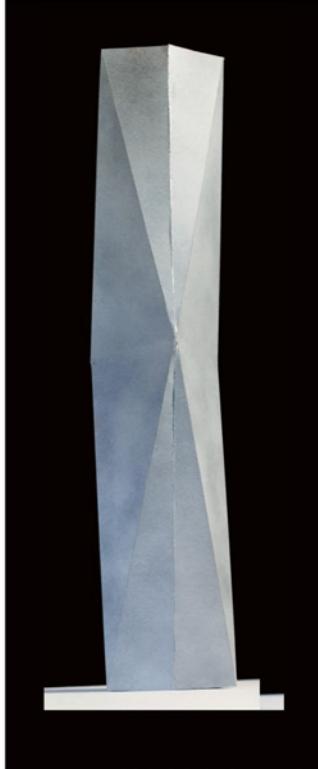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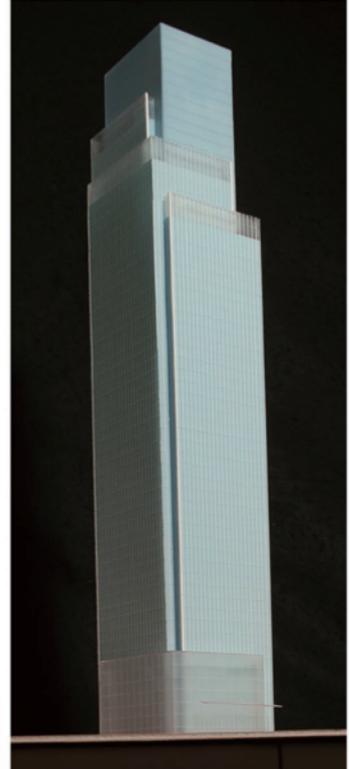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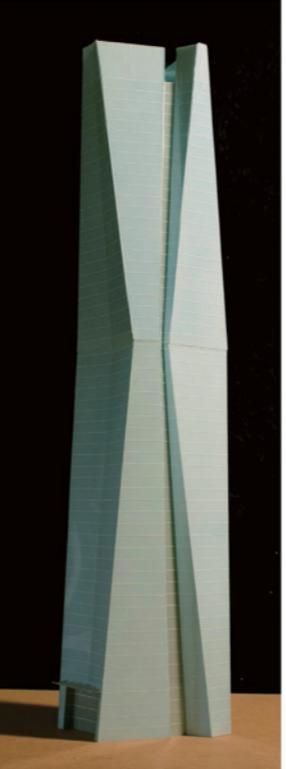


타워 모형

TOWER MODEL

222

223

타워 스터디 모형
TOWER STUDY MODEL

공간의 탄생, 국립현대미술관

1986년 8월 25일 개관이래 30년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서 자리 잡아왔다. 건립 당시의 사회·정치적 배경이 오늘날과는 상당히 달랐고 2016년 지금의 미술관 기능과 역할, 사회에서 미술관에 기대하는 바 역시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미술관 공간은 이러한 변화를 계속 담아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 공간에서는 과천관 30년 특별전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살려 공간의 탄생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의 모습을 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들을 통해 살펴본다.

● 배치 및 진입

미술관 대지에 처음 나가서 주위의 산경과 미술관이 놓일 자리를 보았을 때 느낀 건축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미술관을 주위의 산과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산들은 다른 나라의 산들과 그 느낌이 틀리다. 우리나라의 산세는 그 모양이 섬세하면서도 산으로서의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특이한 감정을 일으켜 주는 산들로서, 이러한 산에다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특별히 힘든 일이며 주의를 요하는 것이다.

— 김태수(국립현대미술관 설계에 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 1986 중에서)

건축의 경험 중에서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이다. 우리나라 전통건축에도 이점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특히 산중에 있는 절들이 이러한 요소를 많이 사용한 예이다. 미술관은 멀리서 보면 능선 위에 얹히어 놓여 있으며 가까이 오면서 각도가 틀려지면서 그 보이는 모양이 틀려진다. 좀 더 가까이 오면 건물은 사라지고 담만 보이게 되며, 도로를 돌아 미술관 입구 진입로로 가까이 오면 별안간 단 형태의 미술관이 놀랍게 나타나고 진입다리 앞에 오면 시메트릭하게 미술관 전경이 파노라믹하게 보여진다.

— 김태수(국립현대미술관 설계에 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 1986 중에서)

● 건물의 형태와 외부재료

건물이 한국의 산세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건물의 스케일이 작아야 하기 때문에 스케일을 줄이는 방법으로 건물의 제일 밑에 거대한 단(platform)을 놓고 그 위에 세 개의 둥근 건물을 놓았다... 멀리서 미술관을 보면 언덕 위에 단이 있고, 단위에 세 개의 둥근 요소가 가볍게 앉아있고 그 뒤에 아름다운 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건물의 외부재료로는 한국에서 가장 흔한 분홍색의 화강암을 전부 쓰기로 하였다. 한 가지의 색깔은 많은 복잡한 건물 형태를 통일하고 은은한

돌 색이 주위의 산의 돌 색깔들과 좋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

— 김태수(국립현대미술관 설계에 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 1986 중에서)

● 근대적 미술관 공간과 조형성의 모색

1968년 문화공보부가 최초로 설립되면서 문화행정과 정책개발이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문예 진흥의 차원에서 많은 박물관들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국립대학교, 국립도서관, 국립박물관 등이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왔음을 고려하면 이는 당시 한국의 상황에서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등이 이러한 시기에 개관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박물관 건축은 전시공간이나 운영의 측면보다는 박물관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전통성의 표현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전통건축의 요소가 외견상 형태적으로 재현되는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평면과 공간구성과 이용에는 한계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이 국내의 뮤지엄 건축사에서 갖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탈피하여 전통의 현대적 해석과 공간과 조형성의 탐구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의 부지 분석과 진입에서 내부로 이어지는 공간구성은 건축가의 의도가 반영된 철저한 분석의 결과물이며, 특히 내부공간을 중성화 한 것 역시 미술관의 합목적성을 추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이 바로 전통의 외형적 재현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던 당시의 여타 문화시설건축들과 차별화되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성격을 잘 드러내준다.

The Birth of a Space: MMCA Gwacheon

Since its inauguration on August 25, 1986, MMCA Gwacheon has become a museum of contemporary art that represents Korea. The social and political background of the museum at the time of its inauguration were considerably different from the present.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museum and the expectation towards the museum in the society of the year 2016 are also different from those from the past. The space of the museum has been reflecting the changes over time, and it will continue to do so. As part of the first special exhibition to celebrate the 30th anniversary of MMCA Gwacheon's inauguration, the current section presents diverse archive materials about the museum from its birth to the present day.

● THE ARRANGEMENT OF BUILDINGS AND THE ENTRANCE TO THE MAIN BUILDING

The foremost important problem that I felt regarding architecture when I saw the site of the museum and the landscape around it was how this gigantic museum would be in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mountains. The mountains in Korea feel different from

the ones in other countries. They induce particular feelings with terrains that are delicate yet magnificent, which makes it especially difficult and requiring more attention when constructing any building near and around them.

— Tai Soo Kim (On Designing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986)

One important aspect is to make what is unexpected emerge from an architectural experience. The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substantially used this aspect. Buddhist temples in the mountains are examples that show its frequent usage. When one approaches the museum, it is seen as if it was put on a ridge. When one comes closer, its shape shifts as the angle of vision is tilted. In more proximity, the building vanishes while the wall is the only visible architectural element. Following the road to make a turn to the access road to the museum, the museum building in its layered shape appears to one's surprise. When one reaches the

bridge that connects to the entrance of the museum, one can encounter a panoramic view of the museum complex that boasts symmetry in its composition.

— Tai Soo Kim (On Designing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986)

● ABOUT THE SHAPE OF THE BUILDING AND THE MATERIAL USED FOR ITS EXTERIOR WALLS

Since the scale of the structure should be small in order to be in harmony with the terrain of Korean mountains, I placed a big platform at the bottom on which three round buildings are put... Seen from afar, the museum looks as if a platform was placed on a hill, three circular elements lightly sitting on the platform. It is in harmony with a beautiful mountain that lies behind it... For the exterior of the building, I decided to use pink granite that is the most common material in Korea. A singular color unifies the complex shape of the building. The delicate color creates

good harmony with the color of stones in the surrounding mountains.

— Tai Soo Kim (On Designing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986)

● THE SEARCH FOR A MODERN MUSEUM SPACE AND FORMATIVE QUALITY OF ARCHITECTURE

As the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now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 and Tourism) was established in 1968, the central government started to manage the cultural administration and policy development. In the 1970s, a number of museums were built as part of promoting cultural activities. Considering that national universities, libraries and museums had been important measures to establish the national identity in different countries, the installation of museums in Korea can be seen as a natural phenomenon. Buyeo National Museu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and Gyeongju National Museum opened during the period. However, the architecture of

the museums often did not focus on their exhibition spaces or operation but the expression of their symbolic value and traditional qualities. Such focus on the figurative representation of traditional architectural elements also revealed limitations in organization and usage of space.

The meaning of MMCA Gwacheon in the history of museum architecture in Korea comes from the fact that it moved away from such an approach and sought to interpret tradition in a modern way and find formative qualities. The general organization of different buildings in the museum complex and the spatial organization from the entrance to the interior of the main building are a result of the Kim's thorough analysis of the site. In particular, the neutralization of the interior space is also a result of his pursuit of purposefulness of the museum building. All these elements display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then), Korea, which is different from the buildings of other cultural facilities that merely focused on the figurative representation of tra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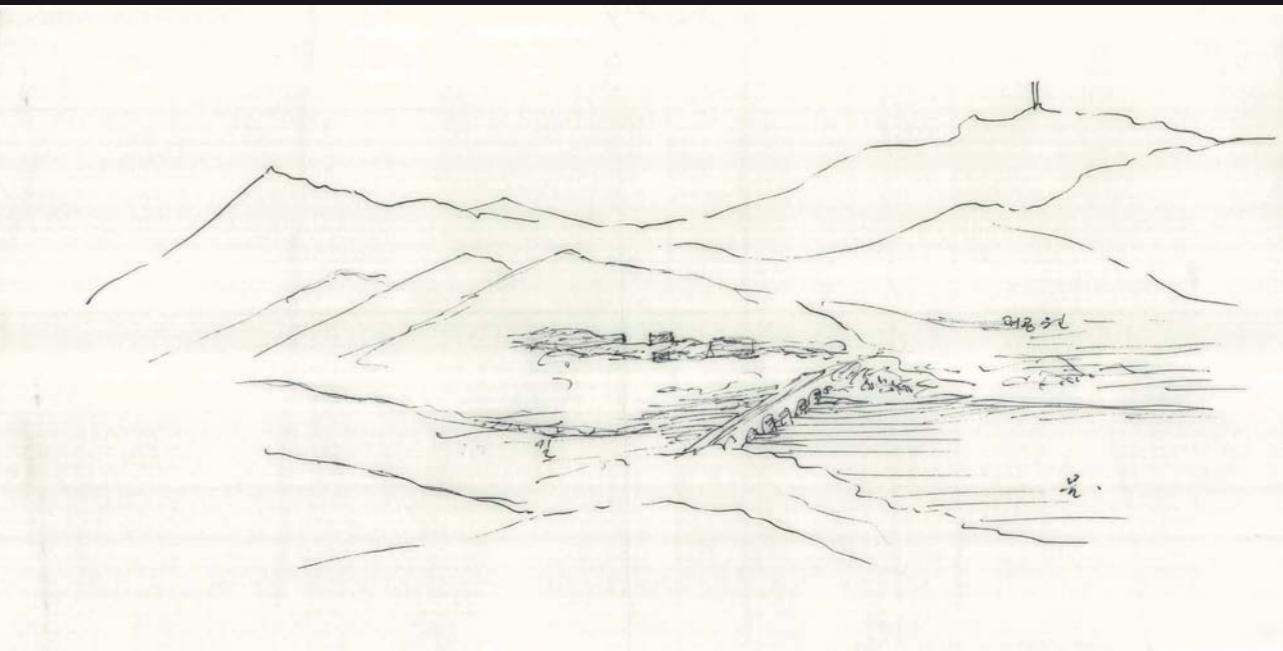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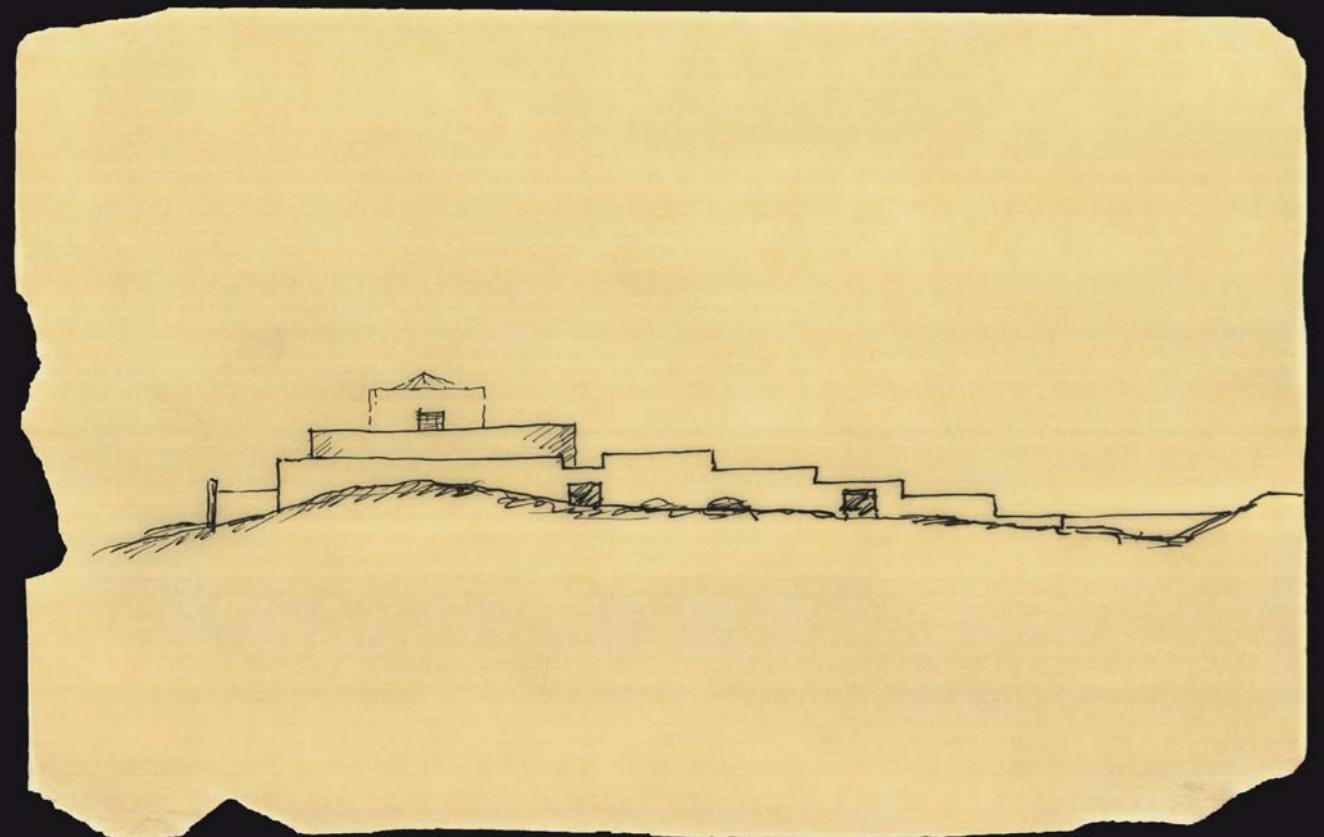


외부
©PAUL WARCH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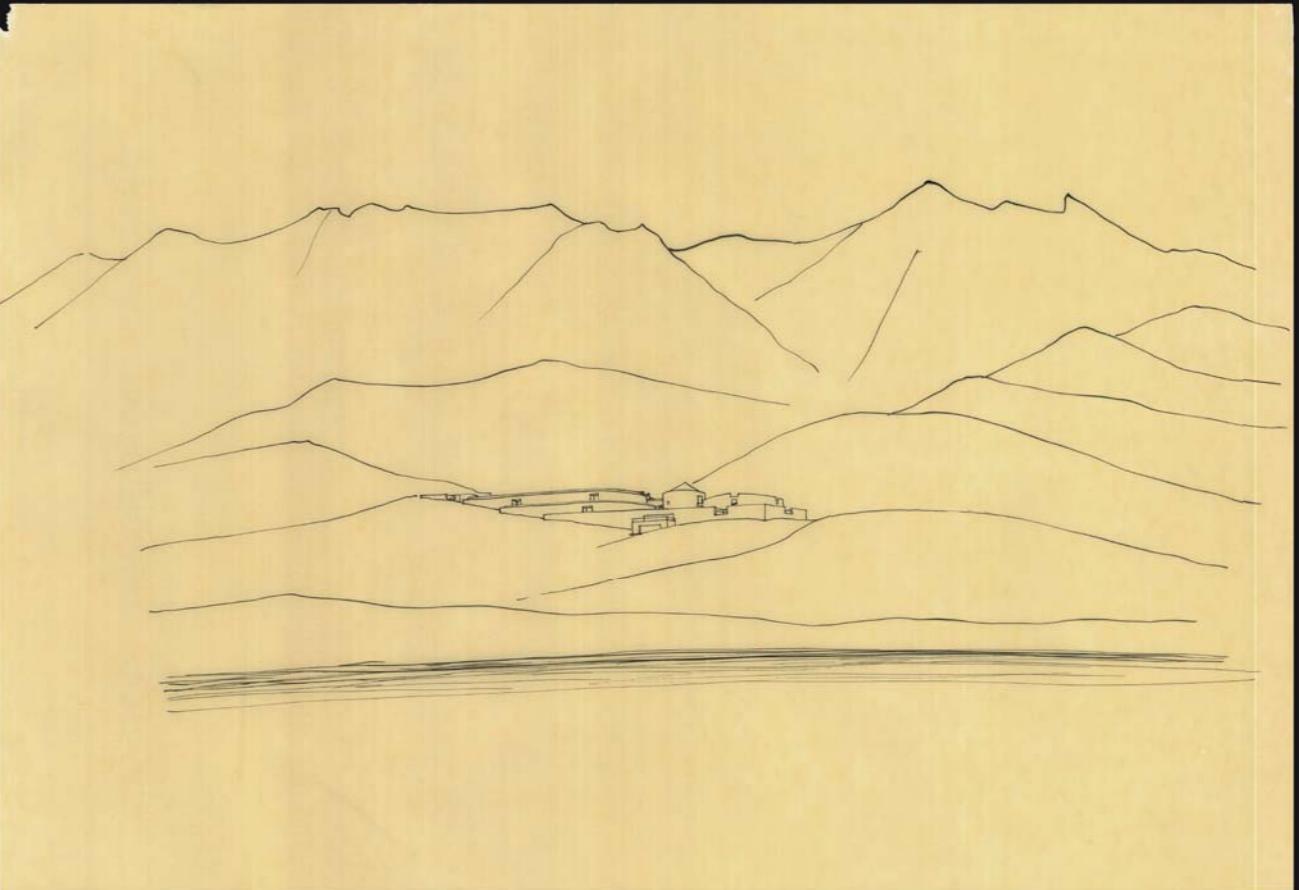


내부
©PAUL WARCH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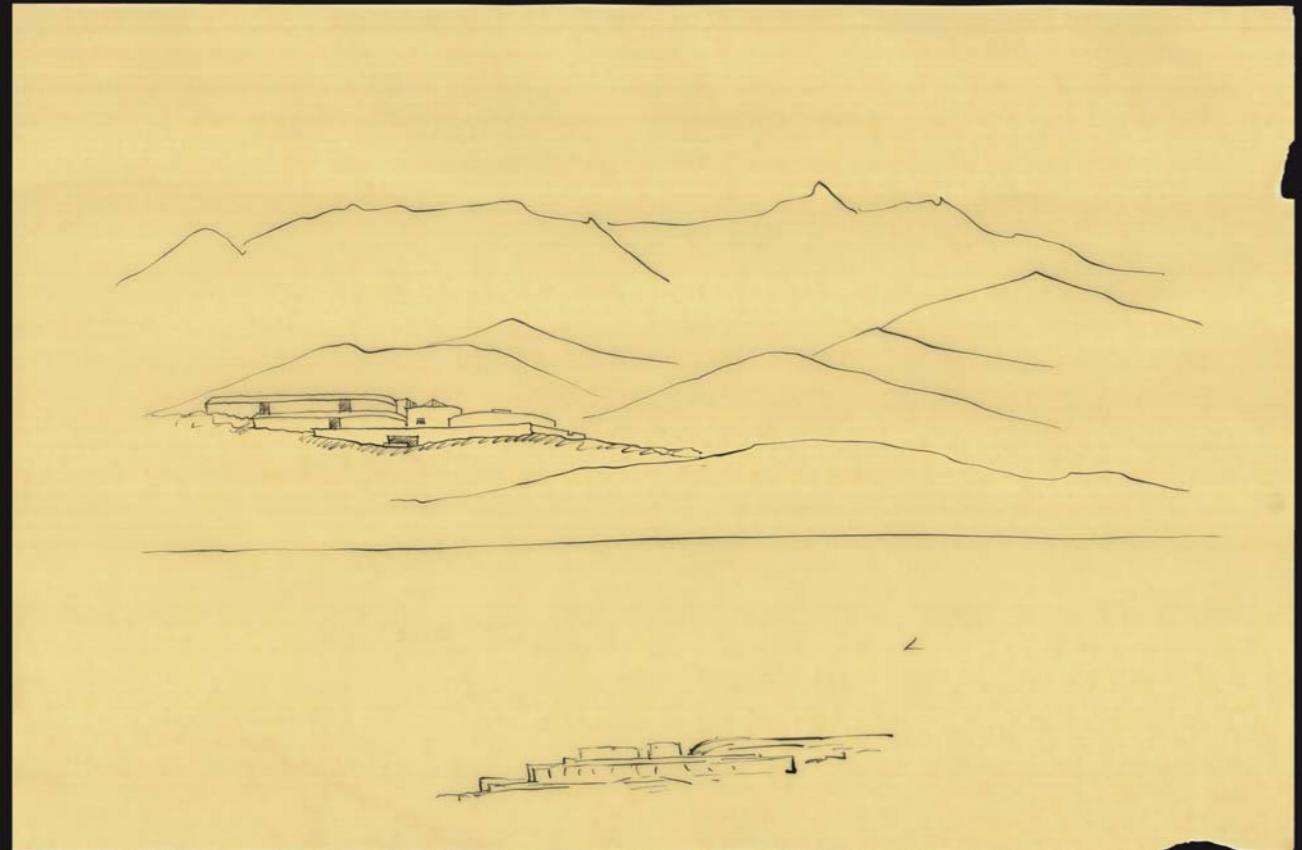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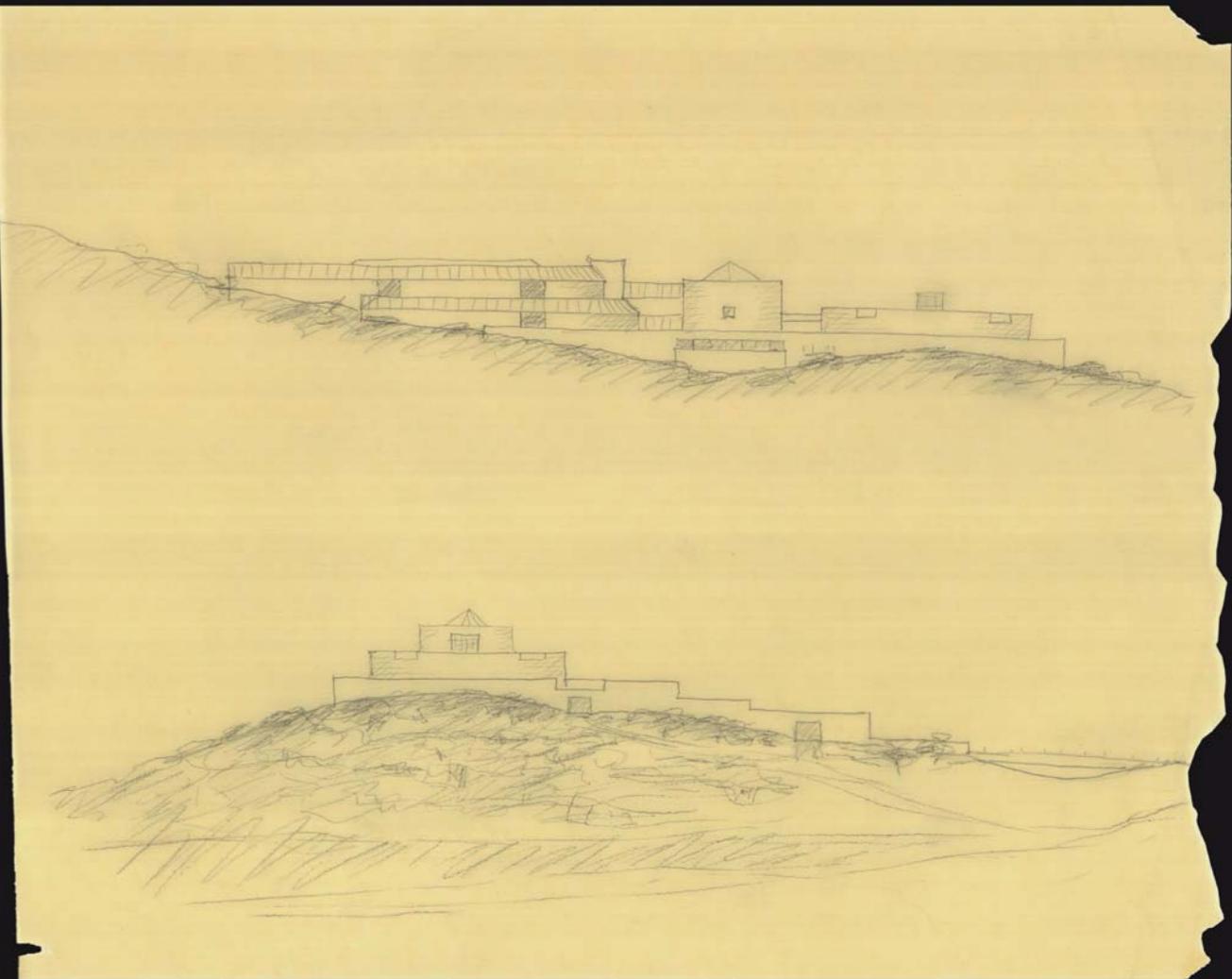
스케치
SKE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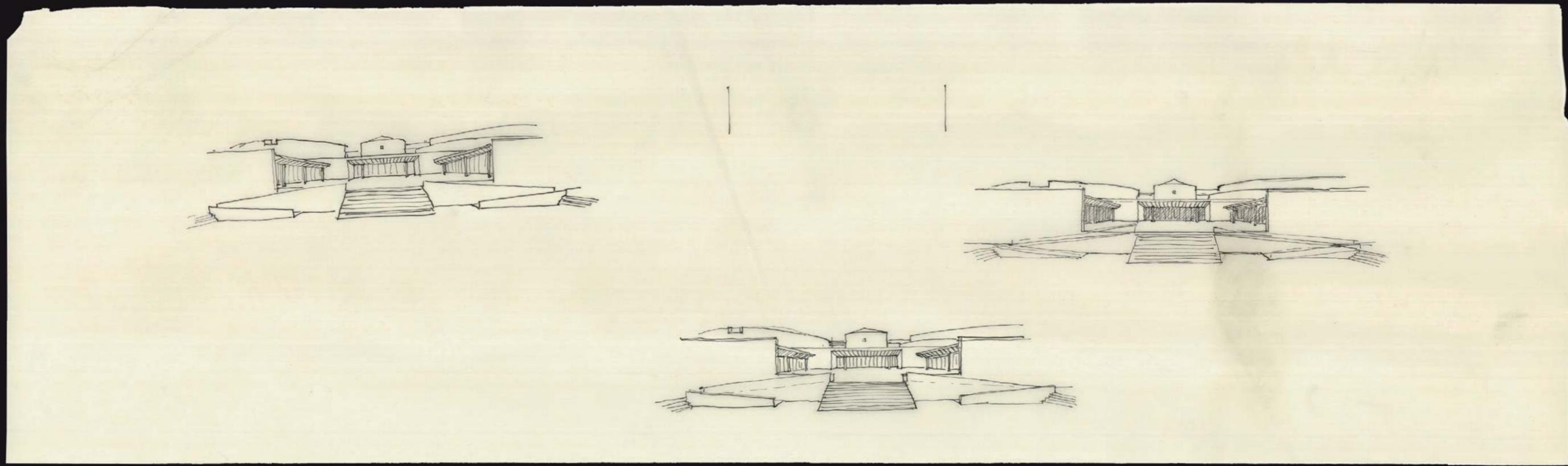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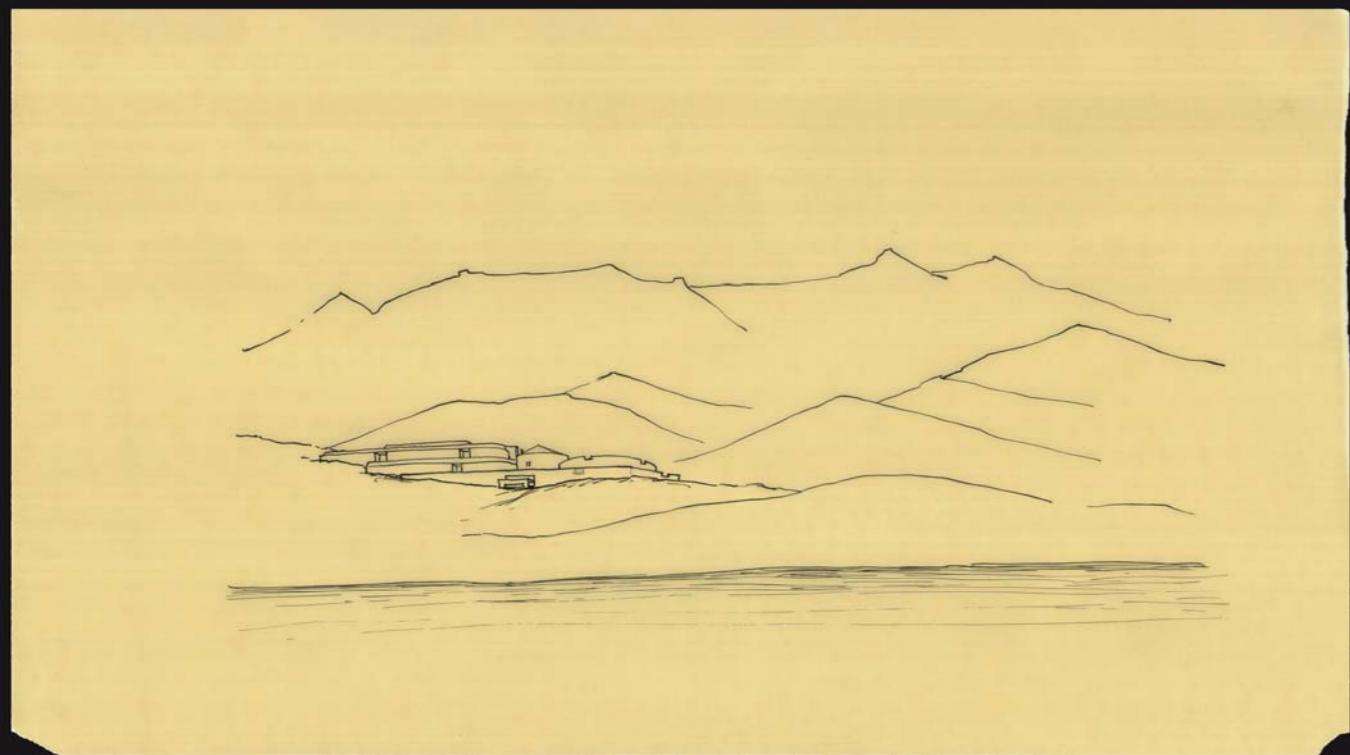
스케치
SKE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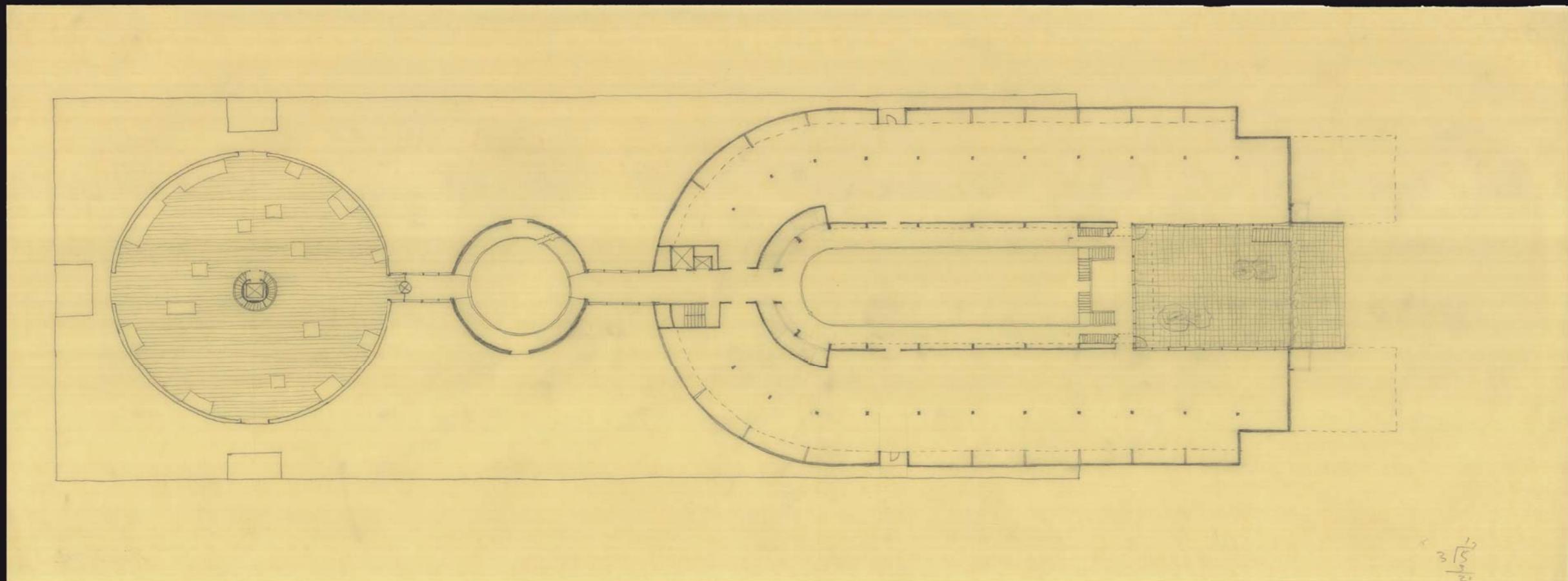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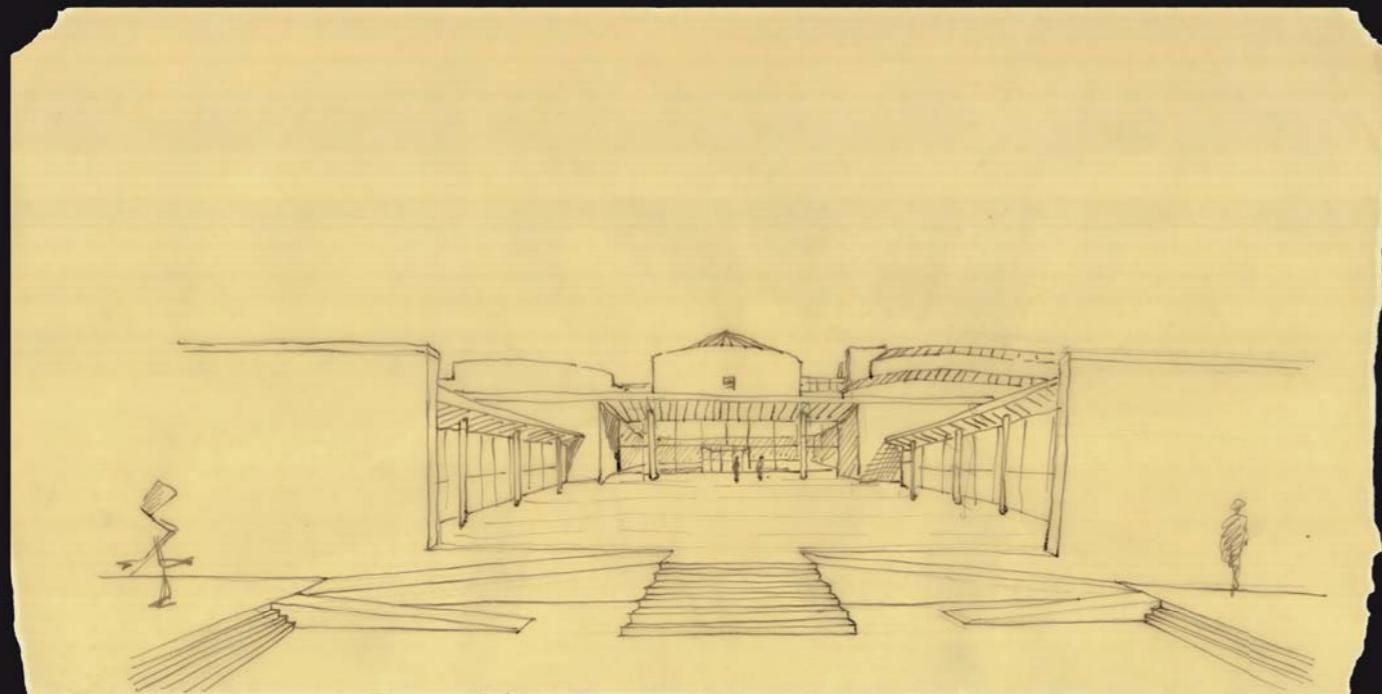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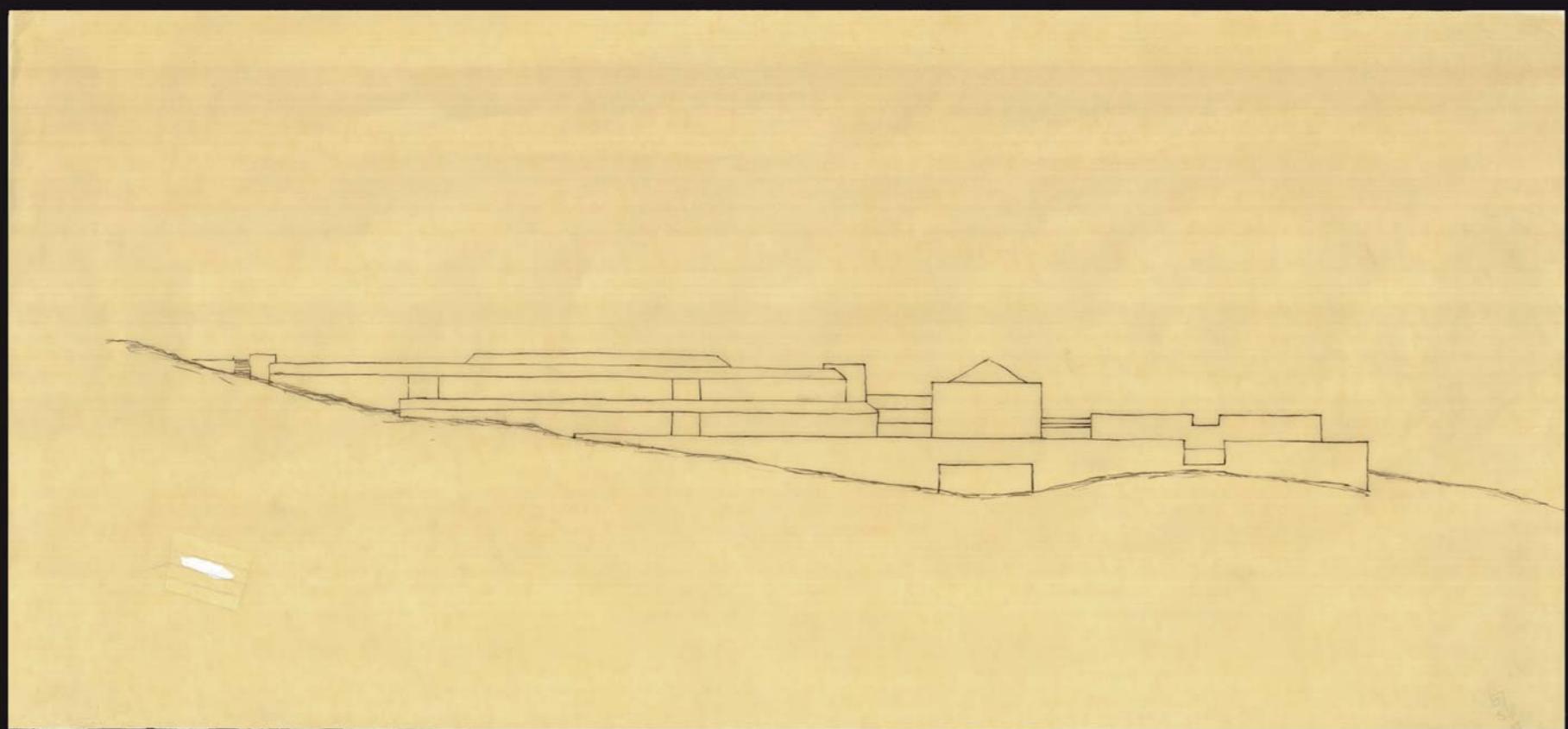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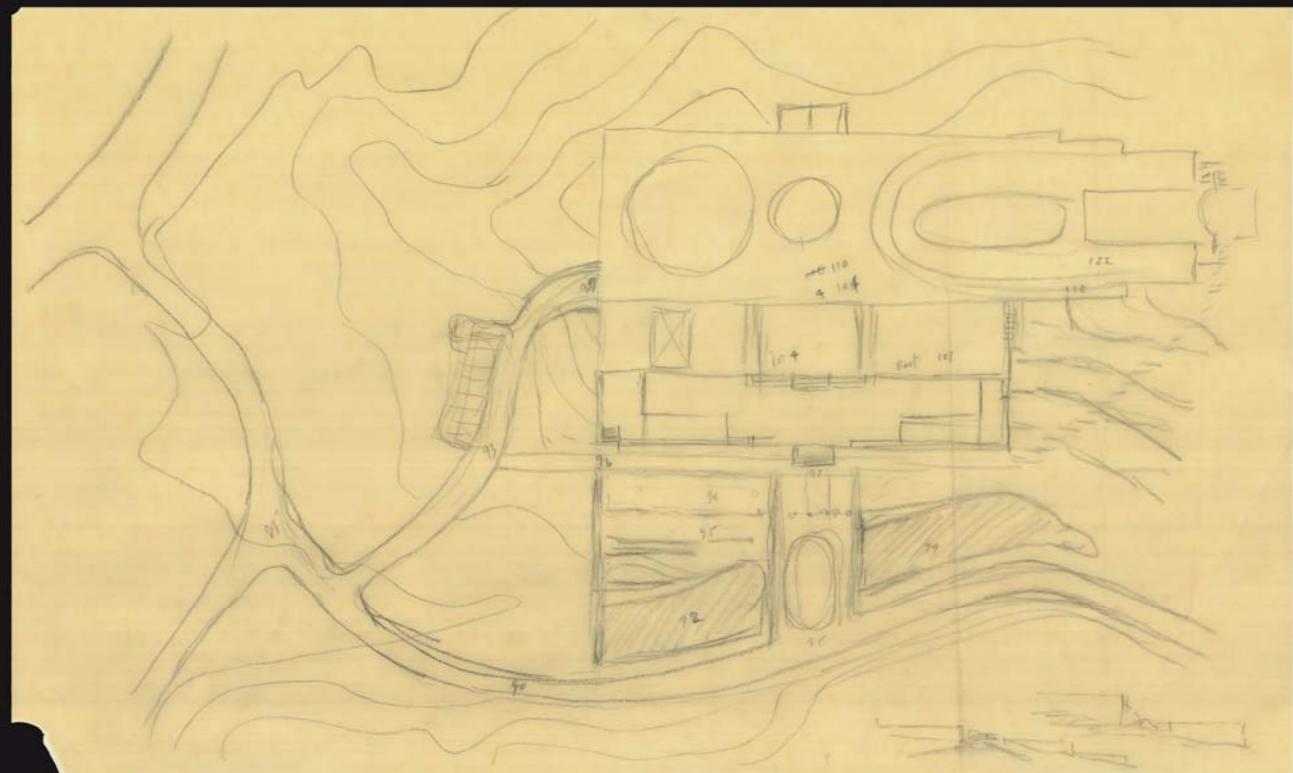
스케치
SKE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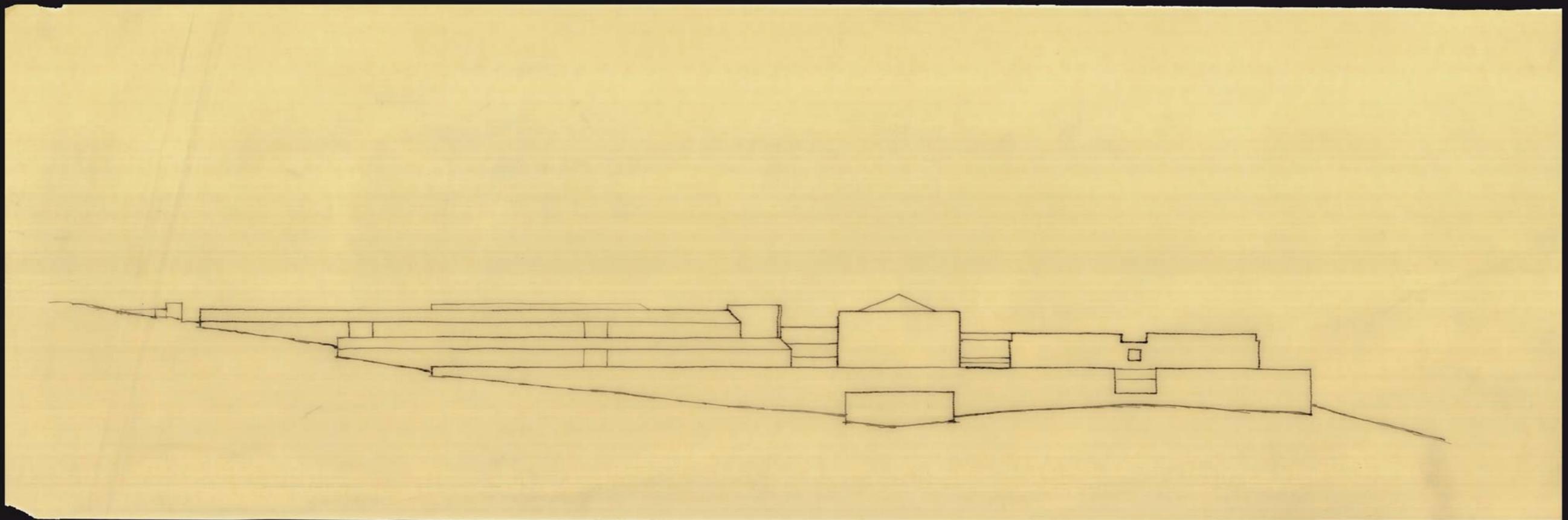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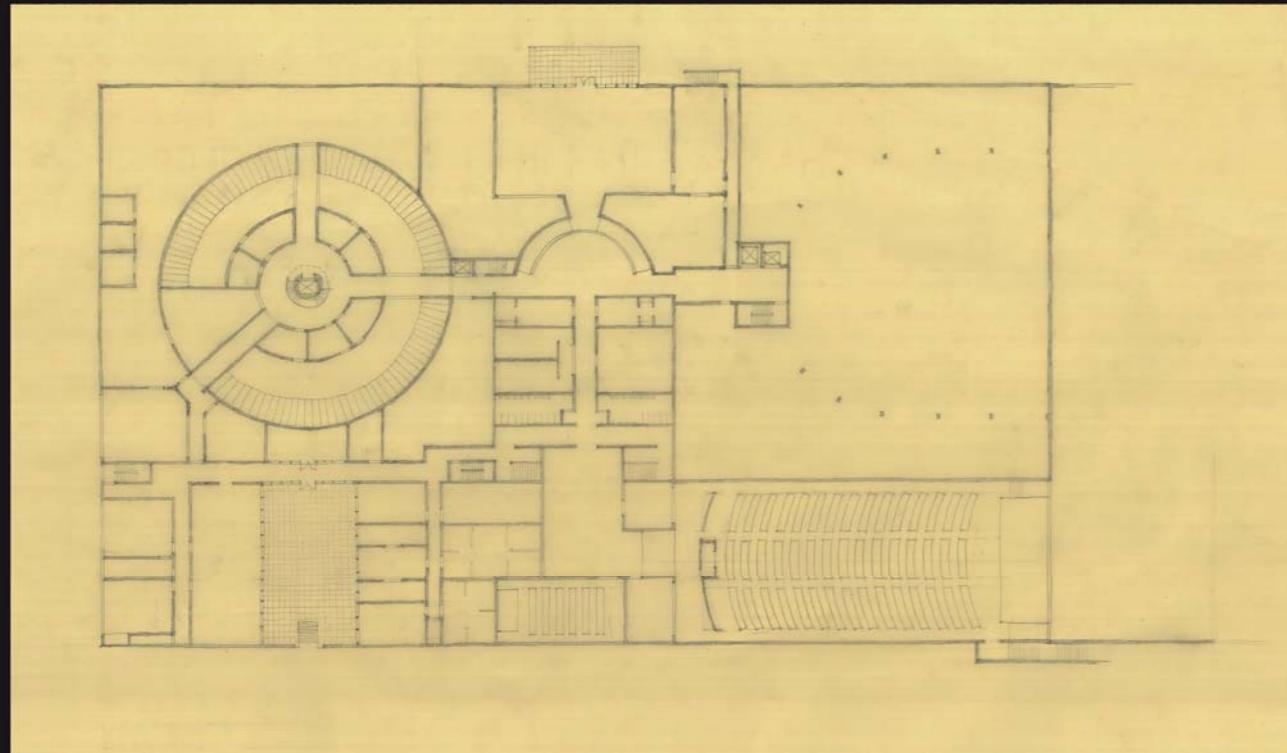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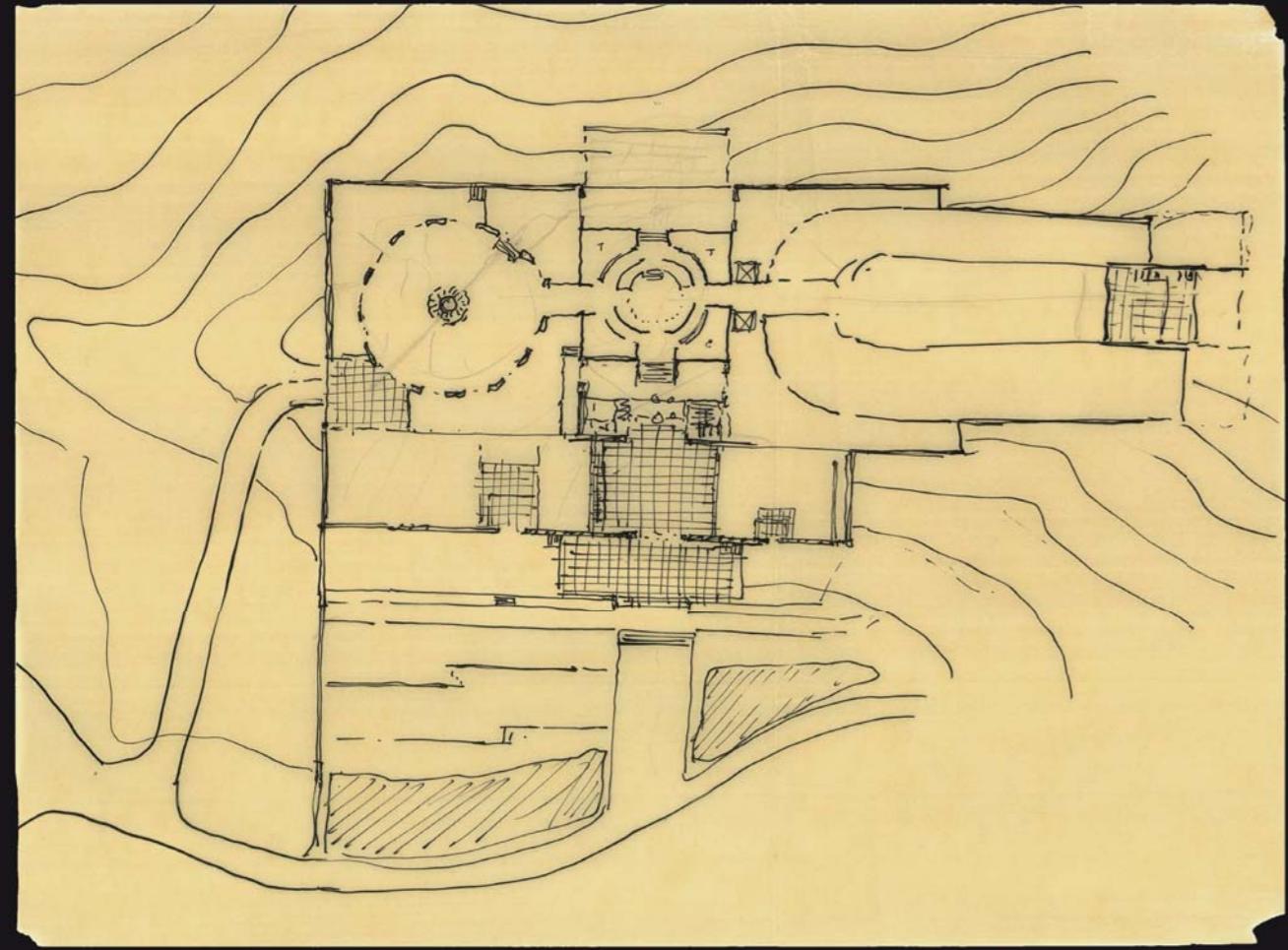
스케치
SKE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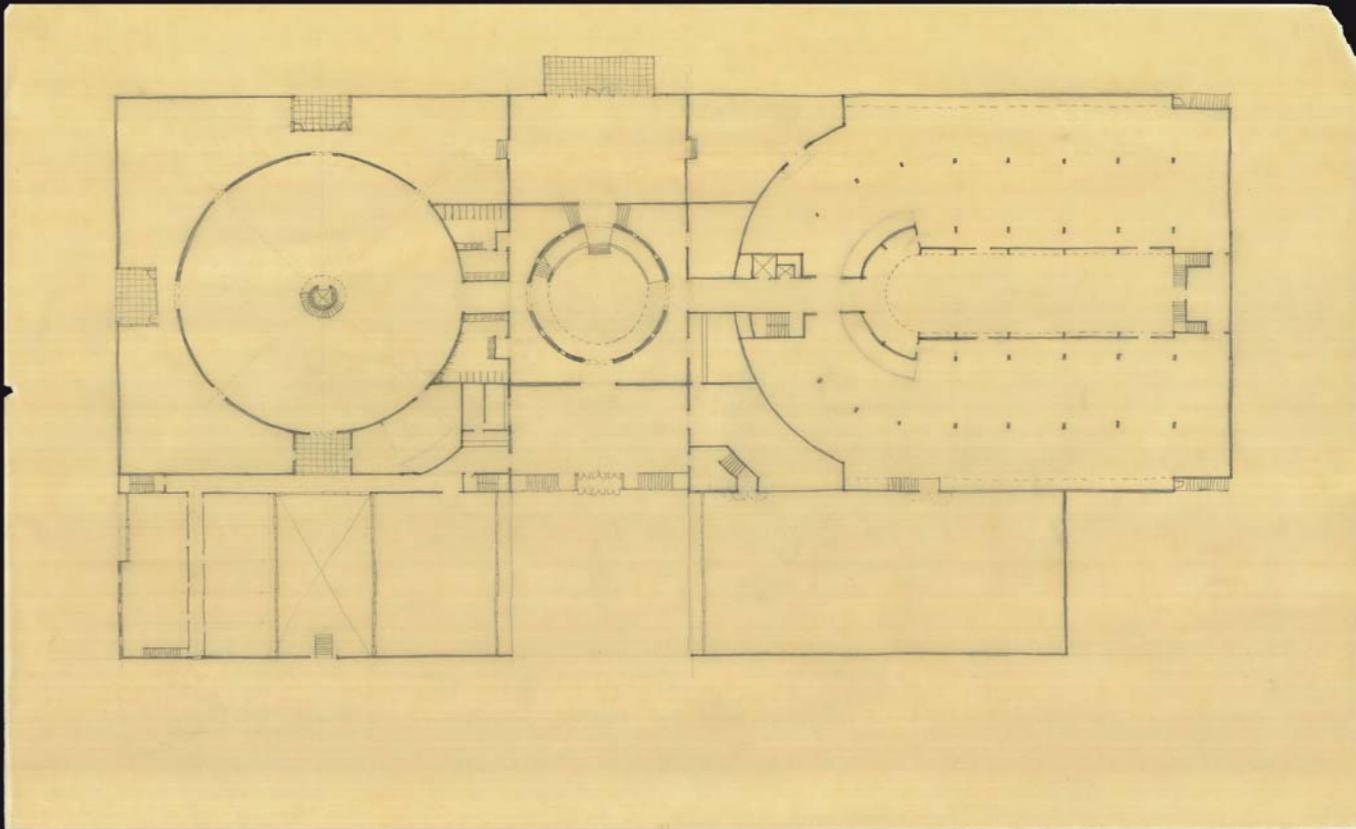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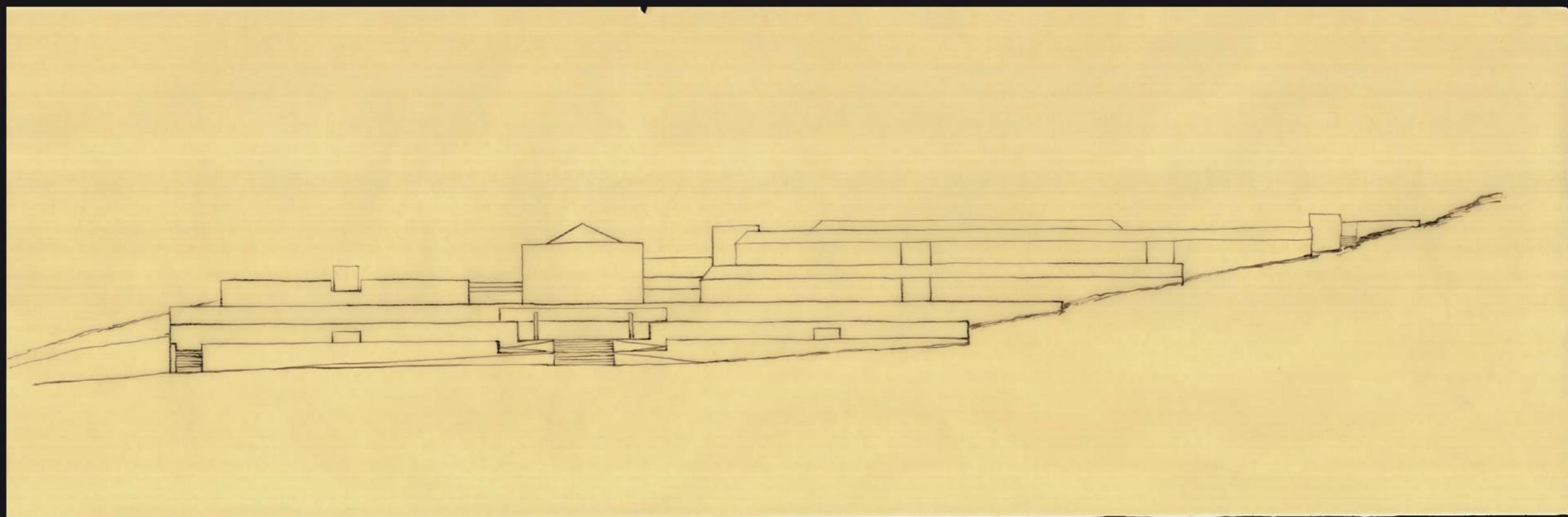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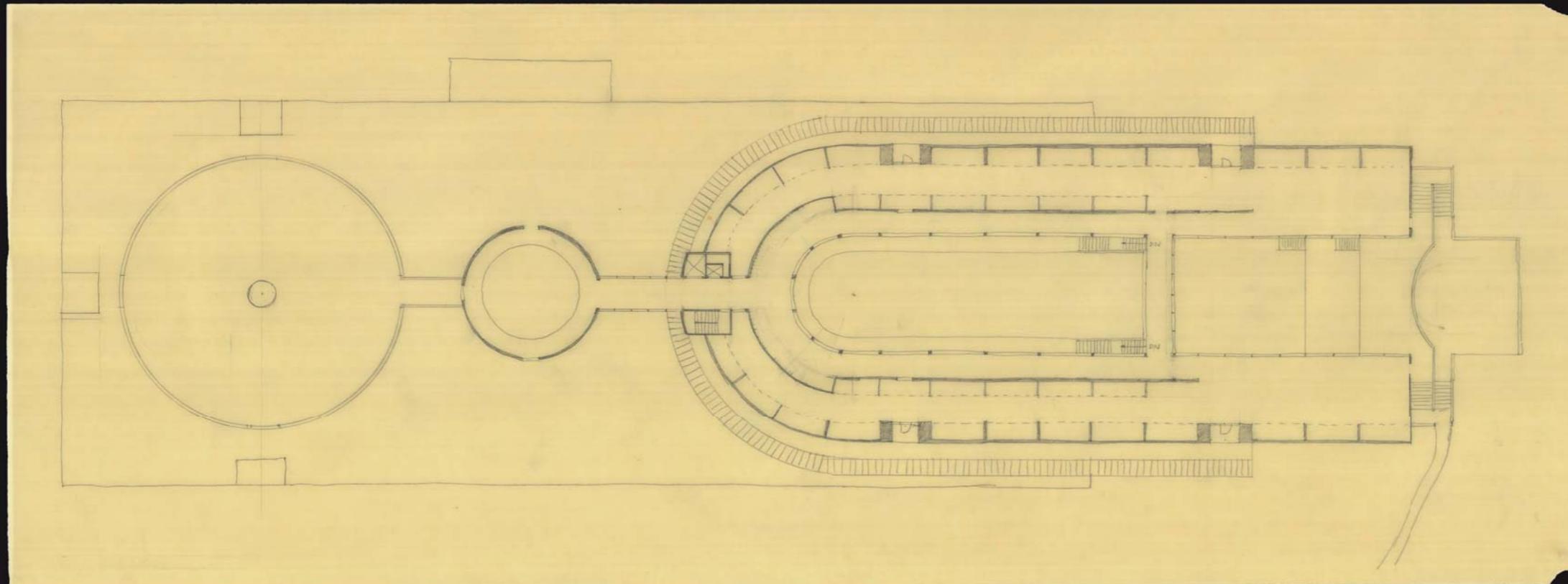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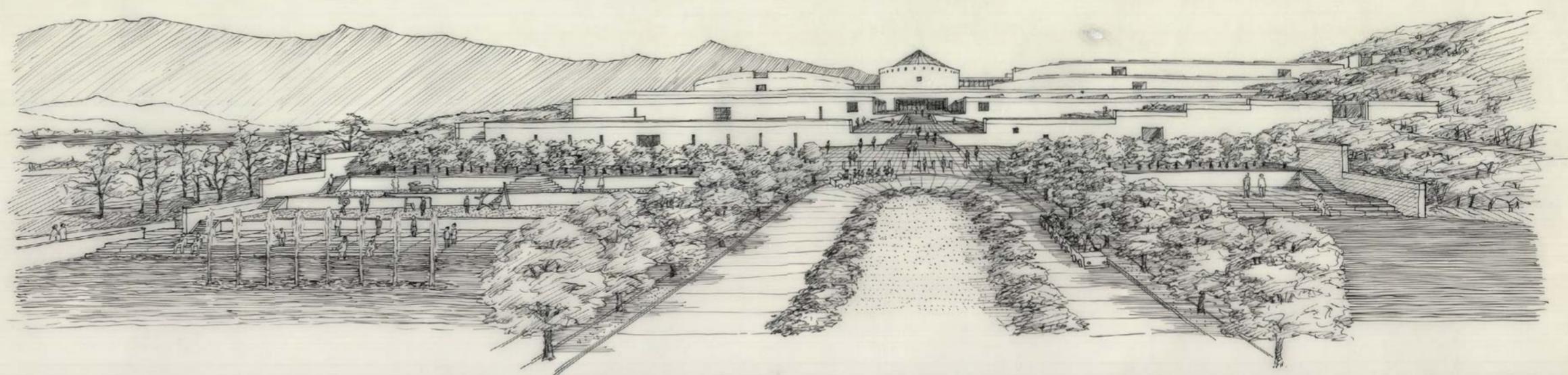


스케치
SKETCH

스케치
SKE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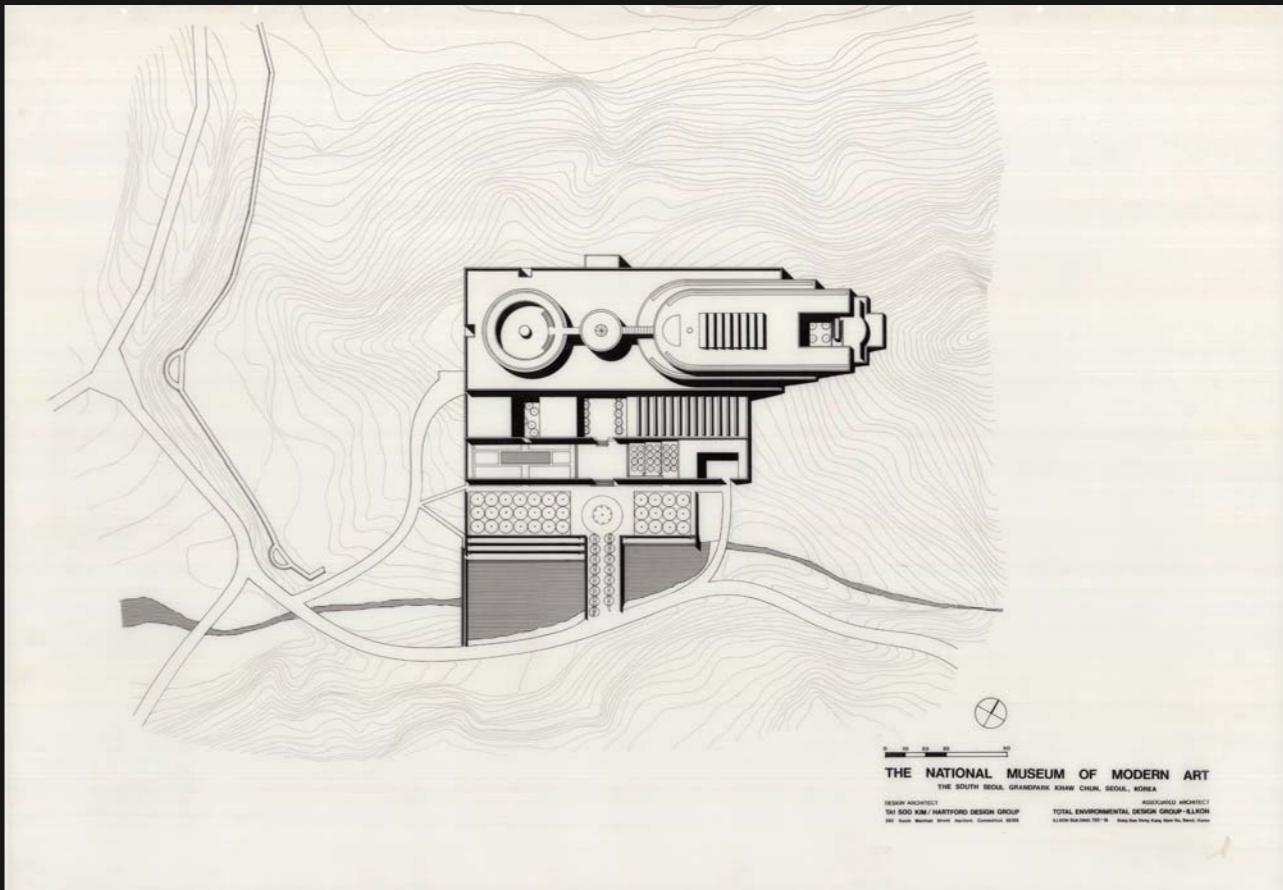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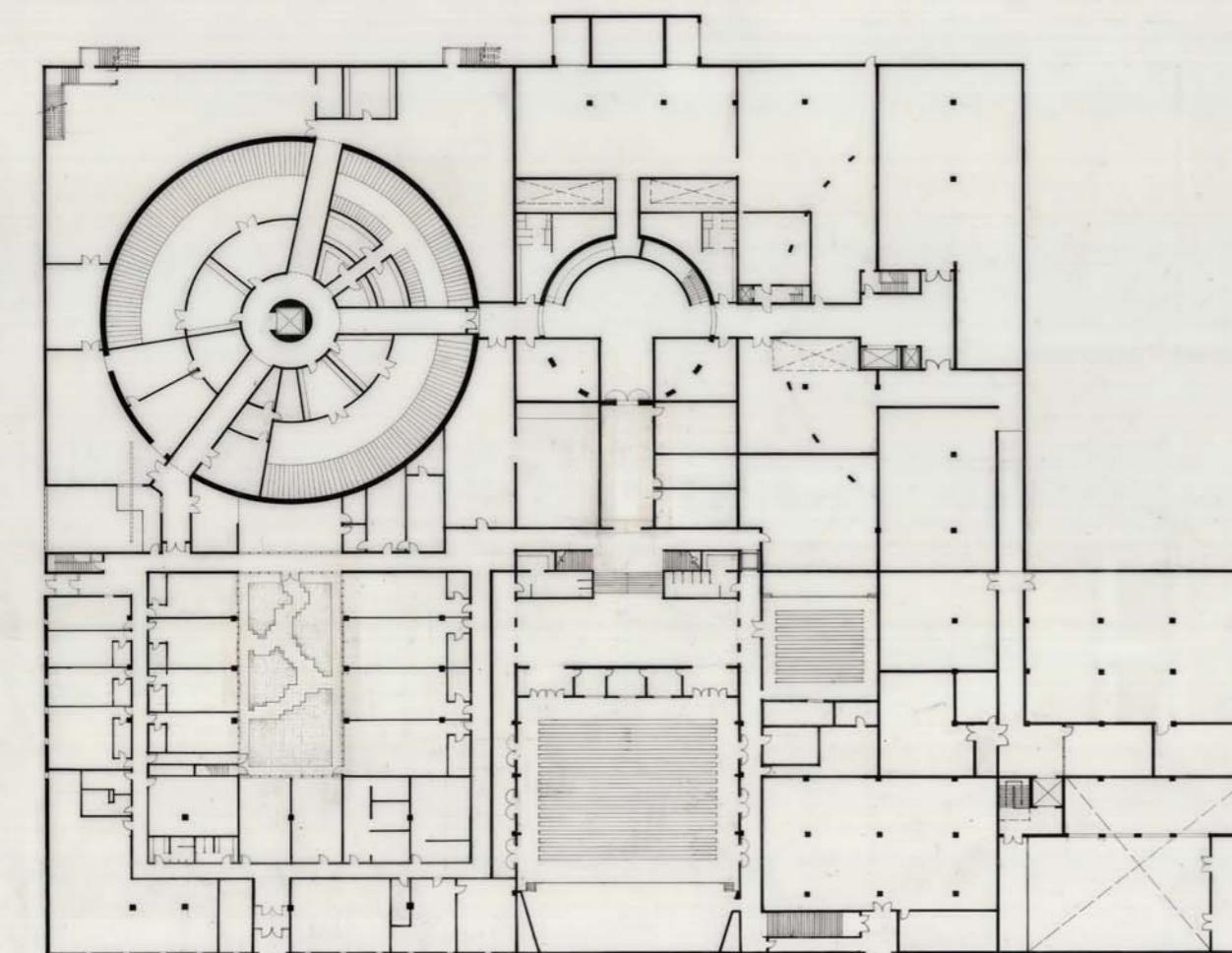
48"



배치도
SITE PLAN

배치도
SITE PLAN





| PUBLIC AREA | |
|------------------------|--------|
| 01 Lobby | 34.90 |
| 02 600 Seat Auditorium | 620.70 |
| 03 Stage | 33.00 |
| 04 Dressing Room | 12.00 |
| 05 Guest Lecture Room | 19.40 |
| 06 Projection Room | 19.40 |
| 07 Queen Room | 72.40 |
| 08 Preparation Room | 3.00 |
| 09 Men's Washroom | 4.00 |
| 10 Women's Washroom | 4.00 |

| EDUCATIONAL AREA | |
|-----------------------------|-------|
| 010 Number's Room | 18.70 |
| 011 Women's Lockers | 10.00 |
| 012 Men's Lockers | 10.00 |
| 013 Oriental Painting | 32.00 |
| 014 Western Painting | 32.00 |
| 015 Sculpture | 32.00 |
| 016 Ceramics | 32.00 |
| 017 Children's Workshop | 24.00 |
| 018 Auditorium Room | 24.00 |
| 019 Classroom | 16.00 |
| 020 Class | 16.00 |
| 021 Metal | 16.00 |
| 022 Sewing and Weaving | 16.00 |
| 023 Architecture and Design | 16.00 |
| 024 Handicrafts | 16.00 |
| 025 Interior Design | 16.00 |
| 026 Photography | 16.00 |

| CURATOR'S AREA | |
|--------------------------------|-------|
| 027 Exhibit Preparation | 16.00 |
| 028 Research Office | 16.00 |
| 029 Registrar's Office | 16.00 |
| 030-031 Curator's Office | 16.00 |
| 040 Storage | 16.00 |
| 041 Lounge | 16.00 |
| 042 Reception | 16.00 |
| 043 Men's Locker | 16.00 |
| 044 Material Display & Display | 16.00 |
| 045 Conference | 16.00 |

| STORAGE AND OTHER AREA | |
|--|-------|
| 046 Loading Area | 16.00 |
| 047 Unloading | 16.00 |
| 048 Drawing | 16.00 |
| 049 Cleaning | 16.00 |
| 050 Cleaning and Conservation | 16.00 |
| 051 Storage | 16.00 |
| 052 Photographic Studio | 16.00 |
| 053 Metal Work | 16.00 |
| 054 Storage | 16.00 |
| 055 Laboratory | 16.00 |
| 056 Nails and Mounting | 16.00 |
| 057 Storage and Filing | 16.00 |
| 058 Storage | 16.00 |
| 059 Storage | 16.00 |
| 060 Oriental Painting Control | 16.00 |
| 061 Calligraphy Control | 16.00 |
| 062 Traditional Painting & Calligraphy Storage | 16.00 |
| 063 Draw & Sketch | 16.00 |
| 064 Graphics Control | 16.00 |
| 065 Architecture & Design Control | 16.00 |
| 066 Photocopy - General | 16.00 |
| 067 | 16.00 |
| 068 Mathematical Room | 16.00 |
| 069 Western Painting Control | 16.00 |
| 070 Sculpture Control | 16.00 |
| 071 Book Storage | 16.00 |
| 072 Temporary Exhibit Storage | 16.00 |
| 073 Storage | 16.00 |

| MISCELLANEOUS SUPPORT AREA | |
|----------------------------|-------|
| 074 Artwork | 16.00 |
| 075 Printing Room | 16.00 |
| 076 Storage | 16.00 |
| 077 Emergency Room | 16.00 |
| 078 Director's Storage | 16.00 |
| 079 Storage | 16.00 |
| 080 Emergency Meeting Room | 16.00 |
| 081 Telephone Exchange | 16.00 |
| 082 Reception Room | 16.00 |
| 083 Book Storage | 16.00 |
| 084 General Storage | 16.00 |
| 085 Men's Employees Room | 16.00 |
| 086 Men's Deluxe Room | 16.00 |
| 087 Kitchen Storage | 16.00 |

| MECHANICAL ROOM | |
|---------------------|-------|
| 088 Mechanical Room | 22.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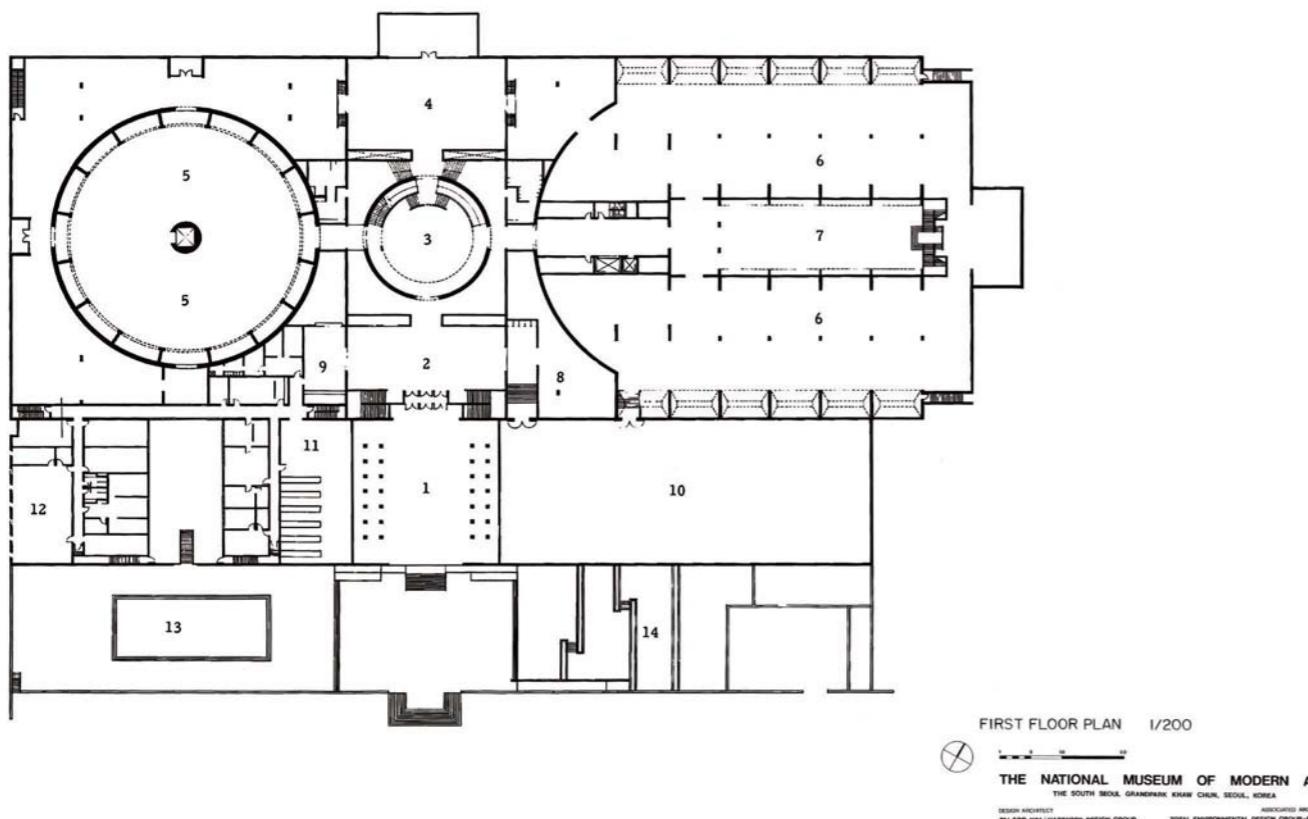
BASEMENT PLAN 1/200

11,490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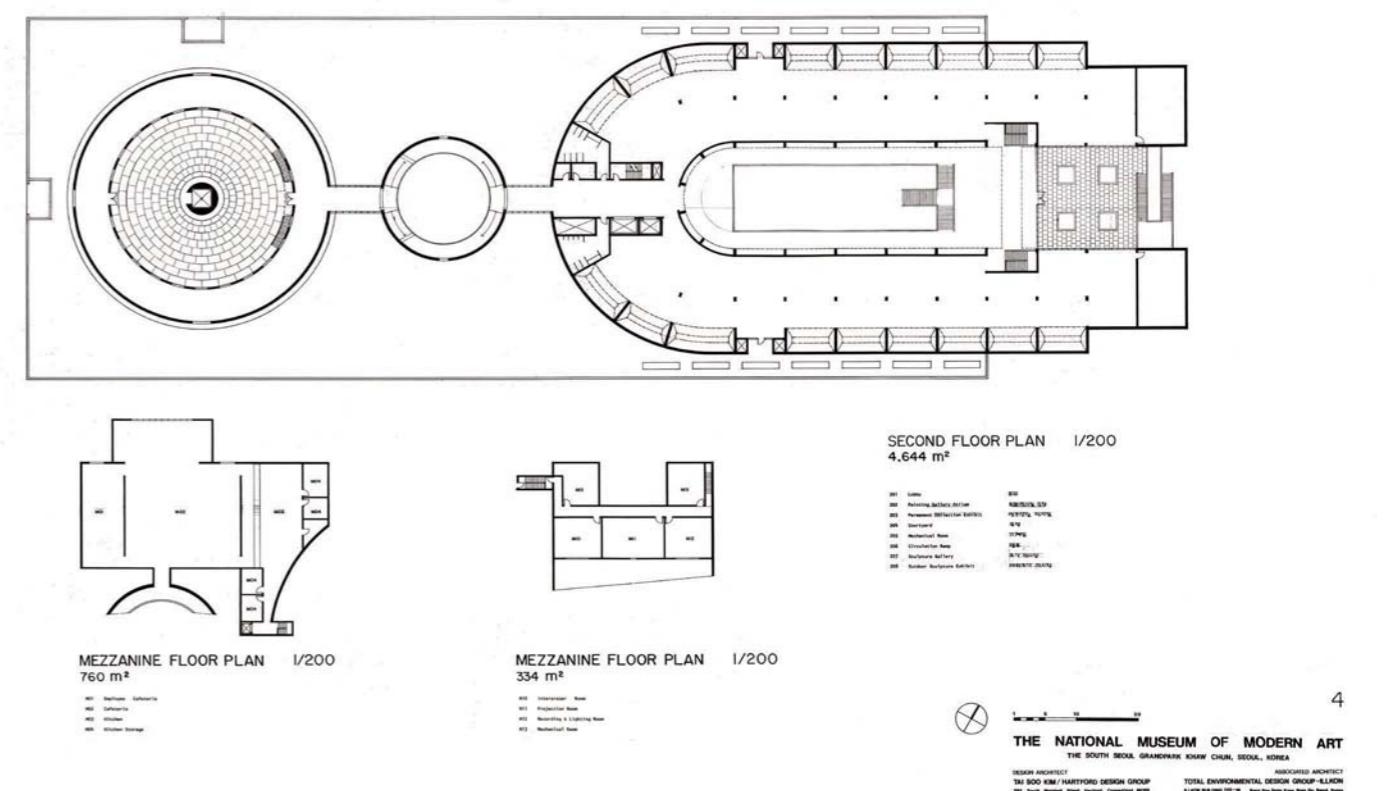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THE SOUTH SEOUL GRANDPARK KHAW CHUN, SEOUL, KOREA

DESIGN ARCHITECT
TAI SOO KIM / HARTFORD DESIGN GROUP
292 South Street, Hartford, Connecticut 06006ASSOCIATED ARCHITECT
TOTAL ENVIRONMENTAL DESIGN GROUP-ILLKON
ILLKON BUILDING 735-16, Wang-Ro Dong-Ku, Seoul,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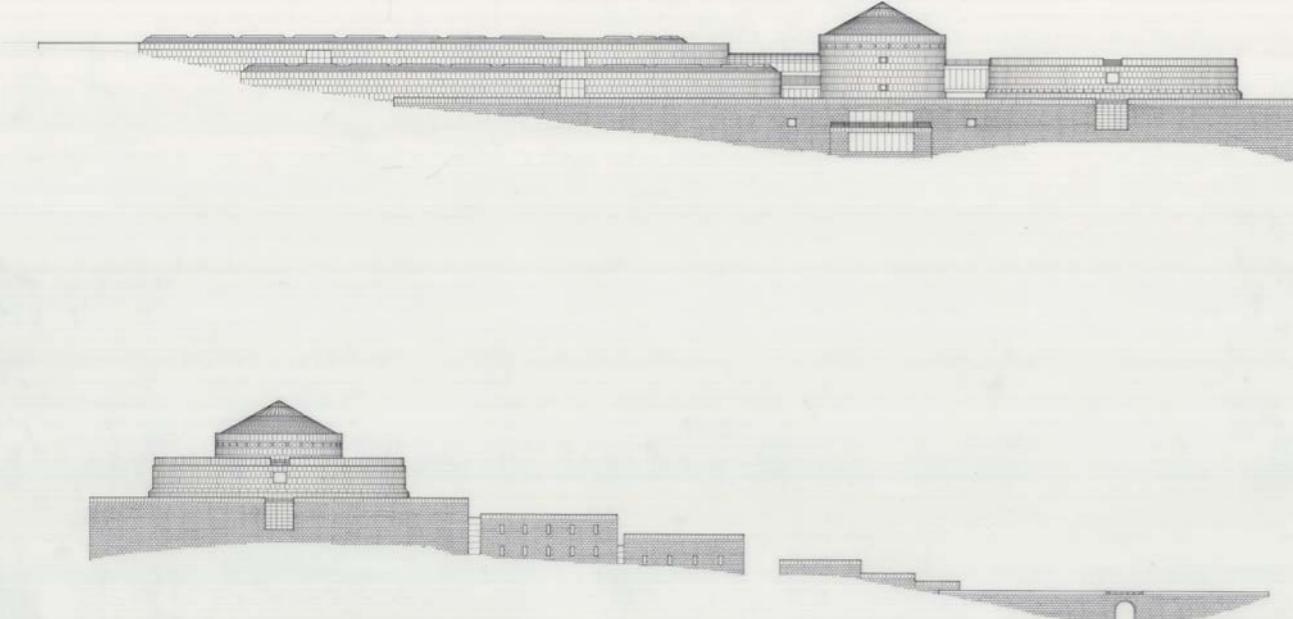
1층 평면도
FIRST FLOOR PLAN



2층 평면도
SECOND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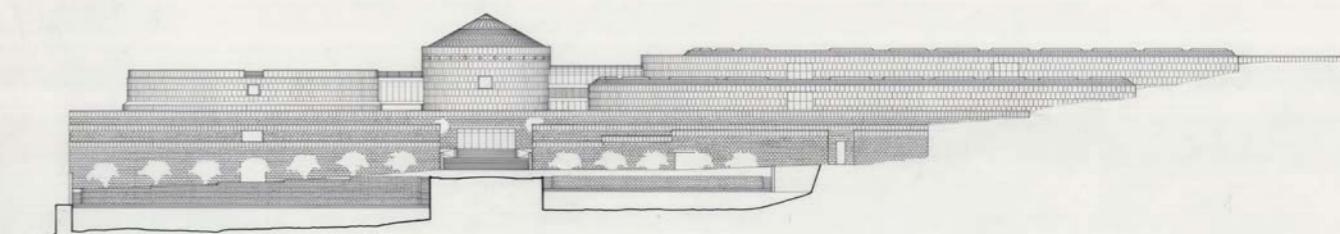
메자닌 층 평면도
MEZZANINE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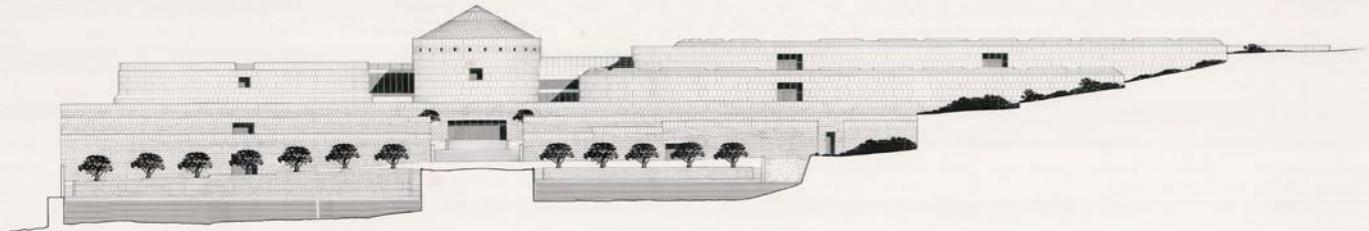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THE SOUTH KOREA GRANDPARK KHAN CHUN, SEOUL, KOREA



일면도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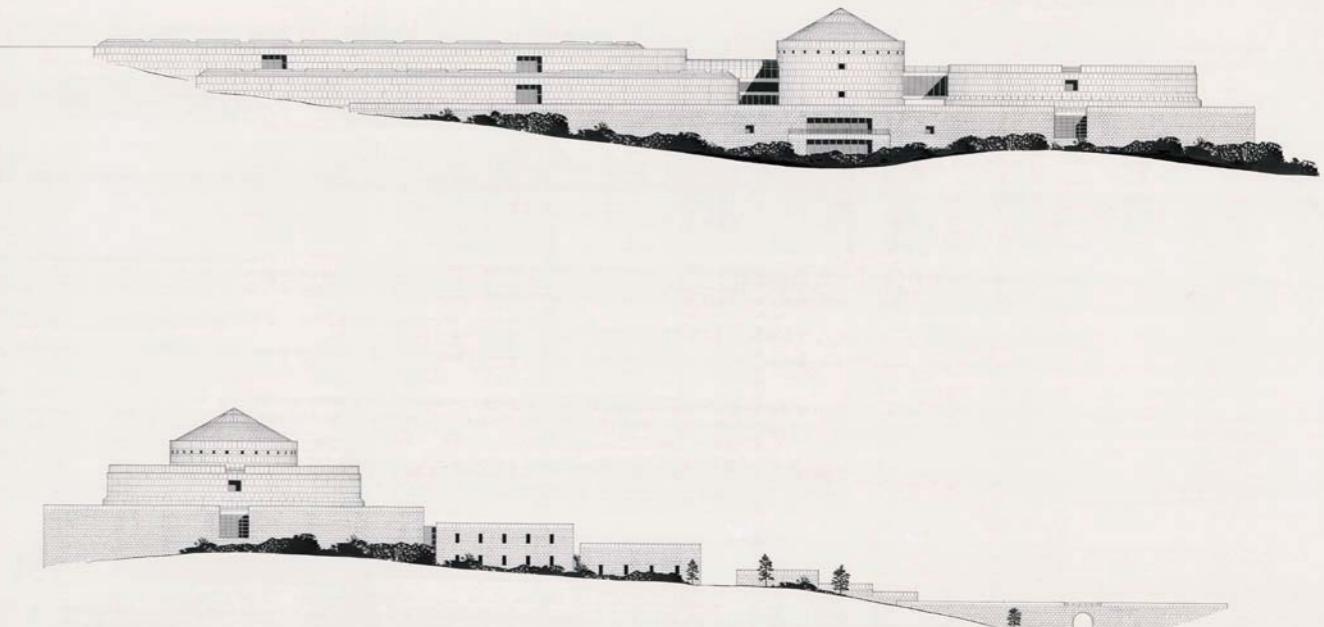
일면도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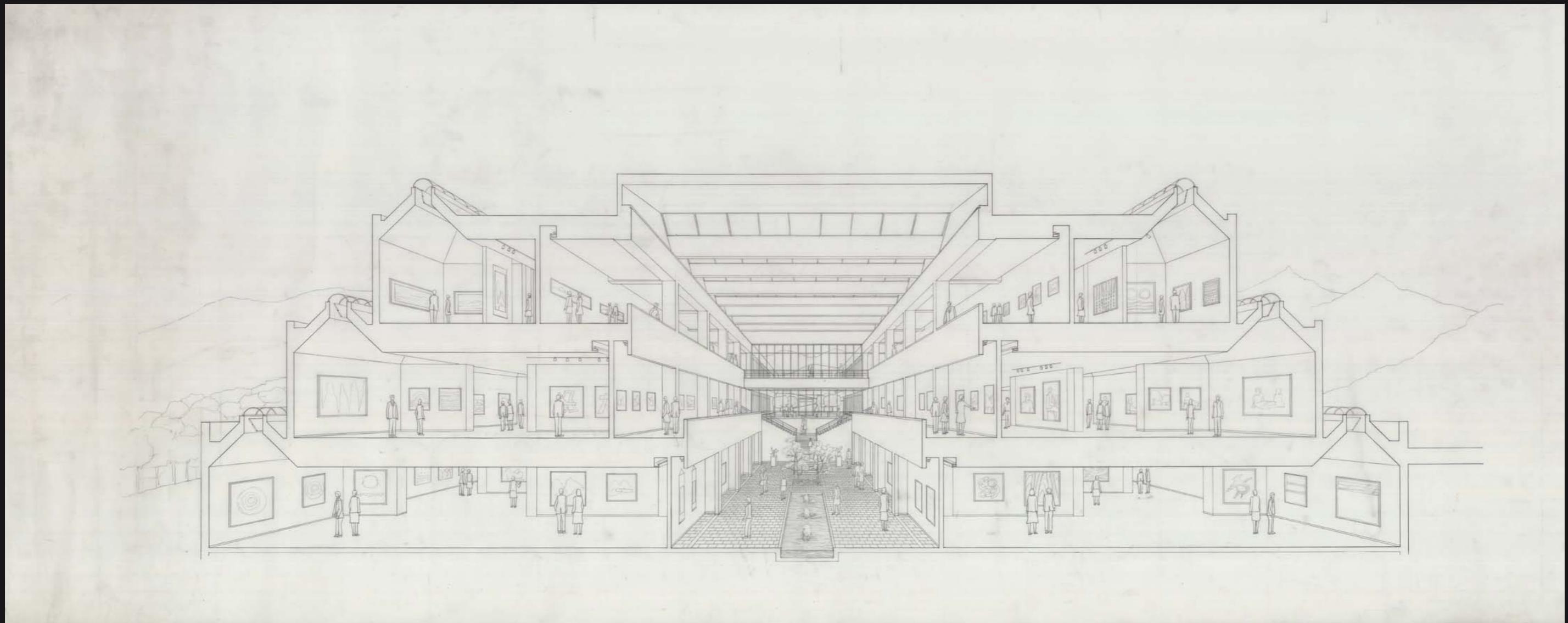




일면도
ELEVATION

일면도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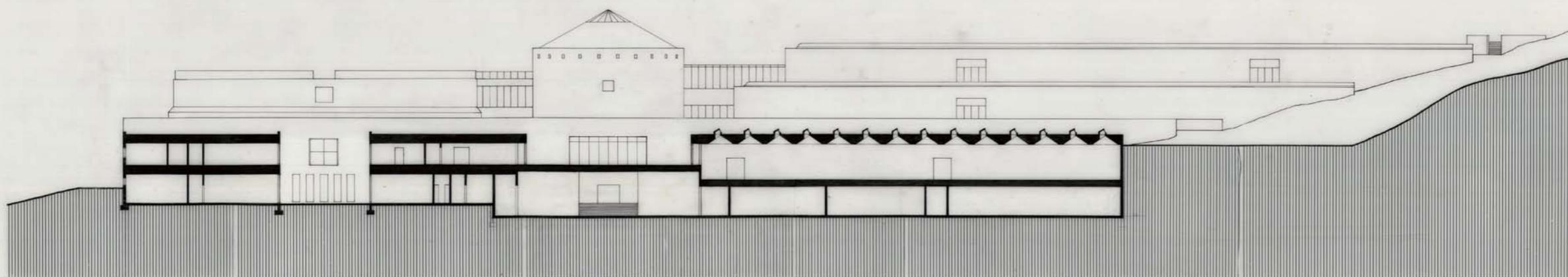




단면 투시도
SECTION PERSPECTIVE



SECTION A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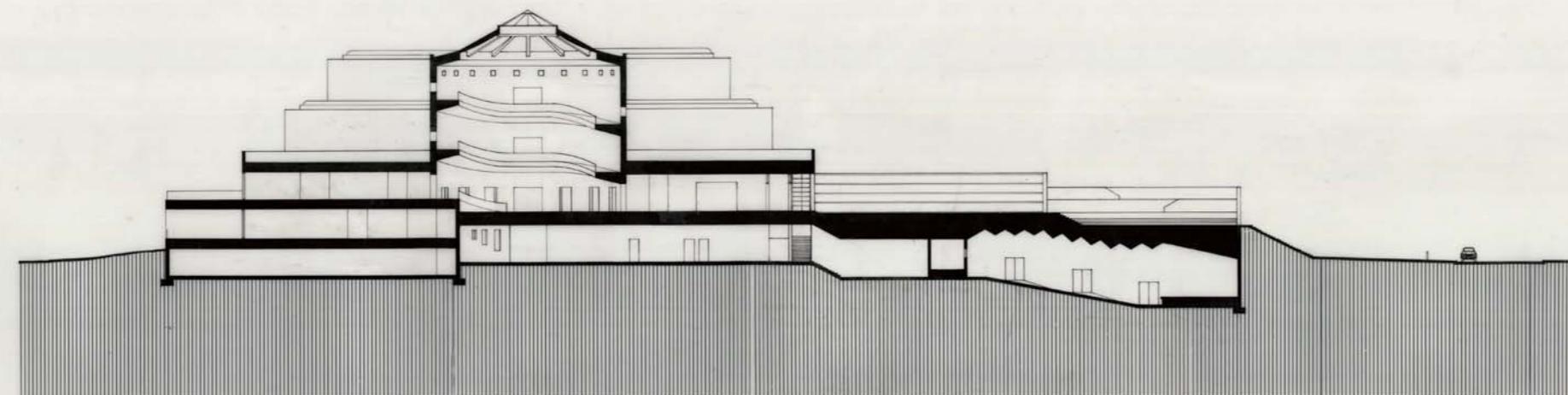
SECTION B 1/200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THE SOUTH SEOUL GRANDPARK KHAW CHUN, SEOUL,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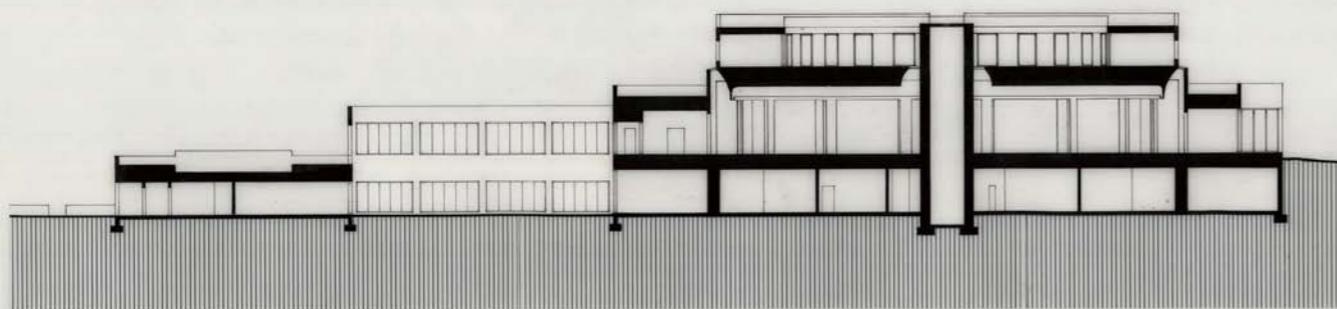
DESIGN ARCHITECT
TAI SOO KIM / HARTFORD DESIGN GROUP
292 South Marshall Street Hartford, Connecticut 06103

ASSOCIATED ARCHITECT
TOTAL ENVIRONMENTAL DESIGN GROUP-ILLKON
ILLKON BUILDING 725-16 Ilan-gil Dong Kang Nam Gu Seoul,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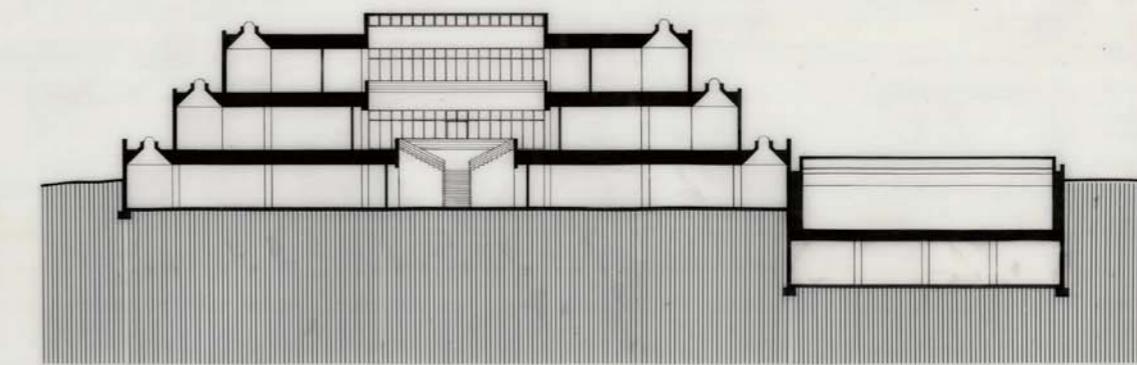
8



SECTION C 1/200



SECTION D 1/200



SECTION E 1/200

0 5 10 20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THE SOUTH SEOUL GRANDPARK KHAW CHUN, SEOUL, KOREA

DESIGN ARCHITECT
TAI SOO KIM / HARTFORD DESIGN GROUP
292 South Marshall Street, Hartford, Connecticut 06105

ASSOCIATED ARCHITECT
TOTAL ENVIRONMENTAL DESIGN GROUP - ILLKON
ILLKON BUILDING 725-III, Bang Bo Dong Kang Nam Gu, Seoul, Korea

9

1936
만주 하얼빈 출생
Born in Harbin, Manchuria

1958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
Graduated from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1960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
Obtained Master's Degree from from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1962
예일대학교 건축학과 석사
Obtained Master's Degree from School of Architecture
at Yale University

1962-1968
필립 존슨 사무실 근무
Philip Johnson Office, New York

1968
코네티컷 등록 건축가
Registered Architect, Connecticut

1968-1969
힌팅턴·달라비·달라드와 공동작업
Huntington, Darabee & Dollard, Hartford, Connecticut

1970
하트포드 디자인그룹 설립
Partner & Founder of Hartford Design Group, Hartford,
Connecticut
미국 건축가협회 회원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 Member

1972
건축 국가회의위원회 인증
National Council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Boards
Certification

1973
로드아일랜드-메사츄세츠 등록건축가
Registered Architect, Massachusetts and Rhode Island

1979
미국 건축가협회 디자인위원회 위원
AIA National Design Committee Member

1983-1986
예일대학교 건축학과 설계 방문교수
Visiting Critic, School of Architecture at Yale University

1986
뉴욕·뉴햄프셔 등록건축가
Registered Architect, New York and New Hampshire
하트포드 시 디자인심의회 위원
City of Hartford Design Review Board
미국 건축가협회 명예회원
Fellow of the AIA
김태수 어소시에이츠 설립
Founder of Tai Soo Kim Associates

1992
김태수 파트너스 설립
Partner and Founder of Tai Soo Kim Partners

1994
KBS 해외동포상 수상
Korean Broadcasting System's Oversea Compatriots'
prize

1999
한국 건축가협회 명예회원
Honorary Member of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200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동문상
Alumni Award, School of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268

269

주요작품 Main Works

- 1971
밴 블록 주택 Van Block Housing
1972
라이슨 주택 Laibson House
1972
Immanuel House Senior Housing
1973
퍼거슨 주택 Ferguson House
1975
Morley School
1975
버슨주택 Berson House
1976
Bushell House
1977
프레이 주택 Frey House
1977
Smith School
1978
김태수 주택 Tai Soo Kim House
1979
미국 해군 잠수함 훈련시설 U.S Naval Submarine Training Facility
1979
그로튼 노인 센터 Groton Senior Center
1981
Southbury Public Library
1982
Rocky Hill Fire and Ambulance Station
1982
미들버리 초등학교 Middlebury Elementary School
1986
Regional Turnaround Facility, Hertz Corporation
1987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1987
교보 연수원 Kyobo Insurance Training Center
1987
하트포드 대학교 그레이 센터 Harry Jack Gray Center,
University of Hartford
1988
Union Station Transportation Center
1991
포터학교 학생회관 Student Recreation Center, Miss Porter's
School
1991
John Dempsey Hospital, Andrew Canzonetti Building,
University of Connecticut Health Center
- 1991
Greater Hartford Jewish Community Center
1991
Capitol Place
1991
Tong Yang Group Headquarters
1992
Master Plan Expansion, Woodstock Academy
1994
Person Hall, Colgate University
1995
The Helen and Harry Gray Court, Wadsworth Atheneum
1996
금호미술관 Kumho Art Gallery
1996
Kook Min Corporation Training Center
1996
LG화학기술 연구소 LG Chemical Research Center
1997
Dormitory and Social Hall, Trinity College
1998
Headquarters Expansion, Daewoo Corporation
2000
Learning Corridor Master Plan & Arts, Math & Science
Academies, SINA/City of Hartford
2002
튀니지 미국대사관 U.S. Embassy in Tunisia
2007
콜트 식물관 Colt Botanical Garden Conservatory
2007
센트럴 타워 Central Tower
2007
Anthropology Department, Yale University
2009
블룸菲尔드 유치원 Bloomfield Early Childhood (Magnet)
School
2009
스탬포드 학교 Stamford Magnet School
2010
Bloomfield High School
2012
Widmer Wing School of Nursing, University of
Connecticut
2015
New High School
2015
Hartford Magnet Trinity College Academy, City of Hartford

수상 Awards

1963 National Design Competition Merit Award, East River Urban Renewal Project, 1,300 Units of Housing and Urban Design Manhattan, New York
 1969 Best Multifamily Housing in Nation Award, Progressive Architecture/ Van Block Housing Project, Hartford, Connecticut
 1970 The Decade's Ten Best Housing Projects,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Van Block Housing Project, Hartford, Connecticut
 1971 Excellence for Design, Architectural Record/ Van Block Housing Project, Hartford, Connecticut
 1977 Award for Design Excellence, Connecticut Society of Architects,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Smith Elementary School, West Harford, Connecticut
 1978 Award for Design Excellence, Connecticut Society of Architects,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Tai Soo Kim House, West Harford, Connecticut
 1979 Best Custom Designed Houses in the Nation,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Tai Soo Kim House, West Harford, Connecticut
 1980 Best Railroad Station Design in the Nation,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Union Station Transportation Center, Hartford, Connecticut
 1980 Best Library Design in U.S,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Morley Elementary School Library Addition, West Hartford, Connecticut
 1981 Eight best Projects in Connecticut, Connecticut Society of Architects/ U.S Naval Submarine Training Facility, Groton, Connecticut
 1981 Outstanding Contribution to Energy Efficiency in Solar Design/ The State of Connecticut Woodbury Middle School, Woodbury, Connecticut
 1982 First Honor Award and Special Award for Energy Conservation,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 United States Naval Facilities Engineering Command

(NAVFAC)/ U.S. Naval Submarine Training Facility, Groton, Connecticut
 1982 Special Award for Energy Conservation/ U.S Naval Submarine Training Facility, Groton, Connecticut
 1982 Honorable Mention for Outstanding Architectural Design, State of Connecticut Department of Defense/ U.S Naval Submarine Training Facility, Groton, Connecticut
 1983 Award for Design Excellence, Connecticut Society of Architects,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Rocky Hill Fire and Ambulance Station, Rocky Hill, Connecticut
 1985 Honor Award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Middlebury Elementary School, Middlebury, Connecticut
 1986 Design Award, Connecticut Society of Architects,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Hertz Regional Turnaround Facility Bradley International Airport, Windsor Locks, Connecticut
 1986 Design Award, Connecticut Society of Architects,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1988 Design Award, Connecticut Society of Architects,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Kyobo Insurance Training Center, Chunan, Korea
 1989 Honorable Mention, New England Regional Council Excellence in Architecture Program/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1990 Design Award, Connecticut Society of Architects,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Gray Center, University of Hartford, West Hartford, Connecticut
 1990 Design Award New England Regional Council/ Kyobo Insurance Training Center, Chunan, Korea
 1992 Design Award, Connecticut Society of Architects,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Student Recreation Center, Miss Porter's School, Farmington Connecticut
 1995 Design Award, Connecticut Society of Architects,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Persson Hall, Colgate University, Hamilton, New York

270

271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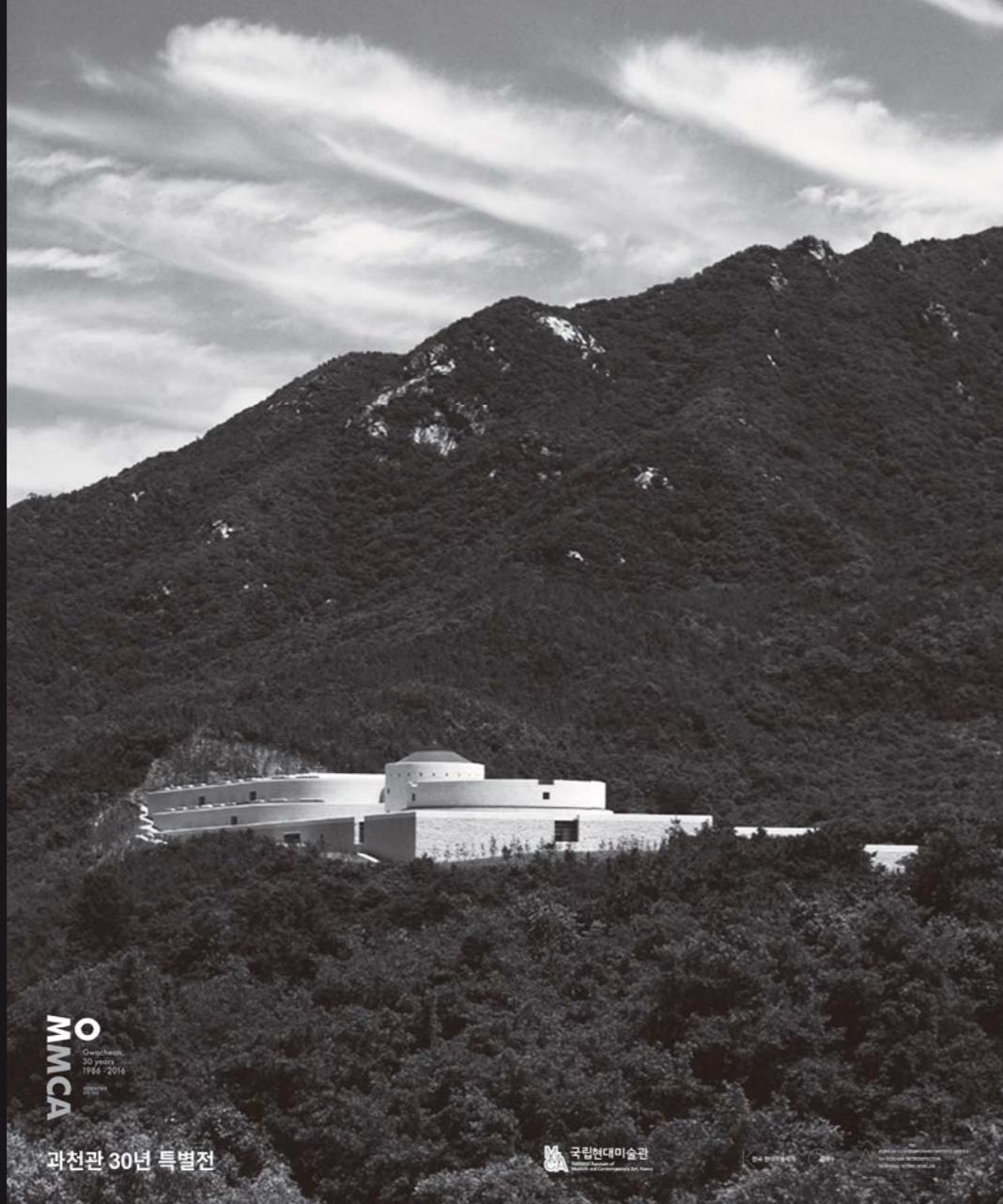
Design Award, New England Institute of Architects/ The Helen & Harry Gray Court, Wadsworth Atheneum Hartford, Connecticut
 1996 Design Award, Connecticut Society of Architects,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The Helen & Harry Gray Court, Wadsworth Atheneum Hartford, Connecticut
 1997 Design Award, New England Institute of Architects/ Persson Hall, Colgate University, Hamilton, New York
 1997 Design Award, Korean National Department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Kook Min Corporate Training Center, Yong In, Korea
 1997 Grand Prize, Korean National Department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LG Research & Development Park, Daeduk, Korea
 1998 Honor Award for Interiors,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The Helen & Harry Gray Court, Wadsworth Atheneum Hartford, Connecticut
 2001 AIA Connecticut Design Award/ SAND Elementary School, Hartford, Connecticut
 2005 AIA Connecticut Design Award/ Ross Commons/ LaForce Hall, Middlebury College, Middlebury, Vermont
 2006 AIA Connecticut Design Honor Award/ Bristow Middle School, West Hartford, Connecticut
 2007 Chicago Athenaeum American Architecture Award/ Wilton Library Association, Wilton, Connecticut
 2010 AIA Connecticut Design Award/ Rogers International Baccalaureate Environmental Magnet School, Stamford, Connecticut
 2011 Boston Society of Architects Sustainability Award/ Rogers International Baccalaureate Environmental Magnet School, Stamford, Connecticut
 2011 AIA New England Design Award/ Wintonbury Early Childhood Magnet School, Bloomfield, Connecticut

전시 Exhibitions

1990. 10 <Perspectives on Contemporary Architecture> Tai Soo Kim Partners, Orr & Taylor, Galliher and Baier, Selected Works, Willoughby Wallace memorial Library, Stony Creek, Connecticut, U.S.A
 1992. 5 <Interior Design Excellence> Institute of Business Designers, Connecticut Chapter, Connecticut Education Association Headquarters, Concord Gallery, Hartford, Connecticut, U.S.A
 1992. 11 <International Architecture Biennal> Selected works, Association of Polish Architects, Krakow, Poland
 1993. 4 <Elegance and Simplicity> Tai Soo Kim Partners, Selected works, the Aetna Gallery, Hartford, Connecticut, U.S.A
 1995. 4 <Asia-GSD: Asia Week> Tai Soo Kim Partners & Kyusung Woo Architects, Inc. Selected Works, George Gund hall,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sign, Cambridge, Massachusetts, U.S.A
 1997. 7 <Constancy> Tai Soo Kim, Kunyoung Cho, Nam Goo Kang Selected Works, Realism Institute, Kyung-in Art Gallery, Seoul, Korea

TAI SOO KIM RETROSPECTIVE: WORKING IN TWO WORL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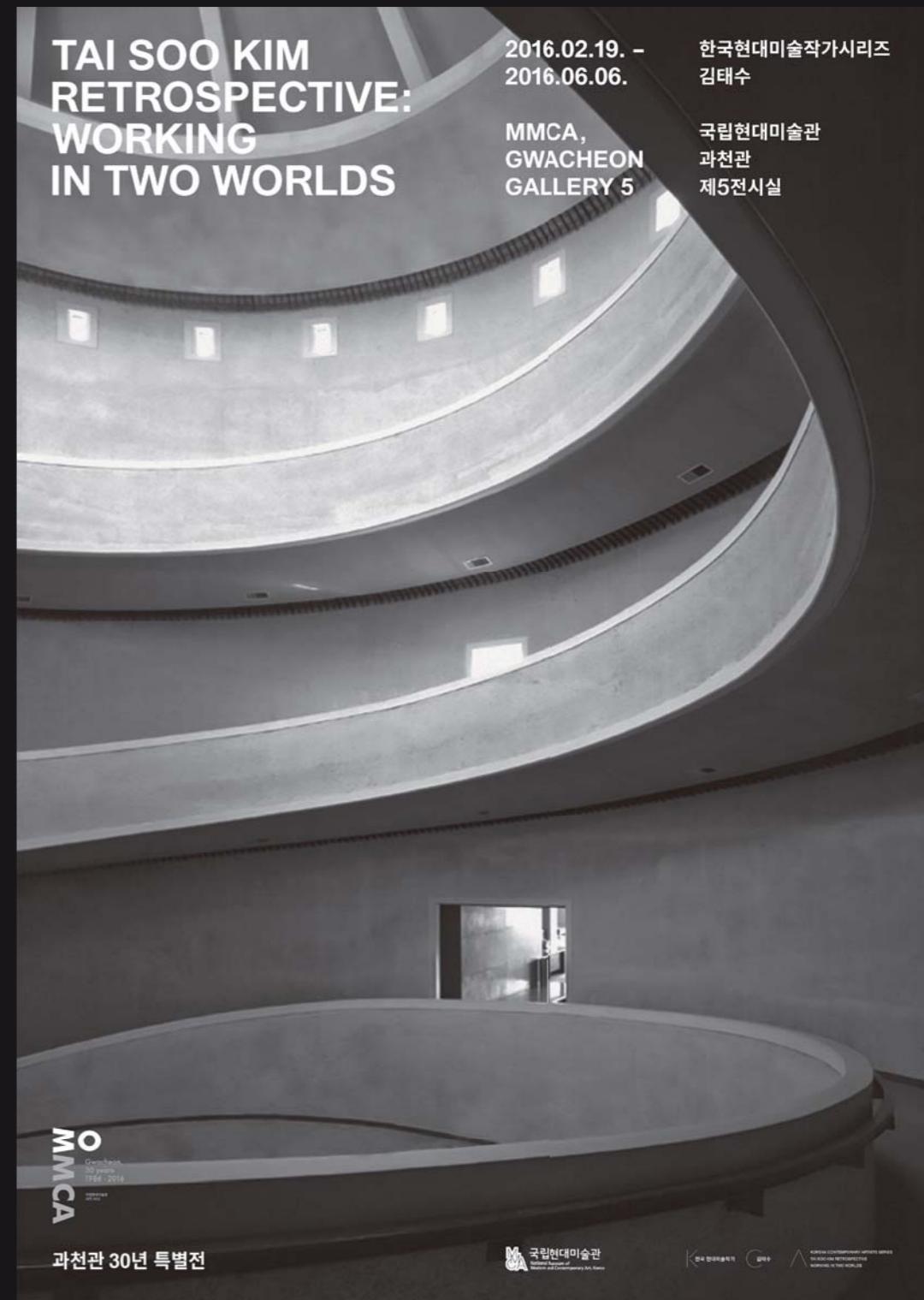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제5전시실



TAI SOO KIM RETROSPECTIVE: WORKING IN TWO WORLDS

2016.02.19. - 2016.06.06. 한국현대미술작가시리즈
김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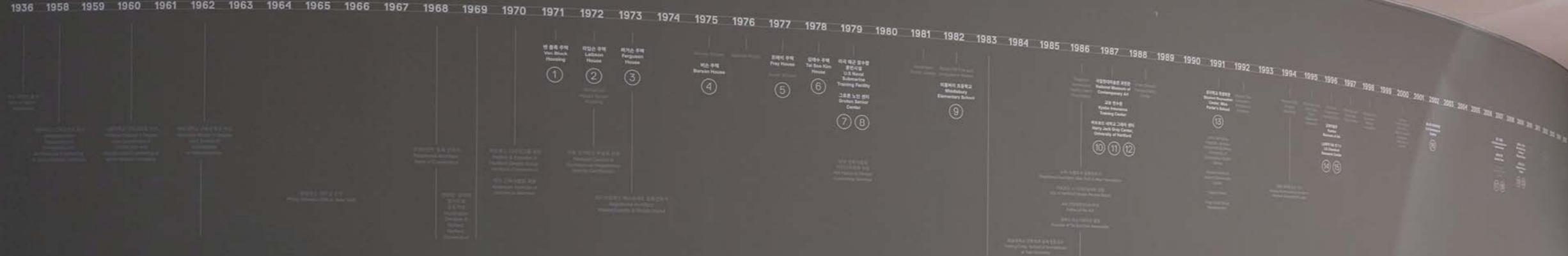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제5전시실



30 TAI SOOK KIM
RETROSPECTIVE
WORKING
IN TWO WORLDS

과천관 30년 특별전
한국현대미술작가시리즈
김태수





Copyright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ll rights reserved.
Unauthorized copying,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of any part of this document is illegal and may result in criminal prosecution under the Copyright Act of Korea and other applicable laws.













9 561 0

9 788963 031385

ISBN 978-89-6303-138-5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국립현대미술관 427-701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막계동)